

구약
1

BELIEVER'S BIBLE COMMENTARY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모세오경

정 병 은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GENESIS, EXODUS, LEVITICUS,
NUMBERS, DEUTERONOMY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구약성경 개론	13
오경 서론	26
창세기	37
창세기 서론	38
1. 세상의 처음 시대(1-11장)	45
성경의 주요 언약들 / 64	
2. 이스라엘의 족장들(12-50장)	80
할례의 표 / 90	
동성애 / 94	
모형론 / 137	
참고 문헌	153
출애굽기	155
출애굽기 서론	156
1.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숙박(1장)	163
2. 모세의 출생과 구출과 훈련(3장)	166
3. 모세의 소명(3-4장)	163
4. 모세의 바로와의 대면(5:1-7:13)	177
5. 아홉 가지 재앙(7:14-10:29)	181
6. 유월절과 장자의 죽음(11:1-12:30)	187

7. 애굽으로부터의 탈출(12:31-15:21).....	190
8. 시내산으로의 여정(15:22-18:27).....	198
9. 율법의 수여(19-24장).....	204
세대구분 / 204	
10. 성막과 제사장직(25-40장).....	226
성막: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 239	
참고 문헌.....	263
레위기	265
레위기 서론.....	266
1. 제사의 종류(1:1-6:7).....	271
2. 제사법(6:8-7:39).....	286
3. 제사장의 위임(성별)(8-10장).....	292
4. 정결한 것과 부정함(11-15장).....	297
5. 속죄일(16장).....	309
6. 제물에 대한 법(17장).....	313
7. 개인적인 품행에 관한 법(18-22장).....	315
8. 여호와와의 절기(23장).....	324
9. 의식적 도덕적 규례(24장).....	330
10. 안식년과 희년(25장).....	332
11. 축복과 저주(26장).....	336
12. 서원과 십일조(27장).....	338
참고 문헌.....	343
민수기	345
민수기 서론.....	346
1. 시내산에서의 마지막 날들(1:1-10:10).....	351
2. 시내에서 모압 평지까지(10:11-22:1).....	366
3.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22:2-36:13).....	393
참고 문헌.....	412

신명기	413
신명기 서론	414
1. 모세의 첫 번째 강화-그 땅에의 접근(1-4장).....	420
2. 모세의 두 번째 강화-그 땅에서의 순결(5-28장).....	426
3. 모세의 세 번째 강화-그 땅에 대한 언약(29-30장).....	471
4. 모세의 말알-그 땅 밖에서의 죽음(31-34장).....	475
참고 문헌	485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신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속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타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뒀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구약성경 서론

“우리에게 있어 구약성경에 대한 최고의 인준은 그리스도 자신으로부터 그것이 나왔다는 점이다. …구속주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항상 구속받은 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임에 틀림없다”(G. A. 스미쓰).

1. ‘구약성경’이란 명칭

구약성경 연구의 깊은 바다로, 혹은 특정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적은 영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른바 ‘구약’이란 성스런 책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들을 간단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베리쓰*¹⁾’를 옮긴 말이다. 신약성경에서 ‘언약’과 ‘계약’이란 단어는 둘 다 같은 히브리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다. 성경에 대한 명칭에 있어서 ‘언약’의 의미가 명백히 우선시 될 만한데 이는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간의 협정, 동맹, 혹은 ‘언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은 ‘새로운’ 것과 비교하기 위해 옛 계약(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물론 어떤 이들에게는 ‘옛’이란 말이 배울 가치가 없다는 뜻

1) 이것은 “*B'nai B'rith*”(“언약의 아들들”)로 불리는 유대인 조직의 이름에 나타난다.

으로도 들릴 수 있는 까닭에 그보다는 ‘더 오랜 언약’이란 명칭이 더 적합한 것일지도 모른다. ‘옛’이란 의미를 그렇게 곡해하는 것은 영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어느 관점으로나 터무니없는 과오가 아닐 수 없다. 두 언약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리스도 안의 신자는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와, 그리고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에 대해 말해주는 성경의 한 부분(신약)을 종종 상고해볼뿐더러 잘 구비된 신자를 위한 구약의 중요성 또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Augustine)의 다음 표현 속에 훌륭하게 묘사되었다.

“신약은 구약 안에 숨겨져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드러나 있다.”²⁾

2. 구약성경 정경

‘정경’이란 말(헬. *카논*)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어떤 ‘기준’을 가리킨다. 구약성경 정경은 고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따라서 권위가 있는 책들의 모음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는지, 혹은 이 39권의 글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겠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이단적인 글들을 포함해서 다른 종교적인 글들이 존재했던면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있겠는가?

흔히 얘기되기는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어떤 유대인 회의에서 정경의 목록이 결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은, 기록된 즉시로 그 책

2) 그의 말(라틴어로)은 다음과 같이 옮겨지기도 한다. “신약은 구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구약은 신약 안에 설명되어 있다.”

들은 정경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이 책들을 영감 받은 성경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책들(에스더, 전도서, 아가서 등)에 대해 한 동안 논란이 있기도 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토라, 선지서(전기와 후기), 시가서의 세 부분으로 나눈다.³⁾

예언서인 다니엘서가 선지서가 아닌 시가서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세 가지 이론이 있다. 자유주의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견해에 의하면 다니엘서는 너무 늦은 시기에 기록되어 둘째 부분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둘째 부분은 다니엘이 집필할 당시는 이미 ‘마감된’ 것으로 그들은 간주한다(다니엘서 서론 참조). 보수진영의 견해는 다니엘이 직책상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을 기록하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은 대변인인 까닭에 다니엘서가 셋째 부분에 포함된 것으로 여긴다. 메릴 F. 영거는 이 세 구분은 기자들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쳤다.⁴⁾

“이것이 보수적인 견해요 우리가 믿기에 정확한 견해이다. 구약 성경 책들은 성스럽고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는 분명한 목적 아래 기록되었다. 따라서 그 책들은 세상에 모습을 나타낸 그 순간부터 정경의 인(印)을 소유했다. 세 구분은 기자들의 공적인 신분과 지위에 기인한 것이지 영감의 정도나 내용, 혹은 연대의

3) 히브리어 성경 혹은 유대 역본에 나타난 구약성경 24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율법(토라)-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 2) 선지서(네비임)-(1) 전 선지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2) 후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명의 책(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 3) 성문서(케투빔)-시편, 욥기, 잠언, 룻기,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느헤미야, 역대기

4) 메릴 F. 영거, 구약개론, 59쪽.

차이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⁵⁾

현재의 정경을 공적으로 인정한 그 회의는 실은 오랜 세기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이다. 그 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의 목록을 결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자신이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세 부분에서 빈번하게 인용하고 그것을 권위 있는 책으로 다루셨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27,44절과 각주 4번을 보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소위 외경(外經)에서는 일절 인용하지 않으셨다.

3. 외경

동방정교회, 로마카톨릭 및 개신교 성경학자들은 27권의 신약성경 정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⁶⁾ 같은 순서로, 그리고 똑같은 260장의 구성으로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대해서는 다소 입장이 복잡하다.

개신교와 유대교는 구약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일치하나, 동방 정교회와 로마카톨릭⁷⁾은 여러 권의 유대 역사서와 시가서를 받아들인데, 그것들을 가리켜 그들은 ‘2차 정경’이라 부르고 개신교와 유대교는 ‘외경’(헬, ‘감추어진’)⁸⁾이라 부른다.

오늘날 사용하는 흠정역과⁹⁾ 새흠정역, 그밖에 다른 개신교 역본

5) 메릴 F. 영거, 구약개론, 59쪽.

6) 그러나 러시아 신약성경은 복음서 이후로는 좀 다른 체계를 갖추고 있다.

7) 이들 그룹들에 의해 정경에 추가된 책들에 대해서는 새개정표준역 서문을 보라 (이들도 모든 책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다).

8) ‘가짜’(위, 僞)라는 개념은 이 단어와 연관이 있게 되었다.

들은 24권의 히브리어 성경과 똑같은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숫자상의 차이는 유대인 성경에 몇 권씩 통합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등 여섯 권이 세 권으로 되어 있고, ‘12권의 책’으로 불리는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영감과 권위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은, 여러 종교적인 책들을 집필했는데 종종 히브리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도 집필했다. 마카비 1,2서와 같은 책들은 신구약 중간기를 연구하는데 가치가 있고, ‘벨과 용’과 같은 책들은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만 그 비정경적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이 유대인의 책들 가운데 가치가 한층 떨어지는 책들은 위경(*Pseudepigrapha*, 헬 ‘거짓된 글들’)이라 부르고, 다소 나은 책들은 외경(*Apocrypha*)이라 부른다.

일부 고대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집트의 영지주의자들은 이 책들의 일부를 포함하는 좀더 폭넓은 정경을 받아들였다.

학자 제롬은 외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라는 로마 감독 다마스스의 요청에 ‘마지못해’ 그 작업을 했다. 이는 그가 그 히브리어 원본의 내용을 잘 알았을 뿐더러 그것들이 유대인의 정경의 일부가 아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제롬은 그것들이 (기껏해야) 2차적인 수준임을 분별하는 중에 그것을 라틴 불가타역으로 옮긴 것이다. 오늘날 그것들은 새 미국성경, 예루살렘 성경 등의 로마 카톨릭 역본들과, 새 영어성경, 개정 영어성경, 새 개정표준역 등과 같은 예큐

9) 17세기의 흠정역 초기판들은 외경을 포함하긴 했으나 그 열등한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삽입시켰다. 신적인 기원을 갖지 않은 ‘모든’ 책들을 일단 포함시켰다는 사실은 흠정역을 유일한 참 성경으로 간주하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줄 것이다!

메니칼 계통의 역본들에 나와 있다.

로마카톨릭 교회도 반동종교개혁 기간(16세기)까지는 외경을 공적으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았다.¹⁰⁾ 바티칸이 외경을 인정한 한 가지 이유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와 같은 그들의 몇몇 가르침이 외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었다. 사실 외경은 주로 ‘유대인의’ 문학과 역사이며 기독교 교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물론 영감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책들 중 일부는 영감 받은 히브리어 정경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갖춘 후에,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다.

4. 기자(저작권)

구약성경의 신적인 저자는 성령님이다. 성령께서 모세와 에스라와 이사야와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들을 감동하사 자신의 인도 아래 집필하게 하신 것이다. 어떻게 구약성경이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확한 이해는 ‘이중 저작권’(*dual authorship*)이라 불리운다. 구약성경은 일부는 인간적이고 일부는 신적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적이면서 동시에 완전히 신적이다. 신적인 요소는 인간적인 요소가 실수를 저지르지 못하게 했다. 그 결과 원본에 있어 무오하고 무흠한 책이 나온 것이다.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어떤 희랍 신화처럼)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분의 신적인 속성이

10)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1545-1563년 사이에 중간 중간 쉬면서 열린 트렌트공회에서.

그분의 인간적인 속성으로 실수를 하거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5. 연대

반세기만에 기록된(A.D 50-100년) 신약성경과 달리, 구약성경은 완성되는데 적어도 1천년이 걸렸다(B.C 1400-400년).¹¹⁾ 최초로 기록된 책은 오경(B.C 1400년경) 내지는 율기(연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내용상 율법이 수여되기 이전 시대임을 시사한다)였다.

그 뒤로 여호수아에서 사무엘상하까지 이르는, 바벨론 포로(B.C 600년경) 이전에 기록된 책들과, 포로 기간에 기록된 책들과(예레미야에가와 에스겔), 역대상하,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과 같은 포로 이후에 기록된 책들이 이어진다(B.C 400년경).

6. 내용

구약성경의 내용은 개신교 역본들의 순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될 수 있다.

모세오경 - 창세기에서 신명기

역사서¹²⁾ - 여호수아서에서 에스더

시가서 - 율기에서 아가서

선지서 - 이사야에서 말라기

구약성경의 이 네 주요 부분에 대한 개개의 서론은 본 '신약성경

11) 덜 보수적인 학자들은 연대를 좀 더 이후로 잡지만 마감기간은 비슷하게 잡는다.

12) 많은 성경학도들은 이 두 그룹을 결합시켜(창세기에서 에스더까지) '역사서'로 부르는 것을 선호한다.

주석'의 적절한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의 보다 충만한 신약성경의 계시와 더불어 이 구약성경 책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구비될' 것이다.

모쪼록 본 주석이 많은 신자들로 그런 신자가 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7. 사용된 언어

1) 히브리어

셈족어¹³⁾의 하나인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 구약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의 전편(前篇)을 위해 꼭 알맞은 도구들, 즉 구약성경을 구성하는 영감된 해설과 시와 율법에 적합한, 어조와 어법이 풍부한 표현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히브리어는 고대 언어 중 하나로, 한 민족-이스라엘-의 현대¹⁴⁾ 일상어로 재생(再生)된(거의 기적적으로) 유일한 언어이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기록된다. 그것을 크게 읽는 사람이 언어에 대한 지식에서 적절한 모음소리를 그것에 더해주었다. 섭리적으로, 이것이 히브리어 원본이 여러 세기 동안 계속 읽혀질 수 있게 했다. 세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지역이 바뀌에 따라 변하는 것은 주로 모음 소리이기 때문이다.¹⁵⁾

13) 셈족어는 주로 셈의 후손들이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이다. 여기에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아랍어, 페니키아어, 아카디아어 등이 포함된다.

14) 불어와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 전문가들과, 새로운 구조에 기초함은 물론 고대 히브리어 어근에도 기초한 새로 조합된 어휘들은 이 고대 방언이 20세기에 편입되도록 도움을 주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과¹⁶⁾ 같이 ‘기록된’ 것은(‘케티브’라 불리웠다) 발음하기엔 너무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졌으며, 따라서 그것을 ‘크게 읽는’(케레) 법을 난하주에 밝혀두었다. 이것은 또한 필사자들의 과실을 유발하고, 또 여러 세기에 걸쳐 세속어로 간주되어버린 어휘들이 생기게 했다.

기독교 초기 세기에 맞소라(Masorettes, ‘전통’이란 뜻의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옴) 학파라 불리운 유대인 학자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히브리어가 점점 퇴물 언어가 되어버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한 성스러운 구약성경 원본의 정확한 음독(音讀)을 보존하려는 마음에서, 단어의 적절한 발성법을 나타내기 위해서 22개 히브리어 자음의 위와 안과, 주로 아래에 점과 짧은 선으로 된 복잡한 표음 체계를 고안해냈다. 오늘날에도 이 고대의 소위 ‘모음 구두법(句讀法)’은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 철자법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세부적이다!

자음식 원본은 여러 가지로 달리 읽혀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일련의 자음들이 때로는 다른 모음들과 함께 읽혀지고 따라서 다른 의미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는 문맥이 최초의 표기가 어떤 것인지를 결정해주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다. 예컨대, 역대기와 창세기에 나오는 이름들이 달리 표기된 예들은 부분적으로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통, 혹은 맞소라 본문은 놀랄 정도로 잘 보

15) 가령 영어를 말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보스톤, 달라스, 브록클린 등의 도시에서 발음되듯이 ‘past’와 같은 단어에서 발음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다. 자음의 소리는 같으나 ‘a’라는 모음은 도시마다 상당히 다르게 발음된다!

16) 가령 흠정역과 새흠정역이 ‘주’(LORD, 모두 대문자를 사용하여, ‘아도나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공적으로 읽는 것을 나타낸다)로 옮기고 있는 대목에서 그 ‘문자화된’ 형태는 실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이름을 말하는 아웨이거나 그 영어역인 여호와로 표기되는 성스러운 4자음 문자(YHWH)이다.

존되어 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때때로 고대의 역본들(탈굄, 70인역, 불가타역)이 문제가 있는 변형체를 잡아내는데 도움을 준다. 20세기 중반 이후로 사해 두루마리 사본이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었는데 주로 맛소라 본문의 정확성을 입증해주는 정보들이었다.

영어역본으로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 이들에게 다행스럽게도 히브리어는 영어로 아주 훌륭하게 옮겨진다. 예컨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번역가인 윌리엄 틴델이 지적했듯이 히브리어는 라틴어로 보다는 영어로 훨씬 훌륭하게 옮겨진다.

본 주석이 기초로 한 번역은 틴델이 시작한 구약성경 역본의 직접적인 후속물이다. 그는 종교재판에 의해 화형을 당하기 전까지 (1536년)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 그리고 일부 시가서 및 선지서의 번역을 완성했다. 그의 구약번역 작업은 다른 이들에 의해 완성되었고 1611년의 흠정역과 보다 최근으로는 1982년의 새흠정역으로 이어졌다.

2)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처럼 셈족어인 반면, 여러 세기 동안 고대 세계에 널리 사용된 이방 언어이다. 히브리어가 유대인에게 죽은 언어가 되어버리자, 그들이 앞서 사용해온,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차이가 있는 아람어로 구약성경이 옮겨져야 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연상하는 필사본은 아마 B.C. 400년경 아람어에서 빌려와 오늘날 히브리어 학도들에게 친숙한 예술적인 정방형 문자로 발전된 것으로 여겨진다.¹⁷⁾

위에서 말한 히브리어에 관한 대부분 사실들은 구약성경의 아람어 부분들에도 역시 해당된다. 그러한 대목들은 극소수이며, 또한 이해할만하게도, 바벨론 포로 및 그 이후 상황과 같이 주로 이스라엘이 이웃 이방나라들과 관계를 맺던 상황에 관한 내용들이다.¹⁸⁾

8. 번역

영어는 많은(너무 많다고 할 수 있다) 역본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신약에 비해 구약의 역본은 아주 적다. 영어번역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생각해볼 수 있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아비의 1882년판(신약은 훨씬 이르다) ‘새’번역, 1881년판 영어 개정역(ERV) 및 그 미국판, 1901년판 미국표준역(ASV) 등은 매우 문자적이다. 문자적인 번역은 주의 깊은 연구에는 도움이 되나 예배나 공중적인 읽기, 그리고 암기에는 미흡하다. 많은 신자들이 그러한 유용하면서도 다소 경직된 역본으로서 틴델-흠정역 전통의 위엄과 미려함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2) 완전(최적) 동의적(同義的)인 번역

매우 문자적이고 또 영어가 허락하는 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가깝게 좇는 한편 적절한 문체와 속어가 요구되는 곳은 다소 자유로운 번역을 허용하는 역본들에는 흠정역(KJV), 개정표준역(RSV), 새미국표준역(NASV), 새흠정역(NKJV) 등이 있다. 개정역은 불행히도, 신

17) 메릴 F. 언저(Unger), 서론, 124쪽.

18) 아람어로 된 부분은 이러하다: 스 4:8-6:18; 7:12-26; 렘 10:11; 단 2:4-7:28.

약은 일반적으로 믿을만하나 구약은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었다. 그러한 위험한 경향이 오늘날 일부 건전했던 학자들 간에도 엿보인다.

본 ‘신자성경주석’이 출간된 것은 새흙정역이 미려한(그러나 고어체의) 흙정역과 오늘날의 어법간의 공백을, thee(“당신을”)나 thou(“당신은”)을 일체 사용함 없이, 가장 훌륭히 메우고 있음을 확증해 보이기 위함이다.¹⁹⁾

3) 역동적인 번역

이 형태의 번역은 완전 동의적인 형태보다는 자유로우며, 때때로 독자가 알아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의역(意譯)이란 적절한 기술을 시도한다. 새영어역(NEB), 새국제역(NIV), 예루살렘성경 등은 모두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여기서는 모든 개념들을 모세와 이사야가 오늘날 저술을 한다면 사용했을 법한 구조 속에 넣으려는 시도가(그것도 영어로) 행해졌다. 보수적인 태도로 행해질 경우 이러한 방법론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역자들의 느슨한 신학적인 태도에 있다 하겠다.

4) 의역(意譯)

의역은 본문의 의미를 개념적으로(thought by thought) 전달하고자 하는데, 종종 너무 자유롭게 자료를 ‘덧붙이곤 한다.’ 이 방법은 어법상으로 원문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 때문에 ‘과다한 번역’을 할 위험이 항상 있다. 현대인의 성경(Living Bible) 등의 역본들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많은 번역상의 결정들을 시도했다.

19) 가령 이와 유사한(그러나 덜 문자적인) NASB는 기도문과 일부 시(詩)에 thee와 thou를 남겨놓았다.

비교를 위해서 위의 종류 중 적어도 세 가지 역본들을 갖추는 것이 좋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동의적, 혹은 최적 동의적인 번역이 본 신자성경주석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상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하다고 본다.

9. 영감

영감에 관한 모든 역사적, 전문적인 논의의 와중에서 우리는 위대한 영국의 침례교 전도자인 찰스 핫돈 스펠전의 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책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글이다. 문자마다 전능한 손가락에 의해 그어졌고, 단어마다 영원한 입술로부터 떨어졌고, 문장마다 거룩한 영에 의해 지시를 받았다. 모세가 비록 그의 불타는 펜으로 그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고용되긴 했으나 그 펜을 하나님이 지도하셨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또 그 아름다운 시편의 곡조가 그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왔지만 수금 줄을 타는 그의 손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놀라운 지혜의 말을 베풀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지도하시고 그 전도자로 유창하게 하셨다. 만일 내가, 말들이 강물을 헤쳐 나가는 장관을 묘사한 나훔의 우레와 같은 예언과, 구산의 장막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묘사한 하박국의 예언과, 그리고 땅이 끓는 가마처럼 불타는 모습을 묘사한 말라기의 예언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영원하신 분이요, 보이지 않으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 땅의 여호와의 말씀이다.”²⁰⁾

20) 나머지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스펠전은 영감에 대한 정통적인 가르침-성경 각 권의 이중(인간과 하나님) 저작권-을 믿었다.

오경 서론

“현대 비평은 거의 모든 성경에 대해 음으로 양으로 공격을 가해왔다. 그러나 다니엘서를 제외하고 오경만큼 그렇게 대담한 공격을 받은 책은 없었다.…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권위야말로 그분을 인간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문제를 결정지어 준다는 넓고도 깊고도 또한 결론적인 사실이다.” (윌리엄 켈리).

“오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는 필수적인 관문(關門)이다. 그것은 장차 드러날 것을 열어주며, 멀지만 확실한 성취에 이르도록 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해준다.” (사무엘 리도우트).

오경의 각 권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그것이 성경적인 계시의 기원이 되는 까닭에, 오경 전체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해보겠다.

1. 오경의 제목들

성경을 이루는 최초의 다섯 권은 흔히 “오경”으로 불린다. 고대에는 책이 책 형태로 묶여있지 않고 두루마리 형태였다. 헬라어로 ‘테우코이’(teuchoi)¹⁾라는 이러한 두루마리는 칼집 모양의 용기 안에 저장되었다. 헬라어로 ‘다섯 두루마리’가 펜타테우코스인데 여기서 ‘오경’(Pentateuch)이란 말이 나왔다.

1) ‘테우코스’란 단어는 본래 연장이나 도구를 의미했고, 후에는 글을 쓰는데 사용되는 두루마리 재료를 의미했다.

유대인들은 오경을 가리켜 ‘토라’(히브리어로 ‘법’ 또는 ‘가르침’이란 뜻)라고 부르고 그들의 성경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었다.

이 책들에 대한 세 번째 제목은 ‘모세의 책들’이다. 모세의 오경 저작권을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부인하는 일부 북유럽 국가들의 성경이 이 책들에게 ‘창세기, 출애굽기’ 등의 제목이 아닌 ‘모세의 첫 번째 책’, ‘모세의 두 번째 책’ 등으로 제목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헬라이어 ‘아리쓰모이’와 라틴어 ‘누메리’를 영어로 옮긴 민수기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 다섯 권의 책에 대한 헬라이어 70인역 제목들을 유지하되 그 철자와 발음을 영어식으로 바꾸었다(그 의미에 대해서는 본 신자성경주석에 나오는 각 권 편을 보라).

유대인들은 종종 히브리어 원문에 나오는 처음 몇몇 단어에서 책 제목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서 창세기를 ‘베레쉬트’(‘처음에’)라 불렀다.

2. 오경의 내용

영어의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보다 제한된 의미이며, 따라서 ‘오경’이란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섯 권의 책의 크나큰 중요성을 표현하는데 이상적이라 하겠다.

1) 창세기

창세기는 시작을 말하는 헬라이어이므로 적절한 제목이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우주와 지구, 인간, 결혼, 죄, 참 종교, 민족들, 다양한 언어, 선민 등의 기원을 밝혀준다. 처음 11장은 인간 역사의 광범위한 진보를 말해주는 반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

곰 및 야곰의 아들들에 대한 기사로 화제가 좁혀진다.

2) 출애굽기

헬라어로 ‘출로’(出路)를 뜻하는 출애굽기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떻게 애굽에서 바로의 강제노역 아래 400년 만에 한 민족으로 성장했으며, 또 어떻게 모세의 지도 아래 속박에서 구속을 받았는지를 설명해준다. 모세 율법과 성막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한다.

3) 레위기

레위는 레위인들을 위한 지침서를 말하는데 여기서 그 제목이 유래했다. 레위는 이 시대의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을 갖는데 필요한 의식들을 묘사해준다. 이 책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그림과 모형들을 담고 있다.

4) 민수기

민수기는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백성들의 숫자 세기, 혹은 인구 조사(한번은 서두에, 한번은 말미에)를 담고 있다. 히브리어 제목인 ‘광야에서’(베미드발)가 한결 어울리는데, 왜냐하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5) 신명기

헬라어로 ‘두 번째 율법’을 뜻하는 신명기는 그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진술하는 것 이상이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의 위치를 대신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까닭에, 모세오경과 뒤이어 나오는 역사서 사이를 연결해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그 특유의 명쾌하고 간결한 문체로 모세의 책들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오경의 다섯 권의 책은 하나님의 종교를 세상에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각 책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한 국면을 보여주며, 함께 결합해서는 참된 통일체를 이룬다. 창세기는 종교의 기원과, 그 전달 통로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기원을 말해준다. 출애굽기는 그 백성이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모습과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준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종교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백성이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민수기는 그 민족의 실패와 그로 인한 지체(遲滯)와 재조직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그리고 신명기는 그 백성이 약속의 땅 경계에서 곧 이어질 진입(進入)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준다.”²⁾

3. 오경의 중요성

구약성경 전체가, 아니 성경 전체가 이 처음 다섯 권의 책에 기초하므로 계시된 종교를 위한 모세오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만일 합리적인 불신 학자들이 이 책들의 진실성과 진정성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유대교의 기원은 불

2) W. H. 그리피스 토마스, ‘오경’ 25쪽.

확실성의 바다에 빠져버리고 말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믿음 또한 그러한 공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신약성경과 우리 주님 자신도 모세의 책들을 참되고 믿을 만한 것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메릴 영거 박사는 이 문제를 매우 무게 있게 단언하고 있다.

“모든 계시된 진리와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의 기초는 모세오경에 기초한다. 만일 이 기초가 믿을 만하지 못하다면 성경 전체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다.”³⁾

4. 오경의 저작권

초기 기독교 시대에 에스라⁴⁾를 토라의 저자로 간주한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고 유대-기독교 정통주의는 전체적으로 오랜 세기 동안(지금도 마찬가지다) 모세 저작권을 지지해왔다.

1) 모세 저작권

모세 저작권을 적극 부인하는 문헌적인 이론을 간략히 살펴보기 전에 모세 저작권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살펴보자.

(1) **모세의 자격성**-19세기 독일 비평가 하르트만은 당시엔 집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사실상 그런 작업이 불가능했다는 근거로 모세 저작권을 부인했다(19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고고학은 모세가 초기 히브리 필기문자나 에집트 상형문자, 혹은 아카드 설형문자로 기록했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물론 사도행전 7장 22 절은 고고학이 그 사실을 확증하기 오래 전에 모세가 ‘애굽의 모든

3) 메릴 F. 영거, ‘영거 성경 핸드북’, 35쪽.

4) 유대인 철학자인 스피노자도 에스라를 저자로 택했다.

학술'로 교육받았다고 신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다'고 얘기할 때, 그 말에는 그가 앞선 창세기 문헌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은 히브리 필기문자가 오랜 세기 동안 변천됨에 따라 영감(靈感)에 의한 편집상의 갱신(更新)이 불가피했음을 전제한다. 물론,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가 그것을 '기록했음'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대인의 신앙의 아버지로서 그가 장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영구적으로 기록했으리라는 것은 필연적인 추론이다.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을 명하셨던 것이다.

(2) 오경 자체의 주장-토라 본문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기록했다는 것을 종종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출 17:14; 24:4; 34:27; 민 33:2; 신 31:19 등).

(3) 이후의 성경의 주장-하나님의 말씀의 나머지 부분들 역시 모세 저작권을 인정한다(수 1:7; 왕상 2:3; 눅 24:44; 고전 9:9 등).

(4) 그리스도의 증거-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주님 자신이 모세 저작권을 인정하셨다는 사실이 문제를 해결해준다. 예수께서 인성을 입으신 까닭에 과학과 역사에 대해 무지하셨다는 주장이나, 그분이 충분히 알고 계셨으나 자기 동족의 무지와 편견에 맞춰 그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추론은 신자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5) 고고학과 오경-모세 당시의 것으로 보기엔 '너무 시대가 늦었다'고 자유주의 비평가들이 지적한바 있던 많은 풍습과 언어, 명칭 및 역사적 문화적 사항들이 지금은 모세 당시보다 수세기 앞선 것으로 판명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 저작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 세기 후에 살았던 '교정자' 내지 편집

자들이 그 모든(그때까지 상당 부분 소실된) 사실들을 알고, 또 그것을 훌륭하게 결합시켰다는 이론보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한결 더 부합한다.

2) 문서설

1753년 잔 아스트레이크란 한 프랑스 학자는 모세가 두 가지 문서에서 창세기를 편집했다는 이론을 발표했다. 하나님의 명칭으로 ‘여호와’를 사용한 대목들이 한 문서에서 왔고, ‘엘로힘’을 사용한 대목들은 다른 문서에서 왔다고 그는 기술했다. 이들 가상의 자료들을 가리켜 그는 각각 ‘J’문서와 ‘E’문서라고 명명했다.

후에 자유주의 학자들이 그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결국에는 모세 시대 훨씬 이후의 것인 그 모든 가상의 자료들을 제시했다. 다른 가상의 문서들은 ‘D’(신명기)문서와 ‘P’(제사장)문서였다. 오경은 B.C 9-6세기 사이에 모아진 단편적인 자료들의 모음으로 간주되었다. 이 가설은 ‘JEPD 이론’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가설은 여러 가지 점에서 19세기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첫째로 그것은 생물학에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 적용되던 다윈의 진화론과 잘 어울렸다. 둘째로, 당시의 반초자연주의적인 사조(思潮)가 성경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있어 이 이론에서 만족을 찾았다. 셋째로, 신적인 계시를 인간의 노력으로 대치시킨 인본주의 경향이 이 이론과 꼭 맞아떨어졌다.

1878년 줄리우스 벨하우젠이 비범하고도 아주 그럴듯한 방법으로 이 문서설을 대중화시켰다.

여기 간략한 서론에서는 다만 이 이론에 대해 몇 가지 점만 지적하겠다.⁵⁾ 이 이론의 심각한 문제점들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사본상 증거의 결여-‘JEDP’이론이 제기하는 편집 작업이 행해졌다는 사본상의 증거가 일절 없다.

(2) 상호 모순되고 주관적인 단편화(斷片化)-학자들은 오경을 서로 판이하게 다른 단편들로 나누는데, 거기에는 극단적이고 개인적인 관점들이 드러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

(3) 고고학-고고학은 오경의 기록과 풍습과 종교적인 지식 등이 벨하우젠 이론이 제기하는 오랜 후대의 편집 작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대의 것임을 지지해준다.

(4) 언어학-오경에서 발견되는 ‘후대의’(가상에 의한) 언어 형태와 인명들은 모세 시대 이전 자료에서 발견되어 왔다. 한 예로 최근에 발굴된 ‘에블라 석판’에는 여러 오경상의 이름들이 들어있다.

(5) 오경의 통일성-편집상으로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은 잘 결합되어 있으며, 이른바 그 진화론적인, ‘가위와 풀로 편집’했다는 이 책들의 가상의 기원(起源)과 조화시키기에는 극히 어려운 통일성과 결속성을 드러내 준다.

(6) 영적인 파국(破局)-끝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문서설은 고고학과 기타 유사한 이론들로 다듬어진다 하더라도, 이 책들에 소장(所藏)된 위대하고 아름다운 진리들을 간직할 가치가 없다. 만일 그 이론들이 옳다면, 영거 박사의 표현대로 오경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진실되지 못하고, 역사적이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한 인간의 위조품’이 되고 말 것이다.⁶⁾

5) 기독교적인 접근은 R. K. 헤리슨의 ‘구약 서론’에서 볼 수 있다(Grands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6). 유테계 미국인 소설가 헤르만 우크는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에서 이 이론을 밝혔다(Garden City, NY: Doubleday & Co., 1959).

6) 메릴 F. 영거, ‘성경 핸드북’, 35쪽.

5. 오경의 연대

오경의 내용은 우리를 창조로 이끌어주지만 물론 그것이 실제 기록된 것은 그 후로 수천 년 이후의 일이다. 기록 연대는 ‘누가’ 그것을 기록했느냐에 달려있다.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론화한 이 작품의 여러 단계들의 연대를 주로 이렇게 추정한다. ‘J문서’-B.C 850년경; ‘E문서’-B.C 750년경; ‘D문서’-B.C 621년경;⁷⁾ ‘P문서’-B.C 500년경.

보수주의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오경의 연대를 출애굽 시대, 즉 B.C 15세기로 잡는다. 일부 학자들은 그 사건의 연대를 1세기 반 이후로 잡는다.

아마 모든 성경의 자료들에 부합하는 최선의 연대는 B.C 1450-1410년 사이일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주석의 각 권 편을 참조하라.

6. 결론

이제 캐나다의 훌륭한 구약학자의 말을 인용함으로 오경 서론을 결론짓고자 한다.

“오경은 다섯 권으로 된 동종(同種)의 편집물이지 따로 따로 분리된, 그리고 아마도 우연히 관련이 있게 된 작품들의 집합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세상과 인류역사 과정상에 특별한 봉사와 증거를 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방

7) 많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요시아가 수도 예루살렘의 중앙 성소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오늘날 신명기라고 하는 자료를 편리하게 ‘발견했다’(위조했다)는 그릇된 신조에서 그런 구체적인 연대를 가정한다.

법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묘사했다. 이 문학적 집대성(集大成)을 이루는데 있어서 모세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높은 위치를 인정받고 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가지로 고대 율법의 위대한 중재자로 존경받는 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⁸⁾

8) 헤리슨, '서론', 541쪽.

창세기

창세기 서론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흥미롭고 매력적인 부분 중 하나다. 그 정경상의 위치, 나머지 성경과의 관련성, 그 다양하고도 경이로운 내용상의 특징 등이 한데 결합하여 성경에서 가장 탁월한 한 부분이 되게 했다. 따라서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책에 시선을 멈추고 주의를 집중한 것은 참된 영적인 통찰로 말미암은 것이다.”(W. H. 그리피스 토마스).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유대인에 의해 ‘베레쉬트’(‘처음’을 뜻하는 히브리어)로 불리는 창세기(‘시작’을 뜻하는 헬라이어)는 적절한 이름이다. 이 흥미진진한 책은 거기에 계셨던 유일한 분(창조자)에 의한 창조를 말해주는 유일한 참된 기사이다!

성령께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남녀 인간, 결혼, 가정, 죄, 제사, 도시, 무역, 농업, 음악, 예배, 언어, 인종과 민족 등의 시작을 추적해 보이신다. 이 모든 내용이 처음 11장에 나와 있다.

이어서 12-50장에서 우리는 세상 모든 백성의 영적인 미립체(微粒體)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시험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열두 아들(특히 두드러지게 경건한 요셉)의 삶은 어린아이로부터 저명한 구약 학자

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다.

성경의 나머지 65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를 확실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창세기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문화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2. 기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율법 수여자인 모세에 의해 창세기가 기록, 편집되었다는 고대 유대 및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이 모세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 모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고대의 자료들과 아마도 구전된 이야기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모세 저작권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오경 서론’을 참조하라.

3. 연대

보수적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출애굽 연대를 B.C 1445년경으로 잡는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아마도 그 시기와 그 후 약 40년 후인 모세의 죽음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물론 창세기의 모든 사건들은 그 큰 사건(출애굽)보다 연대가 앞서므로 오경 중에서 이 한 권의 책은 출애굽 ‘이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항상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경 서론’을 참조하라.

4. 배경 및 주제

성경과 유대교, 혹은 기독교에 대해 극단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이들이 창세기가 아주 오랜 시대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이며, 요셉 이야기와 같은 아름다운 기사를 담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이 성경의 첫 번째 책의 ‘배경’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 정체는 무엇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창세기를 이방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취하여 유일신을 믿는 히브리인을 교화할 목적으로 다신론적인 요소들을 ‘삭제한’ ‘신화’의 모음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다지 회의론적이진 않지만, 창세기를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사화(史話)’나 ‘전설’로 간주한다.

또 어떤 이들은 창세기 기사를 자연과 문화의 요소들의 기원에 대한 해설(전문적으로 ‘원인론’이라 한다)로 본다. 구약성경, 특히 이 시조의 책에는 원인론이 있긴 하나(죄, 무지개, 히브리 백성 등의 기원), 그것이 결코 그 해설을 비역사적인 것이 되게 하지는 않는다.

창세기는 ‘역사’이다. 모든 역사처럼 창세기는 해설적이다. 그것은 신적인 계획이란 골격 안에 해설된 ‘신학적인’ 역사 혹은 사실이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다’라는 말은 아주 적합한 표현이다.

창세기는 비록 ‘율법서’의 첫 번째 책이긴 하나 그 안에는 ‘법적인’ 내용이 거의 없다. 그것이 ‘율법서’(토라 교훈을 뜻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의 내용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 수여의 기초를 놓는다는 면에 근거한다. 사실 창세기는 모든 성경 역사(아니, 역사 그 자체)의 기초를 놓아준다.

축복과 저주라는 쌍둥이 ‘주제’가 창세기, 실은 하나님의 모든 말

섬의 직조물(織造物) 전체에 걸쳐 신중하게 엮어져 있다. 순종은 축복의 부요를 가져다주고, 불순종은 그 반대의 것을 가져다준다.

큰 저주로는 타락에 대한 형벌, 우주적인 홍수, 바벨에서의 언어의 혼잡 등이 있다.

큰 축복으로는 구속자에 대한 약속, 대홍수에서의 잔존자의 구원, 한 특별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선택 등이 있다.

만일 창세기가 사실 그대로의 역사라면 어떻게 모세가 그 모든 고대의 계보와 대화와 사건들과 그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 수 있었을까?

첫째로, 고고학이 여러 면에서, 특히 족장들과 그들의 풍습과 관련하여 창세기 기사를 지지해왔다(‘증명’한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예시해주었다).

하르트만(Hartmann)¹⁾과 같은 일부 19세기 자유주의 학자들은 당시엔 필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까닭에 모세가 오경을 썼을 리 없다고 가르쳤다! 이제 우리가 알기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술을 익힌 까닭에 여러 고대 문자 중 어떤 것으로도 기록할 수 있었다.

모세는 요셉이 남긴 기록과,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고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가져온 석판과 양피지, 구전(口傳) 자료들을 사용했음이 분명하다. 여기에는 계보들, 즉 “아담의 계보(generations)가 이러하니라” 등등의 표현으로 알려진 주요 부분들이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모세를 감동하시어 정확한 자료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지나치도록 하셨다. 그리고 자세한 대화내용이나 기타 어떤 사항들은 아마도 모세가 직접 계시를

1) (서론) Anton Hartmann(1831). Merrill F. Unger, *Introductory Guide to the Old Testament*, p. 244.

받아 적어 넣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그러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믿음’의 문제이다. 원시시대로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시대 신자들은 하나님이 참되시다고 인쳐 왔다.

고고학이 족장들의 문화를 재구성하여 성경의 기사를 보다 생생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²⁾ 그러나 성령께서만이 창세기의 진리를 우리의 마음과 매일의 삶에 조명해 주실 수 있다.

이 창세기에 대한(혹은 구약 어떤 책에 대한) ‘신자성경주석’을 살펴볼 때는 ‘거룩한 말씀 자체’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의존해야 그 해설로부터 참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된 주석은 독립적인 수단이 아니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는 목표점을 가리켜주는 화살과도 같다.

5. 개요

1. 세상의 처음 시대(1-11장)

- 1) 창조(1-2장)
- 2) 유혹과 타락(3장)
- 3) 가인과 아벨(4장)
- 4) 셋과 그의 후손(5장)
- 5) 관영한 죄와 우주적인 홍수(6-8장)
- 6) 홍수 이후의 노아(9장)
- 7) 민족들의 계보(10장)
- 8) 바벨 탑(11장)

2) (서론) Gleason Archer, *Archaeology and the Old Testament*.

2. 이스라엘의 족장들(12-50장)

1) 아브라함(12:1-25:18)

- (1) 아브라함의 소명(12:1-9)
- (2) 애굽 진입과 귀환(12:10-13:4)
- (3) 롯과의 경험 및 아비멜렉과의 경험(13:5-14:24)
- (4)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사(15장)
- (5) 육체에 따른 아들 이스마엘(16-17장)
- (6) 소돔과 고모라(18,19장)
- (7) 아브라함과 아비멜렉(20장)
- (8) 약속의 아들 이삭(21장)
- (9) 이삭의 제물됨(22장)
- (10) 가족의 장지(葬地)(23장)
- (11) 이삭의 신부(24장)
- (12) 아브라함의 후손(25:1-18)

2) 이삭(25:19-26:35)

- (1) 이삭의 가족(25:19-34)
- (2) 이삭과 아비멜렉(26장)

3) 야곱(27:1-36:43)

- (1) 야곱이 에서를 속이다(27장)
- (2) 야곱의 하란으로의 도피(28장)
- (3)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손(29:1-30:24)
- (4) 야곱이 라반을 이기다(30:25-43)
- (5) 야곱의 가나안으로의 귀환(31장)
- (6) 야곱과 에서의 화해(32-33장)
- (7) 세겜에서의 죄(34장)

- (8) 벤엘로의 귀환(35장)
- (9)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36장)
- 4) 요셉(37:1-50:26)
 - (1) 요셉의 노예로 팔림(37장)
 - (2) 유다와 다말(38장)
 - (3) 요셉의 시험과 승리(39장)
 - (4) 요셉이 술 관원과 떡 관원의 꿈을 해석해줌(40장)
 - (5)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줌(41장)
 - (6)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들어감(42-44장)
 - (7)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림(45장)
 - (8) 요셉의 가족과의 재결합(46장)
 - (9) 요셉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감(47장)
 - (10)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48장)
 - (11)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49장)
 - (12) 애굽에서의 야곱의 죽음 및 요셉의 죽음(50장)

1. 세상의 처음 시대(1-11장)

1) 창조(1-2장)

1:1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처음 몇 단어는 믿음을 위한 기초를 형성한다. 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이어지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다. 창세기는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는, 그러나 그 누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에 대한 유일한 권위 있는 해설을 제공해준다. 이 신적인 기록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전제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려 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이다(시 14:1; 53:1). 성경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듯이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첫째가 되셔야 한다.

1:2 창세기의 창조기사에 대한 여러 보수적인 해석 중 한 가지인 창조-재건(再建) 견해는, 1절과 2절 사이에 큰 재앙(아마도 사단의 타락-겔 28:11-19)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³⁾ 그로 인해 하나님의 최초의 완전한 창조가 ‘혼돈하고 공허’(토후 와보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땅을 ‘황폐하고 공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므로(사 45:18 참조), 대

3) (1:2) 어떤 이들은 그 재앙을 1절 앞에 위치시키고 1절을 요약하는 말로 본다.

재양만이 2절의 혼돈 상태를 설명해줄 수 있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자들은 ‘…했다’(하에타)로 옮겨진 단어가 “…하게 되었다”⁴⁾로도 옮겨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어질 대창조요 재건설 행위를 위한 예비적인 움직임이었다. 나머지 구절들은 인간이 거주하도록 땅을 예비한 6일간의 창조와 재건설을 묘사해준다.

1:3-5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명하여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취게 하시고 낮과 밤의 순환을 정하셨다. 이 행위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넷째 날의 행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빛이 어둠에서 최초로 분리된 것과 죄인의 구원 사이에서 비교점을 끌어내고 있다.

1:6-8 둘째 날에 앞서, 지구는 아마도 무거운 기포(氣泡) 형태의 두터운 수분 층으로 완전히 에워싸였던 것 같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이 두터운 층을, 물로 땅을 덮은 부분과 구름을 이루는 부분으로 나누고 그 사이에 대기층(창공 혹은 “궁창”)을 두셨다. 하나님은 궁창을 하늘, 즉 지구 바로 위의 광활한 공간(별들의 하늘이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이 아니라)이라 부르셨다. 20절은 이 지상의 하늘은 새들이 나는 영역임을 명백히 해준다.

1:9-13 이어서 하나님은 지표면을 덮은 물에서 물이 나오게 하

4) (1:2) 그러나, 히브리어 동사 ‘하야(hayah)’는 ‘되다’는 의미일 때는 전치사 ‘레’le’가 따라오는데, 여기서는 그 경우가 아니다.

셨다. 그렇게 해서 땅과 바다가 생성되었다. 또한 셋째 날에 하나님은 땅에서 각종 채소와 과목이 나오게 하셨다.

1:14-19 주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발광체로서, 또한 일자(日字)를 정하는 수단으로서 하늘에 두신 것은 넷째 날에 비로소 이뤄졌다.

1:20-23 다섯째 날엔 물에는 고기가 가득하고, 땅에는 새와 곤충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새”로 옮겨진 단어는 “나는 것들”을 의미하며, 박쥐와 아마도 나는 곤충을 포함할 것이다.

1:24-25 여섯째 날 하나님은 동물과 파충류를 처음 창조하셨다. “종류대로”란 표현 속에 재생산의 법칙이 거듭 밝혀져 있다. 생물학적인 생명의 “종류” 안에는 주목할 만한 변이(變異)가 있긴 하나, 그러나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1:26-28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봉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과, 또 인간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삼위(아버지, 아들, 성령)이신 것처럼 인간도 삼중적인 존재(영, 혼, 몸)이다. 하나님과 같이 인간은 지성과 도덕적인 성품과, 다른 존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과, 본능을 뛰어넘는 감정적인 속성을 지녔다. 여기에는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의미가 전혀 없다. 동물과 대조적으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요, 논리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요, 그리고 창조적인 존재이다.

26절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여지(餘地) 내지 암시가 있다. “하나님(엘로힘, 복수형)이 가라사대(히브리어 단수동사형) 우리(복수)의 형상을 따라…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성(性)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행위로 묘사한다. 진화론은 성(性)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결코 설명해 줄 수 없었다.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남용(濫用)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인간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지구의 환경에 끼친 현대의 위기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부주의에 책임이 있다.

1:29-30 이 구절들로 보아 본래 동물들은 초식성(草食性)이었고 인간은 채식(菜食)을 했음이 분명하다. 그것이 홍수 이후에 변화였다(9:1-7 참조).

창조의 6일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의 날들이었나, 아니면 지질학적인 연대였나? 아니면 모세에게 창조 기사가 ‘계시되던’ “극적인 환상”의 기간이었나? 그 기간이 문자 그대로의 태양일 기간이었음을 반박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표현이 24시간의 날들을 가리킨다. 구약성경의 다른 어디서든 이 단어들은 정상적인 날들을 의미한다. 아담은 제7일 내내 살다가 930째 해에 죽었으며, 따라서 제7일은 지질학적인 연대일리가 없다. 구약성경에서 “날”이 숫자와 함께 사용되는 곳마다(“첫째 날” 등) 그것은 문자적인 날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에 쉬라고 명하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6일간의 노동 후에 제7일에 쉬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명하셨다(출 20:8-11). 여기서 일관성 있는 해석을 내리려면 ‘날’이란 단어가 같은 의미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가지 난점(難點)은, 우리가 아는 대로 태양일의 날은 넷째 날이 이르기까지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다(14-19절).

성경이 관계되는 한, 하늘과 땅의 창조는 그 연대를 알 수 없다. 인간의 창조 역시 연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계보가 주어져 있으며, 또한, 계보상에 가능한 공백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수백만 년 동안 지구에 존재했을 리는 만무하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골로새서 1장 16절, 히브리서 1장 2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창조에 있어 능동적인 행위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창조의 다함없는 경이로움으로 인해 그분은 세세토록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1:31 옛세 동안의 창조가 끝난 후 하나님은 그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2:1-3 일곱째 날 하나님은 창조활동을 마치고 안식하셨다. 이것은 피로로 인한 휴식이 아니라 일이 잘 마쳐진데 대한 안식과 완성의 휴식이다. 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시는 않으셨으나 일곱 날 중 하루를 안식하는 원리는 가르치셨다.

2:4-6 “여호와 하나님”(제호바[아웨] 엘로힘)이란 이름이 4절에 처음으로, 인간 창조(1:27) 후에 비로소 나온다. 엘로힘으로서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호와로서의 그분은 인간과 언약관계에 있으시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성경 비평가들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른 명칭은 저자가 바뀐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

다고 결론지었다.

“대략이 이러하니라”(4절)는 말씀은 1장에 묘사된 시작들을 가리킨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한 5절의 기록은 마른땅이 드러났으나 채소가 나타나기 이전인 1장 10절의 땅의 상태를 묘사해준다. 땅은 비에 의해서가 아닌 안개에 의해서 젖어있었다.

2:7 인간 창조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이 이제 주어진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로부터 인간의 몸을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산 영이 될 수 있었다. 아담(‘붉은’ 혹은 ‘땅’)이란 이름은 인간이 지은바 된 붉은 흙에서 유래했다.

2:8-14 하나님은 에덴에 창설하신 동산은 동쪽, 즉 성경에서 방향을 정하는 기준점인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었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히테겔(티그리스)과 유브라테 강 근처에 위치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의 순종에 대한 시험을 제시했다.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잘못된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 열매는 형태를 달리하여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

2:15-23 명령을 범하는데 대한 형벌은 죽음(즉각적인 영적인 죽음과 점진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었다(17절). 동물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과정에서 아담은 수컷과 암컷이 있음을 발견했을 것이다. 각각의 동물들이 자기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짝이 있었다. 결국 아담도 자신과 비교되는 ‘돕는 자’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의 신부는 그가 잘 때 그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 하나’로 만들어졌다. 그리스도께서

극한 고통 중에 생명의 피를 흘리실 때 그분의 신부가 그 옆구리로 부터 생겨난 것도 그러했다. 여자는 아담을 지배하기 위해 그 머리에서 취해진 것도 아니며, 그 발에 밟히기 위해 그의 발에서 취해진 것도 아니며, 보호를 받기 위해 그의 팔 아래서, 그리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의 심장 가까이서 취해진 것이다.

하나님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남자에게 지도권을 주셨다. 바울은 이 사실을 창조의 순서와(남자가 먼저 지어졌다) 창조의 목적(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어졌다)에서 논증한다(고전 11:8-9). 아울러 먼저 죄를 범한 자는 하와였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머리인 아담을 통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아담은 머리의 위치를 지녔으며 따라서 책임이 있었다.

19절은 과거완료시제로 표현해야 보다 분명해진다.⁵⁾ “여호와 하나님이…각종 새를 지으셨고(had formed)”, 즉 인간을 만들기 전에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

2:24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일부일처제 결혼을 제정하셨다. 다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제도처럼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것을 범하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결혼의 결속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예시해준다(엡 5:22-32).

2:25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살았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5) (2:15-23) 히브리어는 완료와 미완료의 두 가지 시제(그 외에 분사가 있다)밖에 없다. 영어로 어떤 동사로 옮겨져야 가장 적절한지는 문맥이 결정한다.

2) 시험과 타락(3장)

3:1-6 하와에게 나타난 뱀의 뒤에 다름 아닌 사단 자신임이 드러났다(계 12:9). 성경을 ‘신화화’(神話化) 하려는 이들은 이 타락 기사를 문자적인 사실이 아닌 풍유적인 이야기로 믿고 있다. 그들은 뱀이 말하는 것을 그 증거로 내세운다. 뱀이 하와를 속이는 이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그렇다고 했다(고후 11:3). 사도 요한도 그러했다(계 12:9; 20:2). 또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하는 동물에 대한 유일한 예가 아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미친 것을 제지하기 위해 발람의 나귀에게 말을 허락하셨으며(민 22장),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문자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벧후 2:16). 위의 세 사도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렇게 기록했다. 따라서 타락 기사를 문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은 성경의 영감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물론 풍유(諷諭)가 있지만 위의 모든 기록은 전혀 풍유가 아니다.

인류가 죄에 빠지는 단계를 주목하라. 먼저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교묘히 불어넣었다. “하나님이 참으로…하시더냐?” 그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신 분으로 잘못 제시했다. 다음으로, 하와가 대답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이어서, 사단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심판이 임하는 사실에 대해 하나님에게 도전을 했다. 여전히 그의 추종자들이 지옥과 영원한 형벌의 사실을 부인하듯이 말이다. 사단은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에게서 축복이 될 만한 것을 거둬

가시는 분으로 잘못 제시했다.

하와는 세 가지 시험에 넘어갔는데 그것은 육체의 정욕과(“먹음지도 하고”), 안목의 정욕과(“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이었다. 그렇게 할 때 그녀는 그 머리인 아담과 별개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아담의 권위를 가로챌 것이 아니라 그를 찾아가 상의했어야 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라는 말씀 속에는 그 때 이후로 세세토록 인류에게 전염되어온 모든 질병과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죄책(罪責)과 죽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땅의 파괴와 수십 억이 넘는 무덤들은 하나님은 참되시며 사단은 거짓말쟁이임을 증거한다”고 흑자는 말했다. 하와가 피임을 보았으나(딤후전 2:14), 그러나 아담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도적인 반역 속에 행동을 했다.

세속 인본주의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영속적으로 유효케 하고 있다.

3:7-13 죄의 최초의 결과는 부끄럽고 두려운 느낌이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된 앞치마는 피 없는 선행의 종교를 통해 자신을 구원해보려는 인간의 시도를 말해준다. 하나님이 상황설명을 요구하실 때 죄인들은 스스로를 변명한다. 아담이 말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마치 하나님을 탓하듯이 말이다(잠 19:3). 하와가 말했다. “뱀이…”(13절).

사랑과 자비 가운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으로 타락한 피조물들을 찾으셨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사실, 즉 인간이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과, 하나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입증해주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해주었다.⁶⁾ 하나

님은 구원에 있어 주도권을 쥐셨으며, 사단이 하와로 의심케 했던 바로 그것(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3:14 여호와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사 하락(下墮)과 불명예와 패배를 명하셨다. 뱀이 모든 육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은 여기서 염두에 둔 대상이 사단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파충류임을 보여준다.

3:15 그러나 15절은 마귀 그 자신에게로 대상을 옮긴다. 이 구절은 ‘최초의 복음’을 뜻하는 ‘원시복음’(protevangelium)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사단과 여자(모든 인류를 대표) 사이의, 그리고 사단의 후손(그의 대리자들)과 여자의 후손(메시아) 사이의 영원한 적대관계를 예언하고 있다.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인데 이는 완전한 패배를 뜻하는 치명적인 상처를 말한다. 이 상처는 구주께서 갈보리에서 결정적으로 마귀에게 승리하셨을 때 입혀졌다. 그런가 하면 사단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발꿈치는 여기서 고난과 심지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나 그러나 궁극적인 패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죄와 지옥과 사단에 대해 승리를 거두셨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불리운다는 사실은 그분의 동정녀 탄생을 암시해준다. 다음 구절에서 선고(宣告)를 선언하기 전에 메시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라.

6) (3:7-13) C. H. Mackintosh, *Genesis to Deuteronomy*, p. 3.

3:16-19 죄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선택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저주받은 땅에서 소산을 얻고 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것은 그에게 수고와 땀을 의미했다. 그리고 삶이 끝날 때는 흙으로 돌아가야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근로 그 자체는 저주가 아니라 종종 축복이라는 점이다. 저주는 근로 그 자체가 아니라 근로와 관련된 슬픔과 수고와 좌절과 땀 흘림과 쇠약이다.

3:20-21 아담은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즉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 부름으로 믿음을 드러냈는데, 이는 이때까지는 아기가 태어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한 마리의 짐승의 죽음을 통해 ‘가죽 옷’이 하나님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린양의 흘린 피를 통해 범죄한 죄인들에게 제공되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義)의 옷을 상징해준다.

3:22-24 하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한 사단의 거짓말(5절)에는 진리가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와 아담은 힘든 경험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다. 만일 그들이 이 때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그들은 질병과 쇠락(衰蕩)과 불구(不具)에 복종하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로 에덴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였다. ‘그림’은 “타락한 인간의 허황된 오만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변호하는 기능을 지닌 영적인 존재이다.”⁷⁾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단이 거짓

7) (3:22-24) Merrill G. Unger, *Unger's Bible Dictionary*, p. 192.

말하는 건지 결정해야만 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다고 결정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의 영예로운 믿음의 계보에 오를 수 없었다.

에덴의 이상적인 환경은 죄의 침입을 막지 못했다. 좋은 환경이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닌 것이다.

3) 가인과 아벨(4장)

4:1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알았는데 이는 그가 그녀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그 출생이 오로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능력 덕택임을 인정했다. 그를 ‘가인’(“얻음”)이라고 이름지을 때 하와는 자신이 약속된 후손을 낳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4:2-6 3절 상반절에 언급된 ‘세월의 지남’은 세상의 인구가 상당히 증가되었을 여지를 보여준다. 가인과 아벨은 오직 대리적인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은 때가 필경 있었을 것이다. 가인은 그러한 계시를 거절하고 열매와 채소의 피 없는 예물을 가지고 왔다. 아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임 당한 짐승을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과 또 하나님에 의한 칭의(稱義)를 드러냈다(히 11:4). 그는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최선의 것을 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보여준다. 아벨의 제사는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리적인 죽음을 예표해 준다.

4:7 가인의 시기적인 분노가 살인의 초기행위인 까닭에 하나님은 사랑의 경고로 그에게 말씀하셨다. 7절은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① “네가 선을 행하면(회개함으로), 너는 다시금 분노와 죄책으로부터 자유롭게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선을 행치 아니하면(계속 아벨을 미워함으로), 죄가 너를 파멸시킬 태세를 한 채 네 문에서屹드리고 있을 것이다. 그(아벨)의 소원은 너를 위한 것이며(즉, 그는 네 지도력을 인정할 것이다), 너는 그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즉, 네가 선을 행하면).

② “네가 선을 행하면(혹은, 70인역의 표현대로 ‘네가 올바르게 드리면’), 네가 열납되지 않겠느냐?” 선을 행함은 제사를 가리켰다. 아벨은 열납 받을 제물 뒤에 자신을 숨김으로 선을 행했다. 가인은 피 없는 예물을 가져옴으로 악을 행했으며, 그의 모든 이후의 행동은 그런 그릇된 예배의 마땅한 결과에 불과했다.⁸⁾

③ 개정 표준역(RSV)은 이렇게 옮겼다. “네가 선을 행하면 네가 열납되지 않겠느냐?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屹드려느니라. 그 소원은 너를 위한 것이나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하느니라.”

④ F. W. 그랜트는 그의 ‘숫자성경’(Numerical Bible)에서 이렇게 옮겼다. “네가 선을 행치 아니하더라도 속죄물이 문 앞에屹드린다, 혹은 누워있다.”⁹⁾ 다시 말해서, 그가 원하면 취할 수 있는 대비책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4:8-12 시기적인 분노를 품은 가인의 악한 태도는 곧 악한 행동,

8) (4:7) Mackintosh, *Genesis to Deuteronomy*, p. 42.

9) (4:7) F. W. Grant, “Genesis,” *The Numerical Bible*, I:38

즉 그의 아우를 살해하는 행동으로 발전했다. 비록 아벨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는 믿음의 삶이 중요한 삶을 우리에게 증거해준다 (히 11:4).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한 물음의 반응으로 회개치 않고 완고한 답변을 듣게 되자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즉 가인은 더 이상 땅에서 소산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로 방황하게 될 것이다.

4:13-16 가인의 애걸하는 듯한 호소는 죄책감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준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가인에게 보호의 표를 주시고 또 그를 죽이는 자에게 저주를 선고하심으로 그 유리하는 자의 자기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켜 주셨다. 가인은 여호와와 의 앞을 떠나갔는데 그것은 모든 떠남 중에 가장 슬픈 것이 아닐 수 없다.

4:17-24 가인은 그의 누이나 다른 혈육과 결혼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창세기 4장 3절은 인구증가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암시해주며, 또 창세기 5장 4절은 아담이 다른 아들 딸들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준다. 근친결혼은 이 당시는 금지되지 않았다(당시엔 유전학적으로 위험하지도 않았다).

17-24절은 가인의 후손과 일련의 최초의 것들을 열거해 준다. 즉, 에녹이라는 최초의 도시와, 최초의 일부다처 사례, 조직화된 축산업의 시작, 음악과 금속술의 시작, 최초의 노래(폭력과 피 흘림에 관한) 등을 볼 수 있다. 그 노래에서 라멕은 자기가 자기 방어를 위해 한 젊은이를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가인이 아우를 살해한 것처럼 미리 의도된 살인이 아니었다. 즉, 라멕은 보복을 행

하는데 있어 한결 무덤덤한 마음이었다.

4:25-26 이제 안도의 숨을 쉬게도, 셋의 경건한 계보가 소개된다. 메시아가 마침내 태어나는 것은 이 계보를 통해서였다. 에노스(‘약한’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이란 뜻)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기를, 혹은 아마도 공적인 예배에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했다.

4) 셋과 그의 후손(5장)

5장은 ‘죽었더라’는 반복된 표현으로 인해 ‘죽음의 종소리’라 불리어왔다. 그것은 아담에서 노아의 아들 셈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혈족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 누가복음 3장 36-38절과 비교하라.

5:1-17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셋은 아담의 형상대로 태어났다. 그 사이에 타락이 발생했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5절은 2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일의 ‘육체적이’ 성취를 기록하고 있다. 그 ‘영적인’ 성취는 아담이 범죄한 그 날 일어났다.

5:18-24 여기에 언급된 에녹과 라멕은 4장에 나오는 에녹과 라멕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18절의 에녹은 아담의 3대손이 아니라 7대손이다(유 14절). 믿음으로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기쁘시게 했다(히 11:5). 그의 아들의 출생이 그의 삶에 성결케 하고 고결케 하는 영향을 끼친 것 같다(22절 상). 잘 시작하는

것도 좋은 일이나, 끝까지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더욱 좋은 일이다. ‘행하다’(walk)는 단어는 우연히 알게 된 관계가 아니라 꾸준히 접진적인 관계를 암시해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제이지 그저 한 시간 정도 시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다. 에녹은 홍수 이전에 하늘로 옮기었는데 그것은 마치 교회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로 휴거되는 것과도 같다(살전 4:13-18; 계 3:10).

5:25-32 므두셀라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오래 살았다(969세). 만일 윌리엄스의 말대로 ‘므두셀라’라는 이름이 ‘보냄 받을 것이다’라는 뜻이라면,¹⁰⁾ 그것은 일종의 예언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가 죽은 해에 홍수가 임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라멕이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이름 지으며 한 예언은 노아의 위대한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임할 위로를 대망했을 것이다. 노아의 이름은 ‘안식’을 뜻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수명이 감소되었다. 시편 90장 10절은 70세를 정상적인 연령으로 말하고 있다.

5) 죄악의 관영(貫盈)과 우주적인 홍수(6-8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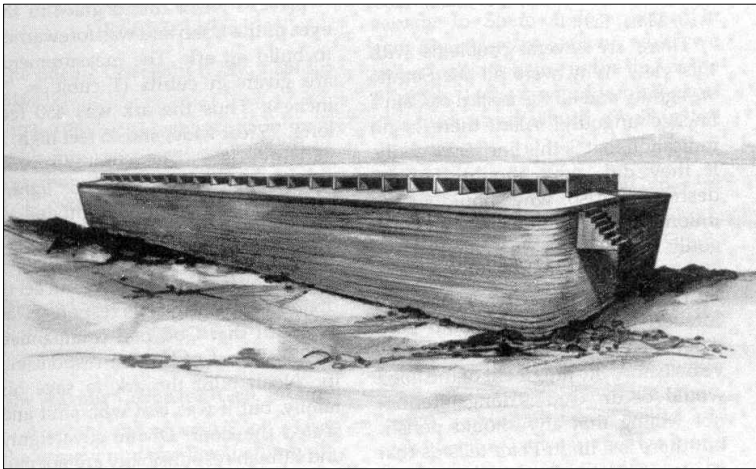
6:1-2 2절 말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주요 해석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고유한 영역을 떠나(유 6절) 이 땅의 여자들과 통혼을 하여 하나님이 심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종의 성적인 무질서를 범한 천사들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이 하

10) (6:25-32)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12.

나님 앞에 있는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유다서 6-7절은 그들의 경계를 떠난 천사들이 사악한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음을 시사해준다. 7절 초반에,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묘사 바로 뒤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란 표현이 나오는 것을 주목하라.

이 견해에 대한 주된 반대는, 천사들은 우리가 아는 한 성적으로 재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이, 천사들은 혼인하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된다. 그러나 그 구절이 실제 말하는 바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의 형태로 나타났으며(창 18:1-5), 그 본문 내용으로 보아 소돔에 간 두 천사는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지녔던 것 같다.

또 하나의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악한 후손이라는 것이다. 그 논증은 이리하다. 즉, 앞의 문맥은 가인의 후손과(4장) 셋의 후손(5장)을 다루고 있다.



▲ 아라랏 산에 물린 노아의 방주 그림

창세기 6장 1-4절은 그 두 계보간의 통혼을 묘사한다. ‘천사들’이란 단어는 문맥상 발견되지 않는다. 3절과 5절은 ‘인간’의 악함을 말해 준다. 만일 범죄한 자가 ‘천사들’이라면, 왜 ‘인간’이 멸절당해야 하는가? 경건한 사람들은 창세기 6장 2절과 똑같은 히브리어 표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고 있다(신 14:1; 시 82:6; 호 1:10; 마 5:9).

이 견해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왜 모든 셋 족속 ‘남자들’은 경건했고 가인의 계보의 ‘여자들’은 불경건했는가? 또한, 셋의 계보가 경건하게 유지되었다는 암시가 일절 없다. 만일 그러했다면 왜 그들이 멸망당해야 했는가? 또한, 왜 그러한 경건한 남자와 불경건한 여자들의 결합이 거인을 생산해야 했는가?

6:3 여호와께서 경고하시기를, 그분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홍수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120년의 연기(延期)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나, 그러나 거기엔 한계가 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노아를 통해 홍수 이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전파한 이는 그리스도였다고 한다(벧전 3:18-20; 벧후 2:5). 그들은 메시지를 거절했으며 지금 옥에 갇혀 있다.

6:4-5 ‘거인’(히브리어로 ‘네페림’-‘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영거는 이렇게 설명한다.

“네페림은 장대한 반신반인(半神半人), 즉 ‘사람의 딸들’(죽을 운명을 지닌 여자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동거함으로 생긴 이상한 자손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범한 극히 괴이한 연합은 전 세계적인 홍수심판이 불가피할 정도로 몹시 충격적인 비정상적인 일이었다.”¹¹⁾

6:6-7 여호와와 슬픔은 그 마음이 임의로 바뀐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인간의 경우엔 슬픔이 종종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만 말이다. 그보다는 인간의 행동상의 변화에 대응하여 하나님 편에서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해준다. 그분은 거룩하신 까닭에 죄에 대하여 반응하셔야만 한다.

6:8-22 노아는 여호와와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방주를 짓도록 미리 경고하심을 받았다. 방주의 척도는 규빗(1규빗은 장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로 약 50cm)으로 밝혀져 있다. 방주는 길이가 150m, 넓이가 25m, 높이가 15m였고, 3층으로 되어 있었다. 16절의 ‘창’은 문자적으로는 ‘빛의 장소’인데 아마도 방주 전체 길이에 미치는 채광 및 통풍을 위한 구멍이었던 것 같다.

노아는 은혜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그의 반응인즉,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것, 곧 인간의 책임적인 행위였다(22절). 노아는 그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방주를 지었으며, 방주의 문을 닫고 인친 이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노아(9절)와 에녹(5:22)은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언급된 유일한 사람들이다. 에녹이 하늘로 휴거된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면, 노아는 천년시대에 지상에서 살기 위해 환란에서 보존되는 신실한

11) (6:45) Unger, *Bible Dictionary*, p. 788.

유대인 잔존자들을 상징해준다.

18절은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최초의 언급을 보여준다. 스킵 드는 8가지 언약을 열거하고 있는데, 에덴 언약(창 2:16), 아담 언약(창 3:15), 노아 언약(창 9:16), 아브라함 언약(창 12:2), 모세 언약(출 19:5), 팔레스타인 언약(신 30:3), 다윗 언약(삼하 7:16), 그리고 새 언약(히 8:8)이 그러하다. 이 8가지 언약과 솔로몬 언약이 곧 이어 소개될 텐데, 말할 필요 없이, 언약과 같은 복잡한 주제는 여러 신학학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여기서 다루는 관점은 전천년적 세대주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성경의 주요 언약들

(1) 에덴 언약(창 1:28-30; 2:16-17)

에덴 언약은 무죄상태의 인간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할 책임이 있게 했다. 그는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받았다. 그는 동산을 경작하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었다. 이 후자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오게 되어 있었다.

(2) 아담 언약(창 3:14-19)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고, 또 뱀과 여자 사이와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에 적대관계가 있을 것을 예고하셨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을 것이고 그 남편의 권위 아래 처할 것이다. 땅은 저주를 받았다. 남자는 땅을 경작할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더불어 싸워야 할 것이다. 그의 노동에는 땀과 피곤이 따

를 것이며 마침내 그는 그 본래 왔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3) 노아 언약(창 8:20-9:27)

하나님은 노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온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 증표로 그분은 무지개를 주셨다. 그러나 이 언약에는 사형(死刑)의 권한을 준 인간정부의 수립이 포함된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기(週期)와 계절의 규칙성을 보증하셨고, 땅에 다시 충만하라고 인간에게 지시하셨고, 그리고 그보다 못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인간에게 다시 부여하셨다. 인간은 이제 이전의 채식(菜食)에 고기를 더할 수 있었다.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사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알기에 메시아 계보에 들어가는 것을 포함하는, 은총의 위치를 셈에게 허락하셨다. 야벳은 창대할 것이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다.

(4) 아브라함 언약(창 12:1-3; 13:14-17; 15:1-8; 17:1-8)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적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세기 15장 12-21절에서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자신을 나타내며 희생된 짐승의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셨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히브리어로 ‘자르다’), 그들은 언약의 조건에 자신들이 구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조각 사이로 함께 걸어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셨다. 즉 제시된 사항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얼마만큼 신실한 자들로 나타나느냐와 상관없이 이뤄질 것이다.

하나님의 옛 백성에게서 아무런 장래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이

언약을 적어도 땅에 관한 조건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자 노력한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혹은 아무런 축복도 남겨놓지 않은 채 모든 축복을 교회의 것으로 돌려버린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다음 약속들을 포함한다. 즉, 큰 민족(이스라엘)을 이루는 것, 유명한 이름을 얻는 것, 다른 이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12:2), 그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고 그 대적들에게는 저주가 되는 것, 만민에게 복이 되는 것(12:3,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 가나안으로, 또 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으로 알려진 땅을 영원히 소유케 되는 것(13:4,15,17), 자연적인 후손과 영적인 후손을 많이 소유케 되는 것(13:16; 15:5), 열방과 열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17:4,6,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17:7하) 등이 그러하다.

(5) 모세 언약(출 19:5; 20:1-31:18)

가장 넓은 의미에서, 모세 언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묘사하는 십계명과(출 20:1-26), 이스라엘의 사회생활에 관한 수많은 규율(출 21:1-24:11), 종교생활을 다루는 세세한 규정(출 24:12-31:18) 등을 망라한다. 그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다. 그것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는 조건적인 언약이었으며, 따라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언약했다’(롬 8:3a). 모세의 십계명은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와 실패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십계명 중 아홉 가지가 신약성경에, 형벌이 첨부된 법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합당한 행위로서 다시 진술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으나, 그러나 보다 높은 동기인 그리스도의 법아래 있다(고전 9:21).

(6) 팔레스타인 언약(신 30:1-9)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애굽강(즉, 나일강이 아 나라 애굽의 시내)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창 15:18) 이르는 땅을 장차 차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한 적이 없었다. 솔로몬 통치 기간에 동쪽 지역의 나라들이 공물을 바치긴 했으나(왕상 4:21,24), 그것은 소유했다거나 차지했다고 볼 수 없다.

팔레스타인 언약은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열방 중에 흩어질 것과,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 여호와(주님)의 재림, 이스라엘의 그 땅에로의 재집결, 그 땅에서의 번성, 그 마음의 변화(여호와를 사랑하고 순종케 됨), 그 대적들에 대한 징벌 등을 내다본다.

(7) 다윗 언약(삼하 7:5-19)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왕국이 영원히 지속될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앉을 후손이 항상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 그것은 다윗의 순종 내지 의로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언약이었다. 그 리스도는 요셉의 계보에서 볼 수 있듯이(마 1장), 솔로몬을 통한 다윗의 위(位)의 법적인 상속자이시다.

그분은 마리아의 계보에서 볼 수 있듯이(눅 3장) 나단을 통한 다윗의 혈통상의 후손이시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시므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 그분의 천년 지상 통치는 영원한 왕국으로 이어질 것이다.

(8) 솔로몬 언약(삼하 7:12-15; 왕상 8:4,5; 대하 7:11-22)

솔로몬 언약은 영원한 나라와 관계되는 한은 무조건적인 것이나,

그 위(位)에 앉을 솔로몬의 후손에 관계되는 한은 조건적인 것이었다(왕상 8:4,5; 대하 7:17,18). 솔로몬의 후손 중 한 사람인 고니야(여고나로도 불리움)는 육체적인 후손이 다윗의 위(位)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렘 22:30). 예수님은 위에서 지적했듯이 솔로몬의 후손이 아니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은 고니아에 대한 저주 아래 처하셨을 것이다.

(9) 새 언약(렘 31:31-34; 히 8:7-12; 눅 22:20)

새 언약은 분명 이스라엘 집 및 유다의 집과 더불어 맺어졌다(렘 31:31). 그것은 예레미야가 글을 쓸 당시엔 미래의 것이었다(렘 31:31). 그것은 이스라엘이 범한 모세 언약과 같이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다(렘 31:32).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약속하시는데(“내가…하리라는 반복된 표현을 주목하라), 즉 성령의 내주하심(겔 36:27),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렘 31:33a),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독특한 관계(렘 31:33b), 이스라엘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함(렘 31:34a), 죄의 사함과 잊혀짐(렘 31: 34b), 그 나라의 영구한 지속(렘 31:35-37) 등을 약속하신다.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아직 새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주님의 재림시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어간에, 참 신자들은 그 언약의 축복 중 일부를 누린다. 교회가 새 언약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주의 만찬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 잔은 그 언약과 또 그것을 인친 피를 상징한다(눅 22:20; 고전 11:25). 또한 바울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도들을 가리켜 새 언약의 일꾼이라 불렀다(고후 3:6).♠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육축이 한 쌍씩 방주에 들어와야 했다. 비

평가들은 주장하기를, 방주가 모든 종류의 동물과 1년 17일간의 식물을 소장(所藏)할 만큼 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방주는 기본적인 종류의 동물과 새들만을 소장했으며 여러 변종(變種)들은 그 후로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방주는 그 정도를 소장하기엔 크기가 충분했다.

7:1 ‘들어가다’는 단어가 1절에 처음 나온다. 이것은 은혜로운 복음의 초청이다. “안전한 방주로 들어가라.”

7:2-18 노아가 왜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취하도록 명령받았는지는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다. 아마도 정결한 짐승은 식물과 제사(8:20)에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다. 방주는 비가 내리기 전 7일 동안 짐승으로 채워졌으며, 그리고 지하의 샘들이 터져 물을 뿜어냈다. 비는 40주야(晝夜)를 계속 내렸는데, 40은 성경에서 실험 내지 시험의 숫자이다.

7:19-24 어떤 이들의 주장대로 이 홍수가 지역적인 것이었을까?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다”는 점을 주목하라(19절). 만일 지역적인 홍수였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 길이가 축구경기장 1배 반 되고, 부피가 철도 차량 800량에 해당하는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지시하실 필요가 없었다. 하나님은 8명의 사람과 짐승들을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시다. 우주적인 홍수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세계 도처에서 발견되어 왔다. 아라랏 산은 높이가 5,156미터에 이른다. 홍수는 그보다 15규빗 더 높았다(19,29절). 이런 높이의 물이 어떻게 기적으로 국부적인 지역에 머물렀

겠는가? 창세기 9장 15절에서, 물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그 후로 많은 지역적인 홍수가 있었으나 우주적인 홍수는 없었다. 만일 이 홍수가 지역적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 것이며, 이것은 불가능한 결론이다. 베드로는 세상이 물로 멸망한 일을, 장차 세상이 불로 멸망할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벧후 3:6).

방주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다.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해 준다. 주 예수님은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물 아래로 지나가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멸망에 처해진다(벧전 3:21).

8:1-19 홍수의 연대기는 다음과 같다.

- ① 7일-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때로부터 홍수가 시작되기까지(7:10).
- ② 40주야-비가 내린 기간(7:12).
- ③ 150일-비가 시작한 때부터 물이 줄고(8:3)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 때까지(7:11과 8:4를 비교하라).
- ④ 224일-홍수 시작부터 산꼭대기가 다시 나타나기까지(7:11과 8:5를 비교하라).
- ⑤ 40일-산꼭대기가 보이던 때부터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낼 때까지(8:7).
- ⑥ 7일-까마귀를 보낼 때부터 비둘기를 처음 보낼 때까지(8:6-10; ‘또 칠일을 기다려’-10절).
- ⑦ 7일 추가-비둘기가 두 번째로 보내질 때까지(8:10).
- ⑧ 7일 추가-비둘기를 마지막으로 보낼 때까지.

⑨ 314일-홍수 시작부터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칠 때까지(7:11과 8:13을 비교하라).

⑩ 371일-홍수 시작부터 땅이 마르기까지(7:11과 8:14을 비교하라). 이 때 노아는 방주에서 나가라는 명령을 받았다(16절).

부정한 까마귀와(7절) 정결한 비둘기(8절)는 신자의 옛 성품과 새 성품에 대한 좋은 예이다. 옛 성품은 쓰레기와 썩은 고기를 좋아 하는데 비해 새 성품은 죽음과 심판의 현장에서는 만족을 발견할 수 없다. 새 성품은 부활의 땅에 밭을 딛기까지는 안식을 발견하지 못한다.

8:20-22 노아는 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반응했다. 마찬가지로, 장차 올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는 예배를 드려야 마땅하다. 노아 당시에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그러한 예배는 받으실만한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앞서 행했듯이 다시는 땅을 저주하거나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하셨다. 그리고 땅이 존재하는 한 일정한 계절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하셨다.

6장 5절과 여기 21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 말씀하셨다. 6장의 경우엔 제사가 없고 그 결과 심판이 임한데 비해, 여기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은 자비 가운데 행하신다.

6) 홍수 이후의 노아(9장)

9:1-7 3절은,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고기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피를 먹는 것은 금지되었는데 그것

은 피가 육체의 생명이며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었다.

사형제도는 정부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사람마다 임의로 보복살인을 자행한다면 혼돈이 야기될 것이다. 오직 적법하게 세워진 정부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신약성경은 정부에 대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롬 13:4)라고 말함으로써 사형(死刑)을 영구화시키고 있다.

9:8-17 무지개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으로 주어졌다.

9:18-23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술 취하고 또 그렇게 하여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누움으로써 죄를 범했다.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알렸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보지 않은 채 그 수치를 가려주었다.

9:24-25 노아는 잠에서 깨자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언했다. ‘왜 함 대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함에게서 나타난 악한 성향이 가나안에게서 더욱 악하게 선언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저주는 그와 같이 그의 부도덕한 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형벌에 대한 예언이었다.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가나안 자신이 그의 조부(祖父)에게 불경스런 일을 저질렀으며 후에 노아가 그 일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노아는 그의 작은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었다. 24절은 노아의 작은아들인 함을 가리키기보다는 노아의 막내 손자인 가나안을 가리킬 수도 있다. 성경에서 ‘아들’은 종종 ‘손자’나 다른 후손을 의미한

다. 이 사건에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버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노아가 인류의 3분의 1이 아닌 함의 후손의 한 적은 부분만을 저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9:26-29 가나안은 셈과 야벳을 섬기라는 저주를 받았다. 가나안족이 이스라엘 민족에 종된 모습이 여호수아 9장 23절과 사사기 1장 28절에 나타나 있다. 본문은 흑인종의 노예됨을 시사하는 말씀으로 인용되곤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견해를 지지할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이 이르기 전에 성지(聖地)에 거주하던 가나안족의 조상이었다. 그들이 흑인이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셈과 야벳은 지배권의 축복을 받았다. 27절은 야벳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함께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셈과 야벳 중 누가 노아의 장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0장 21절 말씀은, “셈은 형 야벳의 동생이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셈은 야벳의 형이라”(새흫정역 난하주)로 옮겨질 수도 있다. 그 중 후자(後者)가 더 나은 번역이다. 셈은 창세기 5장 32절과 역대상 1장 4절의 계보상에 먼저 나온다.

7) 민족들의 목록(10장)

10:1-32 셈, 함, 야벳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

셈 : 셈족 - 유대인, 아랍인, 바벨론인, 앗수르인, 아람인, 베니게인

함 : 함족 - 에디오피아인, 애굽인, 가나안인, 블레셋인, 아마도 아

프리카 및 동양인(많은 학자들은 동양인을 야벳족으로 본다)

야벳: 야벳족- 메대인, 헬라인, 구브로인 등. 아마도 유럽 및 북아프리카의 코카시아인. 많은 학자들은 동양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본다.

본장의 순서는 야벳의 아들(2-5절), 함의 아들(6-20절), 셈의 아들(21-31절) 순이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구약의 나머지 기간 동안 셈과 그의 후손에게 초점을 맞추신다. 5절의 여러 언어들만으로도 바벨탑 이후의 시간을 대망할 것이다(11:1-9).

본장에서 사람들이 나뉘는 것을 말하는 세 군데 참조구절을 주목하라. 5절은 야벳 족속이 여러 지역으로 나뉘는 것을 묘사해준다. 25절은 벨렉 시대에 세상의 나뉘(바벨에서)이 일어났음을 말해준다. 32절은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서론 역할을 하는데, 그 11장에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이 각기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으로 나뉘었다.

니므롯(8-10절)은 ‘반역’을 뜻한다. 그는 홍수 이후로 최초의 ‘세상의 영걸’로(8절), 그리고 최초로 ‘나라’를 세운 사람으로(10절) 나와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바벨(바벨론)을 건설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의 또 다른 숙적인 앗수르에 니느웨를 건설했다(11절).

이미 언급한대로 21절은 셈을 야벳의 형으로 소개한다.

여러 민족들이 정착한 장소를 정확히 밝히기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다음 사실들이 이후의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시스(4절)- 스페인

깃딤(4절)-구브로

구스(6절)- 에디오피아

미스라임(6절)- 애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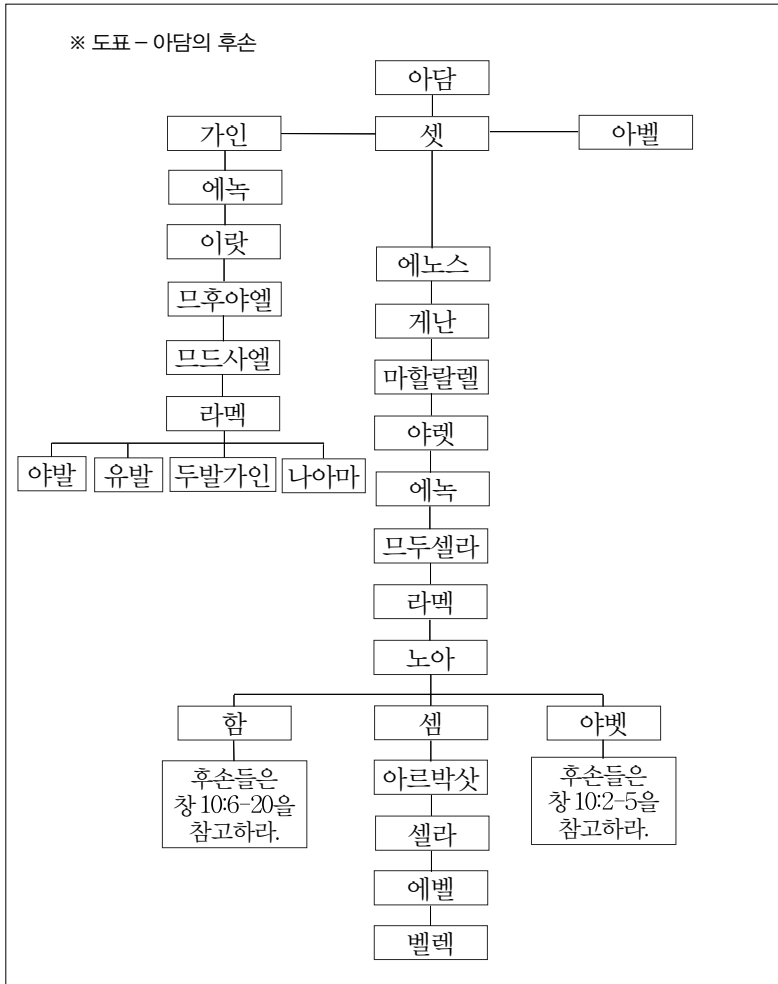
붓(6절)- 리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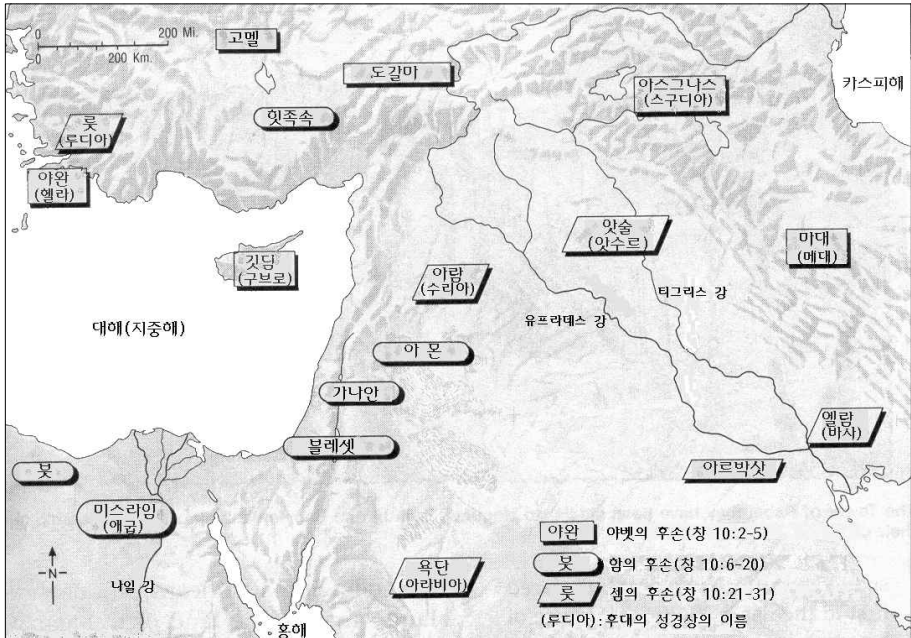
가나안(6절)- 팔레스타인

앗수르(11절)- 앗수르

엘람(22절)- 바사

아람(22절)-시리아, 메소포다미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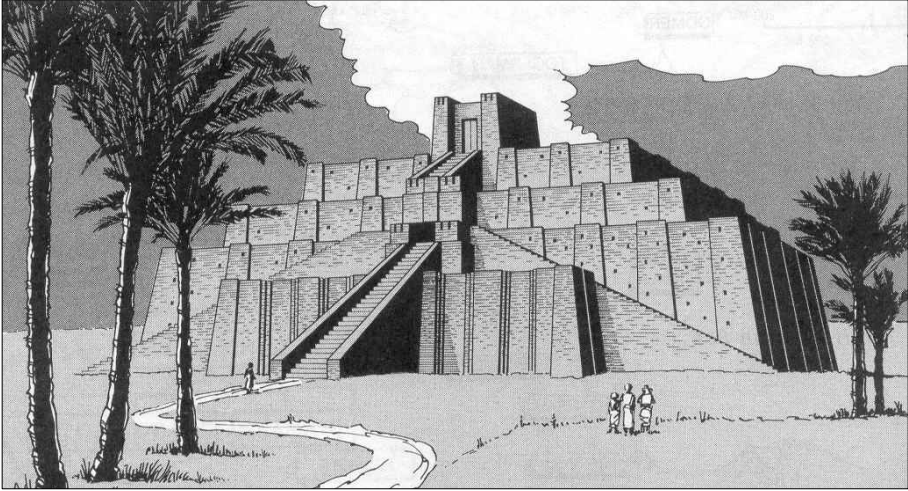




▲ 창세기 10장의 여러 지역들

8) 바벨 탑(11장)

11:1-4 연대적으로 11장 이후에 위치하는 10장에서 인류는 언어에 따라 나뉘었다(5,20,31절). 이제 우리는 그러한 나뉘는 원인을 알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 땅에 흠어지는 대신 시날(바벨론)에 성과 탑을 쌓았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고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만(우리의 이름을 내자)과 거부(흠어짐을 면하자)의 전략이었다. 우리에게 이 ‘탑’은 구원을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기 행위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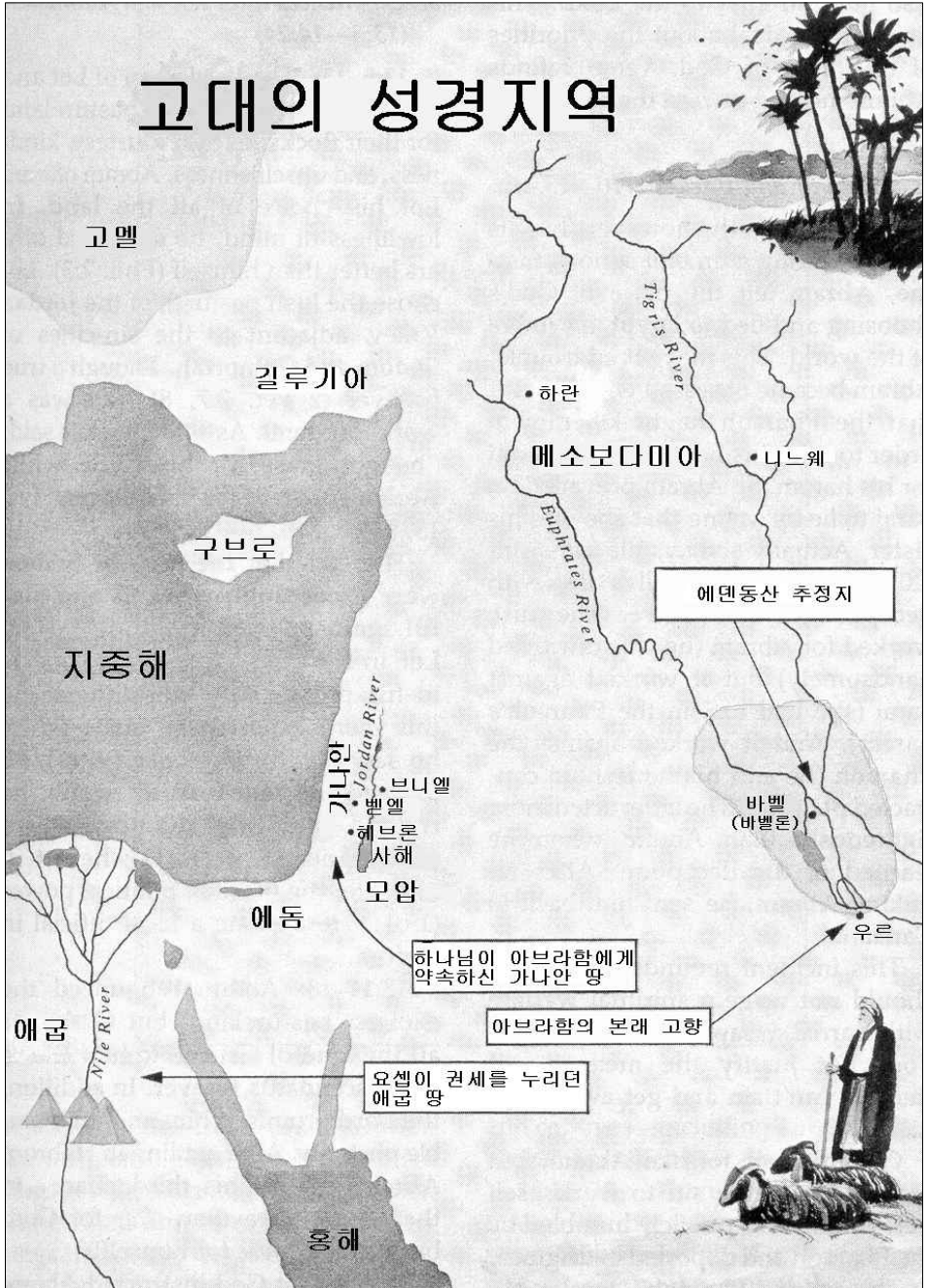
▲ 바벨탑은 바벨론인이 그 주신(主神) 말덕을 숭배하는 곳으로 지은 지구랏과 유사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애쓰는 타락한 인간의 노력을 상징할 수도 있다.

11:5-9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다양한 언어의 기원이었다. 오순절(행 2:1-11)은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었다는 점에서 바벨탑 사건의 역전(逆轉)이었다. 바벨은, 하나님을 제외시킨,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연합의 필연적인 결말인 ‘혼돈’을 의미한다.

11:10-25 이 단락은 셈에서 아브람에 이르는 계보를 추적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인 기록은 한 종족에서 그 종족의 한 줄기로, 그런 다음 한 사람, 즉 히브리 민족의 머리가 되는 아브람에게로 범위를 좁혀간다. 구약성경의 나머지는 주로 그 민족에 대한 역사이다.

고대의 성경지역



▲ 고대의 성경 지역

11:26-32 아브람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이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다. 3대 세계종교(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그를 존경한다. 그는 구약성경 중 16권과 신약성경 중 11권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의 이름은 ‘높임 받는 아비’를 뜻하며, 바뀐 이름으로는 ‘많은 무리의 아비’를 뜻한다.

여기에는 산술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데릭 키드너(Derek Kidner)는 이렇게 설명한다.

“테라의 사망 연대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의 장자는 135세인데 반해(26절) 아브람은 겨우 75세였기 때문이다(12:4, 행 7:4와 비교). 한 가지 해결책은, 아브람이, 장자가 태어난 지 60년 후에 태어난 막내아들이었으나 그 뛰어난 위치로 인해 11장 26, 27절에 첫 자리에 소개되었다는 것이다(에브라임이 므낫세 앞에 위치했듯이). 또 하나의 설명은, 사마리아 사본을 좇아서 테라의 사망 연령을 145세로 잡는 것이다. 이 후자의 설명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만일 부친이 그를 130세에 낳았다면 아브람은 17장 17절의 탄성을 발할 리 없었을 것이다.”¹²⁾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31절)는 이방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다. 테라와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서북쪽인 하란으로 이동했다.

12) (11:26-32) Derek Kidner, *Genesis*, p. 112.

2. 이스라엘의 족장들(12-50장)

1) 아브라함(12:1-25:18)

(1) 아브라함의 소명(12:1-9)

12:1-3 여호와와 부르심이 아브람에게 임한 것은 그가 우르에 있었을 때였다(1절과 사도행전 7:1-2 비교). 아브람은 그의 나라(본토)와 가족(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순례의 삶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히 11:9).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약속들을 포함하는 놀라운 언약을 아브람과 더불어 맺으셨다. 땅-즉, 가나안 땅. 큰 민족-즉, 유대 민족. 아브람과 그의 후손을 위한 물질적 영적 번성. 아브람과 그의 후손을 위한 창대한 이름.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친구들은 축복을 받고 반(反)셈족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람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는 아브람의 후손이 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이다. 이 언약은 13장 14-17절; 15장 4-6절; 17장 10-14절; 22장 15-18절 등에서 갱신되고 확장되었다.

12:4-9 ‘하란에서의 낭비된 세월’, 즉 진보가 없는 세월을 보낸 후에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다른 친척과 소유물을 거느

리고 가나안으로 이동했다. 그들은 먼저 세겜에 이르렀으며, 거기서 아브람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적대적인 가나안족의 존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전혀 장애가 아니었다. 아브람은 이어서 벧엘(하나님의 집)과 아이 사이로 옮겼다. 늘 그렇듯이 그는 자신을 위해서 장막을 쳤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우선순위에 대한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9절은 아브람이 남방(네게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애굽 이동 및 귀환(12:10-13:4)

12:10-20 그러나 믿음은 하락하는 때가 있다.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람은 하나님이 택해주신 곳을 떠나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피신했다. 이러한 이동이 문제를 일으켰다. 아브람은 그의 아름다운 아내 사래를 취하기 위해 바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람은 사래를 설득시켜 그녀가 그의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했다. 사실 그녀는 그의 이복 누이였다(20:1-2). 그러나 그것은 그 동기가 속임수이기에 여전히 거짓말이었다. 그 계략은 아브람에게는 이로운 것이었으나(그는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 사래에게는 해로운 것이었다(그녀는 바로의 후궁에 속해야 했다). 또한 그 계략은 바로에게도 해로운 것이었다(그와 그의 가족이 재앙을 겪었다). 바로는 그 속임수를 알게 되자 아브람보다 의롭게 행동했다. 그는 아브람을 꾸짖은 뒤에 그를 가나안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육신적인 무기로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죄를 범하고 아무 일 없이 빠져 나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버리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그 모습을 드러내

도록 허락하셨다. 아브람은 바로에 의해 공적으로 낮추임을 당했으며 불명예스럽게 추방을 당했다.

‘바로’란 명칭은 고유한 이름이 아니라 왕이나 황제, 대통령 등과 같은 칭호이다.

13:1-4 아브람이 애굽에서 벨엘로 돌아온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사귄으로 돌아온 것을 의미했다. “벨엘로 돌아오라”는 호소는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것이다.

(3) 롯과 아비멜렉과의 경험(13:5-14:24)

13:5-13 롯의 목자들과 아브람의 목자들이 가축을 먹일 초장문제로 다투었다. 아브람은 진정한 예의와 친절과 이타심에서 롯에게 온 땅 중에서 선택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참으로 겸손하게도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존중히 여겼다(빌 2:3).

롯은 최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에 인접한 요단 평원을 택했다. 롯은 비록 참 신자이긴 했으나(벧후 2:7-8) 세상을 친근히 한 사람이었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그는 가축을 위한 풀을 얻었으나 아브람은 자손을 위한 은혜를 얻었다”(15-16절).

소돔 사람이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롯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가 세속성에 빠져드는 단계를 주목해 보라. 그(그의 사람들)는 다툼을 경험하고(7절), 보고(10절), 선택하고(11절), 그곳을 향해 장막을 치고(12절),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데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주거를 정하고(14:12), 정치적인 권세의 위치인 성문에 앉았다(19:1). 그는 소돔성의 한 관리가 되었다.

13:14-18 아브람은 최선의 초장을 거절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토록 허락하셨다. 게다가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 헤브론에 정착한 후에 아브람은 여호와께 세 번째 단을 쌓았다.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은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온 땅을 두루 행하며 소유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신 것을 보라.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소유해야 한다.

14:1-12 본장의 주요 사건들이 일어나기 13년 전에 엘람(바사)왕 그돌라오멜이 사해(염해)에 인접한 평지의 여러 왕들을 정복한바 있었다. 제 13년째 되는 해에, 다섯 포로 된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반역을 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지경의 다른 세 왕과 동맹을 하고 사해 동편을 따라 남부로 진격한 다음 서편을 따라 북부로 진격하여 소돔과 고모라 및 평지의 다른 성들을 쳤다. 이 전투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 싯딤 골짜기에서 벌어졌다. 침략자들은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노략물과 포로(아브람의 실족한 조카 롯을 포함)를 취하고는 북부로 올라갔다.

14:13-16 아브람은 이 소식을 듣자 380명의 훈련된 전사를 모아 승리자들을 좇아 북쪽 단으로 올라갔다. 결국 그는 수리아의 다메섹 근처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롯과 모든 약탈물을 찾아왔다. 믿음의 퇴보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어려움을 끼친다. 여기서 아브람은 겐으로 롯을 구해냈다. 후에 그는 중보기도로 그를 구해낸다(18-19장).

14:17-18 아브람이 집에 돌아오자 소돔 왕이 그를 맞으러 나왔다. 큰 영적인 승리 후에 종종 사단이 신자를 시험하듯이 말이다. 그러나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강건케 해주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손에 들고 나왔다. ‘떡과 포도주’에 대한 이 최초의 언급을 대할 때 우리는 우리 구주의 고난에 대한 상징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그 대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게 된다.

성경의 이름들은 의미가 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을 뜻하며, 살렘(예루살렘의 약자)은 평강을 뜻한다. 즉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었다. 그는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요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얘기한 것은 그의 제사장직과 관련해서만 이해되어야 한다. 대부분 제사장들은 그 직분을 물려받았고 또 제한된 기간 동안 섬겼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성경의 기록에 관한한, 그 부모로부터 전해진 것도 아니요 시작도 끝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것이다(시 110:4; 히 7:17).

14:19-20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축복했고, 아브람은 이어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신이 취한 모든 노획물의 십분의 일을 주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우리는 이 행위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

을 알게 된다. 아브람은 아론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는 아론의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했다는 사실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제사장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는 사실은 아론의 제사장직이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낮은 자가 큰 자에게 십분의 일을 바치기 때문이다.

14:21-24 소돔 왕은 사실상 “사람은 내게 주고 당신은 물건을 가지라”고 말한 것이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멸망해가고 있는데 하찮은 장난감에 푹 빠져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아브람은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일절 취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4) 아브람의 약속된 후사(15장)

15:1 이 첫 구절은 앞의 14장 마지막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족장이 소돔 왕의 상급을 거절한 까닭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그에게 이르셨으며, 이 말씀으로 인해 아브람은 보호를 받고 또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요케 되었다.

15:2-6 자식이 없던 아브람으로서 그는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그들의 후사가 될 것을 염려했는데 당시엔 그렇게 하는 것이 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한 아들과, 별처럼 무수한 후손을 약속하셨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이것은 불가능했다. 왜

나하면 사랑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지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가 의롭다고 선언하셨다. 여기에 밝히 선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진리는 로마서 4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6절 및 야고보서 2장 23절에 반복되어 있다.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일찍이 티끌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고, 여기서는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다. ‘티끌’은 아브람의 자연적인 후손, 즉 출생에 의한 유대인들을 묘사해주며, ‘별’은 그의 영적인 후손,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들을 묘사해준다(갈 3: 7).

15:7-21 후손(1-6절)과 땅(7,8,18-21절)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색적이고도 의미심장한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셨다(9-21절). 데이빗 베론(David Baron)은 이렇게 설명한다.

“고대 근동의 언약체결 방법에 따르면,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살해된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맺은 약속을 지킬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다(렘 34:18-19). 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로 그 임재(臨在)가 상징화된 하나님만이 죽인 짐승 조각 가운데로 통과하셨고 아브람은 단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전시(展示)를 지켜볼 뿐이었다.”¹³⁾

이것은 그 언약이 하나님 편에서만 성취에 의존한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음을 나타내 주었다.

이 대목에 대한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희생물 조각은 이스라엘

13) (14:7-21) David Baron,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민족을 나타내고, 독수리는 이방 민족을 말해준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땅은 물론 애굽이다. 이스라엘은 네 세대만에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에 돌아올 것이다. 연기 나는 풀무와 타는 횃불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운명-고난과 증거-을 묘사해준다.

이스라엘의 해방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까지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 가나안의 이방 거민들은 결국 멸절되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악(惡)으로 그 길을 가도록 허락하시며, 그것을 심판하기 전에 종종 그분의 백성에게 해(害)가 되는 것과 같은 상황까지 허락하신다. 그분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타락한 아모리 족속까지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벧후 3:9). 또한 그분은 그 두려운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뚜렷이 나타날 정도로 악이 번성하는 데까지 허락하기도 하신다. 이렇게 할 때 그분의 진노는 온전히 의로운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13-14절은 연대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는 아브람의 백성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가혹한 종살이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마치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를 떠나올 것이라고 예고한다. 사도행전 7장 6절에 이 400년이란 수치가 반복되고 있다.

출애굽기 12장 40-41절에서 우리는 애굽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날까지 430년간 객(客)이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언약이 확증될 때부터 율법이 주어지기까지 기간이 430년이었다고 말한다.

이상의 수치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창세기 15장 13-14절과 사도행전 7장 6절에 언급된 400년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기간을 가리킨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속박을 당하지 않았다. 그 반대로 그들은 귀인 대접을 받았다.

출애굽기 12장 40-41절의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오늘날까지 보낸 그 전 기간을 가리킨다. 이것은 정확한 수치이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의 430년은 출애굽기 12장 40-41절과 거의 같은 기간을 가리킨다. 그 기간은 야곱이 막 애굽으로 들어가려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확약하신 때로부터 계산해서 출애굽 약 석달 후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를 가리킨다.

창세기 15장 16절의 4대는 출애굽기 6장 16-20절의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의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다. 18-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약속된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 땅을 속국(屬國)으로 다스린바 있으나(왕상 4:21-24) 그의 백성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성취될 것이다. 아무 것도 그 성취를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다!

‘애굽 강’(18절)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나일이 아닌 와디 엘 아리쉬로 알려진 가사 남쪽의 시내로 믿어진다.

(5) 욱신의 아들 이스마엘(16-17장)

16:1-6 여기 죄의 본성의 불안함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대신 사래는 아브람을 설득시켜 여종 하갈을 통해 아이를 얻도록 했다. 이 하갈은 아마도 전에 애굽에서의 불행한 체류 기간에 얻은 종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비록 그런 일을 인정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의 백성의 변칙적인 혼인관계를 기록해두는데 있어 신실하시다. 하갈은 아이를 배자 그 여주인을 경멸했다. 이에 사래는

아브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는 하갈을 집에서 쫓아냈다. 이것은 율법과 은혜 사이의 갈등을 예시해준다(갈 4:21-31). 여기에 나오는 몇몇 장면들은 이 당시엔 문화적으로 용인되었을 것이나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확실히 변칙적인 일들이다.

16:7-15 하갈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수르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와 사자가 그녀에게 이르렀다. 이 사자는 그리스도의 현현(顯現)으로 알려진, 성육신 이전에 자기를 나타내신 주 예수님이다(사사기 6장의 여호와와 사자에 대한 해설을 참조하라).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서 사래에게 복종하라고 권한 다음 그녀의 아들이 한 큰 민족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물론 아랍 민족을 통해 성취되었다. “돌아가서…복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많은 이들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왔다.

13절의 하갈의 감탄은 “당신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달리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는 그녀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우물을 가리켜 ‘브엘 라헤로이’(문자적으로, ‘살아 계시며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라고 이름지었다.¹⁴⁾

16:16 아브람이 86세일 때 이스마엘이 하갈에게서 태어났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 그분은 하갈의 불행을 들으셨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하갈은 율법을 나타내는 반면 사래는 은혜를 나타낸다는 점이다(갈 4장).

14) (16:7-15) F. Davidson, *The New Bible Commentary*, p. 90.

17:1-14 1절의 아브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람이 자신의 힘으로 일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하시도록 맡겨야 한다는 암시적인 말씀이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 족장의 이름을 아브람(준귀한 아비)에서 아브라함(열국의 아비)으로 고쳐주셨다. 그리고 언약의 표로 할례가 제정되었다. 사내아이에게 행해지는 이 외과수술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상선민에게 속했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였다. 비록 그것이 그 당시에 근동지역에서 이미 행해진 일이긴 하나, 아브람과 그 가족에게는 새로운 의미가 있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았으며, 그 후로 모든 사내아이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제함을 당해야 했다(9-14절). ‘끊어진다’는 표현은 때때로 출애굽기 31장 14,15절과 같은 곳에서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문과 같은 곳에서는 다만 추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여진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점을 주의 깊게 지적한다(15:6). 그의 할례는 그가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나타내는 표였다(롬 4:11). 오늘날 신자들은 육체적인 표로 인침을 받는 대신 회심시에 성령의 인침을 받는다(엡 4:30).

할례의 표

할례는 그분과 그분의 백성간의 언약의 육체적인 표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다(창 17:10-14). 즉,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할례자’로 알려지게 되었고(행 10:45), 이방인은 ‘무할례자’로 불려졌다

(엡 2:11). 또한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소유한 의(義)에 대한 표시이자 인침이다(롬 4:5).

그러나 ‘할례’, ‘할례 받다’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할례 받지 못한 입술’(출 6:12; KJV역 참고)은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했다. ‘할례 받지 못한 귀’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치 못한 것을 가리켰다(레 26:41; 신 10:16; 30:6; 렘 6:10; 행 7:51). ‘육체의 할례 받지 못함’(골 4:7)은 부정함을 의미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할례’(골 2:11)는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가리킨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통해 할례를 받는다.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죄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표현한다(골 2:11). 이 할례는 육신적인 본성에 대해 죽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신분상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사실이나, 육신의 죄악된 행실을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이 그 뒤에 따라야 한다(골 3:5). 사도 바울은 ‘할례자’로 알려진 유대인 율법주의자 무리와 대조적으로(갈 2:12), 신자들을 ‘참된 할례자’로 말하고 있다(빌 3:3).

그 속에 내포된 상징성에 추가하여, 어떤 하나님의 인자한 율법들은 이방인의 질병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구원할 의도로 제정되었다. 오늘날 많은 의학자들은 할례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일정한 형태의 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17:15-17 하나님은 사래의 이름을 사라(왕후)로 고쳐주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9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주셨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웃었는데 그 웃음은 불신에서 나온 것

이 아니라 너무 놀라고 기뻐서 나온 것이었다.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롬 4:18-21).

17:18-27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청하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반면에 이스마엘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었다. 이삭은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었는데, 그 언약은 그분을 통해 그 궁극적인 성취에 이를 것이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신속함을 주목하라.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으며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그러했다.

(6) 소돔과 고모라(18-19장)

18:1-15 17장의 사건이 있는 지 얼마 뒤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 게 나타났다. 사실 그 중 둘은 천사였고 하나는 여호와 자신이었다. 근동지역의 전형적인 손 대접 예를 좇아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지중에 천사들을(히 13:2), 그리고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을 접대했다. 사례가 1년 안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엿듣고 웃은 것은 그녀의 불신을 나타낸 웃음이었다. 그녀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는 감찰하는 물음으로 책망을 들었다. 그러나 그녀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되풀이되었다(9-15절).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사라가 이러한 순간적인 실수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말해준다.

18:16-33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후에, 그리고 두 천사가 그 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동안, 아브라함

의 위대한 중재기도가 시작되었다. “오십…사십오…사십…삼십…이십…십.” “의인 10명을 위해서라도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효과적인 중재기도의 놀라운 본이 된다. 그 기도는 온 땅의 심판자의 의로운 성품에 기초하며(25절), 하나님을 친근히 아는 지식만이 가져다줄 수 있는 담대함과 깊은 겸손을 드러내준다. 아브라함이 간청을 멈추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는 그 문제를 매듭짓고 떠나셨다(33절). 우리의 인생에는 25절의 진리가 유일한 만족스런 해답이 되는 많은 가리어진 일들이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뛰어난 가장으로 높이신 찬사를 지나치지 말라(19절). 참으로 흠모할 만한 축복이 아닌가!

19:1-11 소돔이란 이름은 동성애의 죄악과 동일한 의미가 돼버렸다. 그러나 성적인 타락만이 그 성이 멸망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었다. 에스겔 16장 49-50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소돔의 죄악을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으로 묘사하셨다.

룻은 두 천사를 영접한 다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할 위험을 뻔히 내다보고는 그의 집에서 밤을 보낼 것을 간청했다. 그럼에도 소돔 사람들은 이 하늘에서 온 방문객들에게 동성애적인 강간을 범하려 했다. 룻은 어찌하든 손님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냉혹하게도 그의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주려 했다. 그 날의 위험은 기적 없이 피할 도리가 없었다. 즉 천사들이 소돔 사람들로 잠시 그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동성애

구약(창 19:1-26; 레 18:22; 20:13)과 신약(롬 1:18-32; 고전 6:9; 딤후 1:10) 모두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를 정죄하신다. 그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심으로 그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드러내셨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되었다. 동성애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소위 ‘동성애자’들은 그들의 부도덕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값을 톡 톡히 치르고 있다. 바울은 그들이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다(롬 1:27하). 이에는 성병과 육중(肉腫, 암의 일종)과 에이즈가 포함된다. 또한 상습적인 범죄와 정신적 정서적 장애와 비정상적인 인성 변화 등이 포함된다.

다른 모든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들도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를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하신다.

동성애를 범하는 것과 동성애적인 성향을 지니는 것은 차이가 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동성애를 범하는 것이지 그런 성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관심이 있지만 더 이상 관심을 발전시키기를 거절하고 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훈련시켜 그러한 유혹을 거부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 동성애적 성향을 지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런 상태를 슬픔과 뉘우침 가운데,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으로 바라다보며, 진실로 거룩케 하는 힘이 되시는 성령께 인내와 순결의 능력을 구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한 가운데, 그 속에 거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도록 하고 있다.”¹⁵⁾

어떤 이들은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데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그러나 잘못된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의 죄성에 있다. 아담의 모든 타락한 자녀는 악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 어떤 이는 이런 영역의 악함을, 어떤 이는 저런 영역의 악함을 지니고 있다. 죄는 단순히 유혹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유혹에 굴복하는 문제이다.

모든 종류의 정욕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동성애에 대해서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 경건한 상담을 통한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은 채 그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인 까닭에 신자들은 그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 거룩한 삶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히 12:14).♠

19:12-29 천사들은 롯과 그 가족이 그 도성을 떠날 것을 강권했다. 그러나 롯이 사위들(아마도 장래 사위감을 가리킴-RSV 참조)을 설득시키려 하자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롯의 침체된 삶의 방식이 위기가 왔을 때 그의 증거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아침이 밝자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빠져 나왔다. 이때에도 롯은 주저주저하며 최악의 도성 중 하나인 소알에 머무르기를 원했다.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을 찾을 수 없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그 성을 멸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그 옆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

15) (부록) Bennett J. Sims, "Sex and Homosexuality," *Christianity Today*, February 24, 1978, p. 29.

롯의 아내는 그 성을 떠나기는 했으나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성 안에 있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말았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씀에서(눅 17:32)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제안하는 구원을 경홀히 여기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경고로 그녀의 사례를 언급하셨다.

19:30-38 롯은 소알을 떠나 산속의 동굴로 피신했다. 거기서 그의 딸들이 그를 만취케 하여 그들과 동침을 하게 했다. 이에 큰딸은 모압이란 이름의 아들을 낳았고, 작은딸은 벤암미란 이름의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지속적인 가시가 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시작되었다. 후에 이스라엘 남자들로 간음을 범하도록 유인한 이들이 모압 여인들이었고(민 25:1-3),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을 포함하여 몰렉을 숭배하는 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준 이들이 암몬 족속이었다(왕상 11:33; 렘 32: 35). 우리는 베드로후서 2장 7,8절을 통해 롯이 의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세속성으로 인해 그는 그의 간증과(14절), 아내와(26절), 사위와 친구들과 그 속한 사회와(소돔에는 아무도 없었다), 재산과(부자로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인품과(35절), 평생의 사역을 잃고, 또 생명마저 잃을 뻔했다(22절). 그의 딸들의 타락한 행동은 그들이 소돔의 타락한 도덕기준에 영향 받았음을 보여준다. 어찌 그런 결과를 피하겠는가!(히 2:3).

(7) 아브라함과 아비멜렉(20장)

20:1-18 아브라함이 20년이 안되어 다시 사라를 그의 누이로 속이는 큰 실수를 범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우리 자

신이 죄에 대해 늘 연약성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할 때까지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아비멜렉과 더불어 겪은 일은 그가 애굽에서 보여준 속임수의 재판(再版)이라 할 수 있다(12:10-17).

하나님이 이삭의 출생을 통한 그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입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그 목적은 좌절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죽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셨다. 하나님은 역사의 능선에 선 한 방관자에 불과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거듭나지 못한 이의 생명을 취해서라도 자기 백성의 악을 제거할 수 있으시다.

여기서는 이교도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벗’인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게 행했다. (아비멜렉은 칭호이지 이름이 아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 타당한 책망을 듣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반(半)진리가 온전한 진리로 제시된다면 그것은 비진리이다.

아브라함은 심지어 하나님이 처음에 그로 방황하게 하셨다고 말함으로 잘못의 일부를 하나님께 돌리려고까지 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의 온 가족이 불임(不妊)에서 치유함을 받도록 하셨다.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란 표현은(16절) 문자적으로 ‘눈을 가리우게 하였다’인데 이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그것은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 ‘그것은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잘못을 교정 받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만족스런 대가로 너에게 주어진 것이다.’

(8) 약속의 아들 이삭(21장)

21:1-10 약속된 아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태어났을 때 감격한 양친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웃음)이라고 이름지었다(17:19,21). 이것은 그들 자신의 기쁨과, 그 소식을 들은 모든 이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다. 이삭은 아마도 2세에서 5세가량 되었을 때 젖을 떼었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그 때 13세에서 17세 사이였을 것이다. 젖을 떼는 날의 연회석상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자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고 간청했다. 바울은 이 행동을, 율법이 은혜를 핍박하고, 율법과 은혜가 한데 섞일 수 없으며, 또 영적인 축복은 율법적인 원리로는 얻을 수 없다는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갈 4:29).

21:11-13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잃을 것을 염려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큰 민족의 아버가 될 것이라는 약속으로 그를 위로해주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이삭이 그를 통해 언약이 실현될 약속된 아들임을 분명히 말씀해주셨다.

21:14-21 하갈과 그 아이가 가나안 남쪽 광야에서 갈증으로 거의 죽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한 샘을 발견케 하였고 이에 그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이스마엘은 이 때 10대의 나이였으며, 따라서 15절은 하갈이 탈진한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스마엘의 이름(하나님이 들으심)이 17절에 두 번 발견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기도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21:22-34 22절의 아비멜렉이 20장에 나오는 아비멜렉과 반드시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족장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에게서 우물을 빼앗아갔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우호 조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그 빼앗긴 우물 얘기를 꺼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우물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언약이 맺어졌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 우물을 브엘세바(맹세의 우물)라 이름지었다. 이 장소는 후에 그 땅의 남단(南端) 경계를 표하는 도시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그 기념으로 에셀나무를 심었다.

(9) 이삭을 제물로 바침(22장)

22:1-10 아마 성경에서 갈보리를 제외하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이보다 더 뚜렷이 예시해주는 장면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최고의 시험을 받게 되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그런 일을 겪게 하실 의도가 없으셨다. 그분은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늘 반대해오셨다. 모리아는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고(대하 3:1) 또 갈보리가 서 있는 산지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신 아브라함의 말씀은 필경 깊은 상처처럼 아브라함의 가슴을 꿰뚫었을 것이다. 이삭은 유일한 약속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었다. 하나뿐인 아들, 기적적인 출생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었다.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종종 성경 전체상의 그 용례의 틀을 정해주게 된다. ‘사랑’(2절)과 ‘예배’(5절)가 여기에 처음 발견된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주 예수

님에 대한 사랑을 희미하게 보여준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것은 가장 위대한 예배 행위,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주의 자기희생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22:11-12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두 번 이름을 부르는 열 번의 사례 중 첫째이다. 그 일곱 번은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경우이다(창 2:11; 46:2; 출 3:4; 삼상 3:10; 눅 10:41; 22:31; 행 9:4). 나머지 세 번은 마태복음에 나온다(7:21-22; 23:37; 막 15:34). 이 사례들은 관련된 문제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여호와와 그의 사자’(11절)는 하나님이셨다(12절).

22:13-15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확실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최고의 시험이었다. 하나님은 앞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통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삭은 이때쯤 25세가량 되었을 것이며 아직 미혼이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면 어떻게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실 것을 믿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것은, 세계 역사상 이 때까지 부활에 대한 기록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22장 5절에 나타난 그의 믿음을 주목하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로리라.”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며(15:6),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타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약 2:21). 그의 믿음은 그의 구원의 수단이었으며, 그의 행위는 그의 믿음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이삭이 묻자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 하시리라.”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13절의 어린양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양을 통해서 성취되었다(요 1:29).

본장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두 가지 두드러진 상징이 나온다. 이삭이 그 첫째인데, 그는 아버지의 사랑 받는 독자이며, 기꺼이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했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돌려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죄 없는 희생이었으며, 그 피가 흘려졌으며,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라진 번제였다. 어떤 이의 표현에 의하면, 어린양을 이삭을 위한 대속물로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분 자신은 피하지 않을 고통을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없애 주셨다”고 했다. 11,15절의 ‘여호와와 사자’는 구약 전체에서 그렇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지었다(14절).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일곱 가지 복합적인 명칭 중 하나이다.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

여호와 로페카 -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출 15:26).

여호와 닛시 - ‘여호와는 나의 기(旗)’(출 17:8-15).

여호와 살롬 - ‘여호와는 우리의 평강’(삿 6:24).

여호와 로이 -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23:1).

여호와 시드케누 - ‘여호와는 우리의 의’(렘 23:6).

여호와 삼마 - ‘여호와가 임재하시다’(겔 48:35).

22:16-19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더 큰 이로 맹세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히 6:13). 여기 그분의 맹세로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민족들의 축복을

포함한다(갈 3:16). 17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큰 축복에 축복을 더하셨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대적의 문을 소유할 것이다. 이것은 그의 후손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스리는 위치를 차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성문이 사로잡힌다는 것은 성 자체의 멸망을 뜻한다.”¹⁶⁾

22:20-24 아브라함의 동생 나훔은 아들이 열둘이었는데 반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 둘 뿐이었다. 이 사실은 필경, 하늘의 못별같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했을 것이다! 아마 그로 인해 아브라함은 서둘러 엘리에셀을 보내어 이삭을 위해 아내를 구하도록 조치했는지도 모른다(24장). 22장 23절의 ‘리브가’란 이름을 주목하라.

(10) 가족의 장지(葬地)(23장)

23:1-16 사라가 127세에 죽자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장지로 얻기 위해 헤브론의 히족속 거민들과 흥정을 벌였다. 이것은 그가 평생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유일하게 동산(動産)을 구입한 사례이다. 본문은 근동지역에서 흔히 행해진 상거래를 보여주는 극히 소중한 문구들이다. 처음에 히족속은 아브라함이 임의로 장지를 택할 것을 제안했다. 아브라함은 정중한 예의로 거절을 표한 다음 에브론이 소유한 동굴을 충분한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제의했다. 처음에 에브론은 그 동굴만이 아니라 그 밭 전체를 선물로 주겠다고 제의했으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예의상의 제의임을 알았다. 땅 소유자는 사실 그렇게 내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아브라함이 이에 값

16) (22:16-19) Charles F. Pfeiffer, *The Book of Genesis*, p. 6.

을 주고 사겠다고 계속 주장하자 에브론은 괜찮은 거래라고 생각하고 ‘은 사백 세겔’을 제시했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금액이었으며, 대개 구입자 편에서 값을 깎으려고 옥신각신할 만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처음 요구한 값에 동의한 것은 모두 놀랄만한 일이었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자에게 빚지기를 원치 않았으며,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한다.

23:17-20 막벨라 굴은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장지가 되었다. 전승에 의하면 현재 그 위치는 모슬렘 사원이 차지하고 있다.

(11) 이삭의 신부(24장)

24:1-9 아브라함은 늙은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신부를 찾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게 하거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맹세로 다짐케 했다. 2-4절과 9절에 묘사된 고대의 맹세법에 대해 찰스 F. 화이퍼는 이렇게 말한다.

“성경의 관용어에 따르면 아이는 아버지의 ‘허벅지’나 ‘허리’에서 나온다고 한다(창 46:26).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은, 맹세가 깨질 경우 그 ‘허벅지’에서 태어난 아이나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그 불충성한 행위를 보복할 것임을 상징해주었다. 이것을 가리켜 ‘후손에 의한 맹세’라 했다. 특히 본문이 이 맹세에 해당하는데, 아브라함의 종의 임무는 이삭을 통한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보증하는 것이다.”¹⁷⁾

24:10-14 ‘종’은 ‘하늘의 이삭’되신 주 예수님을 위한 신부를 얻

17) (24:1-9) Charles F. Pfeiffer, *The Book of Genesis*, p. 62.

기 위해 성부에 의해 보냄 받은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 기사는 여행을 위한 준비, 종이 갖고 떠난 예물들, 여호와께서 택하신 여인을 알아볼 징표 등등을 주의 깊게 기록하고 있다. 멀덕 캄벨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것은 그의 주인의 아들에 부합하는 여자의 인격과 성품에 대해 큰 빛을 던져줄 만한 징표였다. 그는 단지 그 자신을 위해 물을 ‘조금’만(히브리어 단어로는 ‘한 모금’으로 옮겨질 수 있다) 요구했으나 하나님 이 큰 백성의 어미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나먼 조상으로 택하신 이 여자는 그에게 ‘물 한 모금’만 줄 뿐 아니라 풍성한 물을 줌으로써 그 너그러운 성품과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려는 마음을 드러내었다. 게다가 그녀는 약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놀라운 제의를 했다. 생각해 보라. 오랜 광야여행을 마친 이 열 마리의 약대가 빈속을 채우려면 적어도 4배럴의 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사람과 짐승을 기꺼이 섬기는 이 모습은 친절하고 이타적인 성품과, 최고 수준의 인격을 보여준다.”¹⁸⁾

24:15-52 물론,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따라서 종의 예물을 받은 사람은 아리따운 리브가였다. 그녀가 아버지로 그를 인도해갈 때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구하던 일이 끝났음을 알았다. 리브가가 오라비 라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라반은 그 내방객을 은혜로 이 영접한 다음 ‘종’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해달라고 청하는 것을 들었다. 종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상황이 놀랍게 전개된 것을 들은 라반과,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음을 확신케 되었다.

18) (24:10-24) Murdoch Cambell, *The Loveliest Story Ever Told*, p. 9.

24:53-61 ‘중’은 이어서 리브가와 라반과 그녀의 어머니에게 예물을 줌으로써 혼인계약을 인쳤다. 아침이 되자 가족들은 리브가가 얼마간 더 있다 떠날 것을 원했지만 리브가가 기꺼이 가겠다고 한 결심으로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그녀는 가족들의 축복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24:62-67 모리아산의 경험 후에 우리가 이삭을 처음 대하는 것은 그가 리브가를 맞으러 나아간 때이다. 마찬가지로, 그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및 승천 후에 우리가 구주를 처음 대하는 것은 그분께서 그 택하신 신부를 취하러 다시 오실 때이다(살전 4:13-18).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실로 아름다운 만남이다. 생면부지(生面不知)인 상태에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녀를 사랑했으며, 다른 족장들과는 달리 그녀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않았다.

(12) 아브라함의 후손(25:1-18)

25:1-6 역대상 1장 32절에서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후처로 불리운다. 6절은 그 사실을 확증해주는 듯하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가정에서 아내의 온전한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한 ‘둘째’ 아내였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지 않으신 변칙적인 결혼관계를 기록해 두신다.

25:7-18 아브라함은 175세에 숨을 거두고 헤브론 굴에 장사된 두 번째 사람이 되었다. 12-16절에 기록된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켰다(‘그가 열두 방백을 낳으리나’-17:20). 이스마엘이 죽자 이삭은 이야기의 중심 무대로 이동한

다.

(2) 이삭(25:19-26:35)

(1) 이삭의 가족(25:19-34)

25:19-26 결혼한 지 거의 20년 동안 리브가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이삭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녀가 아이를 배었다.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툼으로 당황하던 그녀는 그 아들들이 두 경쟁적인 민족(이스라엘과 에돔)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다. 쌍둥이의 첫째는 에서(털이 많다)라 이름지었고 둘째는 야곱(찬탈자)라 이름지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오므로 그 형보다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썼다! 쌍둥이가 태어난 것은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였다.

25:27-28 아이들이 자라면서 에서는 외향적인 인물이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반면에 야곱은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온유하고 내성적인 유형이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아마 야곱은 ‘맘마 보이’였던 것 같다.

25:29-34 에서는 장자로 태어난 덕택에 아버지의 소유에서 다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분량의 두 배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또한 그는 부족 혹은 가족의 머리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장자권으로 알려진 권리였다. 에서의 경우에 그것은 아울러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것도 포함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 야곱이 붉은 죽을 요리하

는 것을 보았다. 그는 ‘붉다’(에돔)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그 붉은 죽을 간절히 구했으며, 그 별명은 그와 그의 후손인 에돔족의 칭호가 돼버렸다. 야곱이 그 죽을 주는 대신 에서의 장자권을 요구하자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에 동의했다. “금단의 열매를 제외하고 이 죽보다 더 비싸게 팔린 식물은 없었다.”¹⁹⁾

23절의 예언은 29-34절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하나님은 야곱의 계략과 수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며,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이 장자권과 경건한 계보상의 위치를 존중히 여긴데 반해 에서는 육체적인 요구충족을 영적인 축복보다 더 좋아했다는 점이다.

본장은 야곱이 그 형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다는 에서가 그 장자권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강조함으로 마감된다. 에서의 후손은 이스라엘의 고통스런 대적이 되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오바다서에 선언되어 있다.

(2) 이삭과 아비멜렉(26장)

26:1-6 이삭은 그의 부친처럼 기근에 대응했다(12,20장). 그가 남쪽으로 여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랄에서 그에게 나타나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랄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일종의 휴게소였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랄에서 잠시 머물라고 말씀하셨으나,²⁰⁾ 이삭은 그곳에 거주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또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무조건적인 언약을 재확인해주셨다.

19) (25:10-24)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23.

20) (26:1-6) 3절의 ‘거하다’는 단어는 원문에서는 6절의 동사와 다른 동사로서 잠시 머무는 정착을 가리킨다.

26:7-17 이삭은 그의 부친처럼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그랄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를 누이로 잘못 소개했다. 아버지의 연약이 아들에게서 반복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속임수가 드러나고 책망을 받자 이삭은 자백을 했다. 자백은 축복을 가져온다. 이삭은 그랄에서 부요해졌는데, 너무 부요해지자 당시의 통치자인 아비멜렉이 그에게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랄 골짜기로 옮겼다.

26:18-25 블레셋인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일찍이 메워버렸는데, 그것은 새로운 입주자들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뜻의 적대적인 행위였다. 이삭은 그 우물들을 다시 팠다. 에섹(다툼)과 싯나(대적함)에서 블레셋인들과 분쟁이 일어났다. 마침내 이삭은 블레셋인들을 떠나갔다. 이번에는 우물을 팠는데도 다툼이 없었으므로 그곳을 르호봇(장소가 넓음)이라 이름지었다. 거기서 그는 브엘세바로 갔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축복된 약속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셨고, 이삭은 거기서 단을 쌓고(예배), 장막을 치고(거함), 그리고 우물을 팠다(새롭게 댐). 물이 물질적인 영역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듯이 말씀의 물은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하다.

26:26-33 26절부터 31절에 대해서 윌리엄스는 이렇게 해설한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과 분명히 자신을 분리했을 때 그랄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다.…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 때이다.….”²¹⁾

이삭이 아비멜렉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그날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얻었다. 아브라함이 당시의 아비멜렉과 거기서 언약을 체결한 까닭에 일찍이 그곳 이름을 브엘세바라 이름지은바 있었다(21:31). 이제, 비슷한 상황에서, 이삭이 그 이름을 다시 세바 혹은 브엘세바라 불렀다.

26:34-35 에서가 유딧과 바스맛이란 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는데, 이 후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명예를 같이 해왔다. 이 일은 에서가 장자권을 얻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더욱 드러내었다.

(3) 야곱(27:1-36:43)

(1) 에서를 속인 야곱(27장)

27:1-22 앞장의 사건들이 있는 지 대략 30년이 흘렀다. 이삭은 이제 137세가 되었고 눈이 어두워졌다. 그는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의 형 이스마엘이 그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창 25:17). 그러나 그는 그 후로 43년이나 더 살 것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돌아오면 축복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냥한 고기를 준비해오라고 청하자, 리브가는 남편을 속이고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얻게 할 계락을 꾸몄다. 그녀의 잔꾀는 불필요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25:23). 그녀는 사냥한 고기 향기가 나도록 염소 고기를 잘 요리하

21) (26-33)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31.

고, 털 많은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 야곱의 팔에 염소 가죽을 둘렀다. 이삭은 자신의 느낌을 믿는 실수를 범했는데, 즉 그 털 많은 팔이 에서의 팔처럼 ‘느껴진’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적인 느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감정은 쉬 왔다 쉬 가버리는 것, 감정은 속이는 것, 우리의 믿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 다른 아무 것도 믿을 가치가 없다.”²²⁾

비록 리브가가 속임을 계획했지만 야곱도 그 계획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었다. C. H. 메킨토쉬는 이렇게 통찰했다.

“...야곱의 생애를 관찰하는 사람은 누구나,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이후에 세상적인 복을 거의 누리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그의 형이 그를 죽이려 했기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피신해야 했다. 그의 삼촌이 그를 속였다...그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촌을 떠나야 했다...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잔인한 살육을 벌였다. 그리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또 요셉을 잃었다는 비보를 들었다. 말년에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야 했으며, 그 낯선 땅에서 죽음을 맞았다...”²³⁾

27:23-29 이삭은 야곱에게 재산과 권위와 보호를 축복했다. 흥미롭게도 족장들이 베푸는 축복은 예언적인 것이었다. 그 축복들은 문자 그대로 이뤄졌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들은 영감을 받아 말한 것이다.

22) (27:1-22) Martin Luther,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23) (27:1-22) Mackintosh, *Genesis to Deutronomy*, p. 114.

27:30-40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자신이 속았음을 알고는 눈물로 축복을 청했다. 그러나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주어졌고 되돌릴 수 없었다(히 12:16-17). 하지만 이삭은 에서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애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것은 에돔족이 광야에 살 것과 전사(戰士)가 될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종할 것, 그러나 언젠가 반역을 할 것을 암시해준다. 이 나중의 예언은 유다 왕 여호람 통치시에 성취되었다(왕하 8:20-22).

27:41-46 에서는 부친이 죽고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는 대로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리브가는 그 일을 알게 되자 야곱에게 하란에 있는 그녀의 오라비 라반의 집으로 가라고 일렀다. 그녀는 야곱이 죽임당할 뿐 아니라 에서도 그 보복으로 도주하거나 죽임을 당하여 한꺼번에 두 아들을 잃게 될 것을 염려했다. 이에 그녀는 에서처럼 야곱도 헛죽속 여인과 결혼할까 염려되어 야곱을 멀리 보내노라고 이삭에게 설명했다. 야곱은 곧 돌아올 것을 기대했으나 20년이 넘어서야 돌아올 수 있었다. 그 때 그의 부친은 생존해 있었으나 그의 모친은 죽고 없었다.

(2) 야곱의 하란으로의 도피(28장)

28:1-9 이삭은 야곱을 불러 축복한 다음,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가 아닌 그의 모친의 백성 중에서 아내를 얻도록 메소보다미아 지역의 한 지방인 밧단아람으로 그를 보냈다. 이 일은 에서로 하여금

그 부친의 축복을 다시 얻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하도록 자금을 주었다. 이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여러 아내를 두는) 조치였다.

28:10-19 베엘에서 야곱은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서 있는 놀라운 꿈을 꾸었다. 이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특히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과 외로운 중에 있는 인간 사이의 실제적이고, 막힘이 없고, 친밀한 사귄”을 의미해주었다.²⁴⁾ 주 예수님은 나다나엘과의 만남에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자신의 재림 및 천년왕국의 영광과 그것을 관련시키셨다(요 1:51). 그러나 신자들은 현재 순간에도 주님과 매 순간 사귀어 나눌 수 있다. 이 때, 곧 야곱의 마음이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고독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가득 찼을 이 때에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그와 더불어 맺으셨다. 그 약속을 주목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동반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안전),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인도),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개인적인 보장). 야곱은 자신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닫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분리)에서 베엘(하나님의 집)로 바꾸었다.

“그가 ‘기쁨으로 놀라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힌’ 곳인 이 베엘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과 아무런 개인적인 접촉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이 간접적으로 그에게 임했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28:20-22 이어서 야곱은 하나님과 흥정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인

24) (28:10-19) H. D. M. Spence and J. S. Exell, “Genesis”, in *The Pulpit Commentary*, pp. 349-50.

다. 사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14절)보다 더 ‘적은 것’을 위해 흥정하고 있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대로 취할 만큼 강하지 못했으며,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편에서 계약을 이행하면 십분의 일을 바치겠다고 조건을 내걸어야 했다. 그러나 다른 해석도 가능한데 그에 따르면, ‘만일…한다면’은 단순히 모든 히브리인의 맹세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야곱은 무조건적으로 십분의 일을 드리기를 위해 스스로를 구속(拘束)하고 있었다는 것이다(이와 비슷한 히브리인의 맹세를 보려면, 민 21:2; 삿 11: 30,31; 삼상 1:11 등을 참조하라).

(3) 야곱의 아내들과 후손(29:1-30:24)

29:1-14 야곱은 77세에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 그는 외삼촌 라반을 섬기느라 20년을 보내고, 가나안에 돌아와 30년을 보낸 다음, 애굽에서 마지막 17년을 보냈다.

बाट아람에 이르러 그는 하란 출신의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그 들로 인도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완벽해서 야곱이 그 목자들과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때 라헬이 양떼를 거느리고 그곳에 이르고 있었다. 야곱은 선한 목자인 까닭에, 왜 아직 양을 먹일 낮인데 그들이 종일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들은 모든 가축 떼가 올 때까지 우물뚜껑을 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는 야곱에게는 그의 사촌 라헬을 만나고, 또 라반에게는 잠시 후면 조카 야곱을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29:15-35 라반은 7년간의 봉사의 댓가로 라헬을 야곱에게 주기로 동의했다. 그 7년이란 세월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까닭에 그에

게는 수일처럼 여겨졌다. 이것은 우리의 주님을 위한 섬김이 어떠해야 함을 보여준다.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매력적이지 못했으나 라헬은 아리따웠다.

풍습에 따르면, 신부는 첫날밤에 얼굴을 가리고 신랑을 찾아 어두운 신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다. 다음날 아침 그의 신부가 레아임을 안 야곱이 얼마나 노했겠는가! 라반은 야곱을 속였다. 그리고 그는 그 지방 풍습에 의하면 큰딸이 먼저 결혼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 속임수를 변명했다. 이어서 라반은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즉, 레아와의 혼인을 성사시켜라) 우리가 그도(라헬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 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7일간의 혼인 잔치가 끝나자 야곱은 라헬과도 결혼을 한 다음 그녀를 위해 7년을 더 봉사했다. 야곱은 일찍이 속임수의 씨를 뿌렸으며, 이제 그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을 받는(즉, 라헬보다 덜 사랑을 받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자식을 허락하심으로 그에 대한 보상을 하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어느 한 영역에서 부족한 사람들은 다른 영역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레아는 자식을 이름 지을 때마다 여호와를 인정했다(32,33, 35절). 레아에게로부터 제사장직(레위)과 왕족(유다)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온다. 본장에는 야곱의 처음 네 아들이 나온다. 야곱의 아들들의 전체 목록은 이러하다.

레아에게서 난 아들

르우벤(보라, 아들이라)(29:32)

시므온(들으심)(29:33)

레위(연합함)(29:34)

유다(찬송함)(29:35)

잇사갈(값)(30:18)

스블론(거함)(30:20)

라헬의 시종 빌하에게서 난 아들

단(억울함을 푸심, 심판하심)(30:6)

납달리(경쟁함, 씌름함)(30:8)

레아의 시종 실바에게서 난 아들

갓(복됨, 군대)(30:11)

앗셀(기쁨)(30:13)

라헬에게서 난 아들

요셉(더함)(30:13)

베냐민(오른손의 아들)(35:18)

30:1-13 자식을 품에 안고픈 갈급한 마음에서 라헬은 자기 시종 빌하를 야곱에게 후처로 내주었다. 이런 일이 이 당시는 흔한 일이긴 하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빌하는 두 아들, 단과 납달리를 낳았다. 라헬에게 지지 않으려고 레아도 자기 시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두 아들, 갓과 아셀을 더 얻었다.

30:14-24 르우벤이 발견한 합환채는 잉태하는 힘을 더해준다고 미신적으로 믿어지던 일종의 토마토였다. 라헬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기에 이 합환채를 몹시 갖고자 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레아로 하여금 야곱의 아내로 살도록 허락했다. (어떤 설명되지 않은 이유에서 레아는 아내로서의 특권을 잃고 있었던 것 같다.) 이 후에 레아에게 두 아들, 잇사갈과 스블론과 그리고 딸, 디나가 더해졌다. 마침내 라헬은 첫

아들을 낳고 요셉이라 이름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4) 야곱이 라반을 속이다(30:25-43)

30:25-36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자 외삼촌 라반은 더 머물라고 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야곱 때문에 자기를 축복하신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노라고 말하며, 더 머물면 샅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야곱은, 만일 라반이 모든 아롱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와, 모든 검은 양을 자기에게 주면 더 머물며 봉사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짐승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라반은 그 계약에 동의하여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고 답했다.

라반은 야곱이 말한 특징을 지닌 모든 짐승들을 취하여 자기 아들들 손에 맡기고는, 그 짐승들이 이제 야곱의 소유된 특징을 가진 새끼들을 낳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런 다음 그 나머지 짐승들을 야곱에게 맡기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야곱에게서 3일 여행거리만 큼 떨어졌다. 이렇게 하여 라반의 아들들이 돌보는 가축 중 야곱이 말한 특징을 지닌 짐승들이 야곱이 돌보는 그 아무 특징이 없는 라반의 짐승과 교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0:37-43 라반의 가축을 번식시킬 때 야곱은 색깔이 한가지든 얼룩색깔이든 그 짐승들 앞에 꺾질을 벗긴 나무를 세워두었다. 새끼 뺨 짐승들은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물론 이것은 그 새끼들이 야곱의 것임을 의미했다. 과연 그 막대기가 짐승의 무늬를 결정지었을까? 이 방법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새로운 유전학 자료는 그것이 근거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밖에 달리 어떻게 그 짐승들이 야곱이 바라는 특징을 지닌 채 태어날 수 있었을까?

첫째로, 그것은 기적이었는지 모른다(31:12). 그렇지 않으면 야곱이 꾸며낸 영악한 계략이었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곱이 선택적인 교배학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암시를 엿볼 수 있다. 주의 깊은 교배를 통해서 그는 그 바라던 특징을 지닌 짐승을 얻었을 뿐 아니라 자기 것은 강한 것을, 라반의 것은 약한 것을 낳게 할 수도 있었다. 아마 꺾질 벗긴 막대기는 그 교배의 비결을 다른 사람에게 숨기기 위해 시도한 속임수였는지 모른다.

그 설명이 어떻게 되든, 야곱의 부(富)는 라반을 섬기던 그 마지막 6년간 크게 불어났다.

(5) 야곱의 가나안에서의 귀환(31장)

31:1-18 라반과 그 아들들이 점점 더 시기하고 분개하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자 이제 가나안으로 갈 때가 되었다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그는 라헬과 레아를 불러 그 일을 의논하면서, 어떻게 라반이 그를 속이고 열 번이나 그의 삯을 변경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하사 짐승들이 항상 그의 원대로 새끼를 낳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 20년 전에 하신 맹세를 기억나게 하셨으며(28:20-22),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두 얘기했다. 그의 아내들은 그들의 부친이 정직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이제 함께 떠나겠다고 반응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몇 가지 흥미로운 원칙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야곱은 ‘소원’이 있었다

(30:25). 둘째로, ‘환경’이 모종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 그리고 끝으로, 라반과의 자연적인 유대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들로부터 ‘확증적인 후원’이 있었다.…²⁵⁾

하나님의 사자(11절)은 베엘의 하나님(13절)임을 주목하라.

31:19-21 비밀히 그곳을 떠나기 전에 라헬은 그 부친의 드라빔(가족 우상)을 훔치고는 그것을 그녀의 약대 안장 속에 감춰두었다. 이 가족 우상을 소유한다는 것은 가족의 리더십을 갖는 것을 의미했으며, 혼인한 딸의 경우에는 남편에게 부친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해주었다.²⁶⁾ 야곱이 가나안으로 도주했을 때 라반은 자기 아들이 있었으므로 그들만이 그 부친의 드라빔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라헬의 도적질은 라반의 재산에 대한 주된 권리를 그녀의 남편에게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심각한 문제였다.

31:22-30 야곱 일행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자 라반과 그의 사람들은 7일간 그들을 뒤쫓았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사 야곱 일행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라반은 자신이 그들을 용서히 보내줄 특권을 부인당한 것과, 그의 우상이 도난당한 것에 대해서만 불평했다.

31:33-35 그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 야곱은 라반이 딸들(라헬과

25) (31:1-18) W. H. Griffith Thomas, *Genesis: A Devotional Commentary*; p. 288.

26) (31:19-21) Unger, *Bible Dictionary*; p. 550.

레아)을 강제로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몰래 떠났다고 대답했다. 또 두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우상을 흠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인이 있다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라반은 그 일행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헛수고였다. 라헬은 그 때 약대 안장에 앉은 채 생리기간이므로 내려와서 아버지께 예를 표하지 못하겠노라고 변명을 했다.

31:36-42 이제 야곱이 노할 차례였다. 그는 라반이 그를 도적 취급한 일과, 충성되고 도량 있는 봉사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를 몹시 부당하게 대한 일에 대해 비난을 쏟았다. 본문은 야곱이 열심히 수고한 일꾼이었으며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와 축복이 그에게 임한 사실을 드러내준다. 우리는 우리의 고용주에게 충성스런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일에 임하고 있는가?

31:43-50 라반은 자기 딸들과 손주들과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말로 문제를 슬그머니 회피한 다음, 계약을 맺자고 제안했다. 그것은 그들이 헤어져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을 감찰하실 것을 요청하는, 은혜롭고 우호적인 ‘언약’이 아니었다. 그 대신 그것은 그들이 서로 보지 못할 때 상호간에 의(義)를 행하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요청하는, 두 속이는 자 간의 협정이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불가침조약이었으며, 또한 야곱에게는 라반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 것과 다른 아내와 결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라반은 그 협정을 표하는 돌기둥을 가리켜 ‘여갈사하두다’라는 아람어로 칭했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렛’이란 히브리어로 칭했다. 두 단어는 ‘증거의 무더기’를 뜻한다. 두 사람 모두 이 돌무더기를 지나쳐 상대방

을 공격해서는 안 되었다.

31:51-55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테라)의 하나님’으로 맹세했다. 새흙정역에서 ‘하나님’에 대해 대문자를 사용한 것은(모팻 성경, NIV 등도 그렇다) 번역자들이, 라반이 아브라함이 알게 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히브리어는 대문자와 소문자의 구분이 없으므로 우리는 라반이 이 사람들이 우르에서 숭배하던 이방 신들을 언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말할 수 없다. 야곱은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로 맹세했다. 이삭은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었다. 야곱은 먼저 제사를 드린 다음, 이어서 모든 함께한 자들을 위해 연회를 베풀고 산에서 그 온 밤을 보냈다.

아침 일찍 라반은 그의 손자와 딸들에게 작별의 입맞춤을 하고 고향으로 떠났다.

(6) 야곱과 에서의 화해(32-33장)

32:1-8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야곱은 한 무리의 사자들을 만났으며,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두 무리 혹은 두 진영)이라 칭했다. 그 두 진영(陣營)은 하나님의 군대일 수도 있고(2절) 야곱의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다. 아니면 큰 무리를 뜻하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다(10절). 야곱은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자 그의 형 에서를 생각하며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했다. 에서가 속임수에 넘어가 축복을 빼앗긴 일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을까? 먼저 야곱은 평화의 인사로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그런 후 에서가 400명의 무리와 함께 그를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가족을

두 떼로 나누었다. 앞선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뒤의 가족은 피신하기 위해서였다.

32:9-12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와 그 선조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관계에 근거한 기도이며, 겸비한 마음으로 드러진 기도였다. 그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근거로 탄원을 올렸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다.

최선의 기도는 강렬한 내적인 필요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안전제도로 인해 역동적인 기도생활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왜 우리는 스스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32:13-21 야곱은 이어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볼 양으로 모두 580 마리나 되는 짐승을 줄지어 보냈다. 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예물을 받을 수 있었다. 야곱의 이와 같은 작전은 그의 불신 내지, 적어도 믿음과 불신의 혼합을 드러내 주었다.

32:22-32 야곱은 맨 뒤에 남긴 가장 아끼는 가족들을 압복강 건너편으로 보낸 뒤에(홀로 남았더니), 생애 최대의 경험 중 하나가 될 만한 일을 위해 브니엘에서 홀로 밤을 보냈다. 한 사람이 그와 더불어 씨름을 했다. 그 사람은 천사(호 12:4), 곧 여호와와의 천사요 여호와 자신이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쳐서 그로 하여금 남은 생애 동안 절름발이로 걷게 하셨다. 야곱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싸움에서 졌지만 영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패배를 통해서 승리하는 법과 언약을 통해서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자아(自我)로부터, 또 그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는 데로부터 해방된 그는 자신이 ‘야곱’, 즉 찬탈자요, 사기꾼임을 시인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 ‘하나님의 방백’ 등 여러 가지로 옮겨진다)로 바꿔주셨다. 야곱은 자신이 여호와를 보았다고 깨달았기에 그곳을 ‘브니엘’(하나님의 얼굴)이라 칭했다. 화이퍼는 32절이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좌골 신경, 혹은 허벅지 혈관은 일단 도살된 짐승에서 제거해야 만 그 부위가 정통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되게 된다.”²⁷⁾

33:1-11 에서가 가까이 이르자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그런 체제로 온 가족을 정렬한 채 두려움과 순전히 인간적인 행동으로 움츠러들었다. 야곱은 그의 형 앞에 이르자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에서는 이와 반대로 부드럽고 따뜻하고 풍부한 감정으로 먼저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맞았다. 그는 엄청난 가축 떼의 선물을 완곡하게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받겠다고 했다. 야곱은 자신을 그의 ‘중’이라고 부르면서 형에게 지나친 굴복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그가 에서의 낮을 본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낮을 본 것 같다고 말한 것은 아무요 과장이었다고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낮’은 화목케 된 낮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33:12-17 에서가 함께 가자고 청하자 야곱은 아이들과 어린 짐승들 때문에 천천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가는 것이 불가능

27) (32:22-32) Pfeiffer, *Genesis*, p. 80.

하다고 했다. 야곱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음에도 세일(에돔)에서 에서를 만나기로 약속했다. 에서가 야곱의 가족과 함께 여행하도록 그의 사람들을 좀 남겨두려 했지만 야곱은 그 이유(두려움과 의심)를 밝히지 않은 채 그 제의를 거절했다.

33:18-20 야곱은 세일산 남쪽으로 여행하는 대신 북서쪽으로 갔다. 마침내 그는 세겜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고 아마도 염치없게도 ‘엘 엘로헤 이스라엘’(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단을 쌓았다. 20년 전, 하나님은 베엘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실 것과, 그가 여호와께 부(富)의 십분의 일을 바칠 것과, 그리고 베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세울 것을 맹세했다(28:20-22). 이제 그는 베엘로 돌아가는 대신 아마도 가축들을 위해서, 그로부터 30마일 떨어진 비옥한 세겜 지역에 정착한다. 하나님은 수 년 후 야곱에게 그의 맹세를 이루라고 요청하실 때까지(35장) 그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 여간에 34장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7) 세겜에서 범한 죄(34장)

34:1-12 본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야곱과 그의 가족이 세겜에 거하는 동안 그의 딸 디나가 이방 여자들과 사귀음을 가졌는데 이는 경건치 않은 자들과 적절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범한 것이다. 한 번은 하물의 아들 세겜이 그녀를 강간하고는 몹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분노했음을 알고 하물은 평화로운 해결책, 즉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 간에 통혼(通婚)을 할 것과,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 땅 시민권을 부

여해줄 것을 제안했다. (9절은 경건한 계보를 터럽히기 위한 많은 사단의 시도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세겜은 또한 어떤 패물과 예물을 요구해도 지불 하겠다고 제의했다.

34:13-24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를 세겜에게 줄 의사가 전혀 없었으나 그 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가 악한 목적으로 이용된 것이다. 하몰과 세겜과 그 성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단순히 믿고 그 조건을 성취시켰다.

34:25-31 그러나 세겜 사람들이 그 외과수술에서 채 회복도 되기 전에 시므온과 레위가 일어나 그들을 살육하고 그 재산을 약탈했다. 야곱이 그들을 부드럽게 꾸짖자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누이가 창기 취급당할 수는 없다고 대답했다. 사실 야곱은 세겜 사람들에게 행해진 끔찍한 불의(不義)보다는 자신의 재산을 더 염려했던 것 같다. 30절에서 그가 1인칭 대명사를 8번이나 사용한 것을 보라.

(8) 뵤엘로의 귀환(35장)

35:1-8 35장은 30여 년 전에 한 맹세(28:20-22)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명령과 더불어 시작된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으로 그 맹세를 지킬 준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앞장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사용하셨다. 34장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데 비해 본장에서는 하나님이 약 20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라. 뵤엘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앞서 야곱은 먼저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가족 신들을 제거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명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하자 곧 그들은 그 이방 이웃들에게 두려움이 되었다. 야곱이 ‘엘 벧엘’에서 단을 쌓고 그의 형 에서에게서 자신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35:9-15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다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갱신하셨다. 야곱은 기둥을 세워 그 성스런 곳을 표하고 다시 한 번 그곳을 벧엘이라 칭했다.

35:16-20 야곱의 가족이 벧엘에서 남쪽으로 여행하는 동안 라헬이 출산 중에 죽었다. 그녀는 그 아이를 ‘베노니’(슬픔의 아들)라 불렀으나 야곱이 이 12번째 아들을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렀다. 이 두 이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에 따를 영광을 예표해준다. 전승에 의하면(믿을만 하진 않다) 라헬의 무덤은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헬에 가는 길목에서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왜 그녀가 아브라함, 사라, 리브가와 함께 헤브론 굴에 장사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것은 그녀가 우상을 가족에게 들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35:21-29 그 부친의 후처인 빌하와 더불어 범한 르우벤의 죄가 간략히 언급되었는데 그 죄로 인해 그는 장자권을 잃고 말았다(49:3-4). 22절의 마지막 문장은 ‘야곱의 아들들은 열둘이라’는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한다. 그 다음 두 구절은 열두 아들을 열거한다. 26절에서 그 아들들이 밧단아람에서 야곱이 얻었다고 말하지만 베냐민(24절)은 제외된다.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났다(16-19절). 야곱

은 후에 그의 부친 이삭을 죽기 전에 보기 위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그의 모친 리브가는 수년 전에 이미 죽었다. 본장에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8절), 라헬의 죽음(19절), 이삭의 죽음(29절) 등 세 차례 장례가 기록되어 있다.

(9)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36장)

36:1-30 36장은 사해 남동부인 에돔 땅에 거주한 에서의 후손에게 할애된다. 이 족보는 에서가 한 민족의 머리가 될 것이라고 한 약속의 성취를 보여준다(25:23). 어떤 여자들이 이름이 둘인 짐을 감안할 때(26:34; 28:9; 36:2-3을 비교하라), 에서는 셋 내지 아마도 네 아내를 두었다. 24절에서 아나는 온천을 발견했다.

36:31-43 창세기의 기자인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35:11) 이스라엘이 마침내 왕을 가지게 될 것을 알았다. 4장에 가인의 불경건한 계보가 7대까지 기록되어 있듯이 여기 33-39절에도 에서의 불경건한 계보상의 왕들이 7대까지 기록되어 있다. 완전수인 7은 아마도 전체 계보를 암시해주는 듯하다. 에서의 후손 중 한 사람도 신실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부에 언급되지 않았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잊혀짐 속에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일시적인 부와 쉬 지나가는 이 세상 명예를 소유했지만 그러나 영원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소유치 못했다.

4) 요셉(37:1-50:26)

(1) 요셉이 노예로 팔림(37장)

37:1-17 ‘야곱의 약전이 이리하니라’는 문구는 불합리해 보인다. 야곱의 역사(25-35장)는 에서의 후손의 계보(36장)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37장에서 다시 시작되어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강조점을 둔 채 이 책 마지막까지 계속된다.

요셉은, 비록 성경이 그에게 하나의 모형이란 지칭을 한 적은 없지만,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모형(상징) 중 하나이다. A. W. 핑크는 요셉과 그리스도 간의 101개의 일치점을 열거하는가 하면,²⁸⁾ 에이더 하버손은 121개를 열거한다. 예를 들어, 요셉은 그 부친에게 사랑을 받았으며(3절), 그 형들의 죄를 꾸짖었고(2절), 그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대적의 손에 팔리었고(4,26-28절), 부당한 징벌을 받았고(39장), 높임을 받고 세상의 구주가 되어 온 세상이 양식을 위해 그에게 찾아왔고(41:57),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동안 이방 신부를 맞이했다(4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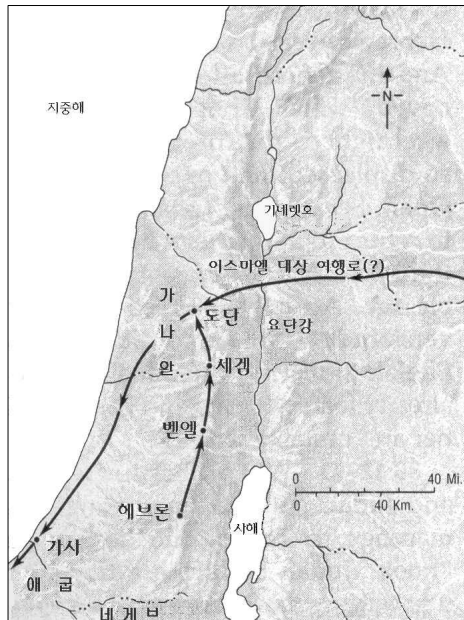
‘채색옷’(혹은 소매있는 긴 옷-RSV)은 그 부친의 각별한 애정의 표였으며, 그 형들의 시샘어린 미움을 사게 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에서 11개의 곡식단이 12번째 곡식단에게 절을 한 것은 그의 형들이 어느날 그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예언이었다. 그 다음 꿈에서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해와 달은 야곱과 레아(라헬은 죽었다)를 말하며, 열한 별은 요셉의 형들이었다(9-11절).

37:18-28 요셉이 심부름으로 그 형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러나 르우벤의 제안으로 그들은 그를 도단 근처 웅덩이에 던지기로 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족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유다의 제안

28) (37:1-17) Arthur W. Pink, *Gleanings in Genesis*, pp. 343-408.

으로 그들은 그를 팔기로 결정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마엘 사람들은 사사기 8장 22-24절의 경우처럼 미디안 사람들도 불리운다.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그들에게 팔아 넘겼다.

37:29-36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르우벤은 자리에 없었다. 그는 돌아와서 이 일을 알고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요셉이 없어진 데 대해 그 부친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 피를 묻힌 다음 냉정한 표정으로 야곱에게 그것을 돌려주었으며, 이에 야곱은 당연히 요셉이 살해된 줄로 생각했다. 야곱은 전에 염소 가죽으로 형의 털 많은 팔 모양을 하여 염소로 그의 부친을 속인바 있었다 (27:16-23). 이제 그 자신이 요셉의 옷에 묻은 염소 피에 의해 잔인하게 속임을 당했다. ‘속임의 고통을 다시 한 번 배우게 된 셈이다.’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자유로이 인도하고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팔아 넘김으로써 무지 중에 하나님의



▲ 요셉의 애굽 여정

목적을 성취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노(怒)를 사용하여 그분을 찬양토록 하시며, 그분을 찬양하려 하지 않는 것은 금하신다(시 76:10).

(2) 유다와 다말(38장)

38:1-11 유다가 다말과 더불어 범한 죄에 대한 이 부정한 이야기는 주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란(눅 3:33) 점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데 기여한다. 다말은 마태복음 1장의 계보에 언급된 다섯 여인 중 하나다. 그 다섯 중 셋이-다말, 라합(5절), 밧세바(6절)-부도덕한 죄를 범한 여인들이었다. 나머지 둘은 이방 여인 룻(5절)과 경건한 동정녀 마리아(16절)이다. 핑크는 이 도덕적인 실패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음과 같은 깊은 의미를 끌어내었다.

“창세기 37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우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고 또 그들은 그를 애굽에 팔아넘기는 장면으로 마감된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고 이방인에게 넘기우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빌라도의 손에 넘기운 그때 이후로, 그들은 한 민족으로서 더 이상 그분과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돌이키셨다. 이와 같이 여기 이 장면에는 모형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타나 있다. 요셉은 이제 ‘이방인의 손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애굽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상징적인 모습으로, 요셉이 상징하는 그분이 ‘그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의 유대인의 역사를 추적해 보이신다.”²⁹⁾

29) (38:1-11) Arthur W. Pink, *Gleanings in Genesis*, pp. 343-408.

요셉의 이야기가 38장에 의해 중단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요셉 외에 다른 가족들의 비난받을 행동은 요셉의 품행이 이 어그리진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밝은 빛을 비추게끔 한다.

유다의 첫 번째 실책은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과 결혼한데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세 아들(엘, 오난, 셀라)을 낳아주었다. 엘은 다말이란 이름의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으나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악(惡) 때문에 여호와께 죽임을 당했다. 당시에는 형제나 다른 가까운 친척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죽은 자를 위해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관례였다. 오난은 자기가 난 아이가 아닌 먼저 태어난 첫 아이가 결과적으로 엘의 후사가 될 것이기에 그 의무를 행하기를 거절했다. 그의 죄는 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한번의 행위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가 보여주듯이 지속적인 거부였다. 그리고 그 거절은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위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물려받으실 그 계보에 영향을 미쳤다. 그 일은 여호와께 심히 가증스런 일이었기에 여호와께서는 오난을 죽이셨다. 이 일을 보고 유다는 다말에게, 그의 셋째 아들 셀라가 결혼연령이 되기까지 그녀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했다. 사실 이것은 따돌리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셀라가 다말과 결혼하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다. 그는 이미 두 아들을 잃었으며 다말을 ‘불운한 여자’로 간주했다.

38:12-23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유다가 여전히 그와 다말과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지 않자 다말은 뒤통을 놓아 유다를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로 했다. 그녀는 창기의 복장을 하고 유다가 그의 양털 깎는 자들을 만나러 가는, 딤나로 가는 길목의 노출된 곳에 앉았다.

유다는 과연 예상대로 그리로 들어가,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줄 알지 못한 채 그녀와 부도덕한 관계를 가졌다. 합의한 화대(花代)는 가축 떼 중 염소새끼 한 마리였으나, 약정한 짐승을 가져올 때까지 그 창기는 유다의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요구했다. 이 ‘끈’은 도장을 매던 끈이었을 것이다. 유다는 나중에 그 염소새끼를 가져와 그 약조물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그 창기를 볼 수 없었다.

38:24-26 석달 후에 다말은 과부로서 아이를 가진 까닭에 창기노릇을 했다는 죄목을 씌게 되었다. 유다는 그녀를 불살라 죽이려고 명했다. 그 때 그녀는 그 물건들의 주인이 자기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라는 고백과 함께 그 약조물을 돌려주었다. 그 물건들은 유다가 그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월터 C. 라이터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한다.

“유다의 친구들이 그에게 와서 그의 며느리 다말이 창기노릇을 했다는 소식을 전한다. 유다의 판단은 신속하고 단호하다. ‘그녀를 불태워 죽이라.’ 주저함도 타협도 일절 없다. 이 무서운 선고를 내리는 그의 음성에서 우리는 추호의 떨림도 감지할 수 없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런 우매함과 악함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그의 선고는 공표되고, 집행일이 정해지고, 처형준비가 진행되고, 기둥이 세워지고, 장작이 쌓이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여인이 곧 닥칠 운명을 향해 걸어 나온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이상한 증거물들이 들려있다. 그 약조물이 그녀에게 있는 것이다. 그녀는 지팡이와 도장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유다의 지팡이이고, 그 도장은 그의 도장이다! 그 약조물은 그녀의 재판관을 고소하는 물증이 되었다. 이제 그가 내린 선고는 어떻게 될까?”³⁰⁾

38:27-30 다말이 출산을 하여 아이의 손이 나왔을 때 산파가 첫째 아이라는 생각에서 홍색실을 그 손에 매주었다. 그러나 그 손이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와 버렸다. 산파는 첫째 아이를 ‘베레스’(터치고 나옴)라 부르고 둘째 아이를 ‘세라’라 불렀다. 비록 메시아 계보는 베레스로 이어지지만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이 두 아이 모두 언급되어 있다. 세라는 야간의 선조였다(수 7:1). 그리피스 토마스는, “하나님께서 이 뒤엀킨 실타래를 취하여서 그분이 원하는 모양으로 엮어 가시는 모습을 그저 놀라울 뿐이다”라고 지적한다.³¹⁾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은(2절) 그 만연한 부도덕으로 잘 알려진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간의 혼합에 있어 첫 단계였다. 이스라엘은 음란한 자연숭배의 그 말할 수 없는 부패상에 오염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다. 세상과 짝할 때 우리는 무서운 값을 치르게 된다.

(3) 요셉의 시련과 승리(39장)

39:1-19 이제 이야기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요셉은 바로의 궁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의 감독자로 임명되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는 ‘형통한’ 사람(1534년판 틴데일 성경은 그가 ‘운 좋은 사람’이었다고 옮겨놓았다-2절)이 되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으나 요셉은 요지부동 거절했다. 그는 그의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거나 그의 하나님께 죄를 짓기를 원치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았다. 그는 겹옷을 벗기운 채로 그녀를 뿌리치며 달아났다. 그는 겹옷을 잃었으나 그의 인격을 건졌으

30) (38:24-26) Walter C. Wright, *Psalms*, II:27.

31) (38:27-30) Griffith Thomas, *Genesis*, p. 366.

며 마침내 면류관을 얻었다. 그녀는 그 겹옷을 ‘증거’ 삼아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신자들은 간음과 우상숭배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가르침 받고 있다. 거기에 빠지는 것보다 달아나는 것이 낫다.

39:20-23 요셉의 주인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를 투옥시켰다. 그러나 옥중에서도 요셉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책임 있는 자리에 임명되었다. 요셉이 처형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음을 보여줄 수도 있다. 보디발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었다. 본장에는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가 놀랍게 나타나 있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다. 요셉은 유혹을 거절하고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8-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을 유혹했다는 울가미가 그에게 씌워졌다. 그리하여 요셉은 또 다시 사슬에 묶이게 되었다(시 105:17-19). 그런 환경 하에서 그는 좌절할 만했다. 그러나 그는 ‘환경 아래’ 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환경 위에 있었으며, 그 환경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 그의 투옥 기간은 ‘통치 시기를 위한 훈련기간’이었다. 다른 이들에 의해서 악(惡)으로 나타나기로 의도된 것들이 선(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4) 술 맡은 관원장 꿈과 떡 굶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줌(40장)

40:1-19 요셉의 동료 죄수들 중에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굶는 자가 있었다(1-4절). 그들이 각기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했다(5-8절). 술 맡은 관원장이 꾸곤 포도나무 꿈은 바로가 3일 후에 그의 머리를 들게 하여 좋은 자리에 앉힐 것

을 의미했다(9-15절).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이 끈 힘을 담은 세 광주리의 꿈은 3일 안에 바로가 그의 머리를 떨어뜨릴 것을, 즉 그를 달아 죽일 것을 의미했다(16-19절).

요셉이 그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음을 주목하라. 그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섬겼다.

40:20-23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된 뒤에 앞서 약속한대로 요셉을 위해 중재해주지를 앓았다(23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잊지 않으셨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14절). 구주께서는 그 배반당하던 밤에 이와 비슷한 말씀, 곧 우리가 상징물인 떡과 잔을 취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5)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41장)

41:1-13 애굽의 술객 중 아무도 살진 일곱 암소와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에 대한, 그리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과 세약하고 마른 일곱 이삭에 대한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과 그의 해몽 능력을 기억했다. 1절에 언급된 ‘만 이년’은 요셉의 투옥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된 때로부터 흘러간 기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41:14-32 바로 앞에 불러간 요셉은 애굽에 일곱 해 동안의 풍년이 있을 후에 온 땅을 황폐케 할 일곱 해 동안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로가 반복해서, 혹은 이중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하나님이 의해 정해졌으며, 그분이 속히 행하실 것을 의미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의 장래에 관한 요셉의 두 꿈과(37:6-9), 다

니엘서 2장과 7장의 비슷한 이상(異像)에서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둘’은 증거의 수이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두 종에게 했던 같은 대답을 이제는 왕궁에서 바로에게 했다.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16절, 40:8). 이러한 겸손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그를 타락시킬 지도 모를 엄청난 의무를 믿고 맡기게 했던 것이다.

41:33-36 요셉은 바로에게, 기근 동안 충분히 쓸 만한 곡물을 풍년 기간에 따로 저장해 두라고 조언했다. 그의 계획은 소위 ‘전천 후 곡창지대’라 불릴만한 것이었다.

41:37-46 바로는 크게 기뻐하여 요셉을 둘째 치리자로 삼고 그 계획을 총괄하도록 임명하고(40절),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44절), 그에게 ‘사브낫바네야’라는 새 이름을 주었다(45절). 이 이름의 뜻은 확실치 않다. 어떤 이는 ‘세상의 구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살아 계시다’란 뜻일 것이라고 한다. 바로는 또 이방 여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다(45절). 어떻게 바로가 그 꿈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만 꿈을 해석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한 히브리 죄수를 애굽 땅을 치리하도록 세울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잠언 21장 1절에 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와 손에 있음이…” 훌륭한 사람은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마련이다. 요셉은 많은 경건한 유대인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첫째 인물이었다. 그가 30세에 애굽 총리에 올랐으며(46절) 이는 그의 형들에 의해 팔린 지 13년 만이었다(37:2).

41:47-52 처음 일곱 해는 크게 풍년이 들어 정확한 수확량을 계산할 수도 없었다. 이 기간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잊어버림)와 에브라임(창성함)이 태어났다. 요셉은 지난날 당한 부당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창성케 되었다.

41:53-57 일곱 해 동안의 기근이 오자 애굽과 각국의 굶주린 백성들이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로 왔다. 여기서 요셉은 그를 통해 이 세상의 주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전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상징)이다.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은 그의 백성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가나안 땅의 도덕적인 타락으로부터 격리시켜 준 일이었다. 38장은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처방은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이교도로부터 도덕적으로 격리시키는 것이었다(43:32).

(6) 애굽에 들어간 요셉의 형들(42-44장)

42:1-5 이제 장면이 바뀌어 가나안에서 심한 기근에 시달리는 야곱에게로 돌아간다. 야곱은 애굽에 양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지만 요셉이 그곳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의 아들 중 열을 양식을 얻기 위해 그곳으로 보냈다. 오직 베냐민만 집에 남았다. 야곱이 아는 한 베냐민은 그의 사랑하던 라헬의 유일한 살아있는 아들이었다.

42:6-25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나타나자 요셉은 그들을 엄히 대하고, 그들에게 정탐꾼의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가두고, 그런 다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다그쳤다. 마침내 시므온이 볼모로 옥에 갇히고 아홉 형제들이 양식을 가득히 채우고, 또 비밀히 자루에 넣어진 그들의 돈을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러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이 그 형들에 대해 숨은 사랑과 동정을 품은 사실과(24-25절), 그 형들이 20여 년 전에 그들의 ‘잃어버린’ 동생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점점 죄책감을 갖게 된 일(21-22절)이 아름답게 흐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요셉은 그들로 그들의 죄를 자백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우리가 믿기에 요셉은 장차 올 대환란 기간에 그분의 유대인 형제들을 다루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요셉이 형들과 화해하는 데까지 전개되는 사건들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이 되는 부분 중 하나이다. 이보다 더 친근하고 상세하고 또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은 찾아보기 힘들다.

모형론(模型論)

구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사건과 사물들은 신약에서 ‘모형’(헬라어로 ‘τύπος’)으로 분명히 밝혀져 있다. 예컨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다(롬 5:14). 또 구체적으로 모형이라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비교되는 사항이 너무 많고 너무 뚜렷해서 모형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주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언급된 적은 없으나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는 1백 가지가 넘는 일치점들이 있다.

주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슬픔에 잠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성경에(강조된 부분이다) 쓴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

명해주셨다”(눅 24:27).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두루마리 책에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히 10:7).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는데 아무 거리낌을 갖지 않게 된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경험에 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헬라어로 ‘투포이’)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으니”라고 했다(고전 10:11). 이것은 구체적으로 모형이라고 밝혀진 것들뿐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도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강력히 지지해준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모든 성경이 유익하다고 상기시켰다(딤후 3:6).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성경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의 상당 부분은 성막과 그 기물의 모형론에 대한 설명이다. 모형론에 대해 지나치게 좁은 견해를 갖는 것도 구약의 많은 부분에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데 제약을 주는 것이 사실이나, 그러나 모든 것을 모형으로 삼거나 모든 역사를 풍유(諷諭)로 돌리는 또 다른 극단 역시 피해야 할 것이다.

모형에 대한 과장 내지 신비적인 설명은 그 주제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을 가져왔다. 우리는 극단주의가 구약에 담긴 영적인 부요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일 어떤 해석이 그리스도를 높이고, 혹은 그분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혹은 잃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혹은 성경의 전체 가르침과 일치된다면, 적어도 그것은 진리를 유효하게 적용한 셈이 된다.♠

42:26-28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형제들 중 하나가 그의 자

루에서 그의 돈을 발견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당혹해하며 도적으로 몰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26-28절).

42:29-38 그들이 집에 이르러 보고를 할 때 나머지 형제들도 그들의 돈을 발견하고 그 두려움이 더 커졌다. 야곱은 절망에 빠졌다. 르우벤이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볼모로 내놓겠다고 했지만 야곱은 그에게 화가 미칠까봐 베나민을 애굽에 보내기를 두려워했다.

43:1-15 마침내 야곱은 기근이 극심해져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형제들은 베나민 없이는 돌아갈 수 없었는데, 그것은 애굽 총리된 요셉이 제시한 조건이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베나민의 몸을 담보하겠다고 했고, 야곱은 그 제안을 수락했다. 적어도 이 한 가지 점에서 유다는 여기서 그의 후손, 즉 갈보리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주 예수님을 상기시켜준다. 야곱은 유향과 꿀, 향품, 몰약, 계자, 비단향(기근에 영향 받지 않는 물품들) 등을 애굽 총리에게 예물로 보냈다. 그리고 혹 전에 갖고 온 돈이 착오로 인한 것일지도 모르기에 돈을 두 배로 가져가라고 일러두었다.

43:16-25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다시 보고 깊이 감동이 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종들에게 명하여 연회를 베풀도록 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의 집에 인도되는 동안 그들의 자루에서 발견한 그 돈 때문에 자기들이 심문을 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에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자초지종을 다 해명하자 그 청지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의 장부에는 그들이 다 지불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시므온이 연회에

참석하기 위해 옥에서 석방되어 그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요셉이 정오에 오면 아버지가 주신 예물을 그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만일 그 돌려받은 돈이 가나안에 돌아가는 중에 발견된 것인지(42:27; 43:21) 아니면 야곱에게 이르렀을 때 발견된 것인지(42:35) 묻는다면, 그 답은 둘 다이다. 그 발견은 두 단계로 되어졌다. 한 형제가 도중에 그 일을 발견하고, 다른 형제들이 집에 도착해서 또 그 일을 발견했다. 이 사건을 요셉의 청지기와 관련시켜 보면(43:21) 그 기사가 요약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43:26-34 요셉이 도착하자 그의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그의 꿈을 성취시켰다(37:7). 그는 가족의 안부를 묻고 베냐민을 보는 순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연회에서 그는 혼자 음식을 먹고 열 한 형제들은 따로 식탁을 받았고 또 애굽인들도 따로 음식을 먹었다. 형제들이 놀라게도 그들은 연령대로 자리에 앉혀졌다. 어떻게 애굽인이 그들의 출생순서를 알았을까? 요셉의 친동생 베냐민에게는 특별한 호의가 베풀어졌다.

44:1-13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채비를 할 때 요셉은 그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 속에 숨겨두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그가 마실 때만 아니라 점을 칠 때도—아마 그가 꿈을 해석하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사용하는 잔이었다.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점을 치는 것이 금지되었다(신 18:10-12). 그러나 그보다 이른 이때에도 요셉이 애굽이 하듯이 점을 쳤던 것 같지는 않다. 그의 통찰과 예전은 여호와께로서 온 것이었다. 다만

그는 그 잔을 하나의 증거물로 삼아 형들에게 그가 애굽인이라는 확신을 주려했던 것 같다.

이어서, 요셉의 형들은 그 잔을 훔친 누명을 쓰게되자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생명을 내어주겠노라고 경솔한 말을 말했다. 요셉의 청지기는 범인이 발견되면 그는 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자 형제들은 짐을 꾸리고 성으로 되돌아왔다.

44:14-17 요셉이 그들을 꾸짖은 뒤에 유다가 이제 모두 그의 종 이 되겠다고 제안했으나, 그러나 요셉은 베냐민만 종으로 남고 나머지는 고향에 돌아가라고 일렀다.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두고 또 베냐민만 머물러있게 한 그의 조치는 그의 형들로 하여금 그 피 흘린 죄를 자백하도록 하기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 조오지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요셉은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들의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시므온을 억류하고 후에 베냐민을 억류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포로된 형제의 부르짖음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눈물에 대해 냉담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적절한 조치였다. 그의 계획은 멋지게 성공했다. 그의 엄위와 인자가 그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했으며, 그의 선함이 그들로 회개에 이르도록 도움을 주었다.”³²⁾

이 모든 장면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메시아의 죽음과 관련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사람이 그 독자를 위해 애곡하듯이 그분을 위해 애곡하게 될(슌 12:10) 그 날을 예표해준다.

32) (44:14-17)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39.

44:18-34 유다는 요셉에게 다가가 베냐민과 관계된 상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요셉이 일찍이 막내아들을 데려올 것을 요구한 일과, 한 아들을 잃은 것을 아직도 슬퍼하는 그들의 아버지가 베냐민이 애굽에 가는 것을 만류한 일과, 그리고 유다 자신이 베냐민의 안전을 보증하는 담보로 자기 자신을 내건 일을 소상히 전했다. 만일 형제들이 베냐민 없이 돌아가면 그들의 아버지가 죽을 것이며, 따라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애굽에 남아 종이 되겠다고 유다는 간청했다.

유다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지! 37장에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마음 상할 것을 생각지 않고 무정하게 이득을 위해 요셉을 팔아 넘겼다. 38장에서는 속임과 부도덕에 연루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43장에서 그는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44장에서는 요셉 앞에 중재에 나서서 그의 마음을 토로하며, 그의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잃는 크나큰 슬픔이 임하지 않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바치고 있다. 자기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긴 데서 자기 동생 대신 종이 되는 데로, 또 그의 아버지를 향한 냉담함에서 그의 안녕을 위한 희생적인 관심으로 바뀌었으니, 이것은 유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결과였다!

(7)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다(45장)

45:1-8 모든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인 이 대목에서, 요셉은 그의 신하들을 방에서 모두 나가게 한 다음 북받쳐 오르는 그의 마음을 폭발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렸다. 그는 그들이 전에 그에게 행한 일로 인해 근심하지 말라고 일렀다. 하나

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이었다.

45:9-15 그들은 남은 5년간의 기근으로 인해 그들의 부친과 가족과 소유를 애굽 땅 고센으로 인도해야 했다.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을 아릴 때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기도 하다. 요셉이 베냐민을 껴안고 모든 형들에게 입맞출 때 큰 기쁨의 샘이 터졌다.

이것은 갈보리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메시아-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그 날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기쁨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다.

45:16-24 이 모든 일이 바로에게 전해지자 그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부친과 가족을 가나안에서 데려오되,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므로 번거롭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일렀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준 마차와 요셉이 준 좋은 옷과 짐승과 물품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갔다. 베냐민은 돈과 특별한 옷을 선물로 받았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오래 전에 그를 학대한 죄로 인해 서로 책임을 물을까봐 염려하여 귀향 여정에 다투지 말라고 그들에게 당부했다.

45:25-28 집에 도착하는 즉시로 그들은 그 소식을 야곱에게 전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내막을 자세히 듣고 짐을 가득 실은 마차를 보고 나서 그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았다. 요셉이 아직 살았고, 그들이 그를 다시 만나다니!

요셉은 본장에서 그의 부친을 다섯 번 언급한다. 이것은 그의 형들에게 베푼 값없는 용서 외에 그가 그리스도를 닮은 또 다른 면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분의 아버지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하려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 요셉의 야곱을 향한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8) 요셉과 그의 가족의 재회(再會)(46장)

46:1-7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은 유서 깊은 브엘세바에서 일행을 멈추고 그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다. 이곳은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장소였다(21:31-22:2). 또한 그곳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장소였다(26:23-24). 이제 그분께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일곱 차례 중 마지막이다. 4절의 두 번째 약속은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올 것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물론 그는 애굽에서 죽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두 가지로 성취되었다. 하나는, 그의 몸이 장사되기 위해 가나안으로 옮겨진 일이며, 또 하나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의 후손이 가나안에 돌아옴으로써 그 또한 그곳에 돌아오게 된 일이다.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는 표현은 평화로운 죽음을 예고한 것이다. 에이킨슨은 이 문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설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을 때 요셉이 그의 눈을 감길 것이다. 그가 죽을 때 요셉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에게 은혜로이 주어졌던 개인적인 약속을 보라. 그것은 그가 요셉으로 인해 겪은 오랜 세월의 슬픔과 애곡을 보상해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종들의 개

인적인 필요를 돌아보신다(벧전 5:7).”³³⁾

야곱은 모든 자손과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애굽에 당도했다.

46:8-27 8절부터 27절에는 야곱과 그 아들들의 가족 명부가 나온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가족 수는 66명이었다(26절). 이 숫자는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의 70 및 사도행전 7장 14절의 75와 조화시키기가 다소 어렵다. 가장 명쾌한 설명은, 직계 자손들로부터 친척까지 그 범위가 좁게, 혹은 넓게 잡혀있다는 것이다.

46:28-34 이스라엘과 요셉간의 극적인 만남이, 나일강 삼각지 근처에 자리 잡은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인 고센에서 이뤄졌다. 야곱과 그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최적의 목초지가 되는 까닭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목자라고 바로에게 전하기로 했다. 목자는 애굽인들에게서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바로가 왕국에서 멀리 떨어진 고센 땅에 그들이 거하도록 허락해줄 것이다. 그곳 고센에서 그들은 첫째는 그 국적으로 인해(43:32), 그리고 그들의 직업으로 인해 애굽인들과의 사회적인 접촉이 단절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되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을 소유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이러한 훌륭한 보호소에 거하게 하셨다.

(9) 애굽에 들어간 요셉의 가족(47장)

47:1-6 요셉의 형들 중 다섯이 바로에게 이르러 자신들이 목자라고 얘기하자 그들의 기대대로 바로는 푸른 고센의 목초지에 정착

33) (46:1-7) Basil F. C. Atkinson, *The Pocket Commentary of the Bible, The Book of Genesis*, p. 405.

하라고 허락했다. 또한 바로는 요셉에게 가족 중 능한 자들을 택하여 왕궁의 가축들을 돌보게 하라고 지시했다.

47:7-12 요셉이 130세 된 그 부친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알현하게 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사실은, 이 노쇠하고 이름 없는 유대인이 애굽의 군주보다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작은 자가 큰 자에게 복 받음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히 7:7). 야곱은 자신의 날이 적고 험악하다고 했다. 사실 그는 많은 험악한 일을 당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에 가족을 정착시키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 그들의 삶은 진실로 더 풍성한 삶이었다.

47:13-26 애굽과 가나안 모든 백성이 양식을 얻을 돈을 다 소모하자 요셉은 그 값으로 그들의 가축을 받았다. 그런 연후에 그는 애굽 제사장들에게 속한 땅을 제외한 모든 땅을 사들이고는 백성들에게 곡물을 심을 씨를 주고, 아주 공정하게도, 토지를 임대한 값으로 수확물의 5분의 1을 그들에게 요구했다.

47:27-31 이스라엘은 그 임종이 가까워오자 요셉에게 자기를 가나안에 묻을 것을 약속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침상 머리에서(“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히 11:21) 경배를 했다. 여기 나오는 히브리어 자음들은 그 붙는 자음에 따라 ‘침상’으로 옮겨질 수도 있고, ‘지팡이’로 옮겨질 수도 있다.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은 ‘침상’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그 히브리서에 인용된 70인역은 ‘지팡이’로 옮겨지고 있다. 키드너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설한다.

“히브리어 본문과 70인역 본문 모두 48장 2절에는 ‘침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의 배경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병들기(48:1) 이전의 상황이며, 따라서 ‘지팡이’란 의미가 옳은 것 같다. 그것은 신약성경의 문맥에서 주어지는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그의 나그네 삶(32장 10절의 감사하는 말을 보라)에 대한 상징으로 언급하기에 적절한 상징물이 될 것이다.”³⁴⁾

찬탈자 야곱은 이렇게 경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용사들 중에 경배자라는 존귀를 얻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 길을 왔으며, 이제 곧 영광의 불꽃 속으로 들어갈 참이었다.

(10)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함(48장)

48:1-7 요셉은 그 부친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곧 서둘러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함께 부친의 침상에 이르렀다. 그 죽어 가는 족장은 침상에 앉아 그의 두 손자를 그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가나안이 오랜 후에 지파들 중에 분배될 때 요셉 지파가 그 땅을 두 배 분배받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즉 요셉은 영토에 관한 장자권을 부여받은 셈이었다. 그 두 아들 이후로 요셉에게 태어나는 후손은 야곱의 아들이 아닌 요셉의 아들이 될 것이며,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할애된 땅에 거할 것이다. 7절은 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하고자 했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들은 너무도 일찍 죽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 말미암은 그의 손자였다.

34) (47:27-31) Kidner, *Genesis*, p. 212.

48:8-22 이어서 야곱은 손자들에게 축복하며 어린 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주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선호하여 그것을 바로잡으려 했으나, 그러나 야곱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했다. 그가 믿음으로 어린 자에게 축복을 할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기억들이 스치고 지나갔겠는가? 오래 전 그의 부친이 부지중에 어린자인 그에게 축복한바 있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어린 자에게 축복을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무지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왜냐하면 그가 장래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 깊은 사귀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의 후손이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야곱은 자신이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산지를 요셉에게 허락했다. 아마도 이것은 ‘야곱의 우물’로 알려지게 된 그 우물을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는 듯하다(요 4:5).

(11) 그의 아들들에 관한 야곱의 예언(49장)

49:1-2 야곱의 마지막 말은 “이르다”(‘예언하다’, 1절)와 “축복하다”(28절)이다.

49:3-4 르우벤은 장자로서 그 부친의 생육하는 힘의 탁월함을 대표했으며, 이에 권능과 위엄의 자리를 차지했다. 두 배의 분깃을 지닌 장자권은 그에게 속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욕망이 마음에 끓어 그 부친의 후처 빌하와 더불어 죄를 범했으므로(35:22) 그의 특권을 빼앗겼다.

49:5-7 시므온과 레위는 세겔 사람들을 죽이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야곱 안에서 분산되고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까지(민 26장) 이들은 가장 작은 두 지파였다. 이것은 또한 시므온 지파가 유다에 의해 대부분 흡수되고(수 19:1-9), 또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 전체에서 48개 성읍을 할당받음으로 성취되었다. 야곱은 이들 두 지파 사람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잔인한 속임수를 저주한 것이다.

49:8-12 유다(찬양을 의미)는 그 대적에 대한 승리로 인해 그 형제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것이다. 그는 먹이를 사냥하러 나가서, 아무도 감히 휘방하지 못하는 훌륭한 안식처로 돌아오는 사자와 같다.

요셉이 영토와 관련된 장자권을 상속받았듯이 유다는 통치와 관련된 장자권을 상속받았다. 통치권은 실로(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 지파에 머물 것이며, 그 실로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권능의 날에 그분께 기꺼이 순종할 것이다. ‘실로’라는 이름의 뜻은 불분명하다. 어떤 이들은 ‘평강의 왕’, ‘평온’, ‘(유다의) 씨’, ‘그의 후손’, ‘그 소유주’(겔 21:27) 등으로 추측한다.

49:13 스블론은 해운업을 통해 번영을 누릴 것이다. 구약시대 이 지파의 영토가 육지로 둘러 쌓인 것으로 보아 이 예언은 천년왕국을 대망한다고 보아진다.

49:14-15 잇사갈은 건장한 나귀와도 같이 좋은 목초지에서 쉬는 것에 만족할 것이다. 그는 독립을 위해 싸울 의지도 없으며, 따

라서 적의 명에 아래 종노릇하게 된다.

49:16-18 단은 그 이름에 맞게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관심이 있을 것이다. 17절은 난해구절이다. 그것은 단이 그 민족의 멸망을 초래할 우상숭배를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다(삿 18:30).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나올 것임을 비밀히 언급한 것이며, 그 까닭에 역대상 2장 3절, 8장 40절 및 계시록 7장 3-8절에서 그 지파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18절에서 야곱은 그의 백성의 대적으로부터의 최종적인 구원 내지 그 자신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삼입시켰다.

49:19 갓은 요단 동편에서 그 영토를 보호받지 못하는 까닭에 대적의 침입을 빈번히 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지파는 그 대적의 군대를 짓밟을 것이다.

49:20 아셀(기뽁)은 기쁘게도 비옥한 농경지를 얻고 왕에게 적합한 식물을 생산할 것이다.

49:21 납달리는 갠 데서 풀려난 암사슴과 같다.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굉장한 속도로 뛰쳐나갈 것이다. 그 배신자(가롯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납달리 영토 출신이었으며, 주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이 그곳에서 행해졌다(막 4:13-16).

49:22-26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영토로 둘러싸인 요셉은 변성한 가지로서 그의 경계 너머로 축복을 전해준다. 그는 원수들의 포

적이었으나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즉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 요 반석(즉, 메시아)이 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에 굴복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풍성한 비와 우물과 샘 및 무수한 자손으로 요셉을 축복하셨다. 야곱은 자신이 선조들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고 겸허히 생각했다. 이제 그는 그러한 축복이 요셉에게, 즉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에게 임하기를 원했다.

49:27 베냐민은 전사(戰士)의 지파로서 계속해서 정복하여 전리품을 나눌 것이다. 어떤 이는 베냐민이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기백 있고 용감한 지파로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49:28-33 축복을 마감하면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그의 고향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의 장지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12) 애굽에서의 야곱 및 요셉의 죽음(50장)

50:1-14 야곱이 죽자 애굽인들도 70일간 그를 위해 애곡했다. 그의 몸은 궁전의 의사들에 의해 향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이 관원과 가족과 시종의 큰 장례 행렬과 함께 그 부친의 몸을 가나안으로 옮기도록 허락했다. 그들은 요단 동편에서 멈추어 7일간 심히 애곡했으며, 이를 보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곧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불렀다.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지낸 뒤에 요셉과 그 일행은 애굽으로 돌아왔다.

50:15-21 야곱이 죽었으므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보복할 것을 염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그들의 부친 야곱이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줄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하였다.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문제이므로 복수나 심판을 하려는 의도가 일절 없었다. 그는 나아가서 참으로 기억할 만한 말로 그들의 두려움을 없이해 주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50:22-26 요셉은 아마도 야곱의 열두 아들 중 가장 먼저 죽은 것 같다. 이 때는 그의 부친이 죽은지 54년 후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다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칭송되고 있다. 그는 그 땅에 그의 뼈를 장사지내라고 지시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로 시작해서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는 말로 마감된다. 그것은 전기(傳記)의 책이다. 천지의 창조에 대해서 두 장이 할애되었고, 나머지 48장은 주로 낡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내용이다.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그분을 아는 이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며 도전이 되는 사실인지!

참고 문헌

- Atkinson, Basil F. C. *The Pocket Commentary of the Bible. The Book of Genesis*. Chicago: Moody Press, 1957.
- Campbell, Murdoch. *The Loveliest Story Ever Told*. Inverness: Highland Printers Ltd., 1962.
- Grant F. W. *Genesis in the Light of the New Testament*. New York: Loizeaux Bros. Inc., n. d.
- Grant F. W. "Genesis." In *The Numerical Bible*, Vol. 1.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77.
- Keil, C. F. and Delitzsch, F. "Genesi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 3.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1.
- Kidner, Derek. *Genesis*.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3.
- Pfeiffer, Charles F. *The Book of Genesi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 Pink, Arthur W. *Gleanings in Genesis*. Chicago: Moody Press, 1922.
- Ross, Allen P. "Genesi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Victor Books, 1985.

- Spence, H. D. M., and Exell, J. S. "Genesis." In *The Pulpit Commentary, Genesis*. New York: Funk and Wagnalls, n. d.
- Thomas, W. H. Grittith. *Genesis: A Devotional Commentary*.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3.
- Yates, Kyle M., Sr. "Genesis."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8.

출애굽기

출애굽기 서론

“신학을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행위에 대한 자세한 해설로 보는 이들에게, 출애굽기 1-15장은 나머지 성경의 기사들을 그 주위에 끌어 모을 수 있는 가장 으뜸가는 본보기가 되어준다. 구약을 공동체 사회의 예배 생활의 산물(産物)로 보는 이들에게, 출애굽기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인 유월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자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토라, 즉 그분의 율법을 후대의 이스라엘의 삶과 사고(思考)의 중심 요소로 보는 이들에게, 출애굽기는 율법의 수여를 간직하고, 또 그 율법의 핵심 요소를 십계명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R. 알렌 콜).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출애굽기(헬라어로 '출로[出路])는 요셉의 사망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유월절에 나타나 있는 유대 종교의 기초들은 이스라엘이 4백년간 애굽 생활에서 탈출한 사건에 뿌리를 둔다. 완고한 바로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당시 세계 제국을 이루던 그의 나라에 무서운 재앙을 불러온 연후에야 비로소 출애굽이 이뤄졌다.

홍해를 건넌 일을 비롯한 많은 놀라운 이적에 대한 기사와,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여, 그리고 성막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이 놀라운 책을 구성하고 있다.

2. 기자

우리는 이 모세의 두 번째 책이 오경의 나머지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전통적인 유대교 및 기독교의 견해를 고수한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변호를 살펴보려면 오경 서론을 참조하라.

3. 연대

성경학자들은 출애굽의 연대를 이른 시기로는 B.C 1580년경으로, 늦은 시기로는 B.C 1230년경으로 잡는다. 열왕기상 6장 1절은 출애굽이 솔로몬이 성전건축을 시작하기 480년 전에 일어났다고 말한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B.C 960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출애굽은 B.C 1440년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수적인 입장의 견해이다. 많은 학자들은 고고학이 후기 연대(B.C 1200년경)를 더 지지한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다른 고고학적인 발견들은 전기 연대에 더 맞는 듯하다. 물론 정확한 연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출애굽 사건은 1440년경에 일어났고 출애굽기는 그 얼마 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인다.

4. 배경 및 주제

출애굽기를 열면 창세기 끝에서 애굽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배경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4백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전에

은총을 입던 히브리인들은 노예가 되어 바로의 방대한 건축계획을 위해 벽돌을 굽고 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구속과, 이스라엘 민족의 건설이다. 3400년이 넘도록 유대인은 전세계적으로 유월절을 통해서 이 사건, 즉 권능과 피로써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의 실제 국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된 사건을 기념해왔다.

역시 권능과 피로써 이뤄진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주님의 만찬은 역사적으로 보나 신학적으로 보나 유월절에서 나온 것이다. 그 예식의 떡과 잔은 어느 정도는 그 유월절 의식의 동일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출애굽 후에 장면은 모세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광야로 전환된다. 출애굽기의 거의 절반은 성막과 그 제사장직에 관한 것이다(25-40장). 이 부분은 단순한 역사적인 내용이 아니다.

출애굽기의 축복을 진정 누리려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모세, 유월절 어린양, 반석, 성막 등은 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상징)의 일부에 불과하며, 성경 다른 곳에 여러 모형들이 언급되어 있다(예를 들어, 고전 5:7, 10:4; 히 3-10장). 모쪼록 주님께서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모든 성경에 쓰여 자기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란다(눅 24:27).

5. 개관

1.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속박(1장)

2. 모세의 출생과 구출 및 훈련(2장)
3. 모세의 소명(3-4장)
 - 1)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에 대한 계시(3장)
 - 2) 모세의 주저함(4:1-17)
 - 3) 모세의 애굽으로의 귀환(4:18-31)
4. 모세의 바로와의 대면(5:1-7:13)
 - 1) 첫째 대면(5:1-7:6)
 - 2) 둘째 대면(7:1-13)
5. 아홉 가지 재앙(7:14-10:29)
 - 1) 첫째 재앙-나일이 피로 변하다(7:14-25)
 - 2) 둘째 재앙-개구리(8:1-15)
 - 3) 셋째 재앙-이(8:16-19)
 - 4) 넷째 재앙-파리(8:20-32)
 - 5) 다섯째 재앙-생축의 악질(9:1-7)
 - 6) 여섯째 재앙-악종(9:8-12)
 - 7) 일곱째 재앙-우박과 불(9:13-35)
 - 8) 여덟째 재앙-메뚜기(10:1-20)
 - 9) 아홉째 재앙-3일간의 흑암(10:21-29)
6. 유월절과 장자의 죽음(11:1-12:30)
7. 출애굽(12:31-15:21)
 - 1) 홍해를 향한 도피(12:31-13:22)
 - 2) 홍해를 건넌(14장)
 - 3) 모세의 노래(15:1-21)
8. 시내산으로의 여정(15:22-18:27)
 - 1) 수르 광야(15:22-27)

- 2) 신 광야(16장)
- 3) 르비딤(17장)
- 4) 모세와 이드로(18장)

9. 율법의 수여(19-24장)

- 1) 계시를 위한 준비(19장)
- 2) 십계명(20장)
- 3) 여러 가지 율법들(21-24장)
 - (1) 종에 관한 율법(21:1-11)
 - (2) 개인적인 상해(傷害)에 관한 율법(21:12-36)
 - (3) 절도와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율법(22:1-6)
 - (4) 부정직에 관한 율법(22:7-15)
 - (5) 미혹에 관한 율법(22:16,17)
 - (6) 시민적, 종교적 의무에 관한 율법(22:18-23:19)
 - (7) 정복에 관한 율법(23:20-33)
 - (8) 언약의 인준(認准)(24:1-18)
 - (9)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24:9-18)

10. 성막과 제사장직(25-40장)

- 1) 성막제작에 관한 지시(25-27장)
 - (1) 재료의 수집(25:1-9)
 - (2) 언약궤(25:10-16)
 - (3) 속죄소(25:17-22)
 - (4) 진설병상(25:23-30)
 - (5) 금촛대와 그 부속물(25:31-40)
 - (6) 성막(26장)
 - (7) 번제단(27:1-8)

- (8) 바깥뜰, 기둥, 포장(布帳)(27:9-19)
- (9) 관유(27:20,21)
- 2) 제사장직(28,29장)
 - (1) 제사장의 의복(28장)
 - (2) 제사장의 성별(29장)
- 3) 성막에 관한 세부 지시(30,31장)
 - (1) 향단(30:1-10)
 - (2) 속전(30:11-16)
 - (3) 물두멍(30:17-21)
 - (4) 관유(30:22-33)
 - (5) 향(30:34-38)
 - (6) 재능 있는 장인(匠人)들
 - (7) 안식일의 표징(31:12-18)
- 4) 우상숭배의 발생(32,33장)
 - (1) 금송아지(32:1-10)
 - (2) 모세의 중재와 분노(32:11-35)
 - (3) 백성들의 회개(33:1-6)
 - (4) 모세의 회막(33:7-11)
 - (5) 모세의 기도(33:12-23)
- 5) 언약의 갱신(34:1-35:3)
- 6) 성막기구의 준비(35:4-38:31)
 - (1) 백성들의 예물과 재능 있는 사람들(35:4-36:7)
 - (2) 성막을 덮는 막(36:8-19)
 - (3) 세 면을 위한 널판(36:20-30)
 - (4) 널판을 한데 묶는 띠(36:31-34)

- (5) 지성소로 인도하는 휘장(36:35,36)
 - (6) 성소로 인도하는 포장(36:37,38)
 - (7) 언약궤(37:1-5)
 - (8) 속죄소(37:6-9)
 - (9) 진설병상(37:10-16)
 - (10) 금촛대와 그 부속물(37:17-24)
 - (11) 향단(37:25-28)
 - (12) 관유와 향(37:29)
 - (13) 번제단(38:1-7)
 - (14) 물두멍(38:8)
 - (15) 바깥뜰, 기둥, 포장(39장)
- 7) 제사장 의복의 준비(39장)
 - 8) 성막을 세움(40장)

1.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속박(1장)

1:1-8 출애굽기의 처음 나오는 문구 “...이름은 이러하니라”(히브리어로, ‘*벨레 웨모쓰*)가 유대인의 전승에서 출애굽기의 제목이 되고 있다. 하나님은 얼마나 개인적이신지! 숫자나 컴퓨터카드상의 체크 표시가 아니라 이름들을 기록하셨다.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고 하셨다(요 10:3). 이것은 여기 본문에 아주 적합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들로서 애굽에 내려왔으나 이제는 노예이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야곱의 혈족이 모두 칠십인’에 대한 설명은 창세기 46장 8-27절 주해를 보라. 이 70명의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시내 광야를 떠날 시점에는 싸움에 나갈만한 603,550명의 남자를 포함해서(민 1:46) 2-3백만 명으로 불어났다. 6-7절은 창세기 끝과 출애굽 사건 간에는 오랜 세월이 경과되었음을 말해준다. 8절의 의미는 요셉의 후손을 인정치 않는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물론 요셉 자신은 이미 죽은 뒤였다.

1:9-10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가 심히 증가되고 강성해지자 바로는 그들이 전쟁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 백성을 노

예로 삼고 또 모든 사내 아이를 죽여서 결국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겠다고 작정했다. 성경에서 세 악한 통치자들이 죄 없는 아이들의 살육을 명했는데, 여기 나오는 바로와 앳달라(왕하 11장)와 헤롯(마 2장)이 그들이다. 이 사단에 의해 자극된 악행들은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는데 목적이 있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았다.

1:11-14 바로는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설하는데 유대인 노예들을 이용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학대로 멸절되는 대신 더욱 더 번성했다! 바로는 악을 이루기 위해 가혹한 속박을 꾀했으나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셨다. 그러한 학대는 유대인들로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고된 여정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1:15-19 아마도 히브리 산파장이었을 십브라와 부아는 유대인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것을 보고, 바로의 명대로 사내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은 히브리 아이들은 대개 빨리, 즉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태어난다는 설명으로 그들의 불이행을 변명했다. 이러한 주장은 아마 어느 정도 사실이었을 것이다.

1:20-22 ‘성서 유니온의 매일 성경’은 이 산파들이 처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산파들이 그 집이 왕성케 되는 보상을 받은 것은(21절) 그들의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애 때문이었다. 이것은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말이 아니며, 아무 절대적인 도덕기준이 없다

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죄와 그 결과로 얼룩진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의무에 대한 순종은 덜 중요한 의무에 대한 순종을 희생시켜야만 가능할 수도 있다. 다른 모든 면에서처럼 이 점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The 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히브리 산파들을 통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바로는 이제 자기 신하들에게 명하여 그 일을 수행하라고 했다.

2.

모세의 출생과 구출과 훈련(2장)

2:1-2 1절의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은 아브람이었고,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었다(6:20). 즉, 모세의 양친 모두 제사장 지파인 레위 출신이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를 석 달간 숨겨두었다(히 11:23). 이것은 그가 어떤 중요한 과업을 갖고 태어난 아이라는 모종의 계시를 그들이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2:3-8 요게벳의 상자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다. 모세의 누이는 미리암이었다(민 26:59). 본장은 우연하게 보이는 일치들로 가득차 있다. 예를 들어 왜 바로의 딸이 상자가 떠다니는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었는가? 왜 그 아이가 그 때 울음을 터뜨려 그녀의 동정을 자아내게 했는가? 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의 딸에 의해 모세의 유모로 받아들여졌는가?

2:9-10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9절 말씀을 거룩한 부탁이자 실패하지 않는 틀림없는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애굽인들에게, 바로의 딸이 붙여준 모세란 이름은 아마도 ‘아이’ 혹은 ‘아들’을 의미할 것이다. 히브리인에게는 그 이름이 ‘끌어내다’, 즉 ‘물에서 끌어

내다’는 의미이다.¹⁾ 메킨토쉬는 이에 대해 비상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설명한다.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기 위해 사단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그 바로가, 후에 사단의 능력을 무력화하는데 그분의 도구로 사용될 모세를 양육하고 기르는데 하나님께 사용됨으로써 사단은 보기 좋게 자기 무기에 의해 좌절을 당하고 말았다.”²⁾

2:11-12 우리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모세가 자기 백성을 찾아갔을 때 나이가 40세였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애굽인을 죽인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 그의 열정이 그의 분별을 앞선 것이었다. 하나님은 언젠가 모세를 사용하여 그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계획이었으나 그러나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먼저 그는 광야 언저리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워야 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400년간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을 것을 예고하셨듯이(창 15:13), 모세의 행동은 40년간은 미숙한 상태였다. 그는 황량한 광야에서 좀 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백성은 벽돌 굽는데서 좀 더 훈련이 필요했다. 여호와께서는 법사를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따라 명하신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시며, 또한 그분의 백성을 필요 이상으로 한 순간도 더 고난 중에 놔두지 않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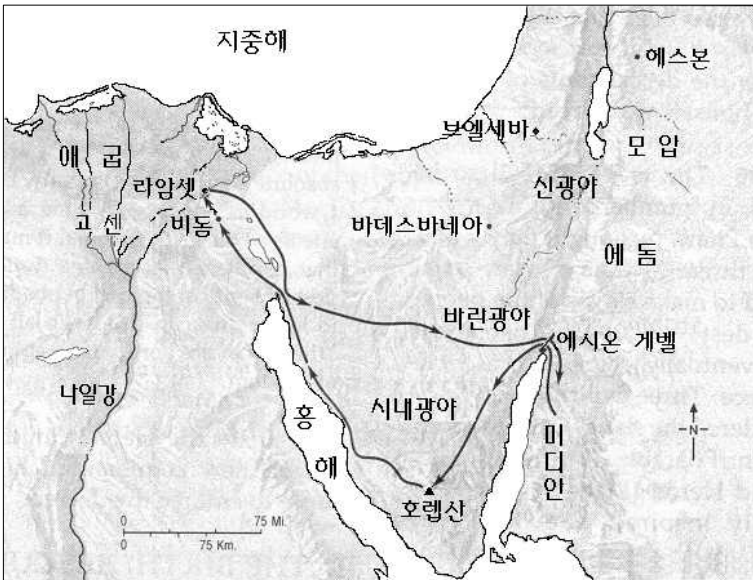
2:13-15a 이튿날 다시 나갔을 때 모세는 두 히브리인 사이의 싸

1) (2:9-10) ‘건져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샤’는 사실 단어를 가지고 장난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히브리인들은 자녀의 이름을 짓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말장난, 혹은 재담(才談)을 하곤했다(예를 들어, 창세기 29,30장에서 아곱의 이름을 짓는 경우를 보라).

2) (2:9-10) C. H. Machintosh, *Genesis to Deuteronomy*, p. 144.

움을 보고 중재에 나섰으나, 후에 모세보다 더 큰 분을 히브리인들이 거절했듯이, 그들은 그의 리더십을 거절했다. 그가 전에 애굽인을 죽인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모세는 당황해했다. 바로가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 땅, 즉 아라비아 내지 시내 지역으로 도피했다.

2:15b-22 미디안의 한 우물에 이르러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의 일곱 딸들을 도와 몇몇 무정한 목자들을 저지하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이 미디안 제사장은 이드로(3:1)와 르우엘(18절, 민수기 10장 29절의 '라구엘'과 동일하다)이란 두 이름이 있었다. 미디안족은 히브리인의 먼 인척이었다(창 25:2). 이드로의 딸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되어 게르솜(‘그곳의 나그네’란 뜻)이란 아들이 태어났다.



▲ 모세의 도피와 애굽으로의 귀환

2:23-25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의 곤경을 잊지 않으셨다. 새로운 왕이 위에 오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처지를 듣고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들의 상태를 측은히 여기셨다. 이에 그분은 자기 종을 애굽에 돌려보내어(3장), 세상을 창조한 이래로 가장 강력한 권능을 보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자 하셨다.

3. 모세의 소명(3-4장)

1)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에 대한 계시(3장)

3:1-4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일에 관한 소중한 교훈들을 배웠다. 그가 호렘(시나이)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 떨기나무는 그가 그 앞에서 신을 벗은 채 서도록 명령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준다. 또한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소멸됨 없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을 예표해 줄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고난의 불 가운데서 시련을 당하되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 보기도 했다. 우리는 모두 이 떨기나무처럼 하나님을 위해 불타오르되 소멸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³⁾

3:5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풍요의 땅으로, 즉 8월에 열거된 여섯 이방 족속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다. ‘거룩한’이란 단어가

3) (3:1-4) 적절하게도, 스코틀랜드 언약자들은 이 타는 떨기나무를 ‘Nec consummaretur’(“그러나 타버리지 않았다”)라는 라틴어 모토와 함께 그들의 표어로 삼았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여기에 나온다. 모세는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곳이 거룩한 곳을 인정했다.

3:6 하나님은 자신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확인해주셨다. 콜은 이 계시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해준다.

“모세는 그의 백성에게 새롭거나 알려지지 않은 신(神)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알아온 분에 대한 보다 완전한 계시를 소개하고 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한 말조차도 이 계시와 비교될 수 없다(행 17:23). 오직, 이후 여러 세기 동안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절정에 이른 지속적인 자기 계시만이 이 본문과 참으로 비교되는 계시이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모세에게 임한 계시는 족장들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성취인 한편, 이스라엘에게는, 후에 메시아의 오심이 그들에게 놀라운 일로 증명되었듯이, 새롭고도 충격적인 계시였다.”⁴⁾

3:7-12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변명하며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기를 보내시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분의 함께 하심을 확신시키시며, 그가 자유케 된 백성과 더불어 이 산(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J. 오스왈드 센터스는 이렇게 설명한다.

“모세의 자격 없음의 목록에는 능력의 결여(3:11), 메시지의 결여(3:13), 권위의 결여(4:1), 언변의 결여(4:10), 적응력의 결여(4:13), 성공한 전력(前歷)의 결여(5:23), 인정받은 전력(前歷)의 결여(6:12) 등

4) (3:6) R. Alan Cole,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p. 66.

이 포함되었다. 이보다 더 완벽한 능력 없음에 대한 목록은 작성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신에 표면상의 겸손과 주저함으로 그분의 노를 일으켰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발하시고…’(4:14). 사실,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보이기 위해 진술한 변명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그를 택하신 바로 그 이유였다.”⁵⁾

3:13-14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들에게 돌아갈 때 이스라엘 후손들이 자신에게 던질 질문들을 예상했으며, 이에 그는 자기를 보낸 자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랐다.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로 계시하신 것이 바로 이 때였다. 여호와(정확히는 ‘야웨’)는 ‘있다’(to be)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 ‘하야’에서 왔다. 이 성스런 이름은 ‘테트라그라마톤’(‘네 문자’)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단어 ‘여호와’(Jehovah)는 히브리어 *YHWH*에 엘로힘과 아도나이와 그밖에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로부터 따온 모음들을 첨가한 것이다. *YHWH*의 정확한 발음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데, 이는 그 고대 히브리어 철자는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웨’(Yahweh)라는 발음이 아마도 정확한 듯하다. 유대인들은 *YHWH*를 너무 거룩하여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이름은 하나님을 자존하시며, 자족하시며, 영원하시며,⁶⁾ 그리고 주권자 되신 분으로 선언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기에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있는 자다’란

5) (3:7-12) J. Oswald Sanders,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6) (3:13,14) 모팻역과 같은 어떤 성경들은 ‘영원하신 이’로 이 이름을 옮기고 있다 (루이스 세콘드의 붙여역도 마찬가지다).

뜻일 수 있다.

3:15-22 하나님이 실제로 현존하시며 자기 백성을 도우러 오실 준비가 되어있다는 이러한 계시에 힘입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곧 해방될 것이라고 알리라는 명을 들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3일간의 여행을 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으로 바로를 시험해야 했다. 이것은 바로를 속이려는 시도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작은 시험이었다. 또한 그것은 애굽인들로, 그들에게 성스런 짐승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가 그분의 권능으로 어쩔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까지 굴복하지 않을 것을 아셨다.

20절의 ‘이적’은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재앙들이다. 하나님이 재앙을 끝내실 때가 되면 애굽인들은 유대 여인들에게 그 요구하는 물건을 기꺼이 다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거둬들인 재물은 단지 애굽의 압제 아래 유대인들이 치른 모든 종노릇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패물과 의복을 ‘빌지’ 않고 (흠정역 표현대로), ‘요구’할 것이다(신흠정역). 이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 값을 정당히 지불 받는 것이다.

2) 모세의 망설임(4:1-17)

4:1-9 모세는 백성들이 과연 자신을 하나님의 대변자로 받아들일지 계속 의심했다. 2장 11-15절의 불미한 일이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 같았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사명을 확증해

주기 위해 세 가지 표적 내지 이적을 그에게 허락하셨다.

①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뱀이 되었다. 그 뱀 꼬리를 잡자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② 그의 손을 가슴에 넣자 문둥병이 들었다. 그 손을 다시 꺼내자 문둥병이 사라졌다. ③ 나일 강물을 땅에 쏟아 붓자 피가 되었다.

이 표적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확신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것들은 사단(즉, 뱀)과 죄(문둥병으로 표현됨)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피를 통해 그 두 가지에서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었다.

4:10-17 모세는 자신이 언변이 없다고 변명하며 여전히 여호와께 순종하기를 주저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입을 지으셨으며 따라서 그를 언변 있게 하실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 다음에 하나님은 그 대신 말하도록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웠다.

모세는 그분의 명령이 곧 그분의 능력임을 알고 단순한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했다. 하나님은 결코 행할 능력을 주지 않은 채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최선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선, 즉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두는 쪽을 취해야 했다. 모세는 아론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후에 아론은 백성들로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잘못 인도함으로써 장애물로 입증되었다(32장).

3) 모세의 애굽으로의 귀환(4:18-31)

4:18-23 미디안으로 도피한지 40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대로, 그리고 이드로의 축복을 받으며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의 아내는 십보라였고, 그의 아들은 게르솨과 엘리에셀이었다(18:2-4). 2절의 지팡이는 20절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이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평범한 물체를 비범한 일에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행하라고 명하신 ‘이적’은 뒤에 이어질 재앙들이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으나, 그러나 그 폭군 바로가 먼저 자기 마음을 강박케 한 연후에 그렇게 하셨다. ‘장자’는 때로 육체적인 출생 순서를 가리키나, 여기서는, 정상적으로는 장자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위치인 장자권을 상속 받은 자를 의미한다. 바로는 만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다.

4:24-26 그러나 모세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그 자신이 순종을 배워야 했다. 그는 아마도 십보라의 반대 때문인지, 그의 아들(게르솨이나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아마도 심각한 질병으로 모세를 죽이려 위협하시자, 십보라가 분을 내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남편의 생명을 보호했다. 그녀는 모세를 ‘피 남편’(신랑)이라고 불렀다.

이 사건(십보라가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준 일을 포함해서) 때문에 아마도 모세는 십보라를 두 아들과 함께 그녀의 부친에게로 보냈던 것 같다(18:2,3).

4:27-31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중에 아론이 나아와 그를 맞았다. 그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의 메시지를

전하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이적으로 그 메시지를 확증했다. 이에 백성들은 믿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

4. 모세의 바로와의 대면(5:1-7:13)

1) 첫 번째 대면(5:1-7:6)

5:1 3장 18절에서 일찍이 하나님은 바로 앞에 나갈 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고 모세에게 이르셨다. 그 어간에 여호와께서는 아론을 모세의 대변자로 세우셨다(4:14-16). 다시 말해서 아론이 장로들을 대신하여 모세와 함께 간 것이다. 여호와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내 백성을 보내라.”

5:2-14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첫 번째 통보를 하자 바로는 그들이 백성들로 일을 쉬게 만든다고 꾸짖었다. 아울러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役事)를 바꾸어, 벽돌을 만드는데 사용될 짚을 그들이 직접 모으되 벽돌은 전과 같은 양으로 생산하라고 명령했다. 바로는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했는데, 이는 나치가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을 학대한 것을 상기시킨다. 백성들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물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해야 했다. 히브리어 본문은 이 압제받는 백성들이 멸시를 당했음을 암시해준다. 콜은, ‘그루터기’는 거칠고 고르지 못해서 짚 대신 쓰기에는 좋지 못하다고 지적한다.⁷⁾

5:15-23 지금까지는 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급되었다. 그것은 벽돌을 강화하고, 원래 만들어진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었다. 유대인 패장들은 채찍질을 당하게 되자 바로에게 항의했으나 아무 동정도 얻지 못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으며, 이에 모세는 여호와를 원망했다. 하나님의 백성 내부에서 제기되는 반대는 종종 외부로부터 오는 반대보다 견디기가 더 힘들다.

6:1-12 하나님은 우선,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에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는 안도의 말로 모세의 다그치는 듯한 말에 은혜로이 응답하셨다. 그런 다음 그분은, 족장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인 여호와가 아닌, 엘 샤다이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것을 모세에게 상기시켰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즉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그분은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실 참이었다. 6-8절에 일곱 번 나오는 ‘내가 하리라’는 말을 주목하라. ‘여호와’란 이름은 전에도 사용되었으나 이제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었다. 본문에는 하나님에 의해 인칭대명사가 25차례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분이 친히 하신 것과, 하고 계신 것과, 하실 것을 강조한 것이다. 모세는 중심메시지를 놓치고 여전히 자신의 부족함에 사로잡힌 듯 보인다. 그는 재다짐을 더 받은 연후에 비로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다(7장). 12절과 30절의 ‘할례 받지 않은

7) (5:2-14) Cole, *Exodus*, p. 82. 저자는 ‘그루터기처럼 자신을 흑사당했다’라고 울 김으로 간역자들의 잔인무도한 태도를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했다(12절).

입'(흙정역)은 말주변이 없음을 의미한다. 모세는 자신이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6:13-30 14절부터 25절의 계보는 야곱이 낳은 첫 세 아들인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 국한된다. 기자는 완전한 계보를 보여주기 보다는 모세와 아론에 이르는 계보만을 추적해 보이기를 원했다. 그래서 기자는 르우벤과 시므온을 서둘러 지나치고 제사장 지파에 이른 것이다.

7:1-5 6장 끝에서 모세는 대제국의 왕 바로가 자기 같은 하찮은 자의 말을 들을 것인지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바로 앞에 서는 것이라고 답하셨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할 것이다. 바로는 듣지 않을 것이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분의 백성을 건져내실 것이다!

7:6 모세와 아론은 그 위대한 구원사역을 시작할 당시 각각 80세와 83세였다. 오늘날 '노쇠했다'고 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남녀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으시다.

2) 두 번째 대면(7:7-13)

7:7-13 바로는 재앙이 임하리라는 경고를 받았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자, 바로의 술객들도 귀신의 능력으로 똑같은 기적을 흉내낼 수 있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서 이 애굽 술

객들이 안네와 얌브레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모방함으로써 모세를 거역했으나,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하나님은 임의로가 아니라 그의 완고함에 대한 반응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 이제 첫째 재앙이 내려질 시간이었다.

5. 아홉 가지 재앙(7:14-10:29)

1) 첫째 재앙-나일강이 피로 변함(7:14-25)

7:14-18 여호와께서는 바로가 물가로 나올 때 강가에서 바로를 개인적으로 대면하라고 이르셨다. (그는 아마 그 '성스런' 나일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모세는 왕에게,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에 의해 강이 피로 변하면 물고기가 죽고 강이 악취를 풍기고 애굽인이 물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했다.

7:19-25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했다. 그들은 애굽의 물들에 지팡이를 댔다. 나일과 애굽 땅의 물들이 피로 변하여 고기들이 죽고 강은 악취를 풍겼다. 술사들도 나일이 아닌 다른데 있는 물로 이 기적을 흉내 냈다. 바로는 이에 고무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했다. 나일이 오염된 그 7일 동안 사람들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다.

2) 둘째 재앙-개구리(8:1-15)

8:1-15 애굽 땅을 뒤덮은 개구리 재앙은 혹심한 피해를 주어 바

로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바로가 재앙을 없애달라고 간청하자 모세가 대답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이까? 내게 보이소서.”

술객들도 개구리를 나오게 할 수 있었다. 마치 아직 개구리가 충분치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들은 아마도 귀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나, 그러나 개구리가 비옥(肥沃)의 신으로 숭배 받는 까닭에 감히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다! 개구리들이 다음날 죽자 그 사체에서 썩은 냄새가 풍겼다. 바로는 다시금 그 마음을 강박케 했다.

3) 셋째 재앙-이(8:16-19)

8:16-19 셋째 재앙에서는 땅의 티끌이 이로 변했다. 이번에는 술객들이 이를 나오게 할 수 없었으며, 술객들의 능력보다 큰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바로에게 경고해주었으나, 그러나 왕은 완고했다. 그가 그 마음을 강박케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은 하나님에 의해 더욱 강박케 되었다.

4) 넷째 재앙-파리(8:20-32)

8:20-24 그래서 하나님은 넷째 재앙으로 파리떼를 보내셨다. ‘파리떼’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문자적으로 ‘떼’(혹은 ‘한데 섞인’)를 의미하며, ‘파리’란 곤충명은 역자들이 추가한 것이다. 아마도 이 ‘떼’는 여러 종류의 곤충이 한데 섞인 것이었을 것이다. 대부분 혹은 모

든 재앙들이 애굽의 거짓된 신들을 겨냥했기 때문에(사실 모든 짐승이 애굽의 신(神)이었다) 딱정벌레를 의미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성스런 딱정벌레의 신인 케프리에 대한 공격이었을 것이다.⁸⁾

8:25-32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는 데까지 양보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짐승을 희생하는 일로서 폭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므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바로는 조금 더 양보했다.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제사드릴 수 있었으나 그러나 멀리 가서는 안되었다. 이것 역시 불만족스러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일 길을 가라고 명하셨기 때문이었다. 바로는 재앙에서 풀려나자마자 마음을 바꾸어 그들로 가지 못하게 했다.

5) 다섯째 재앙-생축의 악질(9:1-7)

9:1-7 바로에게 경고를 한 뒤에 하나님은 악질(아마도 ‘탄저병’)을 보내어 들에 있는 애굽인의 모든 생축을 죽이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짐승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 이처럼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차별적인 심판이었다. 이 재앙들을 자연적인 근거로 설명해보려는 모든 시도는 바위를 향해 달려드는 격이다. 애굽인의 모든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다. 19절에 짐승들이 언급되었고 또 후에 유월절 밤에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12:29). 또 어떤 짐승들은 집으로 피하여 들었다(20절).

8) (8:20-24) 애굽에서 출간되었고 또 그 지역에 대한 정보와 유대인의 관습을 반영해주는 70인역은 ‘키노무이아’, 즉 아프게 쏘는 ‘등’으로 옮겼다(자세한 설명은 Cole, *Exodus*, pp. 93,94을 보라).

따라서 6절의 ‘모든’은 ‘들에 있는 모든’ 혹은 ‘모든 종류’를 의미한다. 어린양과 염소와 황소는 애굽에서 성스런 짐승이었다. 이제 그 부패한 사체들이 환경을 오염시켰다.

6) 여섯째 재앙-악종(9:8-12)

9:8-12 바로가 여전히 마음을 완고히 하자 하나님은 재를 이용하여 애굽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종이 나게 하셨다. 술객들도 악종에 걸렸다. 바로가 그 마음을 강박케 할수록 그 마음은 그 응당한 대가로 하나님에 의해 더욱 강박케 되었다.

7) 일곱째 재앙-우박과 불(9:13-35)

9:13-35 ‘모든 재앙’(14절)은 하나님의 재앙들의 충분한 힘을 가리키는 듯하다. 여호와께서는 앞선 ‘악질’로 바로와 애굽인들을 멸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바로의 생명을 보존해두었다는 것을 바로에게 상기시키셨다. 16절에는 바로가 멸망 받기로 예정되었다는 뜻이 전혀 없다. 예정된 버림받음은 성경의 교리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거스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본보기로 바로를 사용하신 것이다(롬 9:16-17).

다음 재앙은 뇌성과 그에 따른 우박과 번개와 불로 이뤄졌다. 그 재앙은 사람과 짐승과, 이미 추수 때가 된 보리와 삼은 멸했으나(31-32절), 밀과 과맥은 늦게 거두는 곡물인 까닭에 상하지 않았다. 고센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바로의 간청

에 대한 반응으로 모세는 기도를 했고 재앙은 멈추었다. 그러나 모세가 예상한대로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내보내는데 대해 더욱더 마음이 완고했다.

8) 여덟째 재앙-메뚜기(10:1-20)

10:1-20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이 임박했음을 경고했지만, 바로는 겨우 남자들만 가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여자와 아이들은 뒤에 남아야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들만 광야로 나가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전혀 없는 가혹한 재앙이 임하여 메뚜기들이 땅을 뒤덮고 모든 먹을 만한 것을 쓸어버렸다. 이것은 세라피스 신(神)이 메뚜기로부터 보호하는데 무력함을 보여주었다. 바로는 굴복할 듯 보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았다.

9) 아홉째 재앙-3일간의 흑암(10:21-29)

10:21-28 아홉째 재앙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 3일간 임하는 것이었다. 오직 이스라엘 자손만이 거하는 곳에만 빛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한 기적이었다. 애굽의 태양신 라(Ra)는 무력한 존재로 드러났다. 바로는 모세에게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광야로 가되 가축과 짐승들은 남겨두라고 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의 귀환을 보증하는 담보가 될 것이라 생각했다. (아마 그는 그 동안 잃은 그의 가축을 보충하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럴 경우,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 없게 된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이유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모세가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는 그를 자기 앞에서 영구히 내쫓았다.

10:29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모세의 강경한 말은 모세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라고 한 11장 8절과 모순되게 보인다. 메튜 헨리는, ‘다시는…아니하리라’는 말은 ‘이번 후로는’라는 뜻이며, 11장 8절은 같은 ‘회답’에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다.

“따라서 이번 만남 후로 모세는 자신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다시는 오지 않았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공의롭게도 그들에게 혼돈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많은 우상대로 그들에게 대응하신다는 사실이다.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시기를 원했을 때 그분은 즉시 그들을 떠나셨다.”⁹⁾

9) (10:29) Matthew Henry, “Exodu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1:314.

6.

유월절과 장자의 죽음(11:1-12:30)

11:1-10 모세는 아직 바로 앞을 떠나지 않았다. 4-8절에서 그는 여전히 왕에게 말하고 있다. 처음 세 구절(1-3절)은 삼입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열 번째이자 마지막 재앙을 밝히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홍정역처럼 '빌리게'가 아니라) 하라고 모세에게 이르셨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정한 날 밤에 죽임을 당할 것이며(12:6),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살육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바로의 신하들은 내려와서 절하며 히브리인들에게 즉시, 모두 함께 떠나라고 간청할 것이라고 바로에게 경고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심히 노하며 그 전제 군주 앞을 떠났다. 그 경고는 쇠귀에 경 읽기였으며,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욱더 강박케 하셨다.

12:1-10 여호와께서는 최초의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자세히 지시하셨다. 어린양은 물론 주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다(고전 5:7). ① 그것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죄하심을 말해주며, ② 그것이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전성기에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해주며, ③ 그 달 14일까지 간직해야 한다는 것은, 구

주께서 30년간 나사렛에서 사(私)생애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다음, 3년간 사람들의 자세한 관찰을 받으며 공생애를 사신 것을 말해주며, ④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 죽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신 것을 말해주며, ⑤ 해질 때에, 곧 제9시와 11시 사이에 죽임 당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9시에 죽임 당하신 것을 말해주며, ⑥ 그 피가 문에 발라져 멸망시키는 자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온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믿음으로 소유되어 죄와 자아와 사단으로부터의 구원을 가져온 것을 말해주며, ⑦ 고기는 불에 구워져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뎌내신 것을 말해주며, 그리고 ⑧ 무교병과 쓴 나물과 더불어 먹어야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의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상징해준다. 우리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없이, 참된 회개로써, 항상 그리스도의 고난의 쓰라림을 기억하며, 순전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어린양의 뼈는 꺾지 말아야 했는데(46절) 이것은 우리 주님의 경우에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요 19:36).

12:11-20 첫 번째 유월절은 막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 백성들에 의해 준수되어야 했는데, 이것은 먼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들은 가벼운 행장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유월절이란 이름은 여호와께서 피가 발리운 집들을 넘어가셨기(逾越) 때문에 그렇게 불리운 것이다. ‘유월’이란 표현은 ‘지나가다’는 뜻이 아니다. 콜은 이렇게 설명한다.

“그것이 정확한 어원(語源)이든 아니면 단순한 동의어음(同意異音)이든, ‘페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 ‘넘어가다’ 혹은 ‘뛰어넘다’란 뜻

이었으며, 이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상(歷史)의 행위에 적용되었다.”¹⁰⁾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종교력 첫 달의 제 14일에 해당되었다(2절). 유월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절기가 무교절이었다. 그 첫 유월절 밤에 백성들은 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애굽을 떠났다(34,39절). 그 후로, 7일간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그들의 출애굽의 신속함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까닭에, 그들은 또한, 피로 구속받은 자들은 죄와, 그들 뒤에 있는 세상(애굽)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했다. 누룩 있는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 끊어질 것이다. 즉, 진(陣)과 그 특권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떤 대목에서는 ‘끊어진다’는 표현이 죽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12:21-27 이어서 우리는 모세가 그 규례를 백성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피를 문에 어떻게 발라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슬초는 그리스도의 피를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믿음을 말해줄 수도 있다. 유월절은 장래 세대가 그 예식의 의미를 물을 때에 그들에게 구속의 이야기를 가르치는데 좋은 교보재가 될 것이다.

12:28-30 밤중에 재앙이 마침내 예고한대로 임했다.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떠나는 것이 허락되었다.

10) (12:11-20) Cole, *Exodus*, p. 108.

7.

애굽으로부터의 탈출(12:31-15:21)

1) 홍해로의 도피(12:31-13:22)

12:31-37 31절은 꼭 모세가 바로를 대면하여 만났다는 뜻은 아니다(10:29 참조). 종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종종 그 주인이 하는 것으로 돌려질 때가 있다. 모세는 바로의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날 것을 간청하리라고 앞서 예고한바 있다(11:8).

이스라엘 백성은 숙곳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애굽의 한 지방으로 팔레스타인에 있는 같은 이름의 마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창 33:17). 애굽인들은 기쁘게 그들의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것이 바로에게 바친 모든 노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일 뿐이었다. 그것은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해주었다.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약 60만의 남자들이 애굽을 떠났다. 정확한 수는 603,555명이었다(38:26). 이스라엘 백성 전체 숫자는 약 2백만이었다.

12:38-39 출애굽 연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흔히 받아들여지는 보수적인 연대는 B.C 1440년경이다. 어떤 학자들은 B.C 1290년경이나 그보다 더 늦은 연대로 잡기도 한다(서론 참조). ‘중

다한 잡족'(즉, 외국인을 포함)이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합류했다. 그들은 민수기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무리'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들은 그들에 대한 여호와와의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거스려 원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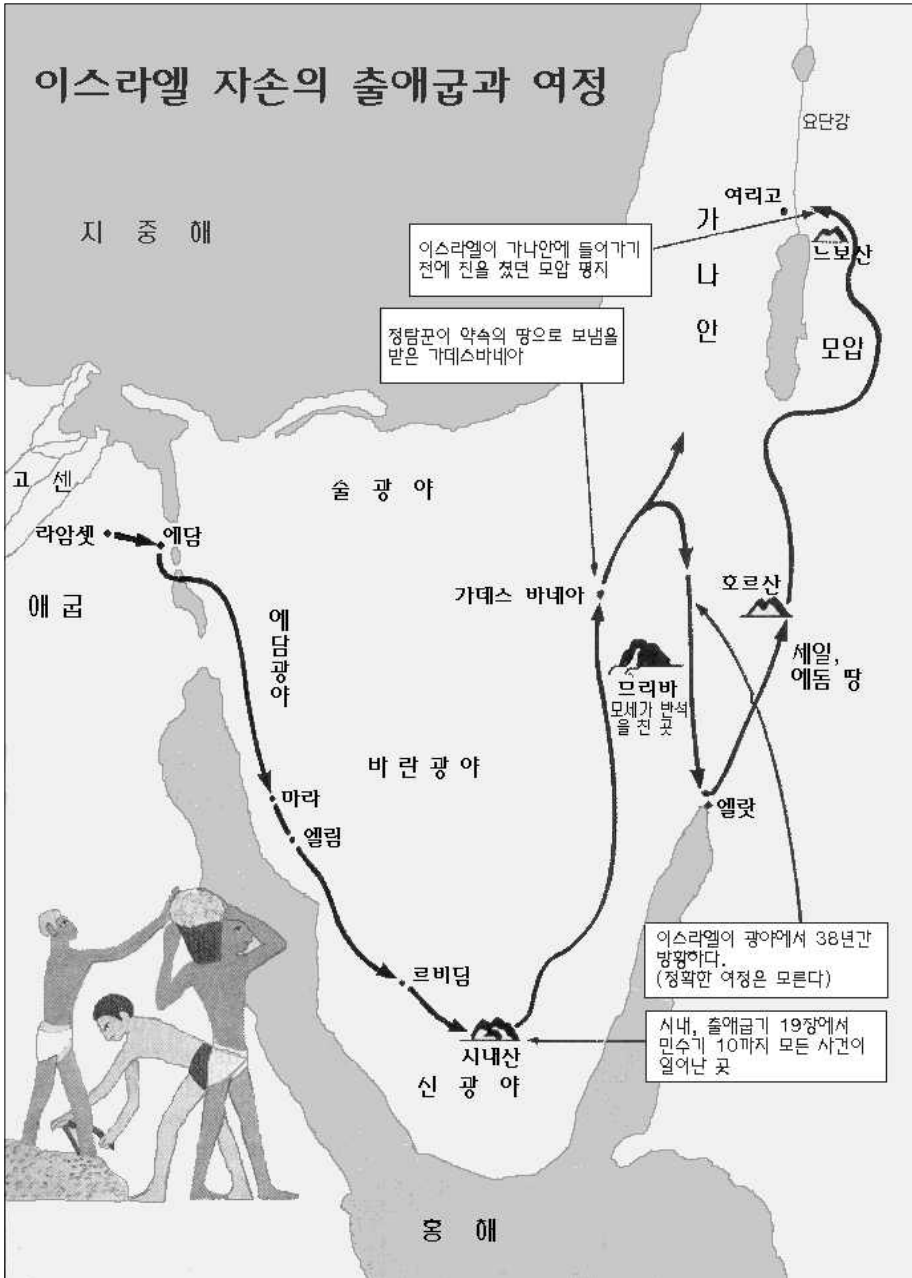
12:40-42 40절의 연대기에 관해서는 창세기 15장 13-14절의 주해를 참조하라. 여기에 언급된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보낸 전 기간을 망라한다. 그것은 '날'까지 계산한 정확한 수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수세기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그분의 백성을 인도해내심으로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도 역시 더디지 않으신다(벧후 3:9). 장차 올 날에 모세가 상징하는 실체 되신 주 예수께서 그분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이끌어내어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12:43-51 유월절 규례는 타국인이든 이웃이든 종이든 할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다.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13:1-15 하나님은 앞서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따라서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그분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다. 후에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위해 구별될 때까지 처음 난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

정결한 짐승의 초태생은 1년 안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야 했다. 나귀와 같은 부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려질 수 없었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여정



▲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과 여정

다. 따라서 그것은 어린양의 죽음으로 대속되어야 했다. 즉, 어린양이 그 대신 죽어야 했다. 만일 나귀가 대속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목을 꺾어야 했다. 그것은 대속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었다. 후에, 나귀를 돈으로 대속하는 규례가 만들어졌다(레 27:27; 민 18:15). 처음 난 아이도 죄 중에 태어난 까닭에 대속해야 했는데, 그 속전은 5세 째이었다(민 18:16).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도덕적 상태임을 엄숙히 증거해준다.

초태생의 성별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말해주었듯이, 무교절은 구속받은 백성에게 기대되는 도덕적인 순결을 말해준다. 7일 동안 백성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으며, 그들의 집에는 누룩이 없어야 했다. 초태생의 성별과 무교절은 모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에 대해 장래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실물교훈이 되어야 했다.

13:16 유대인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구함, 혹은 작은 가죽주머니를 만들어 이마와 팔목에 부착함으로써 9절과 16절 말씀을 문자적으로 따랐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손)과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눈)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3:17-20 애굽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호루스길’로 알려진 해변 길을 따라 약 2주가 걸리는 여행길이다. 그러나 그것은 애굽 군대의 끊임없는 감시 아래 길을 재촉해야 하는 그런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공격과 그로 인한 낙심으로부터 구원하시

기 위해서 시나이(시내) 반도를 통과하는 남쪽 경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항오를 지어 나왔다. 그들은 또한 그들의 선조들의 엄숙한 맹세를 따라 요셉의 유골을 그의 고향 가나안에 묻기 위해 가지고 나왔다.

C. F. 화이퍼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진 바다를 가리키는 성경의 지명은 문자적으로 ‘갈대 바다’란 뜻의 ‘얌 수프’이다(출 13:18). 오늘날 쓴 호수로 알려진 이 지역은 고대에는 홍해와 연결되어 있었을지도 모르며, 그럴 경우 ‘갈대 바다’를 ‘홍해’로 표현한 전통적인 번역의 배경이 설명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정확히 어느 지점을 건넜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¹¹⁾

13:21-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은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말해준다. 메튜 헨리의 표현대로 ‘그것은 항상 서 있는 기적’이었다.¹²⁾ 이 영광의 구름은 ‘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인 ‘쉐키나’로 알려져 있다. 그 기둥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대적으로부터의 그분의 보호하심을 말해주었다(출 14:19,20). 그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훌륭한 그림이다.

2) 홍해를 건넌(14장)

14:1-9 14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대목 중 하나이다. 여

11) (13:17-20) C. F. Pfeiffer, *Baker's Bible Atlas*, pp. 73,74.

12) (13:21,22) Henry, “Exodus”, 1:328.

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남쪽으로 인도하여, 홍해 서쪽에 위치한 비하히롯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더 이상 도피하지 못하게 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곧 나타날 기적을 더욱 놀라운 것이 되게 했다. 바로는 그들이 뗏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장관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았다. 200만이나 되는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진을 친 채 바로의 군대와 바다 사이에 갇혀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마도 ‘사단(바로)과 깊고 푸른 (붉은) 바다 사이’라는, 두려운 딜렘마를 가리키는 잘 알려진 관용어의 기원일 것이다.

14:10-14 이스라엘 자손은 그 눈을 들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을 보자 자연 겁에 질렸으나, 그러나 지혜롭게도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전에 그랬듯이(5:21) 여호와의 인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11절). 이것은 그들 편이 큰 불신앙을 나타낸 것이며, 이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모세는 이전같이 겁을 내지 않은 채 “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었다.

14:15-18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중 하나가 막 일어날 참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마음을 강박케하시고, 또 바로와 그의 모든 군사력에 대해 영광을 얻으신 것에 대해서,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

명했다.

“하나님께서 오랜 동안 그분의 은혜의 증거들을 거절해온 자들을 그분의 진노 아래 두신 것은 의로운 처사이다. 그것은 그러한 완고하고 오만불손한 거역에 대한 승리라고 표현될 수 있다.”¹³⁾

14:19-28 하나님의 사자(그리스도, 사사기 6장 참조)가 이스라엘 무리 뒤편의 구름기둥 자리에 서서 그들을 애굽인들로부터 보호했다.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빛을, 애굽인들에게는 어두움을 가져다주었다. 모세의 명령대로 홍해는 갈라져 두 물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의 길이 났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지나갔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건너려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지럽히고 그들의 병거를 못쓰게 망가뜨려 몹시 달리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들이 퇴각하기 전에 모세의 명을 따라 바다가 닫혀 그들을 삼켜버렸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해 갈 때 홍해를 가른 그 동일한 믿음이 우리로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하게 하신다.

14:29-31 홍해를 건넌 일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가장 큰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이다.

3) 모세의 노래(15:1-21)

15:1-21 유월절이 피에 의한 구속을 말해준다면, 홍해는 능력에

13) (14:15-18) Henry, “Exodus”, 1:332.

의한 구속을 말해준다. 모세의 노래는 이 후자(後者)를 기념하고 있다. H. C. 우드링 박사는 이 노래를 이렇게 개괄한다.¹⁴⁾

“서곡(1절)-여호와와 승리.

1연(聯)(2-3절)-그분의 어떠하심; 능력, 노래, 구원.

2연(4-13절)-그분의 행하심; 과거의 대적들에 대한 승리,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심.

3연(14-18절)-그분의 장래 행하심; 장래의 대적들에 대한 승리,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기업으로 인도하심.

마무리 곡(曲)(19절)-애굽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구원간의 대조. 미리암과 모든 여인들의 화답송(20-21절).”

약 3세기 전에 영국의 주석가인 메튜 헨리는 이 놀라운 영적인 송시(訟詩)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이 노래에서 다음 사실들을 관찰할 수 있다. 즉, 그것은 (1) 고대 노래,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노래이다. (2) 고상하고 장려한 문체와, 생생하고 고유한 이미지와, 매우 감동적인 전체 분위기를 지닌 가장 뛰어난 작곡이다.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별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사람을 일절 높임 없이, 오직 그분께만 찬송을 돌리는 거룩한 노래이다. 여호와께 성결이 그 위에 새겨져 있으며, 거기에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렀다. (4) 상징적인 노래이다. 복음과 교회의 승리와 그 대적들의 멸망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에 표현되어 있다. 모세의 노래가 홍해에서 불리졌듯이 어린양의 노래는 유리 바다에서 불리질 것이다(계 15:2-3).”¹⁵⁾

14) (15:1-21) Dr. H. C. Woodring, unpublished notes, Emmaus Bible School.

15) (15:1-21) Henry “Exodus”, 1:335,336.

8. 시내산으로의 여정(15:22-18:27)

1) 수르(술) 광야(15:22-27)

15:22-27 22절은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을 시작한다. 각 단계마다 모든 시대 신자들을 위한 영적인 교훈들이 가득하다. 예를 들어, ‘쓰다’는 뜻의 ‘마라’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말해준다. 그곳의 물에 던져진 나무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들을 달콤함으로 변화시키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킨다. 마라에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YHWH 로페카)로 계시하셨다. 그분은 애굽인을 괴롭힌 질병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겠다고 약속하셨다.

열두 우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은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간 뒤에 얻게된 안식과 소생함을 가리킨다.

2) 신 광야(16장)

16:1-19 백성들은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신 광야에 이르렀다.¹⁶⁾ 거기서 그들은 먹을 것이 부족함을 심히 원망했으며, 또한 먹을 것

16) (16:1-19) 이 이름은 영어 단어 sin과는 무관하다.

을 얻기 위해 모진 노예생활을 감내하던 일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식물을 그리워했다. 이에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밤에는 매추라기를, 아침에는 만나를 공급해주셨다. 매추라기는 이곳과 민수기 11장 31절에서 두 번만 공급되었으나 만나는 계속 공급되었다. ‘만나’는 ‘이게 뭐지?’란 뜻이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공급된 식물이었다. 그것은 자연적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만나는 작고, 둥글고, 희고, 달콤했는데(31절), 이는 하나님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완전함과 순결과 향기로움을 말해준다(요 6:48-51). 그것이 내린 것은 아침 이슬과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우리 영혼에 그리스도를 계시해주는 분은 성령님이심을 상기시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이 한 오멜(약 1.5리터)씩 거둘 수 있었다. 한 오멜에 맞춰 거두려다 아무리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두든 간에 그들은 항상 충분했으며 너무 많지도 않았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백성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족하심과, 그리스도인들이 궁핍한 이들을 도울 때 성취되는 결과를 암시해준다(고후 8:15). 만나는 아침 일찍, 해가 그것을 녹이기 전에 거두어야 했다. 이처럼 우리는 하루가 시작될 때, 곧 생활의 압박이 몰려오기 전에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취해야 한다. 그것은 매일 거두어야 했는데,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주님을 취해야 한다. 그것은 옛세 동안 거두어야 했으며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거둘 수 없었다.

16:20-31 제 6일에 백성들은 다른 날의 갑절을 거두어 안식일까지 간직해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만일 그들이 다른 날에 그 일부를 남겨두면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만나는 짚씨 같고

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것은 굵거나 요리를 할 수도 있었다. 모세는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러 나간 자들을 꾸짖었다.

16:32-34 만나의 일부는 금항아리에 넣어 기념으로 간직했으며, 후에는 언약궤 안에 넣었다(히 9:4). 하나님은 창조시에 제7일에 안식하셨으나(창 2:2), 그 때에는 인간에게 안식하라고 명하시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 규례를 허락하셨다. 후에 그것은 십계명의 하나가 되었다(20:9-11). 그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요(31:13), 그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매주 기억나게 하는 것이었다(신 5:15). 이방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십계명 중 아홉가지가 교회를 위한 의로운 가르침으로 신약에 반복되어 있다. 반복되지 않은 유일한 계명이 이 안식일 규례이다. 그러나 일곱 날 중 하루를 쉬는 이 규례에는 모든 인류를 위한 원리가 담겨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날은 주의 첫째 날, 곧 주의 날이다. 그것은 율법적인 의무의 날이 아니라 은혜로운 특권의 날로서 우리는 그날에 세속적인 활동에서 해방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우리 자신을 보다 온전히 드릴 수가 있다.

언약의 ‘궤’를 의미하는 ‘증거판’이 존재하기 전에 여기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미리 언급해두는 표현법의 한 사례이다. ‘증거판’은 문맥에 의하면 십계명을 의미할 수도 있다.

16:35-36 만나를 40년간 먹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기간을 미리 밝힌 것이다. 만나가 그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 경계 바로 안에 위치한 길갈에 이르렀을 때였다(수

5:12).

3) 르비딴(17장)

17:1-7 르비딴에서 백성들은 물이 부족함으로 모세와 다투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호렙(‘황폐한 곳’을 의미)으로 알려진 지역으로 나아가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지시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물이 반석에서 흘러나왔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침을 당하신 결과로 오순절 날 주어진 성령님에 대한 그림이다. ‘맛사’(‘유혹함’ 혹은 ‘시험함’)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었다. ‘므리바’(‘꾸짚음’ 혹은 ‘다툼’)는 그들이 모세와 다툰 곳이었다.

17:8-16 여호수아(‘여호와와 구원이다’)가 이제 처음으로 무대에 등장한다. 모세의 종으로서 그는 르비딴에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웠다. 모세가 중재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 손을 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우세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육신, 즉 인간의 악하고 부패한 아담적 성품을 상징한다. 육신과 아말렉 간의 유사점을 주목하라. ① 육신은 회심시에 성령이 주어진 후에 그 성령을 거스려 싸우기 위해 모습을 드러낸다. ② 여호와께서 대대로 육신과 더불어 싸우실 것이다. ③ 육신은 죽음이나 교회의 휴거 때까지 결코 신자에게서 사라지지 않는다. ④ 육신을 이기는 두 가지 수단은 기도와 말씀이다.

고대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에 따르면, ‘홀’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었다. 이 홀이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백성들

을 감독하도록 아론과 함께 남아 있었다(24:14). ‘여호와와는 나의 기(旗)’(히브리어로, *YHWH* 낫사)는 여호와에 대한 복합명칭이다.

4) 모세와 이드로(18장)

18:1-12 18장은 출애굽기에서 분명한 구분점을 이룬다. 이제까지 우리는 만나와 반석과 시내(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음과 성령님의 수여를 각각 말해준다)를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래 영광에 대한 희미한 빛을 보게 된다. 모세는 세상을 다스리실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이다. 또한 우리는 모세의 아들들로 표현된 유대인과, 이드로로 그려진 이방인과, 모세의 이방인 신부 십보라로 상징된 교회를 볼 수 있다. 이 모두가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 속한 시민이 될 것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연대순이 아니다. 이드로는 5절에 시내산에 있는 모세에게 이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9장 2절까지는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다. 한 주석가의 지적에 따르면, 이러한 배열은 여호와와의 만남과 율법의 수여를 중단 없이 기록하기 위해 정리작업을 해둔 것이라고 한다. 모세는 애굽에 돌아올 때 이미 미디안에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 곁을 떠난 상태였을 것이다. 이제 이드로가 십보라와 게르솜과 엘리에셀(‘나의 하나님이 도움이시다’)을 모세에게 데려오으로써 기쁜 재회가 이뤄졌다. 이드로는 여기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로 회심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이미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가 된 상태였다고 믿는다.

18:13-27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떠맡은 엄청난 일을 보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탐심을 미워하는 뛰어난 덕성을 지닌 사람들을 택하여 그를 돕게 하라고 사위에게 조언했다. 이드로의 제안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택해서 세우라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모세의 짐을 덜어주고 일이 보다 신속히 처리되게 해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드로의 조언이 하나님께로서 주어진 것이며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위임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그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함 없이 일을 부과하지 않으신다고 지적한다. 이 때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친구와 얘기하듯이 모세에게 말씀해오셨으며 어떤 중재자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다른 방안을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자기 일을 수행했어야 했다.

9. 율법의 수여(19-24장)

19:1-9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다. 출애굽기의 나머지 와 레위기 전체와, 그리고 민수기 1-9장은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아담에서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율법이 없었다.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의 섭리는 무엇보다도 은혜 안에서 이뤄져왔다. 이제 그분은 그들에게 율법이란 조건적인 언약을 제시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5-6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면 그분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됨과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쉽게 이에 동의했다. D. L. 무디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호와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대답하고도 자신 만만한 답변이다. 금송아지와 깨어진 돌판, 무시된 의식들, 돌에 맞은 종들,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등 인간의 허황된 맹세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들을 보라.”¹⁷⁾

세대 구분

17) (19:1-9)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p. 33,34.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섭리, 특히 그분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의 역사에 있어 아주 중요한 구분점이 있다. 이곳과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배열하는데 있어 변화가 생기는 것은 ‘세대’ 혹은 경륜에 있어서의 변화를 가리킨다.

어거스틴은 “시대를 구분하라. 그러면 성경이 조화를 이룬다”라고 말한바 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여러 시대로 구분하셨다.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세대; the ages-영어개역성경 난하주)를 지으셨느니라”(히 1:2). 이 시대들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들을 구분 짓는 것은 그들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류를 다루시는 방법이다.

하나님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나 그분의 ‘방법’은 변한다. 그분은 시대마다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우리는 어떤 특정 시대 동안 하나님이 인간과의 문제를 경영하시는 방법을 가리켜 ‘세대’(dispensation)라 부른다. 전문적으로 말해서, 이 세대는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경영(행정), 청지기직, 질서, 혹은 ‘경제’(경제란 단어[economy]는 ‘세대’ 혹은 ‘경영’을 뜻하는 신약의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나왔다)를 의미하는 말이다. 그러나 시간 개념 없이 세대를 생각하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미국정부의 역사는 여러 행정부로 구분되어 왔다. 우리는 케네디 행정부니 부시 행정부니 하는 표현을 쓴다. 물론 우리는 그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그 정부가 운영된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그에 따른 정책들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 정책들을 어느 특정 기간과 반드시 연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세대란, 하나님이 역사의 어느 기간 동안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법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세대적인 경영은 가정을 운영하는 방법과 비교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부부만 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실행된다. 그러나 아이가 생기면 완전히 새로운 일련의 정책이 도입된다.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정의 운영 방법은 다시 달라진다. 우리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똑같은 패턴을 볼 수 있다(갈 4:1-5).

예를 들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발견하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에게 표를 주셨다(창 4:15). 하지만 홍수 후에는 하나님께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라고 선언하시며 사형제도를 제정하셨다(창 9:6). 이 차이는 세대에 있어서의 차이에 연유한다.

또 다른 예는 시편 137편 8-9절인데, 거기서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 대한 가혹한 심판을 촉구한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로부터 훨씬 뒤에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율법 아래 살던 시편 기자에게 적합한 표현은 은혜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음은 분명해 보인다.

레위기 11장에서 어떤 식물들은 부정한 것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식물이 정하다고 선언하셨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방 아내와 자녀들을 내쫓으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신약에서 신자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는다(고전 7:12-16).

율법 아래서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존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

다(히 9:7). 그러나 은혜 아래서는 모든 신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히 10:19-22).

이러한 변화들은 세대의 변화가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세대의 수나 그 부여되는 명칭들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되지는 않는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세대를 인정하고 있지도 않다.

그러나 우리는 세대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드러낼 수 있다. 첫째로, 적어도 두 세대(율법과 은혜)가 존재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요 1:17).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은 경영상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추가적인 증거로는, 이 시대 신자들은 짐승의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도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이면 거의 누구나 신구약 간의 이러한 주요한 구분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두 세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세 세대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율법 시대는 창조가 있는지 오랜 후에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이르기까지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율법 이전에 적어도 한 세대가 존재했음이 분명하다(롬 5:14 참조). 이렇게 해서 세 세대가 있게 된다.

그런 다음 우리는 네 번째 세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이는 성경이 ‘장차 올 세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히 6:5).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재림하실, 천년왕국으로 알려진 때이다.

바울은 또한 ‘현세’와 ‘내세’를 구분하고 있다. 첫째로 그는 복음

및 교회의 진리와 관련하여 그에게 맡겨진 세대를 말하고 있다(고전 9:17; 엡 3:2; 골 1:25). 그것이 현 시대이다. 그러나 그런 다음 그는 ‘때가 찬 경륜(세대)’이라고 말함으로써(엡 1:10) 어떤 장래 시대를 가리키고 있기도 하다. 그에 대한 그의 묘사로 보아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C. I. 스코필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일곱 세대를 열거한다.

- “(1) 무죄 세대(창 1:28). 아담의 창조에서 그의 타락까지.
- (2) 양심 혹은 도덕 세대(창 3:7). 타락에서 홍수의 마감까지.
- (3) 인간 정부 세대(창 8:15). 홍수의 마감에서 아브라함의 소명까지.
- (4) 약속 세대(창 12:1).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율법의 수여까지.
- (5) 율법 세대(출 19:1). 율법의 수여에서 오순절 날까지.
- (6) 교회 세대(행 2:1). 오순절 날에서 휴거까지.
- (7) 왕국 세대(계 20:4). 그리스도의 천년통치.”¹⁸⁾

정확한 세부 구분까지 일치할 필요는 없겠으나, 여러 세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 율법과 은혜 사이의 구분은 특히 중요하다. 그런 구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시대에 적용되는 성경본문을 우리 시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하게 된다.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한 반면(딤후 3:16), 모든 성경이 다 우리에게 직접 기록된 것은 아니다. 다른 시대들을 다루는 본문들은 우리에게 적용은 되지만 그 우선적인 해석은 그것이 기록된 시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앞서 레위기 11장의 식물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한 금지조항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구속(拘束)하지는 않으나(막

18) (평론) *The New Scofield Study Bible, New King James Version*, p. 4.

7:18-19), 그 이면에 흐르는, 도덕적 영적 부정함을 피해야 한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말을 순종하면 그들을 물질적으로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다(신 28:1-6). 거기서 강조점은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축복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에 대해 경제적인 변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신다. 그 대신 이 세대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다(엡 1:3).

여러 시대 간에 차이가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다. 구원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항상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위한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다.¹⁹⁾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계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못별처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창 15:5-6). 아브라함은 오랜 세기 후에 갈보리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혹 얼마간 알았을지는 모르나, 거의 알지를 못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알고 계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갈보리에서 이루실 사역의 모든 효험을 아브라함의 장부(帳簿)에 달아놓으셨다.

어떤 이의 표현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외상으로’ 구원을 받았다. 즉, 그들은 주 예수께서 오랜 후에 치르실 값을 근거로 구원받은 것이다(그것이 로마서 3장 25절의 의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1900여 년 전에 완성하신 사역을 근거로 구원받는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

19) (평론) 세대주의자들은 ‘구원받는 일곱 가지 방법’을 믿는다는 구태의연한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다.

구원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는 율법시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았다는 일체의 개념을 경계해야 한다. 율법은 오직 정죄할 뿐이며, 구원할 수는 없다(롬 3:20).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는 단 한 가지 죄도 깨끗케 할 수 없다(히 10:4). 하나님의 구원방법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이다!(롬 5:1)

또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러하다. 현재의 교회시대를 은혜시대라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지난 세대에는 은혜롭지 않으셨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현재에는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서 인간을 시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각 시대들이 아주 정확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종 중첩되거나 과도적인 기간이 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서 이 사실을 볼 수 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이전 세대의 흔적을 떨어버리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휴거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환란 기간 사이에는 막간의 시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다른 모든 훌륭한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세대에 대한 연구도 남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대주의를 극단적으로 적용하여, 바울의 옥중서신만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침례나 주의 만찬을, 옥중서신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²⁰⁾ 또한 그들은 베드로의 복음 메시지가 바울의 그것과 같지 않았다고 가르치기도 한다(이에 대한 반론으로 갈라디아서 1장 8-9절을 참조하라). 그들을 가리켜 때로 극단적인 세대주의자, 혹은 불링거주

20) (평론) 어떤 이들은 의식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의자(E. W. 볼링거라는 성경교사 이름을 좇음)라고 부른다. 세대주의에 대한 그들의 극단적인 견해는 마땅히 거부되어야 한다.♠

19:10-20 백성들은 그들의 옷을 빨고 성적인 관계를 피함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명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존전에서는 순결이 필요함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조치였다. 시내산은 접근이 금지되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곳에 접근하며 죽음을 면치 못했다. 그곳을 침범하는 자는 그 뒤를 좇아 산에 오르지 않은 채 멀리서 활을 쏘거나 돌을 던짐으로 죽음을 당해야 했다. 모세와 아론만이 그곳에 오를 수 있었으며(24절), 양각이 울릴 때만 오를 수 있었다. 그 산은 뽀뽀한 구름이 덮이고 우레와 번개와, 연기와 불이 있었고,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이 모두는 특히 율법준수를 기초로 하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말해준다.

19:21-25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을 산에 오르게 하지 말라고 모세에게 재차 경고하셨다. 모세는 처음에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고 여겼으나 후에는 순종을 했다. 22절과 24절에 나오는 제사장들은 아마도 장자된 아들들이었을 것이다.

2) 십계명(20장)

십계명은 주 예수님에 의해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부분이고, 하나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루는 부분이다(마 22:37-40). 어떤 이들은 처음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친다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제5계명을 추가하기도 한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표현이 처음 다섯 계명에서 발견된다.

20:1-3 제1계명 :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은 여러 신을 숭배하는 일(다신교), 혹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일을 금한 것이다.

20:4-6 제2계명 :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만드는 것도 금지되었다. 여기에는 그림, 형상, 주조물 등을 경배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그림과 주조물을 내포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성막에는 새긴 그림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라고



▲ 그 정상에 이르는 길을 따라 본 시내산. 예벨 무사(오른쪽)는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호렙 혹은 시내로 간주된다. 사해와 아카바만 사이의 시나이 반도 남부에 위치해 있다.

지시한 바도 있었다(민 21:8). 이 계명은 신(神)에 관한 그림이나 형상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즉, 그분의 백성의 예배와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연약과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단축된 수명을 물려받게 하심으로, 아비의 죄를 갚되 3,4대 자손에게까지 이르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미친다.

20:7 제3계명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것은 거짓말을 사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신성모독이나 저주, 자신만만한 맹세, 혹은 약속을 서약하고 지키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할 수 있다.

20:6-11 제4계명 : “안식일을 기억하라.” 창세기 2장 1-3절에 처음 언급되고 만사를 거두는 일과 관련해서 언급되었던(출 16장) 안식일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엄숙히 지켜야 할 일로 공식적으로 주어졌다. 그것은 신자들이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고, 또 구속받은 피조물이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한 그림이다. 안식일은 주의 일곱째 날로서 금요일 해질 무렵에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해당한다. 신약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은 없다.

20:12 제5계명 :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

일반적으로 장수를 보장하는 삶을 가르친다. 불순종과 죄의 삶은 종종 때 이른 죽음을 가져온다. 이것은 약속이 첨가된 첫 계명이다 (엡 6:2). 그것은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20:13 제6계명 :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말 그대로 살인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형이나 과실치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 계명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20:14 제7계명 : “간음하지 말라.” 이 금지령은 결혼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며, 다른 사람의 몸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경고한다. 여기에는 모든 형태의 불법적인 성적인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20:15 제8계명 :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체의 행동을 가리킨다.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20:16 제9계명 :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내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으로 징벌 내지 처형을 당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끼치는 것을 금한다. 이것은 개인의 명예에 대한 존중을 가르친다.

20:17 제10계명 : “탐하지 말라.” 이 열 번째 계명은 행동에서 생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가질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일체의 것을 탐내는 것은 죄악임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 계명이 그의 삶에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하고 있다(롬 7:7).

20:18-21 십계명이 주어진 후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으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죽게 될까봐 두려워했으며, 이에 모세가 그들의 중재자가 되었다.

20:22-26 모세 율법의 목적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성을 보여 주는데 있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죄인은 오직 흘린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나게 하는, 단을 쌓으라는 지시를 하셨다. 이 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인간은 인간적인 노력이란 연장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간적인 성취라는 계단을 통해서든 그리스도의 완전에는 그 어떤 기여도 할 수 없다. 제사장들은 길게 흘러내리는 옷을 입고 계단을 오르다해도 그 엄숙한 상황에 걸맞지 않게 우연히 하체를 드러낼지도 모르는 것이다.

3) 기타 율법들(21-24장)

(1) 종에 관한 율법(21:1-11)

21:1-6 십계명을 수여하신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셨다.

히브리인은 빚을 갚기 위해, 훔친 물건을 변상하기 위해, 혹은 히브리 종으로 태어남으로써 종이 될 수 있었다. 히브리 종은 6년 동안 일할 의무가 있었으나, 제 7년에는 풀려나야 했다. 만일 종이 될 당시 결혼한 상태면 그의 아내도 함께 해방되었다. 그러나 종 시절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와 자식은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런 경우

에 그는, 그의 귀를 문설주 앞에 대고 뚫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의 집에 속할 것을 나타냄으로써 그냥 종으로 머무는 쪽을 택할 수도 있었다. 그 후로 그는 그 귀에 표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해방되는 쪽보다는 갈보리 십자가로 나아가는 쪽을 택하신 온전한 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이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 모울 감독과 같이 고백하며 마땅히 그분의 자원하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인님, 저를 문 앞으로 이끄소서.

이 자원하는 귀를 다시 한 번 뚫으소서.

주인님께 속하는 것이 곧 자유이오니,

땀과 수고와 순종으로 주인님 곁에 머물게 하소서.”²¹⁾

21:7-11 여종의 경우에는, 그녀의 주인이 그녀를 아내나 후처로 취했고 또 그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하면 제 7년에 자유롭게 풀려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만일 주인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녀는 구속되어야 하되 이방인에게 팔려서는 안 되었다. 만일 주인이 그녀를 아들의 아내로 삼기를 원하면, 그녀를 여느 며느리 처럼 대해야 했다. 만일 주인이 다른 아내를 취하더라도 여전히 그 여종의 필요를 공급하고 그녀에게 결혼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해줄 책임이 있었다. 이 후자(後者)는 다름 아닌 거주시설을 의미하는 듯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녀는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 풀려나야 했다. 하나님께서 종에 관한 규정을 주셨다고 해서 노예제도를 인

21) (21:1-6) 이것은 헨들리 C. G. 모울 감독의 시 “나의 영광스런 승리자, 거룩한 왕의 둘째 연(聯)이다.

정하셨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은 종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계신 것이다.

(2) 신변상의 상해(傷害)에 관한 율법(21:12-36)

21:12-14 12절은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사형선고를 받는다는 일반적인 법을 진술한다. 그 예외로 과실치사를 들고 있는데, 만일 고의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살인자는 하나님의 단으로 피하거나 아니면 후에 도피성이란 특별한 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도적인 살인인 경우에는 하나님의 단이 그 범죄자에게 아무 안전도 제공해주지 못했다.

21:15-17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규정함으로 부모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했다. 유괴(誘拐)나 부모를 저주하는 것도 사형죄였다.

21:18-19 만일 어떤 사람과 다투다가 다치게 하면 그는 그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것과 치료비용을 위해 변상을 할 책임이 있었다.

21:20-21 주인은 종을 징벌할 수는 있었으나 죽일 권리는 없었다. 만일 종이 맞은 직후 죽으면 주인이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종이 하루나 이틀 살아있을 경우에는 주인은 형벌을 면했는데, 왜냐하면 자신에게 돈의 가치가 있는 종을 죽일 마음이 없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1:22 만일 어떤 임신한 여인이 두 남자의 다툼의 결과로 몸을

다쳐 심각한 상해는 없지만 낙태를 하게 되면 그녀의 남편이 벌금을 정하고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다.

21:23-25 신변상의 상해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은 ‘생명에는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 형벌은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너무 가혹하지 않게 그 죄에 맞게 부과되어야 했다. 사실 살인을 제외한 모든 경우는 벌금을 지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다(민 35:31).

21:26-36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하면 그 종은 풀려날 수 있었다. 만일 소가 우연히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되 그 고기는 먹지 말아야 했다. 만일 소 임자가 그 소가 그런 습성이 있음을 알고 또 그런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역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생명 대신 속죄금을 낼 수도 있었다. 배상금은 아들이 죽을 때나 딸이 죽을 때나 동일했다. 종이 죽었을 때는 배상금이 은 30세겔이었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였다. 유다는 소에게 받혀 죽은 종의 몸값에 해당되는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그분을 죽은 종의 값으로 가치를 매겼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덮지 않은 채 놔둘 경우 짐승이 거기에 빠지는 등 손해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죽이면 두 짐승의 값이 똑같이 분배되었다. 만일 공격을 가한 짐승의 임자가 그런 위험한 습성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죽은 짐승 값을 물어주되 죽은 짐승은 자신이 취할 수 있었다.

(3) 도적질과 재산상의 손실에 관한 율법(22:1-6)

22:1-6 도적은 자신이 훔친 것을 충분히 배상해야 했다. 즉, 도적질의 정도에 맞게 배상해야 했다. 만일 도적이 밤에 침입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를 죽인 자는 책임이 없었다. 도적의 동기가 도적질인지 아니면 살인인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적을 낮에 죽이면 그 죽인 자는 죄가 있었다. 만일 1절의 도적이 배상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그 몸을 종으로 팔아야 했다. 만일 도적질한 짐승이 살아있으면 두 배로 배상해야 했다. 만일 농부가 짐승을 방치해두다가 이웃의 밭을 망치게 하면 자신의 밭이나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했다. 부주의하게 불을 내어 곡식을 망치게 하는 자는 배상을 해야 했다.

(4) 부정직에 관한 율법(22:7-15)

22:7-13 7절부터 9절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맡긴 돈이나 재산이 도난당한 경우를 다루고 있다. 그것을 훔친 자는 두 배로 배상해야 했다. 만일 도적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돈을 맡은 자가 재판장에게 나아가 혹 그 자신이 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사실 여부를 조사받아야 했다. 어떤 일에 대해 두 사람의 말이 맞지 않을 때는 재판장은 피고가 잘못이 있는지 원고가 잘못이 있는지 사실 여부를 가려서 갑절을 배상토록 해야 했다. 만일 다른 사람에게 맡긴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몰려갔을 경우에 그 맡은 자가 그것을 저지할 아무 힘이 없었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를 하면 아무 배상도 필요 없었다. 만일 맡은 자의 부주의로 짐승이 도난당했을 때는 그가 배상을 해야 했다. 짐승이 찢겼을 경우에는 그 찢긴 증거를 제시하면 아무 배상도 필요 없었다.

22:14-15 만일 빌어온 짐승이 다치거나 죽으면 빌어온 자가 배상을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소유자가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함께 있었고 따라서 그 일을 막을 수 있었으면 배상할 필요가 없었다. 세를 낸 짐승의 경우도 배상이 필요 없었는데 이는 돈을 받을 때는 손해를 무릅쓰고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5) 유혹에 관한 율법(22:16-17)

22:16-17 만일 정혼(定婚)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할 경우에는 그녀와 결혼하고 또 정한 결혼지참금을 낼 의무가 있었다.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해도 그 남자는 여전히 그 아버지에 결혼지참금을 지불해야 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결혼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6) 시민생활 및 종교적인 의무에 관한 율법(22:18-23:19)

22:18-20 살인 외에 사형에 해당하는 세 가지 죄는 무당과 짐승과의 성관계 및 우상숭배였다.

22:21-24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에 거하는 나그네에 동정을 베풀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도 전에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과부와 고아들에게도 인정이 베풀어져야 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힘주어 이 명령을 강조하셨다. 즉, 다른 대부분의 잘못들은 사람들을 임명하여 징벌하셨으나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겠다고 하셨다. 힘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는 변치 않았다. 그분은 여전히 과부와 고아를 돌보신다. 신자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22:25-27 이방인에게는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취해서는 안 되었다(신 23:20). 담보로 취한 옷은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옷을 덮고 자야하기 때문이었다.

22:28-31 하나님을 후욕하거나 관원을 저주해서는 안 되었다(행 23:5). 곡물이든 아들이든 짐승이든 여호와께 그 분깃을 바쳐야 했다. 처음 난 짐승은 제 8일에 드러져야 했다. 짐승에게 찢긴 고기는 먹지 말아야 했다. 그런 경우에는 피가 즉시 빠지지 않았을 것이며, 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었다(레 17장).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짐승들을 통해 전염되는 여러 가지 질병에서 보호하고자 하셨다.

23:1-12 재판 문제에 있어서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다고든지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악인과 공모한다고든지 악한 무리와 한 편이 된다고든지 가난한 자를 부당하게 대한다고든지 등등의 일들이 금지되었다. 대적에게 속하는 짐승에게는 적대감을 보여서는 안 되었다. 만일 그 짐승을 잃어버렸으면 그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했고, 만일 무거운 짐을 맨 채 쓰러졌으면 도와서 일으켜주어야 했다. 가난한 자에게는 공의를 베풀어야 했고, 무죄하고 의로운 자들을 악한 법적인 계약으로 정죄해서는 안 되었다. 뇌물을 취하거나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야 했다. 제 7년은 안식년으로서 땅이 그 동안 쉬어야 했다. 가난한 자는 그 해에 절로 난 곡물을 취할 수 있었다. 제 7일도 주인과 종과 짐승에게 안식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믿지 않는 현대 비평가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자비롭

고 공의로운 분이심을 주목하라.

23:13-17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처럼 그들을 정죄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신(우상)을 일컫지 말아야 했다. 여호와께 다음 세 절기가 지켜져야 했다. ① **무교절**-이 절기는 해의 시작에, 유월절 직후에 지켜졌다. 불의와 악에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② **맥추절**-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렸다. 이 절기는 오순절날의 성령강림과 교회의 형성을 말해준다. ③ **수장절**-장막절이라고도 불렸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이 천년왕국 동안 그 땅에 안전히 거하는 것을 상징한다. 성인 남자들은 이 세 절기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다. 다른 절기들은 참석이 자유로웠다.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요셉뿐이 아니라 마리아와 소년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눅 2:41).

23:18-19 유교병(누룩은 죄를 상징한다)은 하나님의 제물, 즉 유월절의 피와 관련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제물의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이므로 여호와의 것이었다. 그것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마도 불태워져야 했다. 첫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의 전에 드려야 했다. 짐승은 그 어미의 젖으로 요리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우상숭배자들이 행하던 생산제(祭)를 경계할 목적이었던 것 같다. 오늘날 엄격한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유를 같은 팬에서 요리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고기를 크림 소스 등에 발라먹는 것도 금하고 있다.²²⁾

22) (23:18,19) 정통 유대인들은 두 종류의 그릇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고기로 만든 식품을 위한 것이고 하나는 우유로 만든 식품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로 고기로 된 식품과 우유로 만든 식품을 한 식탁에서 먹는 것을 어렵게 하기 위해 이스라

(7) 정복에 관한 율법(23:20-23)

23:20-23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사자(여호와 자신)를 보내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이교도 거민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셨다. 만일 유대인들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여호와께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에 관해서 헨리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요 축복자를 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함이 마땅한데, 이는 우리의 방패가 우리를 떠나시고 그 선하심의 물줄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파멸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²³⁾

그들의 땅은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지중해)까지, 광야(가나안 남부 네게브 지역)에서 강(유브라테)까지 미칠 것이다.

그 땅 거민을 쫓아내라는 명령을 주목하라. 그들과 동맹해서도 안 되고 우상숭배를 해서도 안 되고 섞여 살아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악한 가나안족을 멸하겠다고 약속하셨으나 이스라엘이 그에 협력해야 했다. 여기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세상, 육신, 마귀)에 대한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기대하신다는 것이다.

33절은 고린도후서 6장 14-18절에서 그 대응구절을 찾을 수 있다. 세상과의 분리는 늘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것은 여전히 진리이다.

엘에 있는 어떤 식당들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려면 두 줄을 지나가도록 통로를 둘로 만들어 놓았다. 본서의 편집자가 들렀던 한 예루살렘의 식당은 실제로 통로가 둘로 나뉘어 있었다!

23) (23:20-23) Henry, “Exodus”, 1:376.

(8) 언약의 비준(24:1-8)

24:1-2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23장에 담긴 율법과 의식들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다. 모세가 산꼭대기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과 더불어 다시 오라고 그에게 이르셨다. 그러나 오직 모세만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있었다. 다른 이들은 저 멀리 머물러야 했다. 율법 아래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유지되어야 했다. 은혜 아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히 10:19). 율법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나 은혜는 ‘가까이 가자’고 말한다(히 10:22).

24:3-8 모세는 백성들에게 내려와 율법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즉시 그것을 지키겠다고 동의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러한 조건적인 언약을 비준하기 위해 모세는 먼저 열두 기둥으로 단을 쌓았다(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피를 취하여 반은 단에 뿌렸고(언약에 있어서 하나님 편을 나타냄)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다(그들 편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정을 나타냄).

(9)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24:9-18)

24:9-11 모세와 그밖에 사람들이 1-2절에 지시된 대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은 영광중에 계신 하나님을 뵈었다. 일반적인 경우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뵈고도 살아서 화목제물을 먹은 것

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뵈는 문제와 관련하여 역설(逆說)이 있는 듯 보인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출 33:20; 요 1:18; 요일 4:12).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 것을 말하는 구절들이 있다(창 32:30; 출 24:10; 33:23). 이에 대한 설명은, 드러난 영광중에 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보는 자를 누구든지 살라버리는 소멸하는 불이신 반면에, 그분은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는, 인간이나 천사나 영광의 구름(신 5:24)의 형태로 자신을 계시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24:12-18 여기에 묘사된 장면은 또 다른 시내산 등정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가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모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아론과 훌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재판관을 대행하게 했다. 영광의 구름이 산 위를 덮고 있는 동안 모세는 6일간 산 아래에서 기다렸다. 그런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 위로 올라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일을 거기서 머물렀다. 여기서는 백성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시험한 것이었다. 백성들은 죄에 빠짐으로 시험에 실패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다.

모세가 이번 동안 받은 지시가 31장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다.

10. 성막과 제사장직(25-40장)

다음 7장은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직과 그와 관계된 규정을 만들기 위한 가르침을 다루고 있다. 성경에서 모두 50장의 분량이 성막에 할애되었는데 이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성막은 장막과 같은 구조로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곳이었다. 성막의 각 부분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및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관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준다. 제사장직은, 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거리가 생기게 한 것과, 그분이 세우시고 적합하게 하신 그 대리자들을 통해서만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1) 성막을 짓기 위한 지침(25-2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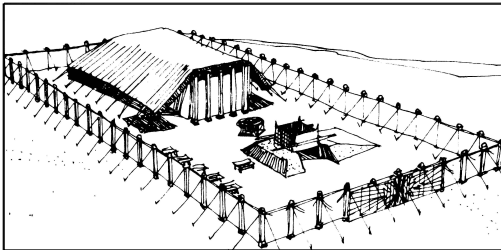
(1) 재료 수집(25:1-9)

25:1-9 모세는 백성들에게서 성막을 세우는데 쓸 재료들을 예물로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귀중한 금속과 훌륭한 옷감과 가죽과 기름과 향료와 보석 등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인들에게서 받은 임금이 아니었다. 물론 그들은 그것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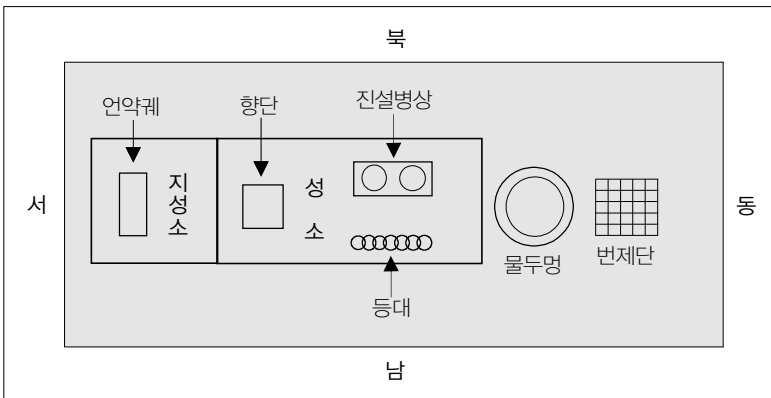
언기 위해 열심히 일을, 아니 종살이를 했다. 이제 그들은 그것들을 희생적으로 드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그분이 지시하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만일 물질적인 건축에 이것이 사실일진대, 신약성경의 거룩한 식양대로 그리스도의 회중(백성)을 세우는 일은 얼마나 더욱 중요하겠는가!

(2) 언약궤(25:10-16)

25:10-16 언약궤는 순금으로 안팎을 씌운 나무상자였다. 사면에 금고리를 달고 채를 그 구멍에 끼워 운반할 수 있게 하였다. 언약궤에는 증거판, 즉 두 개의 율법 돌판과(16절) 이후에 아론의 지



성막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막이란 용어는 때로 장막을 가리키기도 하고, 아름다운 무늬가 새겨진 휘장이 쳐진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데서는 장막 주위에 두른 포장을 포함한 전체 구조를 가리키기도 한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시에 사용된 성막기구들의 상대적인 위치들을 보여준다. 아래는 위의 그림을 확대한 그림이다.

팡이와 만나 향아리(히 9:4)를 넣어두어야 했다.

(3) 속죄소(25:17-22)

25:17-22 언약궤의 뚜껑은 속죄소로 불리었다. 그것은 두 천사 같은 형상을 지지하는 금 주물(鑄物)이었다. 이 두 그룹²⁴⁾은 서로 마주하고, 날개를 위로 펴서 서로 향하게 한 모양이었다. 하나님은 두 그룹 사이와 속죄소 위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셨다. 그룹은 적어도 13권의 성경에 언급되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여호와의 거룩과 의(義)와 관련이 있으며, 종종 하나님의 보좌와 관련하여 언급되었다. 에스겔 1장과 10장에 그것이 언급되었다.

(4) 진설병상(25:23-30)

25:23-30 진설병상은 순금으로 싹 나무 식탁이었다. 그것은 위에 아름다운 금테가 둘러졌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과 그 턱 주위에 또 하나의 금테가 만들어졌다. 언약궤처럼 진설병상도 네 발 위의 네 모퉁이에 부착한 고리에 채를 끼워 운반되었다.

상 위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놓였다(30절). 또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 등 여러 그릇들이 있었다.

(5) 금촛대와 그 부속물(25:31-40)

25:31-39 금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 위에 일곱 가지가 있

24) (25:17-22) ‘그룹’이란 단어는 ‘축복하다’, ‘찬양하다’, ‘동경하다’ 등을 의미하는 셈어 어근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카라브’, 즉 ‘가까이 끌다’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더 보편적이다. 이로 보아, 그룹은 ‘덮는 것’ 혹은 보호자처럼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가리킨다.

었고 각 가지마다 기름을 태울 수 있는 심지가 달린 받침 위에 작은 등잔이 있었다. 금촛대와 관련하여 타고 남은 찌꺼기들을 처리하는데 쓸 불집계와 불뚱 그릇이 있었다(38-39절).

25:40 이상과 같은 기물들을 만들 때에 지켜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수칙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명하신 식양을 좇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적인 개선의 여지가 일절 없었다. 모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되, 주님께서 그 지혜로 허락하신 식양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성막의 모든 기구는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언약궤는 그분의 신성과(금) 인성(나무)을 상징했다. 속죄소는 우리의 속죄소 내지 화목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롬 3:25). 진설병상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금촛대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놋단(27장)은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라진 번제물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금향단은(30장)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물두멍(30장)은 말씀으로 씻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딤후 3:5; 요 13:10; 엡 5:26).

(6) 성막 자체(26장)

26:1-6 26장은 성막 그 자체를 묘사한다. 그것은 대략 길이가 15미터, 넓이가 5미터, 높이가 5미터였다(1규빗을 50센티미터로 계산할 때). 좌우면과 뒤 끝은 곧은 널판이 세워지고 갈고리를 꿰어 서로 연결되었다. 다른 끝(입구)은 기둥이 있었다.

여기서 성막이라 부르는 첫 장막(양장)은 가늘게 꼰 베실과, 청색

과 자색과 홍색실로 그룹들을 아름답게 수를 놓아 만들었다. 그것은 함께 짝을 이룬 다섯 폭으로 된 두 양장으로 이뤄졌다. 이 두 양장은 아마도 50개의 푸른 고리에 부착되었을 금갈고리에 연결되었다. 양장 전체는 가로 14미터에 세로 20미터였다. 그것은 천장을 형성했으며 지면에서 50센티미터 정도만 남겨두고 측면을 다 덮었다.

26:7-13 막(幕)으로 불리운 다음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어졌다. 다섯 폭으로 된 양장이 50개의 고리로 연결된 놋갈고리를 통해 여섯 폭으로 된 양장과 결합되었다. 전체 덮개는 가로 15미터에 세로 22미터로서 앞면을 제외하고 성막의 모든 면을 덮어씌웠다. 남은 부분은 접어두었다.

26:14 세 번째 덮개는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으며, 네 번째 덮개는 해달(혹은 ‘돌고래’)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²⁵⁾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염소털로 된 두 번째 덮개와 같은 크기였을 것이다.

26:15-30 성막의 세 면을 두른 널판이 15-25절에 묘사되어 있다. 각 널판은 길이가 5미터, 넓이가 75센티미터였다. 그것은 조각 목(아카시아) 위에 금을 덮고 바닥에 두 축을 내어 고리로 연결하도록 만들었다. 좌우면에 20개의 널판과, 후면에 6개의 널판이 있었다. 후면의 두 모퉁이를 위해 두 개의 특별한 널판이 만들어졌다. 이 널판들은 금으로 싸인 나무 띠를 금고리에 끼워 서로 연결되게 함으로써 세워졌다.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했다. 아마도 길이가 다른 두 개의 짧은 널판을 만들어 결합하여 위에서 한 널판

25) (26:14) 이에 대해 여러 가지 번역이 있는 이유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짐승가죽을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되게 하고, 또 다른 두 개를 만들어 아래서 한 널판이 되게 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널판이 격자(格子) 구조였다고 생각한다.

26:31-37 성막 자체는 두 개의 방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길이 10미터에 높이 5미터인 성소이고, 하나는 길이 5미터에 넓이 5미터인 지성소이다. 이 두 개의 방은 가늘게 끈 베실로 만들어져 그 위에 그룹이 수놓인 휘장에 의해 분리되었다. 이 휘장은 네 기둥에 걸려있었다. 언약궤와 속죄소는 지성소에 놓였고, 진설병상과 금촛대는 성소에 놓였다. 그 외에 향단(30장)이 성소에 놓였는데 휘장 앞에 위치했다. 금촛대는 성소 남쪽에 놓였고, 진설병상은 북쪽에 놓였다. 성막의 문은 휘장과 비슷한, 짜서 만든 장(帳)이었으나, 금으로 싸이고 또 늦 받침 위에 세워진 다섯 개의 조각목 기둥 위에 걸렸다.

(7) 번제단(27:1-8)

27:1-8 늦단으로도 알려진 번제단은 늦으로 싸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길이가 2.5미터, 높이가 2.5미터였다. 네 모퉁이에서 빨이 나와 있었다. 그것은 하단 고리에 채를 꿰어 운반되었다.

(8) 바깥뜰, 기둥, 포장(27:9-19)

27:9-19 성막 둘레에는 뜰로 알려진 큰 지역이 있었다. 그 둘레에는 가늘게 끈 베실로 된 장이 쳐지고 그 사이사이에는 늦 기둥들이 세워졌다. 그 둘레는 길이가 50미터, 넓이가 25미터, 높이가 2.5미터였다. 동쪽 끝의 문은 넓이가 10미터였다. 그 문은 성막의 휘장들과 같이 수놓은 베실로 된 포장이 둘러졌다. 달리 지정되지 않는 한 성

막의 모든 기구들은 낫으로 만들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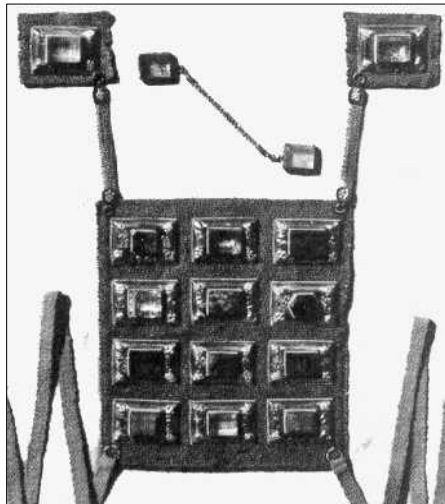
(9) 관유(27:20-21)

27:20-21 촛대에 사용할 기름은 감람으로 짠어낸 순결한 기름 이어야 했는데 이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것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밤마다 계속 타고 있어야 했다. ‘회막’이란 표현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될 장막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으나, 33장 7절에는 모세가 세운 예비적인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2) 제사장직(28-29장)

(1) 제사장의 의복(28장)

28:1-2 28장은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다루고 있다. 이 옷은 그 색깔이나 보석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다양한 영광을 말해준다.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 가족이었다.



▲대제사장의 흉패에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부착되어 있다. 돌 하나하나에는 지파들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다.

28:3-29 대제사장은 두벌의 옷이 있었다.

- ① 다양한 색상과 정교한 수가 놓인 영광과 아름다움의 옷;
- ② 평범한

흰색 베실 옷. 전자는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2- 4절). 에봇은 앞치마와 비슷하여 두 부분이 어깨에서 결합되었고 옆은 터진 모양이었다. 정교하게 짠 띠(8절)는 에봇의 가장자리 바로 위로 허리를 두른 띠였다. 테(13절)는 보석을 달기 위한 금으로 된 세공(細工)이었다. 어깨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 여섯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縞瑪瑙)가 하나씩 위치했다(9-12절). 에봇 앞에는 각각 한 지파의 이름을 담은 열두 개의 진귀한 돌이 부착된 흉패가 있었다. 흉패는 금 시슬에 의해 에봇에 부착되었다(13-28절). 이렇게 하여 대제사장은 그 어깨와(12절-힘의 자리) 가슴에(29절-사랑의 자리)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했다.

28:30 흉패는 판결 흉패로 불리고 있는데(15,19,30절), 이는 우림과 둠뿔이 그 안에 있어서 여호와와 판단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민 27:21).

‘우림과 둠뿔’이란 표현은 ‘빛’과 ‘완전’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나, (위에서 설명한대로) 그것이 흉패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여호와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삼상 28:6).

28:31-35 에봇 받침 겹옷은 에봇 속에 걸치는 청색 옷이었다. 그것은 무릎 아래까지 미쳤다. 그 가장자리에는 작은 방울과 석류가 달렸는데 이는 증거와 열매를 말해준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는 그 방울소리가 들려야 했다.

28:36-38 관(冠)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금패를 매어 항

상 대제사장의 이마에 있게 했다. 그것은 성물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지극히 거룩한 행위조차도 죄로 얼룩져있음을 상기시킨다. 비버리지 감독은 이렇게 말한바 있다.

“나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할 수가 없다… 나의 회개는 회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나의 눈물은 나의 구속자의 피로 씻겨질 필요가 있다.”²⁶⁾

28:39-43 얼룩얼룩한 무늬의 속옷은 대제사장이 청색 받침겉옷 아래 받쳐입는 베실로 짠 옷이었다. 그 옷에는 베실로 짠 띠가 달렸다. 아론의 아들들은 평범한 흰색 속옷과 띠와 관을 착용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췄다(40절). 속옷으로서 그들은 베실 바지를 입었다. 그들은 머리에서 발목까지 복장을 갖추었으나 발에는 아무 것도 걸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한 땅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이었다(3:5). “거룩하게 하다”로 옮겨진 단어(41절)는 문자적으로 ‘손을 채우다’(즉, 제물을 가지고)는 뜻이다.

(2) 제사장의 성별(29장)

29:1-9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최초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 후로,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 지파 및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것이었다. 교회에서 제사장이 되는 유일한 길은 ‘새로운 출생’이다(계 1:5-6). 인간이 제사장을 임명한다는 것은 심히 오만스런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 묘사된 의식은 레위기 8장에서 집행되었다. 제사장의 성별은 문둥병의 정결과 다소 유사하다(레 14장). 두 경우 모두에, 제

26) (28:36-38) Archbishop Beveridge,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물의 피가 그 사람 자신에게 적용되었는데 이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죄값을 치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제물의 재료들이 1-3절에 소개되었다. 그 자세한 용도에 대해서는 후에 언급한다. 제사장의 성별에 있어 첫 번째 단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문 앞에 있는 물로 씻는 것이었다(4절). 둘째로, 아론이 앞장에서(5-6절) 묘사된 옷을 입었다. 그런 다음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7절).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제사장 속옷을 입었다(8-9절).

29:10-21 세 가지 제사가 뒤따랐는데, 수송아지가 속죄제로(10-14절), 수양이 번제로(15-18절), 그리고 또 한 마리 수양이 성별의 제물로 드려졌다(19-21절). 희생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그 짐승과 동일시된다는 뜻을 나타내며, 그 짐승이 제사 드리는 자 대신 죽는다는 것을 가리켰다(10절). 피는 물론 죄사함을 위하여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했다. 기름은 짐승의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여호와께 드려졌다(13절). 첫 번째 양은 단에서 완전히 불태워졌다(15-18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을 말해준다. 두 번째 양(성별의 양)의 피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 귓부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뿌려져야 했다(20절). 이것은 인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 씻음이 필요함을 의미했다. 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고, 손은 행동 내지 섬김을 가리키고, 그리고 발은 걸음 내지 처신을 가리킨다. 제사장의 아름다운 의복에 피를 뿌려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나, 하구속의 피는 사람의 눈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지 모르나, 하

나님 앞에서는 절대 필요하다.

29:22-34 이어서 모세는 제사장들의 손을 제사에 필요한 재료들로 채우고, 그렇게 하여 그들로 제사드릴 자격을 갖추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22-28절). 첫 번째 제물은(22-25절)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번제단 위에 불태워야 했다. 수양의 가슴은 여호와 앞에 아마도 좌우로 흔들었고, 어깨 혹은 넓적다리는 여호와 앞에서 분명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 두 부분은 그런 다음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졌다(26-28절). 흔든 가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해주며, 흔든 넓적다리는 우리를 위해 베풀어지는 그분의 능력을 상징한다. 아론의 옷은 그 아들들의 소유가 되었는데 그것은 제사장직은 아비에서 아들로 물려졌기 때문이다(29-30절). 제사장의 식물과 그것이 준비된 과정이 31-34절에 묘사되어 있다.

29:35-46 위임식은 제사가 매일 드러지고 단이 피로 씻어지고 기름이 부어지면서 7일간 계속되었다(35-37절). 이 후로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1년 된 어린양 두 마리(한 마리는 매일 아침에, 한 마리는 매일 저녁 해질 무렵에)를 번제단에 바쳐야 했다(38-42절). 이어서 하나님은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다(43-46절).

3) 성막에 관한 세부규정(30,31장)

(1) 향단(30:1-10)

30:1-10 향단은 성소에 있는 금으로 짠 나무 단이었다. 그것은

가로 세로가 50센티미터, 높이가 1미터였다. 그것은 금단으로도 알려졌다. 이 단에서는 향이 아침과 저녁에 태워졌는데, 이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말해준다. 이 단은 비록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으로 언급했을 수도 있다(히 9:4, 흠정역). 물론 거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는 ‘향로’로 옮겨질 수도 있다(새흠정역).²⁷⁾ 이 단은 금테 아래 양면에 달린 고리에 꿰 채로 운반되었다.

(2) 속전(30:11-16)

30:11-16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각자 자신을 위한 속전으로 반 세겔을 지불할 것을 명하셨다. 속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했으며,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징수되었고, 성막의 봉사를 위해 사용되었다. 그것은 재앙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증했다(12절). 처음에 그것은 성막의 널판을 지지하는 은 받침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은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구속을 말해준다. 구속은 모든 이에게 필요하며, 모든 이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질 수 있다.

(3) 물두멍(30:17-21)

30:17-21 놋 물두멍은 회막 입구와 단 사이에 위치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과 발을 씻는 그릇이었다. 그것은 여인들이 기증한 놋 거울로 만들어졌다(38:8). 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씻지 않고 성물을 만지는 제사장은 누구든지 죽음에 처해졌

27) (30:1-10) ‘투미아테리온’이란 헬라어 단어는 ‘향을 위한 장소’(혹은 물건)를 뜻한다. 그로 보아, 그것은 향단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속죄일에 휘장 뒤로 옮겨지는, 단에서 취한 향으로 가득한 향을 내는 물건을 가리킬 것이다.

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한 어떤 섬김을 시작하기 전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히 10:22).

(4) 관유(30:22-33)

30:22-33 거룩한 관유가 성막과 그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붓는데 사용되었다.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님을 상징한다. 제사장들의 기름부음은 모든 거룩한 봉사에는 성령님의 능력 부으심이 필요함을 의미해준다.

(5) 향(30:34-38)

30:34-38 이것은 아침저녁으로 금향단에 태워지는 여러 가지 향료로 만들어진 향이었다. 기름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모방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었다.

(6) 재능 있는 장인(匠人)들(31:1-11)

31:1-11 하나님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만들기 위해 브사렐²⁸⁾과 오홀리압이란 재능 있는 장인들을 임명하셨다. 그들은 그 거룩한 직무에 종사하는 다른 일꾼들을 감독했다(6절). 본문에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자주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일꾼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능력과 재능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할 일을 허락하신다(6절). 그 일은 모두 주님의 일이나, 그러나 그분은 그 일을 인간 도구를 통해 이루시며, 그런 다음 그분의 대리

²⁸⁾ (31:1-11) 현대 이스라엘의 국립예술원이 브사렐이란 이름을 따다는 것은 주목할 일이다.

자들에게 상급을 내리신다.

(7) 안식일의 표증(31:12-18)

31:12-17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증이 되었다.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다. 성막 짓는 일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불순종하면 죽음에 처해졌다.

31:18 이 시점에서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두 돌판, 즉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다(신 10:4).

성막 :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림

기본적으로 성막은 그리스도,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말씀을 상징한다(요 1:14, 헬라어 원문).²⁹⁾

성막은 또한 하나님의 구원방법과 및 신자의 삶과 봉사에 대한 그림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구원의 방법을 그려주긴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성막은 구원의 방법을 제공해주기보다는 백성들이 외적이고 의식적인 더러움에서 정결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해주었다.

성막과 그와 관련된 봉사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히 8:5; 9:23-24). 이것은 하늘에 구조나 건축학적으로 그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적인 실체들을 그려주

29) (평론) 성막에 대한 상징론은 물론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지만 복음주의 신자들 간에 널리 주장되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 특히 히브리서에 언급된 상징들만을 받아들인다. 상징론에 대한 간략한 논의에 대해서는 창세기 42장을 참조하라.

고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 일치점들을 보라.

이 땅의 성소(히 9:1-5)	하늘의 성소(히 8:2; 9:1-15)
지성소(히 9:3)	지성소, 하나님의 존전(히 10:19)
휘장(히 9:3)	휘장 되신 그리스도의 몸(히 10:20)
짐승의 피(히 9:13)	그리스도의 피(히 9:14)
제단(히 7:13; 출 27:1-8)	우리의 제단 되신 그리스도(히 13:10)
대제사장(히 5:1-4)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히 4:14-15; 5:5-10; 7:20-28; 8:1; 10:21)
희생제물(히 10:1-4,11)	우리의 희생제물 되신 그리스도(히 9:23-28; 10:21)
언약궤(히 9:4)	은혜의 보좌(히 4:16)
향단(히 9:4, 흠정역)	하늘에 있는 향단(계 8:3)

바깥뜰을 이루는 베실 포장(길이 50미터, 폭 25미터)—포장은 가늘게 끈 흰색 베실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義)를 상징한다. 그것은 높이가 2.5미터로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는 장벽을 이룬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표준에 이르는데 실패했다는 것과(롬 3:23), 죄인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보거나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고전 2:14)을 말해준다. 포장은 낮받침과 은 고리와 띠가 있는 56개의 기둥으로 반듯이 연결되었다.

문—뜰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했다. 들어가는 길이 하나뿐이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14:6; 행 4:12). 그 문은 넓이가 10미터인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데 충분하심을 상징해준다(요 6:

37; 히 7:25).

문을 이루는 포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은 흰색 베실로만 들어졌는데 이는 4복음서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한다.

자색—마태복음—왕(마 2:2).

홍색—마가복음—이사야 1장 18절의 홍색을 말해주듯이,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겸손한 종.

흰색—누가복음—온전한 인간(눅 3:22).

청색—요한복음—하늘에서 오신 이(요 3:13).

번제단(사방 2.5미터, 높이 1.5미터)—안 뜰에 있는 첫 번째 기구는 제단이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곳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를 말해준다(히 9:14,22). 이곳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제단은 놋과 조각목, 즉 광야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놋은 심판을 말해주며 나무는 그리스도의 죄 없고 부패하지 않는 인성을 말해준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셨다(고후 5:21).

제단은 속이 비었고 중간에 격자가 있어서 그 위에 짐승을 놓았다. 모퉁이에는 놋으로 덮인 네 뿔이 하나씩 있었다(출 27:2). 아마 이 뿔에 제물을 묶은 것 같다(시 118:27).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묶은 것은 끈이나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번제를 가져왔을 때 그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는데, 이는 자기 자신과 짐승을 동일시하고 짐승이 그 대신 죽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이 있었다. 그것은 대리적인 희생이었다.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흘러졌는데, 이는 그것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다(히 9:22).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은 단 위에 불태워졌다. 여기서, 종종 그렇듯이, 모형이 깨지고 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온전히 만족해하셨음을 상기시켜주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를 위한 구속을 이뤄주었다.

물두멍—물두멍은 여인의 거울에서 취한 놋으로 만들어졌다(출 38:3). J. H.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자기만족을 위해 사용되던 것을, 육신의 만족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을 내놓았다.” 예배에 앞서 먼저 자기를 판단해보아야 한다(고전 11:31).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봉사를 위해서는 씻는 것이 필요함을 말해주었다(사 52:11). 제사장들은 그들의 직무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몸이 씻겨졌다(레 8:6). 그 후에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정기적으로 씻어야 했다. 한번의 목욕과 많은 씻음이 필요했다. 오늘날은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다(벧전 2:5,9). 우리는 아직 한번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다(요 3:5; 13:10; 딤후 3:5). 그러나 우리의 손(섬김을 위해)과 발(경건한 삶을 위해)을 끊임없이 씻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의 물로 그렇게 씻는다(시 119:9-11; 요 15:3; 엡 5:26).

물두멍은 손을 씻기 위한 위에 있는 그릇과, 발을 씻기 위한 아래 있는 그릇이 있었을지 모른다. 성경은 그 정확한 형태나 크기에 대해서는 묘사가 없다.

성막 자체(길이 5미터, 넓이 15미터)—성막의 구조는 바깥에서 볼 때는

불품이 없으나 안에서 볼 때는 아름다웠다. 내부에 있는 모든 기구는 금으로 싸였거나 수놓은 작품이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그리스도를 말해준다(요 1:14). 그분은 겉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다(사 53:2). 그러나 안으로는 온전히 사랑스러우시다.

휘장은 안에서 밖으로 네 개로 이뤄졌다.

수놓은 가는 베실—그리스도의 의(義)와 아름다움.

염소털—우리의 아사셀 염소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레 16장).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그리스도의 성별(위임) (위임식 양-출 29:19-22)

해달의 가죽—성막을 외부로부터 보호해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을 외부의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준다.

널판—어떤 이들은 이것이 평평한 널판이 아니라 격자모양의 구조물이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그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연합된 거처를 이루는 신자들을 그려준다(엡 2:22). 그것은 금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우리의 인성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말해준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 널판은 높이가 10미터이고, 금으로 싼 다섯 개의 수평 띠로 연결되었다(출 26:26-28). 중간 띠는 널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관통했는데, 이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듯 보인다. 각 널판마다 두 개의 은받침과 두 개의 축으로 지탱이 되었다. 은은 구속을 말해준다(은 세겔은 속전이었다-출 30:15). 신자의 기초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다(벧전 1:18-19).

성소—성소로 인도하는 휘장은 하나님과의 사귄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해준다(엡 2:18; 3:12). 성소에는 의자가 없었는데 이는 제사장의 사역이 결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 단번의 사역과 비교해 보라(히 10:12).

진설병상(길이 1미터, 넓이 50센티미터, 높이 75센티미터; 북쪽에 위치)—이 상은 조각목에 금을 씌워 만들었는데 이는 우리 주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해준다. 상 위에는 열두 개의 무교병이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해준다. 그 둘레에는 두 줄의 금테가 둘렀는데 이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촛대(무게 30킬로그램, 크기는 언급이 없음, 남쪽에 위치)—금을 쳐서 만들었으며 밑받침과 거기서 나온 줄기가 있었고, 그 줄기에서 일곱 가지가 나왔고 그 가지 끝에 등잔이 있었다. 그것은 성막 안에서 유일한 빛의 근원이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해 줄 수도 있고(요 16:14), 하늘의 빛이요(계 21:23) 모든 영적인 빛의 근원 되신(요 8:12) 그리스도를 상징해줄 수도 있다. 정금은 신성을 상징한다.

이 등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타올랐다(출 27:21, 30:7-8; 삼상 3:3).

향단(사방 50센티미터, 높이 1미터, 휘장 앞, 중앙에 위치)—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조각목과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것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중재하시는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히 7:24-26; 계 8:3-4). 향은 그분의 위(位)와 사역의 향기를 말해준다. 불

은 번제단에서 취해져야 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 향기를 말해준다.

향은 소합향과 누합향과 풍자향과 유향을 한데 섞어 하나의 향기를 발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그러하다(엡 5:2).

지성소—지성소로 인도하는 휘장은 갈보리 죽음시에 찢겨진(눅 23:45)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킨다(히 10:19-22).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들은 언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다(히 10:19-22).

언약궤(길이 1.25미터, 넓이와 높이 75센티미터)—이것은 금으로 덮인 조각목 상자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해주었다.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간중심의 부정적인 것이요, 하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매우 긍정적인 것이다.

먼저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거역을 생각나게 하는 세 가지 기념물이 들어있었다(만나-출 16:23; 율법-출 32:19; 아론의 지팡이-민 17:1-13). 이는 우리의 거역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줄 수 있다.

혹은, 만나는 하나님의 떡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율법은 주님께서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표현을 상징하고,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다.

속죄소—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었다. 위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그분의 의를 변호하는 두 그룹이 있었

다. 그들은 언약궤 앞과 속죄소 위에 뿌려지는 피를 내려다보았다.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가려준다. 그렇게 하여 심판의 자리가 자비의 자리(시은좌)가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은좌(‘화목’과 동일어, 요일 2:2)이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만나신다.

영광의 구름—성막이 완성되자 여호와께서 ‘쉐키나’(‘거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로도 알려진 영광의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나셨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에 대한 가시적인 상징이었다.♣

4) 우상숭배 사건의 발생(32,33장)

(1) 금송아지(32:1-10)

32:1-10 모세가 더디 돌아오는 것을 참지 못하여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론은 순순히 반응하여 그들의 금귀고리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는 명백히 금지된 행위였다(출 20:4).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미친 듯이 먹고 마시고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배한다고 주장했으나(5절), 우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금으로 그들을 축복하셨는데(출 12:35, 36), 백성들의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저주로 변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세에게 알리시고(7,8절),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위협하셨다(9-10절).

(2) 모세의 중재와 분노(32:11-35)

32:11-13 그 답변에서 모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중재자 중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가 사용한 강한 논증을 보라. 백성은 여호와와 백성이었다(11-12절). 일찍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실 정도로 그들을 돌아보셨다(11절). 만일 하나님이 애굽인들도 하지 못한 일을 그분의 백성에게 행하신다면 애굽인들이 비방의 소리를 높일 것이다(12절).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하신 언약에 진실하셔야 했다(13절).

32: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14절). ‘화’란 말은 문맥상 징벌을 의미한다. 모세의 중재에 대한 반응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백성에게 퍼부으셨을 징벌을 거둬들이셨다.

32:15-20 모세가 두 증거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다 중간에 여호수아를 만나 함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 때 백성들은 선정적이고 우상숭배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모세는 의분에 사로잡혀, 백성들이 이미 저지른 일을 목격한 자로서 율법 돌판을 깨뜨려버렸다. 그런 다음 그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리고는 백성들로 마시게 했다(20절). 이는 우리의 죄는 고통스런 분깃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32:21-24 백성들이 그런 처분을 받아 마땅한 잘못을 범한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추궁하자, 아론은 금송아지가 신비롭게도 불에서 나왔다는 식으로 그 일어난 일을 변명했다(24절). 여호와께서 아론을 죽이지 않으신 것은 순전히 모세의 중재 덕택이었다(신 9:19,20).

32:25-29 일부 백성들은 하던 짓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했다. 모세가 이에 충성스런 추종자들을 부르자 레위 지파가 응하여 그 ‘통제가 안 되는’(NASB) 자들을 칼로 죽였다. 그 인척들도 살려두지 않았다(25-29절). 이렇게 하여 그 율법을 범한 일은 3천명의 사람들을 죽게 했다. 오순절에 은혜의 복음은 3천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다. 레위인들은 그 영웅적인 충성으로 인해 후에 제사장 지파로 선택되었다(29절).

32:30-35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 다시 산에 올라갔다(30-32절). 여호와께서는 이에 두 가지로 응답하셨다. 첫째로 송아지를 만든 사람들을 징벌하겠다고 하셨다(재앙을 보내심으로 그렇게 하셨다-35절). 둘째로,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 앞에 그분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하셨다. 32절에 모세의 인품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는 백성들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했다.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는 ‘내 생명을 취하소서’란 뜻의 비유적인 표현이다.³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살려두셨으나 그분의 사랑하는 아드님은 살려두지 않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주님과 어떻게 같겠는가!

(3) 백성들의 회개(33:1-6)

33:1-6 여호와께서는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여정에 동행하기를 거절하셨다. 도중에 그들을 멸하게 될 것을 염

30) (32:30-35) 어떤 이들은, 15세기 이후의 바울처럼, 모세는 그의 동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지기를 원했다고 했다.

려하신 것이다. 그 대신 사자를 대리자로 보내겠다고 하셨다. 백성들은 이러한 흉보(凶報)를 듣자 슬피 울며,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렇게 했듯이, 그들의 장식품을 다 벗어 던졌다. 그 호렙산 사건 이후로 그들은 다시는 장식을 하지 않았다.

(4) 모세의 회막(33:7-11)

33:7-11 7절에 언급된 장막은 성막이 아니라 모세가 치고, 여기에 ‘회막’으로 불리운 임시 장막이었다. 성막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여호와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진 밖에 위치한 그곳으로 갈 수 있었다. 진 자체는 백성들의 죄로 더러워졌으며, 이에 진 밖에 장막이 위치했다. 모세가 장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왔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다. 11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본체를 목격했다는 뜻일 리가 없다. 단지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얼굴과 얼굴로 대하듯이 막히지 않는 사귀를 나누었다는 의미이다. 당시에 청년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아마 이것이 그가 후에 영적으로 성공하게 된 비결이었던 것 같다.

(5) 모세의 기도(33:12-23)

33:12-17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친히 가나안으로 인도해주실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게도 친히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셨다. 모세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아처럼 모세는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고 그 요청을 수락 받았다. “안전이란 위험이 없는데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

33:18-23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겠다고 약속으로 답하셨다(출 34:6,7).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 없었으나 바위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은 허락되었다.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기 때문이다(요 4:24). 하이일 존즈의 표현대로 ‘모세는 그 충만한 영광을 믿을만하게 암시해주는 후광을 볼 수 있었다.’³¹⁾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20절). 이것을 아무도 하나님의 드러난 영광을 바라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분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본 이가 없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딤후 6:16). 그런 의미에서 아무도 아무 때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요일 4:12). 그렇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성경의 구절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하갈(창 16:13), 야곱(창 32:30),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의 이스라엘 장로들(출 24:9-11), 기드온(삿 6:22-23), 마노아와 그의 아내(삿 13:22-23), 이사야(사 6:1), 에스겔(겔 1:26; 10:20), 요한(계 1:17) 등이 그러했다.

그 답은,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타난 하나님을 뵈었다는 것이다. 그분은 때로는 여호와와 사자로(이 교리에 대한 논의는 사사기 6장을 보라), 때로는 인간으로, 그리고 한번은 소리로(출 24:9-11; 신 4:12 참조)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아드님께서 하나님을 충만히 선포하셨다(요 1:18).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히 1:3). 그런 까닭에 그분

31) (33:18-23) Hywel R. Jones, 더 이상의 자료는 없다.

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할 수 있으셨다(요 14:9).

5) 언약 갱신(34:1-35:3)

34:1-9 다시금 모세가 홀로 시내산에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준비한 두 돌판을 들고 올라갔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6,7절).

7절에는 잘못을 가리키는 세 가지 단어가 사용되었다. ‘악’(惡)은 여호와와 길의 왜곡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과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의미한다. ‘죄’는 문자적으로 ‘위반’을 의미하는데,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을 내포한다(롬 3:23).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므로 모두 죽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로 그들을 살려두셨다. 모세는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분의 백성의 무가치함을 들어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구하였다(8-9절).

34:10-17 하나님은 이어서 가나안 거민을 내쫓을 때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언약을 새롭게 하셨다. 그분은 이교도와 혼합되거나 그들의 우상숭배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다. 아세라는 음란한 형상 혹은 다산(多産)의 상징인 남근숭배 우상이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과 언

합하는 동시에 우상과 연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전 10:21).

34:18-27 하나님은 이어서 무교절(18절)과 ‘초태생’의 성별(19-20절), 안식일(21일), 칠칠절과 수장절(22절) 등에 관한 규례를 다시 이르셨다. 모든 남자는 23장 14-17절에 언급된 세 가지 연례 절기 동안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했다(23-24절).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의 마음을 다스리사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갈 때에 그 뒤에 남은 재산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라. 다른 규례들을 반복 설명하신 뒤에(25-26절), 여호와께서는 방금 11-26절에서 한 말을 기록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27절).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친히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다(28절; 1절과 신 10:1-4 참조).

34:28-35 산에서 40주야를 보낸 뒤에 모세는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왔다(28-29절). 그는 여호와의 존전에 있었던 결과로 자신의 얼굴이 빛나고 있던 줄을 알지 못했다(29-30절). 백성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뒤에 그는 수건으로 얼굴에 가렸다(31-33절).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설명하기를,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 백성들로 율법, 즉 율법 세대의 사라지는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35:1-3 그런 다음 모세는 온 회중을 모으고 안식일 법을 다시 일렀다.

6) 성막 재료의 준비(35:4-38:31)

(1) 백성들의 예물과 재능 있는 사람들(35:4-36:7)

35:4-20 모세는 성막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리는 일에 대해 지침을 일러주었다(4-9절). 또한 그는 재능 있는 장인들에게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10-19절). 하나님은 두 예배처소가 있으셨는데 성막과 성전이 그것이다. 그 두 곳 모두 미리 재료가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셨다(5,21,22,26,29절). 우리의 연보와 봉사도 마찬가지로 자발적이고 풍성해야 할 것이다.

35:21-36:1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보물들을 풍성히 가져왔다(21-29절). 전에 금송아지를 위해 금을 바친 이들은 드릴 것이 없었다. 성막 건축에 투자한 이들은 그들의 부(富)가 여호와와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을 누렸다.

모세는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도록 임명하신 자들로 공적으로 지명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능력도 소유했다(35:30-36:1).

36:2-7 유능한 일꾼들이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시작했으나, 백성들이 아침마다 너무 많은 재료를 가져온 까닭에 모세가 더 이상 가져오지 못하게 만류해야 했다.

8절로 39장 끝까지는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드는 자세한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많은 부분이 반복 설명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상징해주는 것들을 결코 지루해하지 않으신

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2) 성막을 덮는 막(36:8-19)

36:8-19 가늘게 꼰 베실로 만든 내부의 막을 가리켜 ‘성막’이라 불렀다(8절). 그 다음은 염소털로 된 막으로 ‘덮는 막’이라 불렀다(14절).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된 두 막은 ‘덮개’와 ‘옷덮개’라 각각 불렀다(19절).

(3) 세 측면을 위한 널판(36:20-30)

36:20-30 이 널판들은 성막에 사용된 유일한 나무인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건조한 지역에서 번성하는 이 조각목은 아주 아름답고 또 훼손할 수 없는 근성을 가진 나무였다.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으셨으며(사 53:2), 도덕적으로 아름다우셨으며,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4) 널판을 연결하는 띠(36:31-34)

36:31-34 네 개의 띠는 볼 수 있었고, 한 개는 널판 중앙을 관통하므로 볼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띠는 신자들을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한데 묶어주는 성령님에 대한 좋은 그림이다(엡 2:21,22). 다른 네 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공유하는 생명과 사랑과 신분과 자백을 말해주는 듯하다.

(5) 지성소로 인도하는 휘장(36:35-36)

36:35-36 이 휘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갈보리에서 찢기신 주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한다(히

10:20). 휘장에 새겨진 그룹은 하나님의 의로운 보좌를 지키는 사자들을 나타낸다고 보아진다.

(6) 성소로 인도하는 막(36:3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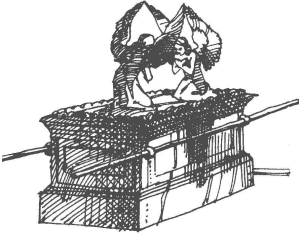
36:37-38 이 막은 성전 뜰의 문 및 위에 언급된 휘장과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해준다.

(7) 언약궤(3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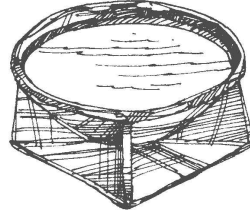
37:1-5 언약궤는 조각목에 정금을 씌워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리켜주었다. 그 안에는 율법 돌판과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다. 그리스도에게 적용해보면, 율법은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을 말해주며(시 40:8), 만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떡이신 분을 말해주며(요 6:33), 그리고 싹난 지팡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 되신 분을 말해준다(히 7:24-26).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다면, 그것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실패와 반역을 상기시켜준다.

(8) 속죄소(37: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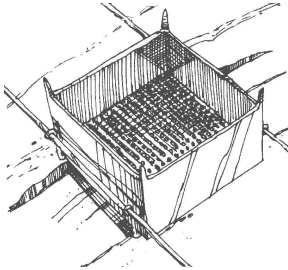
37:6-9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 곧 하나님의 지상의 거처였다. 금으로 만든 그룹들은 아래를 내려다볼 때 율법(이스라엘이 범한 짓)이나, 둘 다 이스라엘의 반역과 관련 있는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지팡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그룹들은 하나님으로 거역한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하는 뿌려진 피를 보았다. 속죄소는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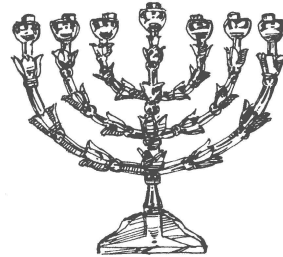
언약궤(출 25:10-22)
성막에서 가장 성스런 기구였다. 여기에 히브리인들은 모든 언약을 요약한 십계명의 사본을 담아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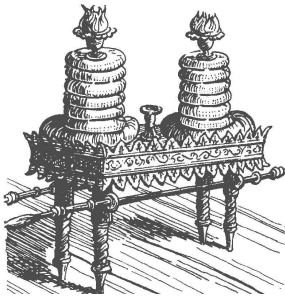
놋 물두멍(출 30:17-21)
제사장들은 씻기 위해 이 물두멍에 와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 존전에 들어가려면 정결케 되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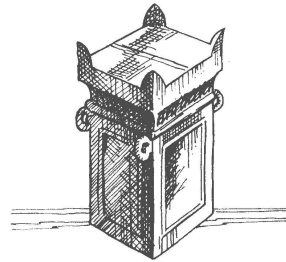
번제단(출 27:1-8)
성막 앞뜰에 위치한 이 제단에서 짐승의 제물이 드려졌다. 제물의 피가 단의 네 뿔에 뿌려졌다.



금촛대(출 25:31-40)
성소 안 진설병상 반대편에 위치했다. 일곱 개의 평평한 등잔이 있어서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심지를 담가 불을 붙였다.



진설병상(출 25:23-30)
제물을 놓는 일종의 선반이었다. 이 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12개의 떡이 놓였는데 그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다.



향단(출 30:1-10)
성막 안에 있는 이 향단은 성막 밖에 있는 번제단보다 훨씬 작았다. 향단에서 타는 향은 달콤한 향내가 나는 향료였다.

▲ 성막의 기구들

이 화목제물(시은좌)로 보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롬 3:25).³²⁾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었다.

(9) 진설병상(37:10-16)

37:10-16 진설병상에는, '참 아론으로서 지금도 저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열납하심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의 위치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떡이 놓여 있었다.³³⁾ 이 떡들은 열두 지파 하나하나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말해줄 수도 있다.

(10) 금촛대와 그 부속물(37:17-24)

37:17-24 어떤 이들은 이 정금 촛대를 세상의 참 빛 되신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본다(요 8:12). 또 어떤 이들은, 성소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것에 빛을 비춰주는 까닭에, 그것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임무를 띠신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본다. 또 어떤 이들은 신자들과 연합된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본다. 가운데 줄기는 독특한데, 왜냐하면 거기서 여섯 줄기가 나와서 세 개는 이편으로 세 개는 저편으로 뻗어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두가 한 금 몽치를 쳐서 만들어졌다.

(11) 향단(37:25-28)

37:25-28 향단은 하나님께 영원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한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32) (37:6-9) '힐라스테리온'이란 동일한 헬라어 단어는 '화목'(제물을 통한 만족)과 '화목의 장소'(즉, 속죄소)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다.

33) (37:10-16) H. Morrish, *New and Concise Bible Dictionary*, p. 754.

주 예수님의 현재의 사역을 상징하기도 한다.

(12) 관유와 향(37:29)

37:29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향은 아버지께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의 영원히 향기로운 완전하심을 상징한다.

(13) 번제단(38:1-7)

38:1-7 번제단은 주 예수께서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분의 희생적인 죽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14) 물두멍(38:8)

38:8 물두멍은 말씀으로 씻음으로 그분의 백성을 깨끗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을 상징한다(엡 5:26). 제사장들은 어떤 봉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전에 먼저 우리의 품행과 행실을 씻어야만 한다. 물두멍은 섬기는 여인들의 늦거울로 만들어졌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이다.

(15) 바깥 뜰, 기둥, 막(38:9-31)

38:9-20 성막 주위의 바깥 뜰은 세마포 포장과 늦받침과 은갈고리가 달린 56개의 기둥과, 문의 수놓은 막으로 구성되었다. 세마포는 믿지 않는 죄인들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한편 안에 있는 신자들을 분리시키고 보호해주는, 의(義)를 상징한다. 뜰에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는 문으로 가늘게 끈 베실을 재료로 해서 청색,

자색, 홍색실로 수놓아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나는 문이요”-요 10:9).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흠 없는 순결을, 청색실은 그리스도의 천상적인 기원을, 자색실은 그리스도의 왕으로서의 영광을, 그리고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고난을 각각 상징해준다.

38:21-23 유능한 일꾼들의 이름이 반복되어 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 맞는 사람들을 일으키신다. 성막을 위해서 그분은 브사렐과 오홀리압을 불러 예비시키셨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는 히람을 사용하여 재료를 공급케 하셨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베드로와 바울이란 택한 그릇들을 사용하셨다.

38:24-31 성막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들이 주의 깊게 계량되었다. 그것은 오늘날 화폐 단위로 환산해서 수백만 달러 가치가 있었다. 우리 역시 “내 은과 내 금을 취하소서. 한 가락도 남기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주님 일에 우리의 소유를 드릴 수 있다.³⁴⁾

7) 제사장 의복의 준비(39장)

39:1-7 이제 제사장 의복을 준비하는 대목에 이르렀다. 우리는 처음부터 네 가지 색깔이 반복되는 것에 놀라게 된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4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다양한 영광을 상징한다고 본다. 즉, 자색은 마태복음의 왕을, 홍색은 마가복음의 고난 받는 중

34) (38:24-31)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걸의 위대한 시 “내 생명을 취하소서”(Take My Life and Let It Be)에 나오는 이 고백은 그저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실천하기는 심히 어렵다!

을, 흰색은 누가복음의 죄 없으신 인간을, 그리고 청색은 요한복음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해준다는 것이다. 에봇의 금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3절). 에봇의 두 견대(肩帶)에는 각각 이스라엘 여섯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縞瑪瑙)가 있었다.

39:8-21 흉패에는 열두 개의 보석이 있어서 그 하나하나에 열두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졌다(10-14절). 우리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이시다. 피터 펠이란 전도자는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했다. “그분의 어깨의 힘과 그분의 마음의 사랑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품고 있다.”

39:22-26 에봇 받침 긴 옷은 에봇 아래 걸치는 청색 옷이었다. 그 끝단에는 정금 방울과 청색, 자색, 홍색의 석류가 있었다. 이것들은 영적인 열매와 증거를 말해주는데, 그 두 가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이요, 또한 우리 안에 재생산되어야 할 것들이다.

39:27-29 가는 베로 만든 속옷이 제사장들이 입는 첫 번째 옷이었다(레 8:7). 그런 다음 영광의 옷을 입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한 죄인에게 그 자신의 의를 입히신다(고후 5:21).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영광의 옷으로 그분의 백성을 입히실 것이다(빌 3:20-21). 의(義)가 영광에 앞서 와야 한다.

39:30-31 대제사장의 관에 붙은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문구가 새겨졌으며 그렇게 하여 대제사장은 성물의 죄를 담당할 수

있었다(출 28:38).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죄로 얼룩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봉사는 아버지께 이르기 전에 우리의 대제사장에 의해 모든 불완전함이 씻겨지는 것이다.

39:32-43 백성들이 일을 마치고 성막의 기구들을 모세에게 가져오자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모든 기구가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 그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축복했다.

8) 성막을 세움(40장)

40:1-8 하나님은 그 해의 첫째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셨다(1,2절). 그 해는 출애굽 후 약 1년 되는 시점이자 이스라엘이 시내에 도착한지 8개월 반이 지난 시점이었다. 하나님은 각 기구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도 설명해주셨다(출 26장 그림을 보라).

40:9-17 9절부터 15절에는 성막과 그 기구와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 붓는 일이 반복해서 설명되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약 1년 되는 해 첫 달 첫 날에 시행되었다(16-17절).

40:18-33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이 구절은 이 위대한 율법 수여자가 어떻게 성막의 골격과 각 기구들에 대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모든 세세한 지침을 실행에 옮겼는지를 말해준다.

마지막 순서로 모세는 성막 사면의 뜰을 세웠다. 그런 다음 중요한 과업이 잘 마쳐졌음을 선언하는 절정의 표현이 따랐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40:34-38 영광의 구름이 내려와 성막을 가득 채웠고 이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었다. 이 구름은 백성들의 여정을 동행한 구름이었다. 백성들은 그 구름이 이동할 때만 이동할 수 있었다.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어야 했다(34-38절).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책임을 맡을 때까지 제사장 기능을 수행할 자격이 분명 있었다(레 8장).

이처럼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울 때까지 그 1년간에 대한 역사이다. 이 책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도덕적인 완전함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로 가득 차 있다.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함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참고 문헌

- Borland, James A. "Exodus." In *Liberty Bible Commentary*. Lynchburg, VA: The Old-Time Gospel Hour, 1982.
- Cole, R. Alan. *Exod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3.
- Dennett, Edward. *Typical Teachings of Exodus*. Reprint. Denver: Wilson Foundation, n.d.
- Henry, Matthew. "Exodu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1. *Genesis to Deuteronomy*.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Keil, C. F. and Delitzsch, F. "Exodu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Vols. 1, 2.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Lange, John Peter. "Exodus." In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Critical, Doctrinal and Homiletical*. Vol.2. Reprint(24 vols. in 12).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 Pell, Peter, Jr. *The Tabernacle*(Correspondence Course). Oak Park, IL: Emmaus Bible School, 1957.

Ridout, Samuel. *Lectures on the Tabernacle*. New York: Loizeaux Brothers, Inc., 1973.

Rosen, Moishe and Ceil. *Christ in the Passover*. Chicago: Moody Press, n.d.

레위기

레위기 서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감된 책들 가운데 레위기보다 더 하나님
이 친히 하신 말씀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은 없다. 거의 모든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이 그 입술에서 나
오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책을 각
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앤드류 보나르).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J. N. 다비는 신자들이 거룩에 싫증을 느낄 때 거두게 될 무서운
결과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다. 거룩은 레위기의 주요 주제이며, 이
레위기는 확실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읽기 어려운 책 중
하나다. 물론, 이 가르침들을 단순히 매일의 삶의 거룩과 이방 민족
들로부터의 분리를 유지하기 위한 고대 유대인의 제사의식 및 율법
에 대한 해설로만 받아들인다면, 축복이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일
단, 제사의 모든 세부사항들이 그리스도의 위(位)와 사역의 완전함
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묵상할 소재들을 발견할 수 있
다. 이 레위기를 그 신약의 짝인 히브리서와 상호 비교해보면 더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2. 기자

레위기의 27장 전체 중 20장과, 다른 35군데 가량의 단락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들로 시작된다. 거의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대교나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였다. 우리 주님은 친히 레위기 13장 49절(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자기를 보이고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한 내용)을 “모세의 명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으레 레위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에 대한 모세 저작권을 부인하거나 적어도 의문시하고 있다.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가 옳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경 서론에서 이 문제를 다소간 상세히 다룬바가 있다. 그 내용은 주의 깊게 상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연대

레위기의 모세 저작권과 오경 내부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면, 이 책은 성막이 세워진 후부터(출 40:7)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민 10:11) 그 50일 동안 모세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정확한 집필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B.C 1450년에서 1410년 사이로 추정된다.

4. 배경 및 주제

레위기의 내용을 기억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은 레위기라는 제목과 ‘레위인’ 혹은 제사장이란 단어를 연결시켜 생각해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이 책이 제사장을 위한 지침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으로 마감되었다.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 성막 및 기타 의식들(예를 들어 ‘문둥병이 퍼진’ 집을 정결케 하는 일)과 관련된 제사를 행하는 지침을 필요로 한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구분되는 모습을 보았다. 레위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죄와 부정(不淨)에서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다. 거룩은 이스라엘이 거하는 진영의 법도(法道)가 된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므로 자기 백성도 거룩해야 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과 실제에 있어 거룩치 못하기 때문이다. 그 해결책은 피의 속죄에 있다(레 17:11). 구약에는 신약 특히 히브리서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린양의 영단번의 제사를 대망하는 짐승제사들이 있었다.

5. 개관

1. 제사의 종류(1:1-6:7)

- (1) 번제(1장)
- (2) 소제(2장)
- (3) 화목제(3장)
- (4) 속죄제(4:1-5:13)
- (5) 속건제(5:14-6:7)

2. 제사법(6:8-7:38)

3. 제사장의 성별(8-10장)

- (1) 모세에 의한 제사장의 위임(8장)
- (2) 아론이 드린 제사(9장)
- (3) 나답과 아비후의 신성모독(10장)
- 4. 정한 것과 부정한 것(11-15장)
 - (1)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11장)
 - (2) 출산의 정결(12장)
 - (3) 문둥병의 진단(13장)
 - (4) 문둥병의 정결(14장)
 - (5) 유출병 등의 정결(15장)
- 5. 속죄일(16장)
- 6. 제물에 관한 법(17장)
- 7. 개인적인 품행에 관한 법(18-22장)
 - (1) 성적인 순결에 관한 법(18장)
 - (2) 일상생활에 관한 법(19장)
 - (3) 중죄(重罪)에 대한 징벌(20장)
 - (4) 제사장의 품행(21-22장)
- 8. 여호와의 절기(23장)
 - (1) 안식일(23:1-3)
 - (2) 유월절(23:4,5)
 - (3) 무교절(23:6-8)
 - (4) 초실절(23:9-14)
 - (5) 칠칠절(23:15-22)
 - (6) 나팔절(23:23-25)
 - (7) 속죄일(23:26-32)
 - (8) 초막절(23:33-44)

- 9. 의식적, 도덕적 규례(24장)
- 10. 안식년과 희년(25장)
- 11. 축복과 저주(26장)
 - (1) 순종에 대한 축복(26:1-13)
 - (2) 불순종에 대한 저주(26:14-39)
 - (3) 자백과 회개를 통한 회복(26:40-46)
- 12. 서원 및 십일조(27장)

1. 제사의 종류(1:1-6:7)

1) 번제(1장)

1:1-17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는 장면과 더불어 시작된다. 서두에 인용된 보나르의 표현대로 ‘레위기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많이 담긴’ 책은 없으며, 이는 우리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레위기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여호와께서는 다섯 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말씀하신다. 앞의 세 가지는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로 알려진 것이고 뒤의 두 가지는 죄를 위한 제사들이다. 앞의 세 가지는 자원적인 제사였고, 뒤의 두 가지는 의무적인 제사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그들의 생축 중에서(소와 양 중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다.

1장은 번제(히브리어로 ‘올라’¹⁾)를 다루고 있다. 번제에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소의 번제와(3,5절), 양이나 염소 중에 흠 없는 수컷의 번제와(10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 흠 없는 수컷의 번제(14절) 등 세 등급이 있었다. 모두 평화로운 짐승들이었고, 거친 들짐승은 여호와의 제단에 드러지지 않았다.

1) (1장) ‘올라’란 단어는 ‘올라가다’란 뜻의 어근에서 나왔다. 그 뜻은 짐승이 모두 하나님의 단에 올려져 그 전체가 예물로 드러진다는 의미이다

소는 완전한 섬김의 삶과 완전한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항상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묵묵히 참고 지칠 줄 모르게 수고하신 종이신 우리 주님을 묘사하며, 양은 거스르지 않는 자기굴복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묘사하며, 염소는 우리의 대속자 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며, 그리고 비둘기는 하늘로서 오신 분이며 또한 슬픔의 사람(슬피 우는 비둘기)이신 주님을 묘사한다고 피터 펠은 설명한바 있다.²⁾

“보라! 한 흠 없는 희생물이 죽으셨네.
나의 보증이 나무에 달리셨네.
하나님의 어린양, 그 희생제물이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네!’ (익명).

예물을 드리는 자의 의무 : 성막 문 앞, 놋단 가까이 제물을 가져왔다(3절).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혹은, 그것을 의지하는 양 그 손을 그 위에 기대었다; 4절). 소나 양, 혹은 염소를 죽였다(5,11절).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떼다(6,12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었다(9,13절)

제사장의 의무 : 짐승의 피를 단 사면에 뿌렸다(5,11절). 단 위에 불을 두고 나무를 벌여놓았다(7절). 짐승의 각 부분을 나무 위에 벌여놓았다(8,12절).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단 위에 불살랐다(13절; 7:8). 새의 경우에는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피는 단 곁에 흘리고 멍통과 그 더러운 것은 단 동편에 버리고 그 몸은 찢되 아주 찢

2) (1장) Peter Pell, *The Tabernacle*, pp. 102,103.

지 말고 단 위에 불살랐다. ‘불사르다’는 단어는 타는 향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그 단어이며, 죄를 위한 제사에 대해서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다.

제물의 분배 : 단 위에 불사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가족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7:8). 예물을 드리는 자는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번제를 가져오는 사람은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완전한 굴복과 헌신을 표현한 것이다. 우리는 다른데서, 이 제사가 다른 여러 경우에 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성경사전을 참조하라).

상징적으로, 번제는 하나님께 흠 없는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나타낸다. 갈보리 제단에서 하나님의 어린양께서 하나님의 공의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살라지셨다. 아멜리아 M. 헐의 찬송시는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나 제단에서 보았네.
나를 위해 온전히 불살라진 어린양을 보았네.
그 그윽한 향기가 하늘 높이 올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열납되는 것을 보았네.”

2) 소제(2장)

2:1-16 소제(히브리어로 ‘민하’)는 곡식 가루, 혹은 곡물의 제사였다.³⁾

3) (2장) 흥정역의 ‘고기’(meat)로 옮겨진 단어는 그 당시에는 액체와 반대되는 고체 식물을 의미했다. 오늘날 우리가 ‘고기’(meat)라고 부르는 것은 17세기에는 ‘육류’(肉類, flesh)로 불리웠다. 어떤 학자들은 ‘민하’란 단어가 ‘인도하다’ ‘지도하다’란

소제의 제물(예물) : 소제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고운 가루에 기름과 유향을 부은 소제(1절)가 있다. 이것은 요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한 줌을 단에 불사른 것이었다(2절). 떡에는 세 종류가 있었는데, 화덕에 구운 것과(4절), 번철에 부친 것과(5절), 술에 삶은 것(7절)이 그러하다. 또한 첫 수확물을 나타내는, 이삭을 볶아 찢은 소제도 있었다(14절). 12절은, 누룩이 포함된 까닭에 단에 불사를 수 없었던 특별한 소제를 말하고 있다(23:15-21).

위에 언급된 어떤 소제에도 누룩이나 꿀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다(11절). 누룩은 발효(醱酵)를, 꿀은 자연적인 달콤함을 의미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로 소금을 더해야 했다. 그 언약은 ‘소금언약’으로 불리었는데(13절), 그것은 그 언약이 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의미했다. ‘소금 언약’에 대해서는 민수기 18장 19절, 역대하 13장 5절, 에스겔 43장 24절 등을 참조하라.

예물을 드리는 자의 의무 : 집에서 예물을 준비하여 제사장들에게 가져왔다(2,8절).

제사장의 의무 : 제사장은 예물을 단에 드린 다음(6:14), 한 줌을 취하여 그 기념물을 단 위에 불살랐다(2,9절).

예물의 분배 : 그 모든 향기를 피우며 단에서 살라진 그 ‘기념물’은 여호와와의 것이었다. 제사장들은 예물의 나머지를 모두 음식으로 취할 수 있었다(3,10절). 그것을 드린 제사장은 화덕에서 구운 것이든 술에나 번철에서 만든 것이든 다 취할 수 있었다(7:9). 기름 섞은

뜻의 어근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나, 대부분은 ‘예물’이란 뜻의 어근에서 나왔다고 제안한다.

것이나 마른 것은 모두 나머지 제사장들의 몫이었다(7:10). 예물을 드린 사람은 아무 것도 받지 못했다.

소제를 가져오는 사람은 고운 가루와 유향과 기름(그리고 관제의 경우엔 술)으로 표현된, 삶의 좋은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인정했다.

상징적으로, 이 제사는 죄악으로 더럽혀지지 않고(누룩이 없음), 하나님께 향기를 발하고(유향), 성령으로 충만하신(기름), 우리 구주의 삶의 도덕적인 완전함(고운 가루)을 말해준다. 다음 찬송시는 이 사실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다.

“거룩한 향기를 토하는 사랑의 삶!
거친 가시덩쿨 뿐인 이 땅에서
아무 더러움 없고 온전히 아름다움을 드러낸 삶!
영광스럽고도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
우리에게까지 낮추어 빛을 비추시오니
주님, 주님 발아래 엎드리옵니다!” (F. 엘리번).

3) 화목제(3장)

3:1-15 화목(혹은 사귄)제(히브리어로 ‘셀렘’)4)는 구속의 피의 효험을

4) (3:1-15) 거의 항상 ‘셀라뎀’이란 복수형태로 쓰이는 이 단어는 ‘살롬’이란 잘 알려진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 히브리어의 뜻은 단순히 적의(敵意)가 없는 것을 뛰어넘어 변명과 안전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내포한다. 이 단어의 또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친교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화목제는 순서상 맨 마지막이며, 어떤 학자들은 그 단어가 ‘완전케 하다’는 희귀한 뜻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칼(Cam)은 그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적용시켰다. “만일 그것이 정확한 뜻이라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으로 표현하는 신약의 구절들(예, 엡 2:14)은 보다 의미가 깊어지는데, 왜냐하

근거로 이뤄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기념했다. 그것은 기쁨과 사랑과 친교의 절기였다.

화목제의 제물 : 이 제사도 세 가지 등급이 있었는데, 소의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는 것과(1-5절), 양의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는 것과(6-11절), 염소의 수컷이나 암컷을 드리는 것(12-17절)이 그러하다.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의무 : 뜰 문 앞, 여호와 앞으로 짐승을 끌어들었다(1,6,12절). 제물의 머리에 안수했다(2,8,13절). 회막 문에서 그것을 잡았다(2,8,13절). 짐승의 일부분(기름과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랐다(3,4,9,10,15절).

제사장의 의무 :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렸다(2,8,13절). 번제 제물 위에 여호와의 분깃(기름 등)을 불살랐다(5절).

제물의 분배 : ‘화제의 식물’로 불리운 여호와의 분깃(11절)은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과 기름진 꼬리 등이었다. 레위기 7장 32, 33절에서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요제로 먼저 드린 후에 그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했으며, 다른 제사장들이 짐승의 가슴을 취한 사실(7:31)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먼저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러졌으며, 제물을 드린 자가 그 나머지를 전부 취하였다(7:15-21).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분깃을 취하는 유일한 제사였다.

먼 그분은 우리를 위한 마지막 제물이시기 때문이다(히 9:27; 10:12).” G. Lloyd Carr, *‘Shelem’,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III:932.

아마도 그는 일종의 친교의 식사로 그의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식탁을 베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제사는 언약 안에 있는 동료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화목을 증진시켰다.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이 여호와와 더불어 누리는 화평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이 화목제는 여호와께 약속하는 서원과 관련해서 드러질 수도 있었고, 어떤 특별한 은총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드러질 수도 있었다.

그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피터 펠은 이렇게 표현했다.

“신자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이 이 화목제에 나타나 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며(엡 2:14),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골 1:20). 그분은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던 자들에게 그러한 화평을 전하셨고(엡 2:17), 그렇게 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중간의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 중에 만나며, 죄인과 죄인 사이의 적대감이 사라진다. 하나님은 진노를 푸시고 죄인은 화해를 이루고, 그 둘이 모두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만족해한다.”⁵⁾

에델버트 세실 경(卿)의 찬송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이렇게 높이고 있다.

“오, 자기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영원한 화평이여!
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뤄졌음을
단순히 아는데서 오는 화평이여!

5) (3장) Pell, *Tabernacle*, p. 92.

하나님과의 화평이여! 하늘의 피가
이제 나에게 용서를 말해주네.
하나님과의 화평이여! 주께서 부활하셨네!
의(義)가 이제 나를 자유롭다 하네.”

3:16-17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이나 피를 먹는 것이 금지되었는데 그것은 그 둘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 외에, 기름에 대한 그러한 규정은 고대의 예방적인 치료법 중 하나였다. 오늘날 의사들은 고혈압과 심장질환과 심장마비와 당뇨와 폐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제사(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공중 예배로서의 기능을 한 한편, 개개인이 원할 때면 언제든지 여호와께 드릴 수 있었다. 다음 두 가지 제사는 누군가 죄를 범했을 때 드리도록 명령된 제사였다. 즉, 제사에는 자원적인 예배와 의무적인 속죄의 두 가지 개념이 있었다.

4) 속죄제(4:1-5:13)

4:1-35 속죄제(히브리어로 ‘히타쓰’)는 구속받은 백성을 위한 제사였다. 그것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 여호와께 나가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언약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인이 용서를 구하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범한 죄와 관련이 있다.

6) (4장) 우리에게는 무척 이상하게 들리지만, 구약에서 약 300번 나오는 이 같은 히브리어 단어는 ‘죄’를 의미할 수도 있고 ‘속죄제’를 의미할 수도 있다.

속죄제의 제물 : 속죄제는 죄를 범한 사람에 따라 여러 등급이 있었다.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이 죄를 범하여 백성에게 죄업을 끼쳤을 경우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를 가져왔다(3절).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도 수송아지를 가져왔다(13-14절).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흠 없는 수염소를 가져왔다(22-23절). 평민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흠 없는 암염소나(27-28절) 흠 없는 양을 가져왔다(32절). (원어상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모두 충분히 자란 짐승들을 가리킨다.)

제사를 드리는 자의 의무 : 일반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짐승을 회막 뜰 문으로 끌고 와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인 다음,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을 제거했다. 장로들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행동을 했다(15절). 희생물의 죽음은 상징적으로 죄인의 죽음으로 간주되었다.

제사장의 의무 : 대제사장은 그 자신과 회중을 위해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휘장 앞과(5,6,16,17절) 금향단 뿔 위에(7,18절) 일곱 번 뿌렸다. 그런 다음 그는 남은 피를 번제단 아래 다 쏟았다(7,18절). 족장과 평민을 위하는 경우에는,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 쏟았다(25,30,34절). 그 모든 경우에 제사장은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과 기름진 꼬리를 번제단 위에 불살랐다(8-10,19,26,31절).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을 위한 제사의 경우에는, 짐승의 나머지 부분이 모두 진 밖으로 옮겨져 불살라졌다(11,12,21절).

제물의 분배 : 여호와와의 묶은 단에 불살라진 부분(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 등)이었다. 제사장은 족장이나 평민이 드린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한 제물들의 피는 대제사장과 회중의 제물의 경우와 달리(4:5,6,16,17절) 성소 안으로 취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7:30). 제사장은 같은 이유에서 5장 6,7,11절에 묘사된 제물도 먹을 수 있었다. 제사를 드린 자를 위해서는 위의 제물 중 아무 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 피를 성소 안으로 취해간 속죄제물은 모두 진 밖에서 불살라졌다.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당하신 후에 그분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성소에 들어가셨다(히 9:12).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계신 그에게 나아가자”는 권면을 받고 있다(히 13:13).

“부지중에 범하여”란 표현은 그 죄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 이상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것은 그 죄가 의도적, 고의적으로, 혹은 거부감 내지 반감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고의적인 죄를 위한 희생제사는 없었다. 그런 죄에 대해서는 다만 죽음의 형벌이 주어질 뿐이었다(민 15:30).

속죄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 내지 부주의로 비의도적인 죄를 범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그는 죄사함과 의식적인 정결을 원했다.

속죄제는 상징적으로,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義)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은 죄가 없으셨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어떤 이들은, 속죄제는 ‘우리의 본성’을 다루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반면에 속건제는 ‘우리가 행한 것’을 다루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거룩하신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셨네.
구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서 죽으셨네.
그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네.
친히 약하게 되심으로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네.
죽음으로 그 날을 이기셨네.” (한나 K. 불링검).

5:1-13 15장 1-13절은 속건제를 묘사하는 듯 보이나(6절), 그러나 속죄제의 추가적인 두 등급과 관계가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된다. 이 대목을 속건제로 분류하지 않는 이유는, 속건제의 중요한 요소인 보상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이 속죄제와 속건제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다.)

이 제사는 여러 부류의 사람을 다루는 대신 여러 종류의 죄를 다루고 있다. 1절은 어떤 죄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증거하기를 거절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율법 아래 사는 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 증거를 하셨다(마 26:63-64). 2절은 어떤 유대인이 그 당시 그 일을 알지 못했다 해도 사체(死體)를 만짐으로 더럽힘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3절은 문둥병 등 전염병에 걸린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해진 경우를 말하고 있다. 4절은 선불리 맹세하거나 약속했다가 후에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속죄제의 제물 : 속죄제에는 제사 드리는 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경우와(6절),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하나는 속죄제 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는 경우와(7절), 그리고 고운 가루에 바 십분의 일을 기름과 유향 없이 드리는 경우(11절)가 그러하다. 이렇게 함으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11-13절에 대해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피 흘림이 없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소제가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에 기여할 수 있을까?”(히 9:22) 그 답은, 단 위의 화제물(피가 있는) ‘위에’ 드러짐으로써 그 소제물에 피 있는 희생물의 가치가 부여되었다는 것이다.

제사 드리는 자의 의무 :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한 다음(5절),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왔다(8절).

제사장의 의무 : 암컷 어린양이나 염소를 드릴 경우에, 제사장은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규례에 따라 그것을 드렸다. 만일 제물이 두 마리의 새일 때는 먼저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 끊고 단 옆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피는 단 아래 흘렸다(8-9절). 그런 다음 두 번째 새는 번제로 드려 놋단에서 완전히 불살랐다(10절). 만일 제물이 고운 가루일 때는 그 한 줌을 취하여 번제단에 불살랐다. 제사장은 피가 흘러진 다른 제물 위에 그것을 불사름으로 속죄제의 성격을 부여했다(12절).

제물의 분배 : 여호와와 그의 분깃은 단 위에 불사른 모든 것이었다. 제사장은 남은 모든 것을 취할 권리가 있었다(13절).

5) 속건제(5:14-6:7)

5:14-6:7 속건제(히브리어로, 'אֲשָׁם'⁷⁾)는 5장 14절-6장 7절에 다루어져 있다. 이 제사의 두드러진 특징은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죄를 위해 보상이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5:16).

제사가 드려져야 할 죄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범과 : 여호와께 속한 것(십일조와 예물, 첫 이삭이나 초태생의 성별 등)을 드리지 않은 죄(5:14).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행동을 부지중에 범하거나(5:17) 아마 보상이 필요한 행동을 범한 경우.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경우에도 철저한 경건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인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 고자 했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인간에 대한 범과 : 남의 물건을 맡거나 전당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勒撻)하는 등 이웃에게 잘못하는 경우(6:2). 남이 잃은 물건을 발견하고도 그 일에 대해 거짓 맹세하는 경우(6:3). 그밖에 다음 경우에도 속건제가 필요했다. 정혼한 여종과 음행을 하는 경우(19:20-22). 문둥병자의 정결(14:10-14). 나실인이 더럽힘을 당한 경우(민 6:6-12).

7) (5:14-6:7) RSV와 NEB는 ‘죄책의 제사’(guilt offering)라고 옮겼으나 전통적인 번역이 더 낫다.

속건제의 제물 : 흠 없는 어린양(5:15,18; 6:6). 문둥병자나(14:12) 나실인(민 6:12)의 경우에는 어린 수양.

제사 드리는 자의 의무 : 하나님께 대한 범과의 경우에는 먼저 제사장에게 5분의 1을 더한 보상물을 가져왔다. 그런 다음 회막 뜰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로 짐승을 끌어와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였다. 그는 또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콩팥과 간에 덮인 꺼풀과 내장에 덮인 기름을 제거했다. 그 절차는 이웃에 대한 범과의 경우와 동일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제사 드리는 자는 5분의 1의 벌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이것은 죄가 해롭고 또 대가가 크다는 사실을 그에게 상기시켰다.

제사장의 의무 : 숫단 사면에 피를 뿌린 다음(7:2)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콩팥과 내장에 덮인 기름을 단 위에 불살랐다(7:3-4).

제물의 분배 : 여호와와 분깃은 단 위에 불사른 것이었다(7:5).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수양의 가죽을 취했다(7:8). 모든 제사장은 짐승의 고기를 식물로 나눠가졌다(7:6).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속죄제 혹은 속건제에서 아무 분깃도 없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속건제를 가져오는 사람은 다른 이에게 손실 내지 손해를 끼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보상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속건제는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을 물어주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측면을 가리킨다(시 69:4).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섬김과 예배와 순종과 영광을 잃어버리셨다. 그리고

인간 자신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과의 사귀를 잃어버렸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로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셨을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더해주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한 영광을 얻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 안에서 누렸을 상태보다 더 축복된 상태를 누리 고 있다.

“그 거룩하고 거룩한 옷을 벗고
티끌과 같은 인간의 옷으로
그 신성을 가리셨네.
그 속에서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
그분이 취한 적이 없으신 것을 물어주셨네.” (익명).

2. 제사법(6:8-7:38)

이 단락(6:8-7:38)은 ‘제사법’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앞의 내용과 비슷하다. 그러나 앞의 가르침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인데 비해 이 가르침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것이다(1:2).

6:8-13 번제의 규례 : 여기에는 제사장이 입는 옷과, 제사장이 번제물의 재를 처리하는 방법과, 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지침이 주어져 있다. 재는 일단 단 동편에 두었다가 진 바깥 정결케 하는 곳으로 가져갔다.

6:14-17 소제의 규례 : 여기서 우리는 제사장들이 회막 뜰 안에서 제물 중 그들의 분깃을 먹어야 한다는 것과, 소제물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18 아론의 자손 중 남자는 소제를 먹을 수 있되, 거룩해야, 즉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한다. 이 제사장들은 제물을 만짐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 거룩은 만짐으로 전해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더러운 것은 만짐으로 전해졌다(학 2:11-13).⁸⁾

8) (6:18) 카일과 텔리취는 본절의 후반부를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이 지극히 거룩한 것을 만지는 평민은 누구든 그러한 접촉을 통해 거룩하게 되어, 성결케 된 제 286 · 신자성경주석 (창세기)

6:19-23 본문은 대제사장이 조석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특별한 소제를 묘사한다. 그 소제는 완전히 불살라졌다.

6:24-30 속죄제의 규례 : 앞서 설명했듯이, 제사장은 그 피를 성소에 가져가지 않은 어떤 속죄제물(레 4:2-5:13에 묘사된)의 일부를 먹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 제물들은 회막 뜰에서 먹어야 했다. 그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을 주목하라. 만일 어떤 일반인이 그 제물의 고기를 만지면 그는 거룩 혹은 성별되어,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제사장들이 하듯이 의식적인 부정함에서 자신을 깨끗케 해야만 했다. 만일 그 피가 옷에 묻으면 그 옷을 빨아야 했는데, 이는 그 피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그 지극히 거룩한 피가 성소에서 일상생활로 옮겨져 그 거룩성이 욕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속죄제물 고기를 삶는데 사용된 토기는 깨뜨려야 했는데, 이는 토기는 피를 흡수하여 후에 성스럽지 못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철기는 그 지극히 거룩한 속죄제물로 평범한 물건이나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닦고 물에 씻어야 했다. 그 속죄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했다. 그곳은 단 북편 그늘진 곳이었다(1:11).

7:1-7 본문은 5장 14절-6장 7절에서 이미 대부분이 다뤄진 속건제 규례를 개괄하고 있다.

7:8 8절은 번제를 말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짐승의 가족을 취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장들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함을 경계해야만 했다.” C. F. Keil and Delitzsch, “Leviticu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I:319).

7:9-10 9절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소제의 몫을 말하며, 10절은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말하고 있다.

7:11-18 화목제 규례가 7장 11-21절에 주어져 있다. 화목제에는 그 동기 내지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어떤 특별한 축복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화목제와(12절), ‘어떤 특별한 기도요청, 예컨대 위험한 여행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데 대해 하나님께 보답하기로 한 약속이나 서약을 지키는’⁹⁾ 서원의 화목제와(16절),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심을 계시해 주신데 대해 자발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표하는¹⁰⁾ 자원의 화목제가 그러하다(16-17절). 화목제물 자체는 희생집승이었으나(3장), 거기에 떡이 추가되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감사의 제사에 필요한 떡이 12-13절에 나와 있다. 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씩 거제로 드려야 했으며, 그것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주어졌다(14절).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물의 고기는 그 날 먹어야 했으나(15절),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날에 먹을 수 있었다(16절). 이를 후에 남은 것은 전부 불태워야 했다(17절). 그 고기를 먹는 자는 ‘끓어짐을 당해야 했는데, 이는 출회를 당하거나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귀는 신선행이 아니며 제단 사역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존 리드는 지적했다.¹¹⁾

9) (7:11-18) A. G. Clarke, *Precious Seed Magazine*, No. 2, Vol. 11, March-April 1960, p. 49.

10) (7:11-18) A. G. Clarke, *Precious Seed Magazine*, No. 2, Vol. 11, March-April 1960.

11) (7:11-18) John Reid, *The Chief Meeting of the Church*, p. 58.

7:19-21 만일 그 고기가 어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먹지 말고 불태워야 했다. 의식적으로 정결한 사람만이 정결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가 화목제물을 먹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화목제의 여러 부분이 여호와와 제사장과 제물 드린 자에게 각각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 때가 화목의 때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나 부정함과 사귀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 절기의 고기를 먹는 자는 반드시 정결해야 했다.

7:22-27 가장 좋은 부분으로 간주된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었다. 그것은 여호와를 위해 제단 위에 불태워졌으며 먹지 말아야 했다(22-25절). 마찬가지로, 육체의 생명인 피도 하나님의 것이었으며 먹어서는 안 되었다(26-27절).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러한 식물규정을 지키고 있다. 고기가 먹기에 적합해지려면(코셀) 반드시 피를 제거해야 했다. 기름을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짐승의 기름이 포함된 비누를 사용하지 않는다. 접시를 닦는데 그런 세제를 사용하기만 해도 접시가 부정해진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기름을 먹지 않는데 대해서는 그러한 영적인 이유 외에 의학적인 이유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S. I. 맥밀런 박사를 이렇게 얘기한다.

“지난 수년 동안 의학계에서는 동물의 기름을 먹는 것이 동맥경화증의 주요 원인이란 사실을 상기시켜왔다. 이 기름은 동맥의 벽 안에 작고 기름진 콜레스테롤 종양을 형성시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한다. 최근 10년간 잡지, 라디오, TV 등은 동물의 기름을 섭취하는 것을 줄임으로써 이 인간의 최대 살해자의 보복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의학계가 발견한 이런 사실에 행복해하는 반면, 우리는 이러한 초현대적인 연구가 성경보다 3,500년 뒤져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¹²⁾

7:28-34 제물을 드리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물의 가슴을 흔들었으며, 그런 다음 그 가슴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다. 오른쪽 넓적다리는 여호와 앞에 거제로 드린 다음 제사 드리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한 식물로 삼게 했다.

7:35-36 본문은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가 하나님이 처음 그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으신 그날부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었음을 재언급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며 넓적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준다.

7:37-38 본문은 6장 8절에서 시작한 제사의 규례에 대한 부분을 결론짓는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분에게 중요한 까닭에 제사와 그 규례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다. 여기에는 그분의 아들의 어머하심과 사역이 아름다운 상징을 통해 상세히 나타나 있다. 다 이아몬드의 각 면이 그러하듯 이 모든 상징들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분의 찬란한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히 9:14).

F. T. 위그렘 여사는 찬송시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어머하심을 보니

12) (7:22-27) Dr. S. I. McMillen, *None of These Diseases*, p. 84.

모든 은혜를 가득 담고 있네.
전에 죽임을 당했으나 이제 다시 살아나셨네.
하늘도 그를 찬양하라고 명하네.”

3. 제사장의 위임(성별)(8-10장)

1) 모세에 의한 제사장의 위임

8:1-5 출애굽기 28-2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한 세세한 지침을 주셨다. 이제 레위기 8-10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모세가 그 지시를 준행했는지를 보게 된다. 그는 회중, 곧 제사장과 백성들을 회막 문 앞에 불러 모았다. 그것은 매우 공적인 위임식이었다.

8:6-9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었다. 이어서 아론에게 속옷과, 띠와, 겹옷과 에봇과 흉패와 우림과 둠뿔과 머리에 관과 관 위의 금패 등 대제사장의 완전한 복장을 갖추주었다. 이것은 매우 인상적인 광경이었을 것이다.

8:10-13 이어서 모세가 장막과 그 모든 내용물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했다.

그가 아론의 머리에 부었다(뿌리지 않고)는 사실은 성령께서 주 예수님, 곧 우리의 대제사장께 한량없이 부어진 것을 아름답게 묘사해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관을 머리에 씌웠다.

8:14-17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자 모세가 그것을 잡았다. 제아무리 높은 종교 지도자도(이 당시나 지금이나) 공동체의 가장 보잘것없는 일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죄 희생물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이다.

8:18-21 모세는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번제의 수양을 가져와 정한 규례대로 드렸다.

8:22-29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 제물은 위임식 수양(혹은, 더 문자적으로는 ‘가득 채우는 제사’의 수양)으로도 불리웠다. 그것은 피를 사용하는 점과(23-24절), 원래는 사람들이 먹는 우편 뒷다리와 떡을 불사르는 점에서 통상적인 화목제와 차이가 있었다. 모세는 자신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슴을 분깃으로 취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귀와 손과 발에 피가 발려졌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순종과 섬김과 품행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8:30-36 모세는 관유와 제물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뿌렸다. 제사장들은 화목제의 고기를 떡과 함께 먹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의 위임식은 7일간 되풀이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그들은 회막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했다.

이 장에 대해 해설하면서 메튜 헨리는 한 가지 빠진 사실을 포착

하고 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위임에 사용된 모든 의식 뒤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존귀와 확립에 필요한 한 가지 비준절차가 남았는데, 그것은 저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이다(히 7:21). 이 제사장들이나 그 제사장직은 지속될 수 없었으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구적이고 바뀔 수 없는 제사장직이었기 때문이다.”¹³⁾

2) 아론이 드린 제사(9장)

9:1-4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 8일에 그들의 공적인 의무에 착수했다. 먼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드리고 번제로 수양을 드려야 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로 수염소를, 번제로 1년 된 수송아지와 어린양을, 화목제로 수소와 수양을, 그리고 소제를 드려야 했다.

9:5-23 온 회중이 회막 앞 여호와의 존전 가까이 이르렀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백성의 제사와 소제와 화목제와 요제에 관한 모세의 모든 지시대로(5-20절) 완전히 이행한 뒤에 그 손을 들어 백성들을 축복했다(22-23절).

9:24 그 때에 불이 성막의 지성소에서 나와서 놋단 위에 둔 번제물을 불살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열납하셨음을 나타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에 계속해서 타올라야 했다.

13) (8장)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I:474.

3) 나답과 아비후의 신성모독(10장)

10:1-3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성스럽지 못한 불, 즉 아마도 놋단에서 취하지 않은 불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을 했다. 놋단은 갈보리를 상징하므로, 그들의 행동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 시도한 것과 같았다. 그들이 성소 안 금향단 곁에 서 있을 때 불이 지성소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 모세는 이에 대해 원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처사를 거스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10:4-7 미사엘과 엘사반이 시체를 성막 앞에서 진 바깥으로 옮긴 후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울지 말고, 이스라엘 온 집이 하나님의 치신 불로 인해 슬퍼하는 동안 성막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했다.

10:8-11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본문의 경계를 들어 어떤 이들은 나답과 아비후가 새로운 불로 분향할 때 술 취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10:12-18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소제와(12-13절) 요제의 가슴(14-15절)을 먹으라고 명령했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로 사용되었던 염소를 찾던 모세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고 불사른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 그들은 다른 두 형제에게 방금 임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했던 것 같다.) 속죄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간 경우에는 제물

을 불태우는 것이 원칙이었다(6:30).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물을 먹어야 했다(6:26). 모세는, 이 경우에는 피를 성소 안에 가져가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이 고기를 먹었어야 했음을 그들에게 일깨워주었다(16-18절).

10:19-20 모세의 책망을 들은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가 속죄제와 번제를 규정대로 드렸는데도 여호와와의 가혹한 징벌을 당했으니 자신이 속죄제물을 먹는 것을 여호와께서 과연 기쁘게 받으셨는지 모르겠다고 해명을 했다. 모세는 그 해명을 받아들였다.

10장은 제사장직에 대한 부분을 마감 짓는다.

4. 정한 것과 부정한 것(11-15장)

다음 다섯 장은 의식적인 정함과 부정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그들로 유대교의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었다. 더럽힘을 당한 사람들은 정결케 되기까지는 의식적으로 합당치 못했다. 거룩한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해야 했다. 하나님은 심지어 식물을 사용하여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알려주셨다.

1)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11장)

11:1-8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또 새김질하는 짐승이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란 표현은 한 가지 사실을 두 가지 면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표현은 굽이 완전히 갈라져야 함을 의미한다. 정한 짐승에는 소, 양, 염소, 사슴 등이 있었다. 부정한 짐승에는 돼지, 낙타, 너구리, 토끼 등이 있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새김질) 분리된 삶을 살아야(굽이 갈라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은, 냉동시설이 거의 혹은 전혀 없고, 가축병의 전염을 막는 항생물질 따위가 알려지지 않은 이 당시에 질병을

쉬 옮기는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금함으로써 그분의 백성의 건강을 보호하신 것이다.

11:9-12 정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었다. 고등어, 뱀장어, 조개 따위는 부정했다. 비늘은 이 대적하는 세상에서 그를 보호해주는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상징하고, 지느러미는 세상에 굴복치 않고 굳건히 헤쳐 나가도록 힘을 주는 거룩한 능력을 상징한다고 종종 풀이된다.

11:13-19 다른 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독수리, 솔개, 매, 박쥐 등은 부정했다. (박쥐는 새가 아니라, '새'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는 '나는 것'을 뜻하는 영어단어보다 의미가 넓다.)

11:20-23 본문은 '날아다니는 곤충'을 다루고 있다.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들만이 먹을 수 있었는데 곧 메뚜기와 벼지이와 귀뚜라미와 팻종이 등이 그러했다.

11:24-28 앞서 말한 부정한 짐승 중 어느 것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다. 고양이, 개, 사자, 호랑이, 곰 등과 같이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들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11:29-38 이어서 족제비, 쥐, 도마뱀, 합개, 육지악어, 수궁, 사막도마뱀, 칠면석척 등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열거되어 있다. 그것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했다. 만일 이 짐승들 중 하나의 사체가 어느 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은 물로 씻어야 하며 저녁

까지 부정했다. 질그릇의 경우에는 깨뜨려야 했다. 그 질그릇에 담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부정해져서 먹을 수 없었다. 두 가지 예외가 있는데, 하나는 흐르는 물의 샘은 그 짐승들 중 하나의 사체가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았으며, 다른 하나는, 심을 종자도 물에 적시지만 않았으면 부정해지지 않았다.

11:39-40 도륙당하지 않고 다른 이유로 죽은 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거나 부지중에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해졌다. 그 옷을 빨아야 했다.

11:41-47 본문은 지렁이, 뱀, 쥐, 벌레 등을 언급한다. 그것들을 먹는 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해졌다.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록에 관계된 교훈들과, 자신의 백성 또한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가르치고 계셨다(4-47절).

마가복음 7장 18-19절에서 주 예수님은 모든 식물이 의식적으로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식물도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딤후전 4:1-5). 그러나 질병에 감염된 식물이 아닐지라도,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개인에 따라 비위에 맞지 않아 먹지 못하는 식물들이 있다.

2) 출산 후의 정결(12장)

12:1-4 12장은 출산과 관계된 부정함을 다루고 있다. 남자아이를 낳은 여인은 월경기간과 같이 7일간 부정했다. 제 8일에 그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았다(3절). 제 8일은 피가 영기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었다. 오늘날은 그 문제가 비타민 K의 주입으로 해결된다. 그런 다음 여인은 집에서 33일을 더 머물며 성물을 만지거나 성소, 즉 성막 주변의 뜰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

12:5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산모는 2주간 부정했고 집에서 66일을 더 머물렀다.

12:6-8 정결케 되는 기간이 끝나면 산모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양을, 속죄제물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가져와야 했다. 만일 너무 가난해서 어린양을 가져올 수 없으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을 가져올 수 있었다. 우리 주님의 모친은 새 두 마리를 가져왔는데(눅 2:22-24) 이는 예수께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음을 암시해준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결혼제도가 생긴 점, 성경이 혼인을 거룩하다고 가르친 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라고 명하신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같이 출산이 부정함과 관련되었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른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 주님을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 중에 잉태되었음을 상기시키는 조치일 것이다(시 51:5). 여자아이를 낳는 경우에 부정함의 기간이 더 긴 것은 아마도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위치(본질적인 열등함이 아니라)에 있고, 그리고 여자가 먼저 죄를 지은 사실을 상기시키는 조치로 보인다.

월리암스는 이 규례에서, 여인의 약함과 오염의 위험이 가장 큰 기간 동안 방문객의 발길로부터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자하신 배려를 지적해 보인다.¹⁴⁾

3) 문둥병의 진료(13장)

13장은 문둥병의 진료와 관계가 있고, 14장은 문둥병의 정결과 관계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의 성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성경의 문둥병자들은 대개 움직일 수 있고, 불구가 아니고, 완전히 퍼진 경우 아무 해가 없고, 그리고 때로 치료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제사장은 의사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암시해주는 듯하다. 인간은 영, 혼, 육 세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한 요소는 다른 모든 요소에 영향을 끼친다.

13장은 문둥병과 기타 피부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묘사와, 집과 옷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를 다루는 까닭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히브리어 학자로서 의학을 전공한 R. K. 헤리슨 박사는, “히브리어 단어에 내포된 모든 의미를 충실히 반영하는 번역은 없으나, 소위 한센의 질병이라는 질병을 포함할 만큼 그 의미가 넓다”고 지적한다.¹⁵⁾

그는 히브리어 용어와 그 헬라이어 번역(영어용어로는 ‘문둥병’, ‘문둥병자’, ‘문둥병에 걸린’ 등)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을 이렇게 요약했다.

“히브리어 용어 ‘사라앗트’는 ‘피부에 질병이 생기다’란 뜻의 어근에서 나왔으며,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묘사이다. 구약성경의 용례에 의하면 그것은 건물벽의 광물적인 부식과 유사조직물의 건성 부식뿐만 아니라 옷감의 곰팡이까지 포함한다. 70인역에 의하

14) (12장)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71.

15) (13장 서론) Harrison, *Leviticus*, p. 137 그의 주석 부록 A, p. 241에서 그는 여기 언급된 상태의 의학적인 측면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13장에 대한 준(準)전문적인 번역을 보여준다.

면 그 히브리어 단어는 ‘레프라’라는 헬라이어 단어로 옮겨졌는데, 그 단어는 그 성격과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다. 헬라의 의학자들은 피부 껍질이 쉬 벗겨지게 만드는 질병을 묘사하는데 그 단어를 사용 한데 반해, 헤로도투스는 ‘류케’로 알려진, 헬라이어 ‘엘레판티아시스’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따라서 오늘날의 임상 문둥병(한센의 질병)과 유사한, 일종의 피부 부식과 관련 있는 것으로 언급했다.”¹⁶⁾

13:1-3 첫 단락은 제사장이 성경의 문둥병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검진하는 모습을 묘사한다.

13:4-8 이어서 의문스런 사례들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설명되어 있다. 그 사람은 7일간 출입이 금지되었다. 만일 환처가 퍼지지 않았으면 7일간 더 갇혀있었다. 그런 다음 질병 검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언했다. 만일 피부의 부식상태가 2차 검사 후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했다.

13:9-11 문둥병이 오래되거나 만연되었으면 제사장이 그 문둥병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했다.

13:12-13 이상하게도, 몸 전체가 하얗게 변했으면 그 질병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제사장은 그 문둥병자를 정하다고 선언했다.

16) (13장 서론) Harrison, *Leviticus*, pp. 136,137.

13:14-15 어떤 사람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문둥병이었다.

13:16-17 난육이 치료되어 하얗게 변한 문둥병의 경우에는 다시 금 그 사람을 정하다고 선언했다.

13:18-23 이어서 종기와 관련 있는 세 가지 진료법이 나온다. 종기가 피부보다 깊고 그 털이 희게 변한 것이 분명할 경우 제사장은 그 환자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했다(18-20절). 격리된 채 7일간의 검사기간을 보내는 동안 환처가 퍼졌으면 그것은 문둥병이었다(21-22절). 퍼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정하다고 선언되었다(23절).

13:24-28 화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둥병의 경우가 묘사되어 있다. 그 증상으로 보아 문둥병이 분명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했다(24-25절). 7일간 검사기간 동안 상태가 퍼지면 문둥병으로 판명된다(26-27절). 단순히 화상으로 부은 것이면 문둥병이 아니었다(28절).

13:29-37 이어서 머리나 수염에 환처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남자나 여자가 그 증상으로 보아 문둥병이 분명하면 그는 부정하다고 선언되어야 했다(29-30절). 진상이 분명치 않을 경우에는 7일간 간혀 있어야 했다. 만일 상태가 퍼지지 않았으면 그 털을 밀고 7일을 더 기다렸다. 만일 환처가 퍼졌으면 그 사람은 부정했다. 만일 환처가 진정되었으면 그 사람은 정했다.

13:38-39 피부에 흰 색점이 있는 남자나 여자는 의식적으로 부정하다고 선언되었다. 헤리슨의 준전문적인 번역에 의하면, “그것은 ‘피부에 생긴 반점’이었다.”¹⁷⁾

13:40-44 일반적인 대머리는 문둥병으로 인한 대머리와 차이가 있다.

13:45-46 문둥병자는 불행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진 바깥에 거하며 그 옷을 찢고 그 머리를 풀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그는 그 윗입술을 가리우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고대의 예방 사례를 볼 수 있다. 격리는 전염을 막는 의료절차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13:47-59 의복에 문둥병이 발한 경우는 아마도 털옷이나 베옷이나 가죽옷에 일종의 곰팡이가 생긴 경우를 가리키는 듯하다. 헤리슨은 그런 균이 생긴 의복을 처리하는 지혜를 이렇게 설명한다.

“곰팡이는 죽은 짐승이나 부패하는 짐승 내지 채소류에 버섯처럼 갑자기 발생하는 균으로서 음습한 곳의 여기저기에 발생한다.”¹⁸⁾

헤리슨은 계속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한다.

“그 버섯과 같은 갑작스런 발생으로 주변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원죄의 얼룩 또한 인간의 인격 전체에 미친다.”¹⁹⁾

17) (13:38,39) Harrison, *Leviticus*, p. 245.

18) (13:47-59) Harrison, *Leviticus*, p. 146.

19) (13:47-59) Harrison, *Leviticus*,

여호와의 백성은 내적으로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

“오, 내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리.
죄에서 자유케 된 마음으로,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값없이 흘려진 그 피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낮아지고 깊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의지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망도 생명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에게서 나를 끊을 수 없네.” (찰스 웨슬리).

4) 문둥병자의 정결(14장)

14:1-7 여기에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정결케 되는 의식이 주어져 있다. 먼저 그는 진 바깥에서 제사장에게 진찰을 받았다. 만일 치료가 되었으면 그는 정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드렸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각각 높은 나무와 낮은 식물에서 취한 것으로, 가장 높은 것에서 가장 낮은 것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준다. 홍색실은 이사야 1장 18절에 죄와 연관되어 있는데, 따라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새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죽임을 당했고, 다른 한 마리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그 죽인 새의 피에 담겼다. 정결케 된 문둥병자는 그 피를 일곱 번 뿌림 받고 정하다고 선언되었다. 그런 다음 그 산 새는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여러 면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 그것은 인간을 부정하게 했으며, 인간을 하나님의 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격리시켰으며, 희생물을 비참하게 죽게 했다. 그런 까닭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데 피(그리스도의 피)와 흐르는 물(성령님의 중생케 하는 역사)이 사용되어야 했던 것이다. 오늘날 어떤 죄인이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두 마리의 새로 상징된)이 그의 것으로 간주된다. 그 피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뿌리지며, 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정하다.

“나를 위해 갈라진 영원한 반석이시여,
 당신 안에 나를 숨겨 주소서.
 당신의 찢긴 옆구리에서 흐르는 물과 피로
 내 죄를 온전히 고치시고
 그 죄책과 권세에서 나를 정케 하소서.” (A. M. 토플레디).

14:8-20 정결케 된 문둥병자는 그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깎고 그 몸을 씻었다(8절). 그런 다음 그는 진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러나 다시 7일간 그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7일 후에 그는 다시 몸을 씻고 털을 깎은 후에야 정하다고 선언되었다(9절). 제 8일에 그는 여호와께 속건제(12-18절)와 속죄제(19절)와 번제(20절)를 드렸다. 제사장은 문둥병자의 귀와 손과 발에 피를 발랐는데(14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준다.

14:21-32 만일 정결케 된 문둥병자가 너무 가난해서 모든 필요

한 짐승을 가져올 수 없을 때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여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되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양을 드려야 했다.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에는 각각 소제가 첨부되었다.

14:33-53 끝으로 가옥의 문둥병을 색출하는 규례가 주어졌 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르러 장막이 아닌 영구한 집에 거하게 될 때에 적용될 것이다. 가옥의 ‘문둥병’은 일종의 버섯이나 곰팡이, 혹은 건성 부식균이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집안의 물건이 부정해지거나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미리 집안을 깨끗이 비게 했다(36,38절). 처음에는 전염된 돌만 제거했다. 그러나 문둥병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그 집을 헐었다(39-45절). 그 집의 문둥병이 제거되었을 때는 제사장이 문둥병자의 경우와 유사한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렀다(48-53절).

14:54-57 이 부분은 13-14장의 요약이다.

5) 유출병 등의 정결(15장)

15:1-18 15장은 자연적인 것이든 질환적인 것이든 인체의 분비물로 인한 부정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1-12절은 임질(淋疾)과 같은 질병의 결과로 생기는 유출증세를 가리키는 듯하다. 그 정결 의식이 13-15절에 주어졌 있다. 16-18절은 타의적인 설정(泄精)(16-17절)과 자의적인 설정(18절)을 다룬다.

15:19-33 19절로 24절은 여인의 정상적인 월경주기를 다룬다. 여기에는 아무 제사도 필요치 않았다. 25절로 30절은 월경과 관계 없는, 비정상적인 여인의 피의 유출을 묘사한다. 31절로 33절은 15장 전체의 요약이다.

5. 속죄일(16장)

유대인의 월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기 위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히브리어로 '욘 키풀')이었다. 그 날은 초막절 5일 전인 7월 10일이었다. 속죄일은 흔히 여호와와의 절기 중 하나로 열거되긴 하지만 실은 금식하며 엄숙히 지키는 날이었다(23:27-32).

이 16장에서는 지성소가 성소로 불리우고 성소가 회막으로 불리운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16:1-3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신성모독 행위가 이 가르침의 배경이 된다. 만일 대제사장이 속죄일 외에 다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저들이 당한 것과 같은 운명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에 대제사장은 속죄제물로 수송아지의 피를, 번제물로 수양을 가져와야 했다.

16:4-10 의식의 순서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먼저 대제사장이 몸을 씻고 흰 세마포 옷을 입었다(4절). 예비적인 조치로 그는 수송아지와 수양을 회막에 가져왔다. 그 둘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드리되 수송아지는

속죄제물로, 수양은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였다(3절). 그는 백성을 위해서 드릴 수염소 둘과 수양 하나를 가져왔는데 수염소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수양은 번제를 위한 것이었다(5절). 그는 수염소 둘을 회막 문 앞으로 가져와 거기서 제비를 뽑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것으로, 하나는 ‘내어놓는 염소’로 지정했다(7,8절). ‘아사셀’이란 ‘떠나는 염소’란 뜻이다.

16:11-22 그런 다음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을 위해 속죄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았다(11절). 이어서 그는 향로를 취하여 단 위에서 피운 불을 채우고 또 두 손에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분향을 하여 향연으로 속죄소를 덮게 했다(12-13절). 그리고 번제단으로 돌아와서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앞에 일곱 번 뿌렸다(14절). 그런 다음 속죄제물로 지정된 수염소를 죽이고(8절), 그 피를 수송아지의 피의 경우처럼 속죄소 앞과 위에 뿌렸다(9,15절).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가 이뤄졌다(16절). 여기에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는 피 뿌림을 통해서 회막과 번제단을 위해서도 속죄를 행했다(18-19절). 속죄는 지성소에서 시작하여 성소로 진행되어 놋단에서 마감되었다(15-19절). 그런 다음 그는 아사셀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8절) 백성의 죄를 자백한 뒤에(10,20,21절), 미리 정한 사람을 시켜 그 염소를 광야로 끌고 가게 했다(21-22절). 두 수염소는 속죄의 두 측면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을 충족시키는 것이며, 죄인이 그 죄를 없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²⁰⁾ 아론이 산 염소 머리에 안수한 것은 이스라엘의(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여 영원히 가져가 버리게 하는 것을 상징한다(21절). 어느 찬송시 작가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다.

“내 죄가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께 놓였네.
그가 그 모든 죄를 담당하사 무거운
정죄의 짐에서 나를 자유케 했네.
내 죄책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네.
그가 그 보배로운 피로 죄악의 얼룩을 말끔히 씻으사
한 점도 남은 것이 없네.” (호라티우스 보나르).

16:23-33 대제사장은 거룩한 곳, 아마도 물두멍에서 몸을 씻은 다음 영화롭고 아름다운 자기 옷을 입었다(23-24절).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흰 세마포 옷은 헤지지가 않았다고 한다. 대제사장은 이어서 수양 돌을 번제로 드리되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드렸다(24절). 그는 그 돌의 기름은 단 위에 속죄제물로 불태우고,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바깥에서 불살랐다(25,27절). 보통의 경우엔 제사장이 취하는 번제의 가죽도(7:8) 불태워야 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향로를 가지고 나오기 위해 저녁 제사 후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한다. 속죄 의식 중에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자백했으며 일손을 쉬었다(29절).

위의 사실로 보아, 대제사장은 적어도 네 차례 지성소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one day)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히브리서 9장 7-12절과 모순되지 않는다.

20) (16:11-22) G. Morrish, publisher, *New and Concise Bible Dictionary*, p. 91.

16:34 이 날의 엄숙한 의식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를 충분히 다루는데 실패했다는 것이 ‘일 년 일차’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히 10:4). 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역과 대조되는가! 그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죄는 단순히 일 년 동안만 덮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었다! 아이작 왓츠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유대인의 제단에서 죽은 짐승들의 모든 피는
범죄한 양심에 평안을 가져다 줄 수도
그 얼룩을 말끔히 씻어낼 수도 없었네.
그러나 하늘로서 오신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네.
보다 귀한 이름의 제물과 보다 값진 피로써 그렇게 하셨네.”

6. 제물에 대한 법(17장)

17:1-9 주석가들은 1-9절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를 취한다.

① 본문은 회막에서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어떤 짐승도, 심지어 먹기 위한 목적으로도 죽이는 것을 금한 것이다. ② 본문은 회막이 아닌 들이나 다른 어디에서든 제사용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한 것이다. ③ 본문은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제사용 짐승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을 금한 것이다. 그러던 것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는 바뀌었다(신 12:15). 물간은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KJV에 ‘마귀’로, ASV에 ‘염소귀신’으로 옮겨진 히브리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털난 것’이다. 이사야 13장 21절과 34장 14절에서 그 단어는 KJV에는 ‘사티르스’(酒神)로, ASV에는 ‘야생염소’로 옮겨졌다. ‘사티르스’는 반염소, 반인 등 귀신의 특성이 있는 상상적인 존재였다. 애굽에서는 ‘염소-사람’인 판(Pan)이 숭배되었다.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된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거짓 신을 숭배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듯하다.”²¹⁾

17:10-14 피를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지되었다. 피는 양분을

21) (17:1-9)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 38.

위한 것이 아니라 속죄를 위한 것이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이라”(11절). 속죄의 배경이 되는 원리는 생명 대(對) 생명이었다. 죄 의 샅은 피 흘림으로 상징된 사망이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것이다.”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은 죄의 형벌이 ‘집행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의 피가 흘려진 희생제물로 그 형벌이 ‘ 옮겨졌 기’ 때문이다. 11절은 레위기의 중심 구절 중 하나로, 암기해둘 만한 구절이다. 어떤 짐승을 잡으면 즉시 피를 뺐다. 우연히 죽은 짐승은 그 피가 즉시 유출되지 않은 경우엔 부정했다.

17:15-16 본문은 피를 빼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부지중에 먹은 사람을 가리킨다. 그를 정결케 하기 위한 조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그 조치를 거절하면 징벌을 당해야 했다.

7.

개인적인 품행에 관한 법(18-22장)

1) 성적인 순결에 관한 법(18장)

18:1-5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몸에 배어 있었으나 가나안 땅에서는 철저히 거부해야 할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적인 혼인관계를 다루고 있다.

18:6-18 “하체를 범하다”는 표현은 여기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6절은 일반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다. 어미(7절), 계모(8절), 누이 혹은 이복누이(9절), 손녀(10절), 계모의 딸(11절), 고모(12-13절), 숙부(14절) 등 근친과의 혼인은 금지되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근친간의 결혼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약점이 자녀들에게 때로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는 혈연 이외의 인척관계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14-16절). 이 후자의 규정이 주어진 한 가지 이유로 종종 제시되는 근거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하는 ‘한 몸’이 매우 친근하고 영구적인 가족관계를 묘사하므로 혼인에 의한 인척간의 결합도 근친상간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남자는 며느리나 의붓손녀와 혼인하거나(17절) 한나와 브닌나의 경우처럼(삼상 1:1-8) 아내의 자매를 경쟁자로 취해서는 안 되었다(18절). 16절은 후에 신명기 25장 5절에 의

해 수정되었다.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할 의무가 있었다. 이를 가리켜 ‘형사취수제’라 했다.

18:19-21 월경중인 여인과는 성관계가 금지되었다. 이웃의 아내와의 간통도 금지되었다. 몰렉이란 우상숭배와 관련된, 갓 태어난 아이를 불 가운데 통과하게 하는 등 끔찍한 관습들도 금지되었다(왕하 23:10; 렘 32:35). 몰렉은 암몬족의 우상이었는데 그 형상이 흰놈 골짜기에 있었다. 프랜시스 웨이퍼는 이 의식을 이렇게 묘사했다.

“한 전승에 의하면, 늦 우상 뒤에 구멍이 있어 그 안에 불을 지핀 뒤에 아기의 부모가 아기를 손에 안고 나아와 몰렉이 내민 그 뜨겁게 달궈진 손에 아기를 올려놓아야 했다. 이 전승에 의하면, 부모는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으며, 아기가 몰렉의 손에서 죽는 동안 북소리가 계속 울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²²⁾

18:22-23 동성애도 금지되었고 짐승과의 관계도 금지되었다. 동성간의 성관계를 금하는 규정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현대의 에이즈를 내다보고 그 질병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의도하셨는지도 모른다.

18:24-30 1절부터 23절까지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반면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부정(不眞)과 우상숭배가 같은 장에 함께 발견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20장도 보라).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그 사

22) (18:19-21) Francis A. Schaeffer, *The Church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p. 126.

람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의 결과물이다.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숭배가 가져오는 타락상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24-27절). 이스라엘 자손은 그 땅을 소유할 때에 여호와와의 명대로 그 족속들을 무수히 죽였다. 24절부터 30절까지에 묘사된 가나안 족속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고려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잔혹하게 그들을 다루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다.

2) 일상생활에 대한 법(19장)

19:1-25 모든 거룩성의 기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는 말씀에서 발견된다(2절). 여기에는 백성들의 품행에 관한 다양한 규례가 진술되어 있다.

어미와 아버지를 공경해야 했다(3절)-5계명.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3절)-4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했다(4절)-2계명.

제3일에는 화목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다(5-8절).

들에서 수확을 거둬들일 때 주인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 된 자들을 위해 모퉁이 곡물은 남겨두어야 했다(9-10절). 이삭과 포도열매는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 예로 언급된 것이다.

절도와 사기와 거짓말이 금지되었다(11절)-8계명.

거짓 진술에 대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불법이었다(12절)-3계명.

압제와 늑탈, 혹은 임금채불이 금지되었다(13절).

귀머거리를 저주하거나 소경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정죄를 당했다(14절). 백성들은 서로 존경함으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

내야 했다(25:17). 불구 된 자(14절), 나이든 자(32절), 가난한 자(25:26,43) 등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인자하게 대해야 했다.

재판에 있어 공평치 못하면 안 되었다(15절).

이웃의 삶에 대해 비방하거나 음모를 꾸며서는 안 되었다(16절).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했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17절). 그것이 외적인 죄로 이끄는 내적인 적대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문제는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복수심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했다(18절). 18절 후반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온 율법의 요약이다(갈 5:14). 예수님은 그것이 둘째로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막 12:31). 가장 큰 계명은 신명기 6장 4-5절에서 발견된다.

19절은 일반적으로 잡종을 낳는 짐승의 교배를 금하는 말씀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말하는 ‘육축’은 짐승을 총칭한다.

또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거나 두 재료로 짠 옷을 입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시며, 이같은 물질적인 예를 통해서 그분은 그분의 백성이 죄와 더러움에서 분리될 것을 가르치고 계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행음을 하면 둘 다 형벌을 당했으며 그 남자는 속건제물을 가져와야 했다(20-22절).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은 나무의 실과를 따지 말아야 했다. 4년째의 실과는 여호와께 드려야 했고, 5년째의 실과는 먹을 수 있었다(23-25절). 아마 어느 주석가의 견해처럼 4년째의 실과는 레위인에게 주어져 그들이 두 번째 십일조의 일부로 여호와 앞에서 먹었던 것 같다.

19:26-37 이밖에 지켜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고기를 피 채 먹지 말아야 했다(26절). 짐을 치지 말아야 했다(26절). 우상숭배자의 풍습대로 머리를 둥글게 깎거나 수염을 손상치 말아야 했다(27절). 죽은 자를 위한 애도의 표로 살을 베지 말아야 했다(28절). 이방인들처럼 몸에 무늬를 새기지 말아야 했다(28절). 이방 종교에서 흔히 있듯이 딸을 기생이 되게 하지 말아야 했다(29절).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했다(30절). 신접한 자와 박수의 말을 듣지 말아야 했다(31절). 노인을 공경해야 했다(31절). 나그네를 인자와 관대함으로 대해야 했다(33-34절). 정직한 상거래를 행해야 했다(35-37절).

3) 중죄(重罪)에 대한 형벌(20장)

20:1-27 본장은 18-19장에 열거된 일부 범죄에 대한 형벌을 다루고 있다.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 자식을 불에 통과하게 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다(1-3절). 사람들이 그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와 그의 가족을 멸하실 것이다(4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6절),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9절), 간음을 행한 간부와 음부(10절), 계모와 동침한 자(11절), 며느리와 동침한 자(12절), 동성연애자(13절) 등도 사형에 처해졌다(이러한 불법적인 관계의 경우에는 둘 다 죽임을 당했다).

아내와 그 장모와 더불어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질 경우엔 세 사람 모두 화형에 처해졌다(14절).

침승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사형죄로서 둘 다 죽임을 당했다(15-

16절). 누이 혹은 이복누이와(17절), 또는 월경중인 여인과(18절) 관계를 갖는 자는 사형(혹은 어떤 이의 견해대로 출회)에 처해졌다.

이모나 고모와 관계를 갖는 자는 ‘그 죄를 당하는’ 형벌에 처해졌는데(19절), 형벌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없다. 어떤 이들은 20절에 숙모와 관계를 갖는 경우나, 21절에 형제의 아내와 관계를 갖는 경우처럼 자식을 낳지 못하는 형벌이라고 생각한다.

21절은 그 형제가 살았을 동안에만 적용되었다. 만일 형제가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 첫아들에게 죽은 자의 이름을 붙여주어야 했다(신 25:5). 이것이 ‘형사취수제’ 결혼으로 알려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한 거룩한 백성이 이방족속의 가증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약속의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다(22-26절). 신접한 자나 박수와 교통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했다(27절).

4) 제사장의 품행(21,22장)

21-22장은 16-17장과 더불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21:1-4 제사장들은 골육지친을 제외하고 죽은 자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도 그 사람을 7일간 부정케 했다(민 19:14). 그럴 경우 제사장은 그 기간 동안 여호와를 섬길 수 없었다. 그는 골육지친의 경우 외에 다른 죽은 자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되었다. 4절은 그의 높은 신분 때문에 그는 2-3절에 열거된 것 외의 사유로는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는 뜻으로 보인다.

21:5-9 제사장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표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이 교도의 풍습을 좇아서는 안 되었다. 제사장은 기생이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과부와는 결혼할 수 있었다. 행음을 한 제사장의 딸은 화형에 처해졌다.

21:10-15 대제사장은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일반풍습대로 애곡하거나 성소를 나가서는 안 되었다. 그는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했으며 그의 결혼생활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했다.

21:16-24 소경, 절뚝발이, 코가 불완전한 자,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곱사등, 난쟁이, 눈에 백막이 있는 자,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 불알 상한 자 등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한 결함이 있는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의 음식은 먹을 수 있었으나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었다(22-23절). 거룩한 음식은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들의 몫이었다. 지극히 거룩한 음식은 다른 제물 중에 그들의 몫이었다.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은 흠이 없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우리의 흠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이었다.

22:1-9 만일 어떤 제사장이 문둥병이나 유출병이나 사체로 부정해진 물건을 만지거나 그 피를 흘리지 않은 고기를 먹거나 그밖에 다른 사유로 의식적으로 부정해지면, 그는 제사장의 음식을 먹

을 수 없었다. 그것이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한 말씀이 뜻하는 바다(2절). 만일 제사장이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격제한이 오래 갔을 것이다. 언급된 다른 경우에는 아래의 의식이 그 제사장에게 필요했는데, 먼저 그 몸을 씻은 다음 저녁까지 기다려야 비로소 다시 정결케 되었다.

22:10-13 일반적으로 나그네와 방문객과 고용된 종들은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 주고 산 종은 그 자녀와 함께 그 성물을 먹을 수 있었다. 만일 제사장의 딸이 외부 사람과 결혼한 경우에는 성물을 먹을 수 없었으나, 그녀가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하거나 자식이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에는 제사장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다.

22:14-16 만일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거룩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속건제의 경우처럼 그 음식에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을 할 수 있었다.

22:17-30 번제를 위한 것이든(18-20절) 화목제를 위한 것이든(21절) 여호와께 가져오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19절). 병들거나 불구 되거나 외관이 상한 짐승은 금지되었다(22절). 지체가 더하거나 털 한 소나 양은 낙헌제물로는 드릴 수 있었으나 서원제물로는 드릴 수 없었다(23절). 거세되거나 생식기관이 손상된 짐승은 열납되지 않았다(24절). 이스라엘 백성은 위의 결합 있는 짐승들은 외방인에게서 받지 말아야 했다(25절). 희생짐승은 적어도 난 지 8일이 되기까지는 드릴 수 없었다(26-27절). 어미와 새끼 짐승을 같은

날 잡아서는 안 되었다(28절). 감사의 제물 고기는 그 드러진 날에 먹어야 했다(29-30절).

22:31-33 마지막 단락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여호와와의 계명을 지키고 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것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기록하시기 때문이었다. 이 짧은 단락에는 레위기 전체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온다. “성호”(기록한 이름), “욕되게 말라”, “기록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기록하게 하는 여호와요.”

8. 여호와와의 절기(23장)

1) 안식일(23:1-3)

23:1-3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하나님의 규례의 주제가 된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와의 절기를 성회로 선포하라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6일간 일한 후에 제 7일 혹은 안식일은 일을 쉬는 날이어야 했다. 이 날은 유일한 주간 성일이었다.

2) 유월절(23:4-5)

23:4-5 여호와와의 유월절은 첫 달(니산 혹은 아빔월) 제14일에 열렸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속된 것을 기념했다. 유월절 어린양은 죄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피를 흘리신 우리의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전 5:7). 그분은 천지창조시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매 죽으신 것이다(갈 4:4-6).

3) 무교절(23:6-8)

23:6-8 무교절은 유월절과 관련하여 생겨났다. 그것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간, 곧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지켜졌다. 이 두 절기의 이름은 종종 상호 교환되어 사용된다. 이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이 절기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제거된 삶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과 같은 특징을 지닌 삶을 상징한다(고전 5:8). 유월절(우리의 구속)과 무교절(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의무) 간에는 중간기간이 없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 그 떡을 가리켜 ‘마초’라 부른다. 마초를 만들려면 떡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그것을 굽는 과정 중에 줄무늬가 새겨지게 된다. 이 누룩 없는 떡은 죄 없으신 메시아를 기억나게 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셨으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4) 초실절(23:9-14)

23:9-14 무교절 둘째 날(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의 첫째 날)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 흔들어야 했다. 이것이 초실절로 알려진 절기이다. 그것은 그 해의 첫 곡물인 보리 수확의 시작을 알렸다. 수확에 대한 감사의 표로 보리 한 단을 여호와 앞에 흔들었다. 번제와 소제도 함께 드려졌다. 이 첫 번째 수확은 앞으로 올 더 큰 수확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 “그리스도께서…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도 부활을 통해 영원불멸을 얻게 되리라는 보증이다.

5) 칠칠절(23:15-22)

23:15-22 칠칠절(히브리어로 'שבועות') 혹은 오순절(Pentecost, '오십'에 해당하는 헬라이)은 유월절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에 열렸다. 그것은 밀 수확 시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제였다. 밀 수확의 첫 열매가 이 때, 번제와 새로운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와 함께 드려졌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1년 중 이 날에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 이 절기는 교회가 존재하게 된 오순절 날의 성령강림을 상징한다. 요제로는 막 거둔 고운 가루로 만든 두 덩이의 떡이 드려졌다. (이것은 누룩이 들어간 유일한 떡이었다.) 이 떡 덩이는 상징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해준다(엡 2:15).

오순절 이후에 다른 절기가 있기까지 약 넉달간 긴 간격이 있었다. 이 공백기는 우리가 우리의 구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현재의 교회 시대를 상징할 수도 있다.

6) 나팔절(23:23-25)

23:23-25 나팔절은 제7월 첫째 날에 열렸다.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자손이 엄숙한 성회로 함께 모였다. 이 때는 속죄일에 이르기까지 10일간 자기를 살피며 회개하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에 앞서 그 땅에 재집결할 때를 상징한다. 그 때는 오늘날 '로쉬 하사나'(히브리어로 '그 해의 첫 머리'란 뜻)라 불리는 민간력 해의 첫째 날이었다. 어떤 이들은 이 절기가 또 하나의 집결, 즉 성도들이 휴거시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집결하는 것도

상징한다고 본다.

7) 속죄일(23:26-32)

23:26-32 제7월 10일에 열리는 속죄일(히브리어로 '욘 키흐)은 16장에 자세히 묘사된바 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를 미리 보여주는데, 그 때에 믿는 잔존자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슥 12:10; 13:1). 속죄일을 다루는 거의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되풀이하신다. 이 날 활동하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범하는 자는 누구든 멸하겠다고 경고로 그 명령을 강화하셨다.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행한 바 행위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이다(딤후 3:5). 우리의 죄를 없이하는 사역에는 인간의 행위가 관여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27,29절)는 금식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로 지킨다. 속죄일이 여호와와의 절기 중 하나로 열거되긴 했지만 사실 그 날은 절기(축제)라기보다는 금식하는 때였다. 그러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초막절과 더불어 기쁨의 때가 찾아왔다.

8) 초막절(23:33-44)

23:33-44 초막절(히브리어로 '숙곳'-'오두막')은 제7월 15일에 시작되었다. 7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거주했다(42절). 그것은 이스

라엘이 천년왕국 동안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하는 마지막 안식과 마지막 추수를 상징한다. 이 절기는 수장절로도 불리운다(출 23:16). 그것은 추수와 관련이 있었다. 사실 이 23장에 언급된 여러 절기들은 추수와 관련이 있다. 두 안식일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안식을 상징할 수 있다. 모이쉬와 세일 로즌은 이 초막절에 대한 전승을 이렇게 묘사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거하던 일시적인 거처를 생각나게 하는, 초막형태의 가옥을 짓고 그 안에 거주했다. 오늘날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절기 동안 지붕이 없는 삼각 모양의 오두막을 짓는다. 그리고 나뭇가지와 가을 열매로 장식하여 추수를 생각나게 했다.

“가능한 모든 사람이 매년 이 추수제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이 기간 동안의 성전 예배에는 실로암 못에서 취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는 겨울비를 구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었다.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신 때가 바로 이 때였다(요 7:37-38).

“이스라엘의 마지막 속죄일 후에 초막절이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기념될 것이다(슌 14:16).”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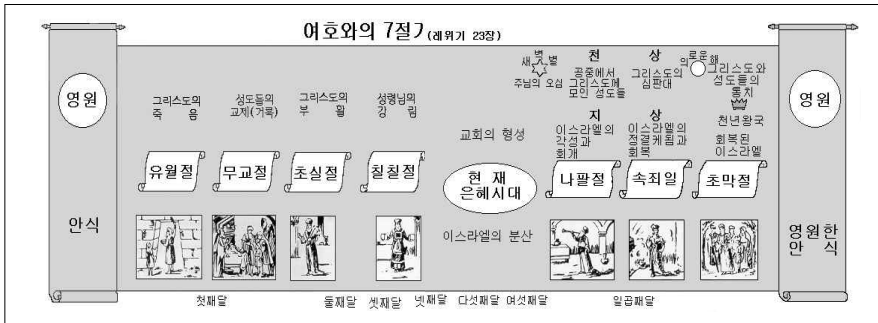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이 절기들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신 한 가지는 영적인 측면의 삶과 물질적인 측면의 삶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풍요와 축복의 때는 여호와 앞에 기뻐하는 때가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매일의 필요를 풍성히 채우시는 분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그들의 민

23) (23:33-44) Moishe and Ceil Rosen, *Christ in the Passover*, 페이지는 알 수 없다.

족적인 반응이 이 추수와 관련된 축제들을 통해 표현되었다.

이 엄숙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되풀이된 것을 주목하라(3,7,8,21,25,28,30,31,35,36절).

여호와의 절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연대적인 발전을 추적할 수 있다. 안식일은 창조 후의 하나님의 안식을 생각나게 한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갈보리를 말해준다. 다음에 오는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다.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상징한다. 그런 다음 미래를 바라볼 때,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재집결을 상징한다.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할 때를 예표한다. 끝으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천년통치를 누리는 것을 대망한다.



9. 의식적 도덕적 규례(24장)

23장에는 연례 절기들이 다뤄졌다. 이제 여호와 앞에서 날마다, 주마다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다.

24:1-9 감람을 짠 기름이 여호와 앞 금촛대에서 끊임없이 불태워져야 했다. 12개의 떡이 진설병상에 두 줄로 놓여야 했고 매 안식일마다 교체되어야 했다. 7절에 언급된 유향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것은 먼저 놓였던 떡이 치워져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질 때 여호와께 드려졌다.

24:10-23 이어서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버가 애굽인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한 까닭에 돌에 맞아 죽게 된 사건이 돌연히 나온다(10-16,23절). 이 사건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스라엘 진에 거하는 모든 이에게 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보여준다(22절). 그것은 신성모독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4,16,17,23절). 16절은 아마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라고 말할 때(요 19:7) 지적한 그 신성모독을 금하는 법이었던 것 같다. 그것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보상이 치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8,21절). 끝으로, 이 사건은

다음 사실을 보여준다.

“응보(應報)는 율법의 근본 원리였다. 잘못은 바로잡아져야 했다. 형벌을 완화하면 율법의 권위가 떨어졌다. 동해보복법(同害報復法)은 오늘날 서구세계에서 조롱을 당하지만 그러나 사려 깊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① 고대사회에서는 종종 저질러진 잘못과 똑같은 양(量)의 처벌이 행해졌다. 보응적인 처벌은 그와 같이 참된 정의를 이루기 위한 주목할 시도였다. ② 더 나아가, 재정착적인 처벌(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대안(代案))은 주관주의(主觀主義)에 빠지게 한다. 즉, 어떤 사람이 교화되어 다시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지 누가 결정하겠는가? 어떤 처벌이 오늘은 너그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내일은 어떻겠는가? 참된 정의는 눈에 눈(그 이상이 아닌)이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스라엘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 10-16절에서 그 저주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되어버린 모습, 즉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퍼부은(“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모습을 그려준다.

10. 안식년과 희년(25장)

25장부터 27장의 규례는 회막 안에서가 아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다(25:1, 26:46, 27:34).

25:1-7 제7년은 안식일처럼 준수되어야 했다. 땅은 경작하지 않은 채 놔두어야 했다. 백성들이 먹을 음식은 저절로 자란 곡물에서 공급되었다. 땅의 소유주는 그것을 추수하지 말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놔두어야 했다.

25:8-17 제50년도 안식년으로서 희년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일곱 안식년(49년)을 보낸 후의 속죄일에 시작되었다. 그 때는 종이 해방되고 땅이 쉬고 본래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종이나 토지의 값은 희년이 가까워 올수록 떨어졌다(15-17절). 그리고 모든 상거래 계약이 그 점을 고려해 넣어야 했다.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는 말씀(10절)은 미합중국 자유헌장에 새겨져 있다. 오늘날 신자들은 희년을 주님의 오심에 비유할 수 있다. 그분의 오심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의 물질적인 부(富)는 그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 우리의 돈과 부동산과 투자한 것들은 아무 쓸모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일에 우리의 소유를 드려야 할 것이

다!

25:18-22 안식년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그 해와 그 다음 해에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의아해할 만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면 제6년 한 해 동안 3년간 먹을 양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매 50년마다 한번씩, 파종도 추수도 하지 못하는 두 해가 연속해서 있게 된다. 즉, 정규적인 안식년에 이어 희년이 오는 것이다. 아마 여호와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제 48년에 4년간 먹을 양식을 거두게 하셨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 안에 포함하는 계산법에 의해 제 50년은 실제로 제 49년이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쨌든 이것은 자연보존, 즉 안식을 의무화함으로써 땅의 비옥도를 보존한 훌륭한 고대의 사례이다. 오늘날 인간은 이 지구행성의 자원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종종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세기 앞서 있다.

25:23-28 땅은 팔 수는 있으나 영구적으로는 팔 수 없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소유주시기 때문이다. 땅은 ‘무를’(그 원래 유대인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었다. 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매매자를 위해 그것을 되살 수 있었다(25절). ② 매매자(원 소유자)가 지불능력이 생겨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그것을 무를 수 있었다(26-27절). ③ 그렇지 않으면, 희년이 되어 그 땅이 자동적으로 그 원 주인에게 돌아갔다(28절).

25:29-34 성벽 있는 성 안의 가옥은 1년 안에 물러야 했다.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집은 영영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었다. 성벽 없

는 마을의 가옥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어 희년에 원 주인에게로 돌아갔다.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특별한 성읍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은 항상 레위인에 의해 물려져야 했다. 그러나 레위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진 들의 밭은 팔 수 없었다.

25:35-38 만일 어떤 이스라엘인이 밭을 지고 가난하게 되면 그의 유대인 채권자는 그를 압제하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그에게 이자를 요구하거나 빌려준 양식 외에 텀을 달라고 해서는 안 되었다.

25:39-46 만일 어떤 가난한 이스라엘인이 밭을 값을 돈이 없어 그 몸을 유대인 채권자에게 팔 경우, 그는 종이 아닌 품꾼처럼 대해야 했으며, 그의 6년간의 봉사가 끝나기 전에 희년이 오면 그 희년에 풀려나야 했다. 유대인은 이방 족속 출신의 종을 소유하는 것이 허락되었으며, 그 종은 그들의 소유로 간주되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유대인들 간에는 피차 종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25:47-54 만일 어떤 유대인이 그 땅에 우연히 거하게 된 어떤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렸으면, 그 유대인은 언제든 속량되어 해방될 수 있었다. 그 속전은 희년까지 남은 연수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 유대인을 속량한 친척이 그를 희년까지 품꾼으로 쓸 수 있었다. 만일 그를 속량할 아무 친척이 없을 때는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해방되었다.

25:55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땅(23절)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합법적인 소유주로 인정되셔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킨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땅도 영원히 팔 수 없었다.

11. 축복과 저주(26장)

1)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축복(26:1-13)

26:1-13 본장에는 축복에 비해 두 배의 지면이 경고에 할애되어 있다. 불순종에 대한 약속된 열매인 적대의식은 그분의 백성에게 보복을 가하기보다는 그들을 회개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다(40-32절). 민족적인 징계는 그 백성이 그들의 죄악을 자백할 때까지 더욱더 가혹해질 것이다. 14,18,21,24,28절의 표현들을 보라.

우상숭배와(1절), 안식일을 범하고 성소를 공경치 않는 것(2절)에 대해 경고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비와 비옥함(4절), 생산과 안정(5절), 평안과 안전(6절), 대적에 대한 승리(7,8절), 결실과 여호와와의 임재(9-13절) 등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13절에 대해 낱스(Knox)역(譯)은 이렇게 생생하게 읊고 있다. “나는…너희 목에서 시슬을 깨뜨리고 너희로 자유인의 바른 몸가짐을 갖게 한 이가 아니냐?”

2)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의 저주(26:14-39)

26:14-33 불순종은 공포와 질병과, 대적에게 패함과, 기쁨과 황폐와 들짐승과 역병과 침략과 포로 됨을 가져올 것이다.

26절은 기근의 상태를 묘사해준다. 떡이 희귀하여 한 식구가 사용할 만한 크기의 화덕에 열 여인이 모여 떡을 구워야 했다. 그보다 더한 기근이 29절에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경고에 대한 역사적인 성취로 사람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다(왕하 6:29; 애 4:10).

26:34-39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의 길을 고집할 때에는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스라엘 땅은 그 백성들이 무시한 안식년의 수만큼 안식의 기간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벨론 포로시에 일어난 일이다. 사울 왕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년을 지키는데 실패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70년간 포로생활을 했으며, 그 땅은 안식을 누린 것이다(대하 36:20-21).

3) 자백과 회개를 통한 회복(26:40-46)

26:40-46 26장 마지막 부분은 불순종한 민족이 자백과 회개를 통해 회복되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그 조상에게 하신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다.

12. 서원과 십일조(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은 여호와께 자원해서 서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호와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뜻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이나(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일원) 짐승이나 집이나 밭을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서원할 수 있었다. 서원한 물건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민 18:14). 그 예물들이 항상 제사장에게 유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물건 대신 돈을 제사장에게 가져올 수 있었다.

27:1-2 성별의 서원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다.

27:3-7 만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는 사람 대신 제사장에게 지불해야 할 속전이 다음과 같았다.

20-60세의 남자	50세겔
20-60세의 여자	30세겔
5-20세의 남자	20세겔
5-20세의 여자	10세겔
1개월-5세의 남자	5세겔
1개월-5세의 여자	3세겔

60세 이상의 남자	15세겔
60세 이상의 여자	10세겔

27:8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본장의 규정대로 자신의 서원을 속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의 지불능력을 살펴 금액을 결정해주었다.

27:9-13 짐승을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되었다.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한 정한 짐승은 속량될 수 없었다(9절). 그 짐승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드려져야 했다(민 18:17). 짐승은 다른 짐승으로 교체될 수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둘 다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10,33절). 부정한 짐승은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지불함으로써 속량될 수 있었다(11-13절).

27:14-15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여호와께 드렸을 때는 그가 마음이 바뀔 경우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 지불함으로써 그 집을 되살 수 있었다.

27:16-18 밭의 값을 정하는 것은, 희년에 그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복잡했다.

만일 그 밭이 그 원주인에 의해 헌납되었을 때는, 즉 그 원주인이 그 밭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16-21절의 규정이 적용되었다. 그 값은 그 밭에 뿌려진 종자에 따라 정해졌다. 예를 들어, 보리 한 호멜이 심어졌으면 은 50세겔로 정해졌다.

만일 그 밭이 희년 가까이나 희년에 드리기로 서원되었을 때는

위의 규정이 유효했다. 그러나 희년 얼마 후에 헌납되었을 때는 밭의 값이 떨어졌다. 다시 말해서, 희년 20년 후에 서원된 밭이면 그 값이 30세겔에 불과했다.

27:19-21 만일 그 밭을 무르려면 5분의 1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만일 토지를 여호와께 드린 후에 주인이 희년 전에 그것을 무르지 않거나, 혹은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비밀히 팔아넘길 경우에는, 더 이상 그것을 무를 수 없으며 희년이 되면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다. 그 토지는 그 때 여호와께 ‘구별’되거나 ‘거룩하게’ 되었다.

27:22-25 만일 원주인이 아닌 사람, 즉 그것을 산 사람에 의해 밭이 헌납되었을 때는 22-25절이 적용되었다. 제사장은 희년 전에 그 밭에서 거둘 수 있었던 소출에 따라 값을 정했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원주인에게 돌아갔다.

27:26-27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속한 까닭에 그분께 드릴 수 있었다. 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제사장이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하여 지불함으로 속량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장이 그것을 팔 수 있었다.

27:28-29 죽거나 멸하기로 정해진 것은 속량될 수 없었다. 이것이 ‘바쳐진’ 것이 의미하는 바다. 예를 들어, 부모를 저주한 아들은 속량되지 못하고 반드시 죽음에 처해져야 했다.

본장에서 주의할 것은, 성별된 것과 바쳐진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서원으로 성별된 것, 즉 신적인 용도를 위해 구별된 것은 속량될 수 있었다. 그러나 바쳐진 것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드러진 것이므로 속량될 수 없었다.

27:30-31 곡식이나 과실의 십분의 일은 여호와께 속했다. 만일 예물을 드리는 자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면 그 값에 5분의 1을 더 하여 지불해야 했다.

27:32-33 “막대기 아래 통과하는 것”이란 표현은 양이나 염소를 목자의 지팡이 아래 지나가게 하여 그 수를 세는 관습을 가리킨 말이다. 레슬리 플린은 이렇게 해설한다.

“손에 든 지팡이로 목자는 10번째 짐승마다 지적했다. 그는 절대로 좋은 짐승이 10번째가 되지 않도록 그 순서를 교묘히 바꿀 수 없었다. 만일 순서를 바꾸려하면 진짜 10번째 짐승과 그것과 바꾸려한 짐승 둘 다 여호와의 것이 되었다.”²⁴⁾

이 첫 번째 십일조를 가리켜 레위인의 십일조라 불렀는데, 이는 그것이 레위인에게 지불되었기 때문이다(민 18:21-24). 두 번째 십일조는 이와 분명히 달랐는데 신명기 14장 22-29절에 명시되어 있다.

27:34 레위기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은 아마 레위기 전체를 가리키는 듯하다. 이 세세한 의식과 피의 제사에 대한 기록을 상고한 후에 우리는 메튜 헨리와 더불어

24) (27:32,33) Leslie B. Flynn, *Your God and Your Gold*, pp. 30,31.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된다.

“우리는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선명한 빛 아래 있다…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와 그 육체에 속한 규례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부드럽고 쉬운 가르침 아래 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과 성전과 제단과 제물과 성결과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선언하는 그 복음 아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인 정결과 절기와 헌신에 매어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섬길 마음과 시간과 물질이 적은 것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자원예물로 더 가득 채우고, 거룩한 사랑과 기쁨으로 더 불타오르게 하고, 진지한 생각과 순전한 동기에 더 사로잡힌바 되게 하라.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가, 참 마음과 넘치는 확신으로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하며 보다 큰 기쁨과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자!”²⁵⁾

25) (27:34) Henry, “Leviticus”, I:562.

참고 문헌

- Bonar, Andrew. *A Commentary on the Book of Leviticus*. 1852. Reprnt.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 Borland, James A. "Leviticus." In *Liberty Bible Commentary*. Lynchburg, VA: The Old-time Gospel Hour, 1982
- Coleman, Robert O. "Leviticus." In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Harrison, R. K. *Leviticu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0.
- Henry, Matthew. "Leviticu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1.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Jukes, Andrew. *the Law of the offerings*. London: The Lamp Press, 1954.
- Keil, C.F., and Delizsch, F. "Leviticu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The Pentateuch, Vol. 4.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Lindsey, F. Duane. "Leviticu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IL: Victor Books, 1985.

Smith, Arthur E. *Leviticus for Lambs*. Privately Printed, n.d.

정기간행물

Clarke, A. G. “The Levitical Offerings”, *Precious Seed Magazine*,
1960.

민수기

민수기 서론

“민수기는 그 역사적인 전개를 그리스도인의 여정과 유사한 상황으로 견주어 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독특한 기여를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두 장을 할애하여 그러한 의미심장한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히 3-4장)”(어빙 젠슨).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의 영어제목은 ‘아리쓰모이’라는 70인역의 제목을 옮긴 것인데, 이 책이 그렇게 불리운 까닭은 그 책 전체에 걸쳐 주어진 다른 많은 숫적인 자료 외에도 1장과 26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기 때문이다.

‘광야에서’(‘베미드바’)란 히브리어 제목은 전체 내용을 한결 잘 묘사해준다. 광야의 40년간에 대한 이 이야기는 가나안 정탐꾼, 고라의 반역, 아론의 싹난 지팡이, 늦뱀, 발람과 그의 나귀 등 흥미진진하고 잘 알려진 사건들과 그밖에 덜 알려진 많은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 책을 단순히 ‘히브리인의 역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위해 일어났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실수를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훈을 배워야 한다. 요컨대 민수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이 아닐 수 없다.

2. 기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민수기는 위대한 율법수여자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그 사실을 널리 부인하지만, 오경 서론에 보면 이 모세 저작권에 대한 간결한 변호를 볼 수 있다.

3. 연대

합리주의 학자들은 오경을 유대 역사 말기에 위치시키지만, 보수적이고 믿음 안에 있는 학자들은 B.C 1406년경으로 그 연대를 잡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경 서론을 참조하라.)

4. 배경 및 주제

민수기의 역사적인 배경무대는 그 히브리어 제목이 말해주듯이 광야이다. 여기에 묘사된 여행과 방향은 이스라엘이 시나이산을 떠나 약속의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경험을 다루고 있다. 방황의 역사는 불신앙 때문이었으며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여정을 밝히지 않으셨다. 스크로기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을 벗어나 움직이는 것은 그분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다.”¹⁾

레위기가 예배와 영적인 신분을 강조하고 있다면, 민수기의 주제는 행함과 영적인 진보(혹은 영적인 진보의 결여)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

1) (서론) W. Graham Scroggie, *Know your Bible, vol. 1, The Old Testament*, p.

인은 이 책을 무미건조한 유대인의 역사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적용되는 교훈들로 가득하다. 모든(혹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들 안으로 신속히 진입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쁜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한 바로는, 얼마나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평하고 침체하고 불신앙에 빠지는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이 영적인 순례길에서 이스라엘의 방황을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성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준비를 마련해두셨다. (신자성경주석 신약, 특히 로마서 6-8장을 보라.)

5. 개관

1. 시내에서의 마지막 날들(1:1-10:10)

- 1) 지파들의 인구조사 및 정비(1-2장)
- 2) 레위인의 수와 의무(3-4장)
- 3) 정결케 됨과 자백(5:1-10)
- 4) 의심에 대한 규례(5:11-31)
- 5) 나실인에 대한 규례(6장)
- 6) 족장들의 예물(7장)
- 7) 회막의 봉사(8장)
- 8) 유월절, 구름, 은나팔(9:1-10:10)

2. 시내에서 모압 평지까지(10:11-22:1)

- 1) 시내 광야를 떠남(10:11-36)
- 2) 진에서의 반역(11장)

- 3)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12장)
 - 4)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13-14장)
 - 5) 여러 가지 규례(15장)
 - 6) 고라의 반역(16-17장)
 - 7) 레위인에 대한 규례(18-19장)
 - 8) 모세의 죄(20:1-13)
 - 9) 아론의 죽음(20:14-29)
 - 10) 늦뱀(20:1-22:1)
3.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22:23-6:13)
- 1) 선지자 발람(22:2-25:18)
 - (1) 발락이 발람을 부름(22:2-40)
 - (2) 발람의 신탁(神託)(22:41-24:25)
 - (3) 발람이 이스라엘을 타락케 함(25장)
 - 2) 두 번째 인구조사(26장)
 - 3) 딸들의 상속권(27:1-11)
 - 4)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27:12-23)
 - 5) 제사와 서원(28-30장)
 - 6) 미디안족의 멸망(31장)
 - 7)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32장)
 - 8)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33장)
 - 9) 약속의 땅의 경계(34장)
 - 10) 레위인의 성읍(35:1-5)
 - 11) 도피성과 사형(35:6-34)
 - 12) 결혼한 딸들의 기업(36장)

1. 시내에서의 마지막 날들(1:1-10:10)

1) 지파들의 인구조사 및 정비(1-2장)

1:2-3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곧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행진하는 군대처럼 진열을 갖추는 필요가 있었으며, 이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하셨다. 이 인구조사에는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들이 포함될 것이다.

1:4-17 모세를 도와 인구조사를 할 사람이 지파마다 하나씩 임명되었다. 5-16절에 그들의 이름이 주어져 있다. 17절은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기록하고 있다.

1:18-46 인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지 파	관련구절	수 호
르우벤	20-21절	46,500
시므온	22-23절	59,300
갓	24-25절	45,650

유다	26-27절	74,600
잇사갈	28-29절	54,400
스블론	30-31절	57,400
에브라임	32-33절	40,500
므낫세	34-35절	32,200
베나민	36-37절	35,400
단	38-39절	62,700
아셀	40-41절	41,500
납달리	42-43절	53,400
총계		603,550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수가 많음을 주목하라. 이것은 창세기 48장 19,20절의 야곱의 축복과 일치된다. 지파들의 명부는 장자인 르우벤과 그의 진(남쪽)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그의 진(동쪽), 단과 그의 진(북쪽), 그리고 끝으로 에브라임과 그의 진(서쪽)으로 이어졌다.

1:47-54 레위인은 전쟁에 나갈 이스라엘 남자들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47절). 그들은 회막을 세우고 거두는 일과 그와 관련된 일을 책임 맡았다. 그들은 회막 주변에 위치함으로써 회막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과 또 백성들이 징벌당하는 것을 보호해주었다(53절).

2:1-2 이스라엘 각 지파는 회막 주변 지역 사면에 세 지파씩 장막을 치라는 명을 받았다.

2:3-16 동쪽에는 유다의 깃발 아래 유다와 잇사갈과 스블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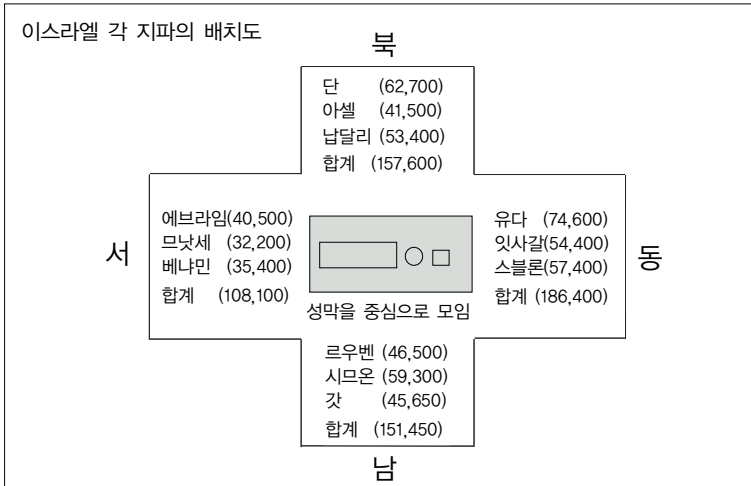
위치했다(3-9절). 각 지파마다 군사적인 지도자가 있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합해서 186,400명이었다. 남쪽에는 르우벤의 깃발 아래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이 위치했다(10-16절). 르우벤의 진은 모두 합해서 151,450명이었다.

2:17-31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깃발 아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위치했다(18-24절). 이 진영은 모두 합해서 108,100명이었다. 북쪽에는 단의 깃발 아래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위치했다(25-31절). 이 진영은 모두 합해서 157,600명이었다. 각 지파는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해야 했다. 유다의 진이 첫 번째였고, 레위인은 갓 뒤에, 에브라임 앞에서 진행했다(17절).

2:32-34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는 603,550명이었다(32절). 레위인(3:39)을 포함한 남자들의 수는 625,550명이었다. 성인 남자들을 전체의 3분의 1로 가정할 때 전체 인구는 적어도 1,876,650명이었을 것이다. 이 전사들의 수효는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수효라기보다는 그 교회의 능력을 말해준다 하겠다.

2) 레위인의 수와 의무(3-4장)

3-4장은 1-2장의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레위인의 직무와 관계가 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의해 성소의 일을 위해 구별되었다. 본래 하나님은 장자 지파를 그분 자신에게 속하도록 택하셨으나 후에 그 지파 대신 레위 지파를 그 거룩한 봉사를 위해 택하셨다(12-13절). 레위는 게르손, 고탕, 므라리의 세 아들이 있었다. 그들



의 후손에게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는 일이 맡겨졌다.

3:1-10 아론의 가문(고라의 후손)은 제사장 가문이었다(9절). 다른 모든 레위인은 성막과 관련된 봉사를 했으나 제사장은 아니었다. (이후의 모세오경에서 발견되는 ‘제사장인 레위인’이란 표현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의미한다. 그것은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이란 의미가 아니라 모든 제사장이 레위의 후손이라는 의미이다.) 제사장 가문이 1-4절에 묘사되어 있다. 나답과 아비후가 신성모독 죄로 죽임을 당한 후에 아론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뿐이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종이었다(5-9절). 아론과 그의 후손 외에 아무도 제사장직을 행할 수 없었다(10절).

3:10-13 구약 제사장들의 중재역할은 개개의 죄인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귄으로 이끌어 줄 수 없었다. 죄인은 죽음의 고통 아래

서, 거룩한 것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다(10절). 그러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재사역이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뿐 아니라 그분의 존전에 들어갈 담력까지 주신다(히 4:16).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민수기와 히브리서 사이에 위치한 위대한 사건(갈보리 기적)으로 말미암는다.

3:14-39 레위인은 전사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서 수효가 세어졌다(15절). 레위의 아들들에게는 회막의 일부를 관리하는 책임이 맡겨졌다.

게르손(18-26절)-7,500명; 성막 서편에 진을 침-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 회막 문장, 뜰의 휘장, 줄(언약궤를 에워싼 휘장은 제외).

고핫(27-32절)-8,600명; 성막 남편에 진을 침-지극히 거룩한 것들(언약궤, 진설병상, 기구들, 휘장, 등대, 단).

므라리(33-37절)-6,200명; 성막 북편에 진을 침-널판, 띠, 기둥, 받침, 말뚝, 줄.

레위인은 회막 바로 주위에 장막을 치되, 서쪽에 게르손 자손(23절), 남쪽에 고핫 자손(29절), 북쪽에 므라리 자손(35절)이 위치했다.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은 동쪽, 즉 회막 입구에 진을 쳤다(38-39절).

레위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적은 지파였다.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총계는 22,000명이었다(39절). 그러나 22,28,34절에 기록된 수효를 합치면 모두 22,300명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다. 윌리엄스는 300명의 추가인원은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장자들로서 레위인이 다른 지파들의 장자를 대신하도록 선택되었기에 자연히 그 수가 생략되었다고 주장한다.²⁾

3:40-51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레위인은 22,000명이었고 장자들은 22,273명이었다(39,43절). 따라서 본래의 계획 아래 섬겼어야 할 이스라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할 레위인의 수가 부족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자라는 273명분의 장자를 한 사람에게 5세겔씩 지불함으로 속량하라고 명하셨다. 이 속전($273 \times 5 = 1365$ 세겔)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지불되었다(51절). 43절에 언급된 장자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장자만 포함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4:1-3 4장의 계수는 회막에 관계된 활동적인 봉사에 동원될 만한 레위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의 연령층이었다.

4:4-20 출애굽기 25장 15절은 “채를 꺾은 고리에 꿰대고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라고 말하는데, 여기 6절은 제사장이 ‘그 채를 꿰고’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해결책이 카일과 델리취의 주석에서 제시되었는데, 즉 6절은 “그 꿰인 채를 조정하고”라고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³⁾

고핫 자손의 의무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4-2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과 그 성스런 기구들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5-13절). 언약궤(5-6절), 진설병상(7-8절), 금촛대(9-10절), 금항

2) (3:14-39) George Williams, *The Student'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 80

3) (4:4-20) C. F. Keil and F. Delitzsch, “Number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II:25.

단(11절), 봉사에 쓰는 기구들(12절), 놋단(13-14절) 등은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야 했다. 그런 다음 고향의 다른 아들들이 그 덮은 물건을 나르도록 임명되었다. (물두명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물두명도 그들이 운반했음에 틀림없다.) 그들은 그 성물들을 만지거나 덮개를 열어 쳐다보아서는 안 되었으며 그렇게 해야 죽음을 면했다(15,17-20절).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장막 전체와 그 성스런 기구들을 책임 맡았다(16절).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항상 언약궤를 가려 보지 못하게 했다(5절).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언약궤는 그 동일한 휘장으로 덮였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갈보리에서 그 휘장이 영원히 들로 찢길 때까지 언약궤 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없었다.

4:21-28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양장과 회막과 그 덮개와 뜰의 휘장과 기구들을 운반해야 했다.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게르손 자손을 책임 맡았다.

4:29-33 므라리의 아들들의 가족들은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고리와 줄을 운반하도록 임명되었다.

4:34-49 인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고라 자손	2,750명
게르손 자손	2,630명
므라리 자손	3,200명
<hr/>	
30-50세 되는 레위인의 총계	8,580명

3) 정결케 됨과 자백(5:1-10)

본문은 진을 부정(不淨)에서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3절에서 밝힌 이 명령이 주어진 이유는 신명기 23장 14절의 하나님이 진 가운데 행하신다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다.

5:1-4 문둥병자나 유출병이 있는 자나 사체를 만진 자는 진 바깥에 두어야 했다. 진(陣)은 회막 지역과, 그 주변의 이스라엘의 장막이 차지하는 공간으로 이뤄졌다.

5:5-10 남자나 여자가 다른 이에게 어떤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자백하고 속건제물을 드려 보상을 하되 5분 1을 더해야 했다. 만일 피해자가 죽거나 그 자리에 없고 또 아무 가까운 친척도 없을 때는 제사장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 했다.

4) 의심에 대한 규례(5:11-31)

5:11-15 본문은 의심의 시험으로 알려진 거짓말을 알아내는 의식을 묘사한다. 이 의식의 목적은 그 남편에게 신실치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 여인의 유죄 내지 결백을 결정짓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성막 바닥에서 취한 티끌을 섞은 물을 마셔야 했다. 만일 그녀가 죄가 있으면, 그 물이 그녀에게 저주가 되어 그 배가 붓고 그 넓적다리가 썩을 것이다. 만일 그녀가 결백하면 아무 해로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12-14절로 보아, 남편이 그 아내가 신실치 못했다는

지 여부를 몰랐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먼저 소제물을 가지고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했다.

5:16-31 제사장은 물과 티끌을 섞은 것을 토기에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를 풀고 그 손에 소제물을 들려 그녀를 여호와 앞 제단에 데려갔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그녀로 하여금 죄가 있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맹세에 동의하게 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은 다음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소제물을 흔들고 한 줌을 단에 태운 후에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 제사장이 여인으로 그 물을 마시게 했다는 24절의 기록이 26절에 되풀이되고 있다. 그녀는 단 한번 그것을 마셨다. 만일 그녀가 죄가 있으면 앞서 경고한 불임(不妊)을 비롯한 심판이 그녀에게 임했다. 만일 결백하면 그녀는 정하다고 선언되고 징벌을 면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출산을 할 수 있었다. 29-31절은 의심의 시험을 요약해준다.

의심은 그 근거가 정당하든 아니든 결혼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이 문제를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 주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 있는 자에게 임할 것이며, 결백한 자는 배우자의 의심에서 풀려날 것이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본문이 미래에, 즉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신실치 못한 것에 대해 시험을 받게 될 때, 특별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5) 나실인에 대한 규례(6장)

6:1-8 ‘나실인’이란 단어는 ‘분리하다’는 뜻의 어근에서 나왔다. 나실인의 서원은 어떤 남자나 여자가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서원이었다. 미쉬나(Mishna)는, 나실인 서원은 최장 100일간 지속할 수 있으나 보통 30일간 지켰다고 말한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평생 나실인으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무엘, 삼손, 세레 요한 등이 그러했다. 이 서원은 세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첫째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시지 말아야 하며(2-4절), 둘째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며(5절), 셋째로 사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했다(6-8절).

포도주는 인간적인 기쁨을 상징한다. 긴 머리는 남자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으로 겸손을 상징한다. 그리고 사체는 더러움을 유발한다.

“나실인은 이 세상 자녀들에게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기뻐하기 위해 그는 기쁨을 접어두었다. 강해지기 위해 그는 약하게 되었다. 그리고 친족들을 사랑하기 위해 그는 그들을 ‘미워했다’”(눅 14:26).⁴⁾

6:9-12 본문은 어떤 사람이 부지중에 사체를 만짐으로 서원을 깨뜨렸을 때 취해야 할 조치를 묘사한다. 먼저 그는 민수기 19장에 묘사된 7일간의 정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제7일에 그는 머리털을 밀었고, 그 다음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렸다. 또한 그는 속건제물로 1년 된 어린양을 가져왔다. 이 모든 제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처음 서약한 분리의 기간이 무산되었기에 다시 시작해야 했다. 이와 같이

4) (6:1-8)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82.

더럽혀진 나실인이 다시 성별될 수 있었으나 그가 더러워진 기간은 무산되었다. 이것은, 실족한 신자는 회복될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사귄에서 떠난 기간은 낭비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6:13-21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서원한 기간을 마쳤을 때 필요한 의식을 볼 수 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등 네 가지 제물을 가져왔다(14-15절). 그 나실인은 그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태워버렸다(18절). 이 의식에서 제사장이 할 일이 16-17,19-20절에 나와 있다. 21절은 나실인이 그 서원을 마치고 드릴 수 있는 자원제물을 가리킨다.

6:22-27 6장을 마감하는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아름답고 친근한 축원(祝願)을 보여준다. 위대한 전도자 D. L. 무디는 이 축복을 이렇게 묘사했다.

“여기에 온 세상에 전해지되 언제나, 빈약해짐 없이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말이 있다. 모든 이의 마음이 그 축복을 토해낼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교이다. 모든 서신이 그 축복으로 마감될 수 있다. 모든 날이 그 축복으로 시작될 수 있다. 모든 밤이 그 축복으로 거룩케 될 수 있다. 여기에 축복이 있다. 우리의 곤고한 삶을 하늘의 즐거운 아침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 하늘의 무한한 송가(頌歌)로부터 이 아름다운 멜로디를 전해주시는 이는 주님 자신이시다.”⁵⁾

6) 이스라엘 족장들의 예물(7장)

5) (6:24-26)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41.

7:1-9 본장은 성막이 세워진 출애굽기 40장 17절로 돌아가게 한다. 이스라엘 지도자는 여러 지파의 두령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미 민수기 1장 5-16절과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다. 그들은 먼저 덮개 있는 수레 여섯과 소 열두 마리를 예물로 가져왔다(3절). 모세는 수레 둘과 소 네 마리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고,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는 므라리 자손에게 주어 성막기구들을 나르는데 사용하게 했다. 고향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는데 이는 그들이 소중한 성물들을 어깨에 메었기 때문이었다.

7:10-83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12일간의 계속되는 기간 동안 단의 봉헌(奉獻)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이 예물들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날	지도자 이름	지파	관련구절
1일	나손	유다	12-17절
2일	느다넬	잇사갈	18-23절
3일	엘리압	스불론	24-29절
4일	엘리술	르우벤	30-35절
5일	슬루미엘	시므온	36-41절
6일	엘리아삽	갓	42-47절
7일	엘리사마	에브라임	48-53절
8일	가말리엘	므낫세	54-59절
9일	아비단	베냐민	60-65절
10일	아히에셀	단	66-71절
11일	바기엘	아셀	72-77절
12일	아히라	납달리	78-83절

7:84-89 예물의 총계가 84-88절에 나와 있다.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행해지는 모든 봉사를 잊지 않으신다. 그분은 주의 깊게 기록해 두신다. 예물 드리기를 마친 후에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마도 지도자들의 예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는 말씀을 들었다(89절). 모세는 비록 레위 지파에 속하긴 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경우는 예외로 두셔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명하기도 하셨다(출 25:21-22).

7) 성막의 봉사(8장)

8:1-4 아론은 등대 앞으로 빛이 비취도록 금촛대의 등잔을 정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만일 빛이 성령님의 증거를 상징하고 등대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성령님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기억나게 한다.

8:5-13 이어서 레위인의 성별이 묘사되어 있다. 그들은 먼저 민수기 19장에 설명된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 전신(全身)을 삭도로 밀고, 그리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그 몸을 정결케 했다(7절). 그런 다음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회막 문에서 레위인의 머리에 안수를 했으며, 그리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레위인을 요제처럼 드렸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2절을 생각나게 하는데, 그 말씀에 의하면 오늘날 신자들은 그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 모세는 이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8:14-22 하나님은 출애굽 후에 그분의 것으로 주장하신 장자 대신 레위인을 그분 자신에게 속하도록 택하셨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제사장을 섬기도록 임명되었다. 레위인의 성별은 명령대로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회막에 관계된 직무를 수행했다.

8:23-26 레위인은 25세에서 50세까지 봉사해야 했다(24절). 민수기 4장 3절에는 30세부터 일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이들은 이 4장의 구절이 광야에서 성막을 운반하는 자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 8장의 25세를, 회막이 약속의 땅에 세워진 후에 봉사할 수 있는 연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 어떤 이들은 이 5년의 연령차를, 일종의 도제(徒弟)기간으로 이해한다. 50세가 되어 은퇴한 레위인들은 더 이상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으나 일종의 감독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25-26절). 본문은 ‘일’과, 직무 내지 필요를 살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데, 전자는 힘든 일을 말하고 후자는 감독하는 일을 말한다.

어떤 이는, 레위인은 구속받고 정결케 되고 주님을 섬기도록 구별되고 세상에서 아무 기업도 없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8) 유월절, 구름, 은 나팔(9:1-10:10)

9:1-14 유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지시(1절)는 1장의 사건들보다 연대적으로 앞서 있다. 민수기의 모든 사건들이 다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은 아니다. 유월절은 첫째 달 제 14일에 지켜졌다. 사

체를 만짐으로 (아마 타의적으로) 의식적으로 부정해졌거나, 집을 떠나 여행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베풀어져 한 달 뒤, 즉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다(6-12절). 그러나 그 밖에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누구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졌다(13절). 타국인도 원하면 여호와와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되 유대인과 같은 조건에서 지켜야 했다(14절).

9:15-23 본문은 이후의 장들을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성막을 덮은 구름이 묘사되어 있는데, 낮에는 구름이 나타났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났다.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거두고 행진을 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무를 때는 백성들도 길을 멈추고 장막을 쳤다. 이 구름은 물론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다. 비록 여호와께서 오늘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여호와께서 움직이실 때 움직이고, 그 전에는 움직이지 말라. 왜냐하면 ‘가는 것에 대한 어두움은 머무는 것에 대한 빛’이기 때문이다.

10:1-10 모세는 은 나팔 둘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은 나팔의 용도는 이러했다. ① 회막 문 앞에 회중을 모은다(3,7절). ② 행진하라는 표시이다. ③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다. 이 때는 한 나팔만 사용되었다(4절). ④ 전쟁을 알리는 경보(警報)이다(9절). ⑤ 절기와 같은 특별한 날을 알린다(10절).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여러 가지 나팔소리가 사용되었다. 5절의 울려 부는 것은 행진의 표시였다. 회막 동편의 지파들이 먼저 출발

했다. 두 번째 올려 부는 것은 남쪽 지파들이 출발하라는 표시였다. 아마 서쪽과 북쪽 지파들도 그런 순으로 뒤따랐을 것이다. 나팔은 광야의 행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사용되었다(9절). “너희 땅”이란 표현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땅을 얻을 것이나, 그들의 불순종과 신실치 못함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일이 40년간 지체될 것이다.

2.

시내에서 모압 평지까지(10:11-22:1)

1) 시내광야를 떠남(10:11-36)

10:11 11절은 본서에서 분명한 구분점을 이루고 있다. 이 시점까지 백성들은 시내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11절에서 22장 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바로 맞은편인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다. 이 여행은 거의 40년 기간이 소요되었다. 백성들이 제20일까지 출발하지 못한 것은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였다(민 9:10,11).

10:12-13 여행의 두 번째 부분은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였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다베라, 기브롯 핫다아와, 하세롯 등 세 곳을 들렀다. 그들이 실제로 바란 광야에 도착한 것은 민수기 12장 16절의 시점이었다.

10:14-28 이어서 지파들의 행진 순서를 말하고 있다. 각 지파의 지도자가 맨 앞에 섰다. 이 순서는 한가지를 제외하고 2장과 동일하다. 즉 2장 17절에 보면 레위인이 갓과 에브라임 사이에 행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10장 17절에는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

은 스블론 다음에, 그리고 고탓 자손은 갓 다음에 행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아마도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고탓 자손이 성스런 기명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 미리 진을 칠 장소에 모든 준비를 갖추기 위해 그들의 장비를 가지고 먼저 떠났던 것 같다.

10:29-32 호باط은 모세의 처남이었다. 르우엘(이드로)은 호باط의 부친이자 모세의 장인이었다. 호باط은 미디안 사람인 관게로 광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런 까닭에 모세가 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게 했던 것 같다. “당신은…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많은 성경해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이 초청은 모세 편에서 믿음이 결여되었음을 드러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견해로, 쿠르츠는 이렇게 해석한다.

“구름 기둥이 전체적인 경로와, 진 칠 장소와, 그리고 각 진에서 머무는 기간을 결정해주었다. 그러나 물, 초장, 거처, 연료 등 모든 요소가 가장 잘 갖추어진 곳에 진을 치기 위해 인간의 지혜가 동원되어야 했다. 이 모든 요소들을 확보하는데 있어 광야에 대한 호باط의 경험과 지식이 구름의 인도하심을 보조하는데 극히 유용했을 것이다.”⁶⁾

10:33-34 언약궤는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으로 덮여 (민 4:5) 고탓 자손이 행렬 앞에서 운반했다. 시내에서 가데스바네 아까지의 여행은 3일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안식할 곳을 찾는 동안 영광의 구름이 그들 위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6) (10:29-32) John W. Haley, *Alleged Discrepancies of the Bible*, p. 431. 인용.

10:35-36 우리는 호박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갔는지 아는바가 없다. 하지만 사사기 1장 16절과 4장 11절에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언약궤가 아침에 떠날 때면 모세는 여호와께 승리를 구했다. 그리고 저녁에 언약궤가 쉴 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했다.

2) 진에서 일어난 반역(11장)

11:1-3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쉽게 원망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 불만에 대한 실마리는 1절의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불평자들은 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의 불이 진 끝을 ‘살랐으며’ 이에 그곳 이름을 ‘다베라’(불사름)라 불렀다. 흠정역과 신흠정역은 ‘불이 몇몇 불평자들을 불살랐다’고 옮겼다. 미국표준역(ASV)은 ‘불이 진 끝을 삼켰다’고만 표현했다. 어느 쪽이든, 그것은 무서운 전체적인 심판에 대한 인자한 경고였다.

11:4-9 두 번째 원망이 진 한 가운데서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섞여 사는 무리, 혹은 ‘잡족’이란 표현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일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는 근심의 원인이 되었다. 그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급되어 그들로 애굽의 식물을 그리워하고 만나를 멸시하게 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

석으로 시편 78편 17-33절을 보라.

“예수께서 하늘 만나로 먹이시는 영혼이
악한 행실로 그분을 근심케 하고
그분의 사랑을 거스려 죄를 범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그러나 더욱 기이하게도
그들이 싫어 버린 그분께서
그들의 거역하는 마음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 주시네.”

11:10-15 모세는 먼저, 그러한 백성을 홀로 돌아볼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관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런 다음 그렇게 큰 무리를 먹일 고기를 공급할 수 없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끝으로 그는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한 도피처로 죽음을 요구했다.

11:16-17 여호와와의 첫 번째 응답은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짐을 나누어질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최선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 명하신 것을 행할 만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므로, 모세는 그 책임이 감소함에 따라 신적인 능력도 감소했을 것이라는 것이다.⁷⁾ 일찍이 모세는 그 장인의 조언대로 민원(民願)을

7) (11:16,17) 모세의 변호 가운데 다음 요소들이 주목할 만하다.

(1)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지 않으셨다. (2)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격려하며 70명의 장로들이 그분의 신에 감동된 후에 그의 짐을 나눠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3)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의 필요에 응답하셨다. (4) 모세는 2백만명의 불평하고, 영적이지 못한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다. (5) 17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돌아볼 사람들을 세운바 있었다(출 18:25; 신 1:9-15). 아마 여기서 선택된 70명은 영적인 짐을 분담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 두 경우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11:18-23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많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백성들이 질릴 정도로 고기를 많이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한 달간 고기를 먹을 것이다. 모세는 그런 일이 있을지 의문을 품었으나,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적으로 고기를 공급하신 바 있었다(출 16:13). 모세는 그 일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했다. 우리는 상황이 짝 막혀버릴 때 주님께서 베푸신 지난 자비들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11:24-30 70인의 장로들이 공적으로 세워졌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을 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접적인 계시를 말한 것이다. 심지어 그들 중 진에 머물러 있던 두 사람도 예언을 했다. 여호수아는 그 기적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하고 그들을 제지하려 했다. 그러나 모세는 은혜로운 답변으로 너그러운 마음을 드러냈다(29절).

11:31-35 약속된 고기는 매추라기 때의 형태로 왔다. 31절은 매추라기가 지면에서 2규빗 높이로 날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지면에 2규빗 두께로 쌓였다는 뜻일 수도 있다. 후자도 불가능한 게 아닌

감동된 정도가 감소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70인에게 나눠주는 것을 가리킨다.

데, 다른 데로 이동하여 자취를 감춘 메추라기 때가 어떤 배에 몰려 들어 그 배를 가라앉게 했다는 얘기도 있다.⁸⁾ 백성들은 나아가 고기로 잔치를 벌렸으나 곧 많은 이들이 무서운 재앙을 당했다. 그곳을 이름하여 ‘기브룻하다바’(‘탐욕의 무덤’)라 불렀는데 이는 백성들의 욕심이 무덤을 가져왔기 때문이었다. 다음에 진을 친 곳은 하세롯이었다(35절).

3) 아론과 미디안의 반역(12장)

12:1-2 이스라엘 역사상 슬픈 사건을 담은 다음 장은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백성의 지도자와 관계된 것이다. 그들은 모세의 누이와 형이었지만, 모세가 구스(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보고 비난을 했다. 적어도 그것이 그들의 명분이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2절에 나오는 듯하다. 그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분개하여 그것을 공유하고자 했다. 즉 그들은 시기를 한 것이다. 이 때는 구스인과 결혼을 금하는 법이 없었다. 물론, 가나안에 가서는 유대인이 아닌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었다.

12:3 모세는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지도자의 위치에 두신 하나님을 의뢰했다. 그의 가족과(12장), 지도자들과(16장), 그리고 결국에는 온 회중이(16:41-42) 그의 권위를 비난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대적에게 임하자 모세는 만족스레 여기는 대신 그들을 위해 중재에 나섰다. 그는 실로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 유함이 승한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는 사

8) (11:31:35)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IV:2512, ‘메추라기’ 항목을 보라.

실이 그의 온유함을 무색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했음을 보여준다.⁹⁾

12:4-8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 문으로 부르사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고, 모세가 어떤 선지자도 누리지 못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위치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셨다. 하나님은 다른 이들과는 이상과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얘기하셨으나 모세에게는 직접, 얼굴과 얼굴로 얘기하셨다. (8절의 ‘명백히’는 ‘직접적으로’, 즉 ‘중개자 없이’를 뜻한다.) “여호와와의 형상”은 어떤 전시(展示) 혹은 가시적인 표현을 의미한다. 미리암도 여선지자였으나(출 15:20),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모세와의 관계를,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분명히 구분지으셨다.

이 사건 후에 미리암에 관해 기록된 유일한 기사는 그녀의 죽음에 관한 기사뿐이다(민 20:1).

12:9-10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곳을 떠나셨다. 미리암은 반역에 대한 징벌로 문둥병이 들었다. 아론이 징벌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어떤 이들은 미리암이 주범(主犯)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1절의 동사가 여성단수형이란 점을 지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아론의 징벌은 그 누이가 문둥병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으며, 그가 문둥병에 걸리면 백성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아마 그의 그러한 지위가 미리암이 겪은 비천함에서 그를 건져낸 것 같다.

9) (12:3) 영감 받은 편집자(여호수아와 같은)가 후에 이 말을 첨가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12:11-16 아론은 모세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구했다.¹⁰⁾ 모세의 중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주시되, 그녀가 문둥병자의 정결을 위한 7일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명하셨다. 그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부정하여 진 밖에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깨우셨다.

4) 약속의 땅에 대한 정탐(13-14장)

13:1-20 본장에 의하면 정탐꾼의 파송이 여호와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명기 1장 19-22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그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없이, 비록 그들의 태도가 불신앙적인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렇게 지시하신 것이었다. 12명의 정탐꾼의 이름이 4-15절에 나와 있다. 특히 갈렙(6절)과 호세아(8절)을 주목하라. 모세는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다(16절). 모세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그 땅과 그 거민에 관한 완전한 보고를 가져오라고 요구했다(17-20절). 그들은 먼저 남쪽 네게브 지역으로 내려간 다음 그 땅 중앙의 산지로 올라갔다.

13:21-29 정탐꾼들은 남쪽의 신평야로부터 북쪽의 르홉까지 온 땅을 살폈다(21절). 22-24절은 남쪽에 대한 정탐활동을 묘사한다. 헤브론에서 그들은 거인인 아낙의 세 아들을 보았다(신 2:10-11). 그들은 헤브론 부근에서 포도원 골짜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꺾어 두 사람이 막대기로 메고는 석류와 무

10) (12:11-16) Keil and Delitzsch, “Numbers.” III:81.



‘스탐’ 혹은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된 ‘아라바’ 지역. 아라바는 요단 계곡 남단에 주어진 이름이다. 이러한 지반의 침하(沈下)가 사해에서 아카바만(灣)까지 160km 이상 펼쳐있다.

화과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송이’를 뜻하는 에스골 골짜기로 불리었다. 정탐꾼들은 대체로 땅은 아름답지만 거민은 위험하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과연 그 거민을 정복할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했다(그들을 쫓아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13:30-32 네피림에 대한 언급(33절)은 그 거인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은 네피림이 홍수 전에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이에 가나안 거인들을 그들과 동일시한 것이다. 갈렙은(여호수아의 의견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현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그것을 완강히 부인

했다.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란 표현은 현재의 거민이 그곳에 정착하려하는 모든 이들을 멸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13:33 10명의 정탐꾼은 관점이 그릇되었다. 그들은 가나안 거민이 그들을 보듯(‘베뚜기 같으니’) 바라보았다. 여호수아와 갈렘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는 능히 그 땅을 정복하리라고 했다. 10명의 믿지 않는 정탐꾼들에게는 ‘거인’이란 문제가 극복 불가능해 보였으나, 두 믿는 정탐꾼들에게는 거인의 존재는 하찮은 것이었다.

14:1-10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퍼부으며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에서 죽게 했다고 여호와를 탓하며 자기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할 새로운 인도자를 세우고 했다(1-3절). 여호수아와 갈렘이 대적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키려 하자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 했다(6-10절).

3-4절은 불신앙의 우둔함을 생생히 보여준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의 하나님에 의해 황폐해진 땅으로 돌아가자! 그 장자의 죽음으로 아직도 슬픔에 잠긴 땅으로 돌아가자! 그 출애굽 전야(前夜)에 보물을 받아 취하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군대가 그들을 뒤쫓다 수장되고만 홍해를 건너 돌아가자!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과연 반겨 맞겠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보다 그것이 더 안전하게 보였다. 일찍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고 바다를 가르고 그들을 하늘양식으로 먹이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얼마 안 되는 거

인을 능히 물리칠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의심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그 거인들의 상대가 되실까? 그들은 지난 한 해 동안 그들에게 그토록 분명하게 계시된 것, 즉 여호와의 성품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한 낮은 개념은 한 사람 혹은 전체 민족을, 여기에 가슴 아프게 예시된 대로 파탄에 빠지게 할 수 있다.

14:11-19 여호와께서는 유대민족을 버리고 모세의 후손을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경고하셨다(11-12절). 그러나 모세가 중재에 나서, 그렇게 되면 이방 민족들이 여호와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끌 능력이 없다고 비방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 아뢰었다(13-19절). 하나님의 영예가 달린 문제였으며, 모세는 바로 그 문제에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출애굽기 34장 6-7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모세는 여기 18절에서 그러한 여호와 자신의 계시를 그의 기도의 근거로 거의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백성들의 그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의 계시에 기초했으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인간적인 상상에 기초했다.

14:20-35 하나님은 비록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답하셨으나, 애굽에서 나온,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민 26:64-65; 신 2:14). 믿지 않는 세대가 죽을 때까지 40년간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들의 패역한 죄를 짊어

져야 했다(33절). 그러나 자녀들은 40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될 것이다. 40년을 정한 것은 정탐꾼들이 그 땅을 40일에 걸쳐 탐지했기 때문이었다(34절). 여기서 말하는 40년은 대략적인 수치이다. 실제로는 약 38년이 소요되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이 걸렸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신 선(善)을 거절했으며, 이에 그들은 그 대신 택한 악(惡)을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그들이 영원히 잃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생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통치적인 징벌을 당했으나,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어떤 경로를 밟았는지는 모호한 점이 많다. 또한 각 단계마다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불확실하다.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37년 이상 가데스에 머물다가 1년간은 아카바만으로 알려진 홍해 남쪽을 여행했다고 믿고 있다. 시내에서 모압 평지 사이의 많은 지명들은 더 이상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21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서의 그분의 영광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했다(22절). 그 시험은 이렇었다. 홍해에서(출 14:11-12), 마라에서(출 15:23), 신광야에서(출 16:2), 만나에 관한 두 번의 거역(출 16:20,27), 르비딤에서(출 17:1), 호렘에서(출 32:7), 다베라에서(민 11:1), 기브롯하타바에서(민 11:4), 가데스에서(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 원망함; 민 14장).

애굽에서 나온 전쟁에 나갈만한 603,550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그 땅에 들어갔다(29-30절; 신 2:14).

14:36-38 그 땅에 대해 악평을 한 10명의 믿지 않는 정탐꾼들은 재앙으로 죽임을 당했으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재앙을 면했다.

14:39-45 그들에게 선언된 운명을 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겠다고(아마도 가데스바네아에서 직접 북쪽으로) 모세에게 말했다(40절). 그러나 모세는 이미 늦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패배할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들은 모세의 충고를 무시하고 산꼭대기로 올라갔다가 그 땅의 거민들에게 공격을 받아 쫓겨났다(45절).

5) 여러 가지 규례(15장)

15:1-2 우리는 14장과 15장 사이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둘 사이의 현저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14:23). “너희가...땅에 들어가서”(15: 2). 비록 죄로 말미암아 때때로 방해는 받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의 후손 중 한 세대가 신실치 못해 그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15:3-29 본장의 1-29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 정착할 때 가져와야 할 제물을 묘사하고 있다. 그 제물 중 대부분은 이미 자세히 묘사된바 있었다. 여기서는 회중이나(22-26절) 혹 개인이(27-29절) 부지중에 범한 죄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24절은 회중을 위한 두 제물(소와 염소)을 언급한다. 그러나 레위기 4장은 회중이 황소만

가져오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레위기 4장은 지도자가 범죄하면 염소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다. 아마도 여기 민수기의 해설은 그 두 제물을 함께 언급하는 한편, 레위기에서는 구분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20-21절에서 우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를…여호와께”라는 성경에 자주 반복된 명령을 볼 수 있다. 처음 난 자든 처음 익은 곡식이든 여호와께서 모든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취하셔야 했다. 이것은 또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왔으며 궁극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데 기여했다.

15:30-36 짐짓 무엇을 행하는 죄, 즉 여호와와의 말씀에 의도적이고 반발적으로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는 아무 제사도 없었다. 그런 죄를 범하는 모든 이는 끊어짐을 당해야 했다(30-31절). 그런 죄의 한 예가 32-36절에 나와 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명백히 범하여 안식일에 나무를 쥘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알려졌으나(출 31:15) 그러나 처형방법은 언급된바 없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가 진 바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선포하셨다.

15:37-41 유대인들은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청색은 하늘색인데, 그 색은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거룩과 순종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6) 고라의 반역(16,17장)

16:1-3 고라는 아론의 사촌으로(출 6:18-21) 레위인이었으나 제사장은 아니었다. 그는 아론의 가족이 제사장직을 독점하는 사실에 분개했던 것 같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르우벤 지파 출신인데 그들은 모세가 그들 위에 지도자로 있는데 대해 분개했다. 온은 1절 이후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가 다른 이들과 같은 운명을 맞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250명의 족장(이스라엘의 지도자)이 제사장권과 민사권(民事權)에 대한 반역에 가담했다(2절). 그들은 모든 백성이 다 거룩하며 제사 드리는 일에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3절).

16:4-11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세는 고라와 그 일당에게 다음 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명령했다(6-7절). 향을 태우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 만일 하나님이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치 않으시면 그분의 불쾌감을 보이실 것이다.

16:12-15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의 장막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비난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전 약속을 거론하며(출 3:8),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애굽)에서 그들을 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는’ 땅(광야)에 이르게 했다고 비아냥거렸다.

14절의 의미는, 모세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데 실패하게 되자 자신의 실패 내지 속뜻을 보지 못하게 백성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들이 흔히 하듯이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호와께 상기시켰다.

16:16-22 다음날, 고라와 아론과 250명의 반역자들이 향을 들고

회막 앞에 나왔다. 또한 이스라엘 회중이 아마도 고라와 같은 마음으로 모였다. 그 때 여호와와 영광이 온 회중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무리를 멸하기 전에 회중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의 중재로 심판이 집행되지 않았다.

16:23-35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거하는 장막으로 장면이 전환된다(24절). 모세는 나머지 사람들에게 그 장막에서 멀리 떠나라고 경고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만일 이들이 자연적으로 죽거나 혹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운명을 맞으면 모세 자신이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땅으로 그들을 삼키게 하시면 그 때는 이들이 반역의 죄가 있음을 백성들이 알게 될 것이다(30절). 그의 말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그들의 반역에 분명 가담했을 그들의 가족을 다 삼켜버렸다(32-33절). 고라가 언제 죽었는지는 제법 의문스럽다. 어떤 이들은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땅 속에 삼키었다고 믿는다(32-33절). 또 어떤 이들은 250명의 반역자들을 죽인 불에 의해 죽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35절). 민수기 26장 10절로 보아, 그는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삼키운 것으로 보인다. 같은 장 11절은 그의 아들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의 다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 고라의 후손이었다(대상 6:22-23,28). 30절에서 ‘음부’(히브리어로 ‘스울’)는 무덤을 뜻하지만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죄들을 즉각 심판하심으로 그 죄에 대한 자신의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내 보이셨다. 예를 들어 그분은 소돔

과 고모라를 심판하셨고(창 19:24,25), 나답과 아비후(레 10:1,2), 미리암(민 12:10),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250명의 족장들(본장), 아나니아와 삽비라(행 5:5,10) 등을 심판하셨다. 분명히 그분은 죄를 범할 때마다 즉각 벌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장래 세대에 경고하는 뜻에서 그분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32절)은 그의 시종과 추종자들을 의미할 것이다.

16:36-40 죄인들에 의해 사용된 거룩한 향로는 제단을 싸는 편철로 바뀌었다. 이 편철은 아론의 가족만이 제사장의 특권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향로의 불은 널리 흩어버렸다.

16:41-50 이 엄숙한 사건이 있던 다음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고 비난했다. 이에 여호와께서 분노 중에 그들을 멸하겠다고 하셨으나 그러나 모세와 아론이 분명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기 위해 회막 앞으로 나아갔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무서운 재앙으로 백성들에게 내리셨다. 아론이 서둘러 향을 가지고 회중 한 가운데로 뛰어들어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한 후에서야 비로소 재앙이 멈추었다. 그러나 그 때에 이미 14,700명이 죽고 말았다. 앞서 족장들이 회중과 한가지로 아론의 제사장권에 도전을 했었다. 이제 그 재앙을 멈추게 한 것이 그 아론의 제사장적인 중재였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와 백성을 죽인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한 자들이었다!

17:1-9 제사장직은 아론의 가족에게만 주어진 것임을 백성들에

게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밤새 회막 안에 두라고 지시하셨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이 새겨졌다. 제사장이 되는 권리는 싹이 난 지팡이에 속했다. 아침이 되어 지팡이들을 살펴보니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이 피어 살구열매가 열렸다.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살구나무가 봄철에 처음 꽃을 피우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고전 15:20,23). 성소에 있는 금촛대는 ‘꽃받침과 꽃이 달린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졌다(출 25:33-34). 촛대를 매일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다. 아론의 지팡이는 모양과 열매가 촛대와 일치했으며 이는 아론의 권속이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음을 말해주었다.

17:10-13 이제 후로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을 금하는 증표로 언약궤 안에 보존되어야 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회막에 접근하기를 두려워했다.

7) 레위인에 대한 지침(18-19장)

18:1-7 18장은 앞 장 마지막 두 구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백성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회막 봉사에 관한 지시를 되풀이하셨다. 만일 이 지시에 순종하면 그분의 진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절은 두 부분으로 나뉘진다. “너의 네 아들과 네 종족”은 제사장을 포함한 모든 레위인을 가리킨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사장만을 가리킨다. 전자는 성소와 관계된 죄를 담

당했고, 후자는 그들의 제사장직과 관계된 죄를 담당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성스런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부주의 내지 실패에 대해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조력자였으나 제사장 직분을 위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했다.

18:8-20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예물 중 일정분을 보상으로 받았다(8-11절). 그들은 또한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과 열매와(12-13절), 여호와께 바친 것들과(14절), 그리고 생물의 초태생에 대해서도 권리가 있었다. 처음 난 아들들과 부정한 짐승들의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대신 속전을 받았다. 제사용 짐승의 경우에는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의 분깃을 받았다(17-19절). ‘소금 언약’(19절)은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을 의미한다. 제사장들은 아무 땅의 기업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특별한 분깃이요 기업이시기 때문이었다(20절).

18:21-32 레위인은 백성들에게서 십분의 일을 받았고 그 받은 것 중에서 십분의 일을 제사장들에게 줄 책임이 있었다. 이 십분의 일은 여호와께 거제로 드렸다.

19:1-10 19장은 구약에서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인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하는 의식을 다루고 있다. 이 제사는 특히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생긴 부정함을 제거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방금 가데스에서 여호와께 반역을 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로 보내져

죽게 되었다. 60만 이상의 사람들이 38년간 죽게 될 것이다. 이는 하루에 40명 이상이 죽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여행 중에 어떻게 시체를 만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 암송아지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어 거기서 잡았다(3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해 일곱 번 뿌린 다음, 그 암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것을,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불살랐다. 이 동일한 재료들이 문둥병자를 정결케 할 때 사용되었다(레 14:4,6). 제사장과,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했다. 그런 다음 정(淨)한 사람이 주의 깊게 재를 거두어 진 바깥에 쌓아두어 이후에 사용토록 했다(9절). 그리고 그는 저녁까지 부정했다.

19:11-19 본문은 그 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말해준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지거나 사람이 죽은 장막에 있음으로 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해졌으면, 정한 사람이 재를 취하여 흐르는 물에 섞었다. 그 정한 사람은 제3일과 제7일에 우슬초로 그 물을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에 뿌렸다. 제7일에 부정한 사람은 의복을 빨고 몸을 씻었으며 그 날 저녁에 정하게 되었다(19절).

윌리엄스는 이 붉은 암송아지가, 외적으로 흠이 없고 내적으로 점이 없으며, 죄에 조금도 매이지 않고, 인성(人性)이라는 붉은 흠으로 옷 입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고 해설한다.¹¹⁾ 그러나 우리는 너무 상징을 강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사용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 민수기 31장에 나오는데 맨틀은 그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1) (19:11-19) Williams, *Student's Commentary*, p. 88.

“...이 재는 속죄제물의 중요한 부위를 모아놓은 것으로 간주되었 으며, 항상, 비교적인 적은 수고와 시간손실이 없이 손쉽게 취할 수가 있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만 수세기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 유대인 전체 역사 동안 여섯 마리만 필요했다고 전한다. 이는 극소량의 재를 가지고도 깨끗한 샘물에 섞어 정결케 하는 효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¹²⁾

히브리서 기자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가 더 이상 사람을 외적이고 의식적인 부정함에서 분리되게 할 수 없었던데 비해,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내적으로 정결케 하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논증한다(히 9:13,14). 어느 익명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다.

“붉은 암송아지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죽음과 필연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접촉에 대응한 하나님의 대비책이다. 그것은 아마도 메시아와 관련한 이스라엘의 피 흘린 죄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듯 하다. 그것은 속건제물과 흡사하지만 그 제물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물, 혹은 흐르는 물로(레 15:13) 씻는 것에 관한 구약의 규례들은 오늘날 전염을 막는 의료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9:20-22 ‘정결케 하는 물’을 사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징벌을 당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물을 만지거나 뿌린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자와 접촉한 자도 그 날의 남은 시간 동안 부정하다고 선언하셨다.

12) (19:11-19) J. G. Mantle, *Better Things*, p. 109.

8) 모세의 죄(20:1-13)

20:1 본장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지 38년 만이다. 백성들은 38년간 방황을 했으며 이제 신광야의 가데스, 곧 그들이 정탐꾼을 보낸 바로 그곳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38년 전보다 조금도 약속의 땅에 가까워지지 않았다! 여기서 미리암이 죽어 장사되었다. 19장과 20장 사이의 낭비된 세월 동안 60만의 백성이 죽었다. 불신앙의 쓰라린 열매를 한 세대 동안 침묵 속에 거둔 것이다.

20:2-9 물이 부족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사람들은 새로운 세대였으며, 그들은 그들의 선조처럼 행동했다(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반석에게 명하면 물을 낼 것이라고 하셨다. 모세는 성막에 보존되던 아론의 지팡이를 취해야 했다(9절; 17:10)(11절에는 ‘그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다). 아론의 지팡이는 제사장권의 지팡이였으나, 모세의 지팡이는 심판과 능력의 지팡이였다.

20:10-13 전에 맛사(므리바)라 불리운 곳에서 백성들은 물 때문에 불평한 적이 있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다(출 17:1-17). 그러나 이제 모세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다. 먼저 그는 백성들을 가리켜 그 입술로 경솔하게도 “패역한 너희”라고 불렀다(10절). 둘째로, 그는 반석에게 명하는 대신 두 번 그것을 쳤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친 반석은 갈보리에서 맞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한번 침을 당하셔야 했다. 그분의 죽음 후에 성령님이 보내졌는데, 11절의

물은 그 성령님을 상징한다. 이 문제에서 모세와 아론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곳은 프리바라 불리었는데 출애굽기 17장의 그 프리바가 아니다. 이곳은 때때로 프리바-가데스로 알려졌는데, G. 캠벨 물건은 이렇게 해설한다.

“앞서 말했듯이 매우 자연적인 반응이었던바 그렇게 분노를 표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릇 나타내고 말았다. 그의 실패는, 그 순간 그의 믿음이 최고 수준으로 행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에 연유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의 목전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지 못했다. 이 교훈은 실로 의미심장하다. 올바른 일이 잘못된 방법으로 행해져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다음과 같은 식귀는 우리가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주님, 내가 당신의 음성을 그대로 되살릴 수 있도록 내게 생생하게 말씀하소서.’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훨씬 초월한 소원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어조로, 그분의 마음상태로 전하게 해달라는 간구이다. 거기서 모세가 실패를 했으며, 그 실패로 인해 그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¹³⁾

9) 아론의 죽음(20:14-29)

20:14-21 그 땅에 들어가는 계획은 광야에서 직접 북쪽으로 들

13) (20:10-13) G. Campbell Morgan, *Searchlights from the Word*, pp. 47-48.

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에돔족의 영토를 통과한 다음 사해 동편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런 다음 요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나 에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통행을 거절했다. 에돔 땅의 소산을 먹거나 마시거나 아무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사울 치하에서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족과 싸워 이겼다.

20:22-29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에돔 변방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위치를 대신했다(22-29절). 매튜 헨리는 이렇게 해설했다.

“아론은 비록 자신의 죄 때문에 죽긴 했지만, 역병이나 하늘로부터 온 불 따위의 악재(惡材)로 죽지 않고 편안하게, 영예롭게 죽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 죽은 자들에 대해 흔히 표현된 대로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팔 안에 죽은 자처럼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이다. …그 손으로 처음 아론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혔던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서 그 옷을 벗겼다. 제사장직의 존엄성을 생각할 때, 아론이 그 옷을 입은 채로 죽는 것은 합당치 않았기 때문이다.”¹⁴⁾

10) 늦밤(21:1-22:1)

21:1-3 아랏의 왕은 약속의 땅 남부에 거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진을 쳤으며 이제 곧 가나안을 침략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나 호르마라 불리는 곳에서 패배했

14) (20:22-29) Matthew Henry, “Number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I:662.

다(1-3절).

21:4-9 ‘홍해’(4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건넌던 만(灣)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바만으로 알려진 해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홍해 길’은 경로의 이름으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때 아카바만으로 갔을 리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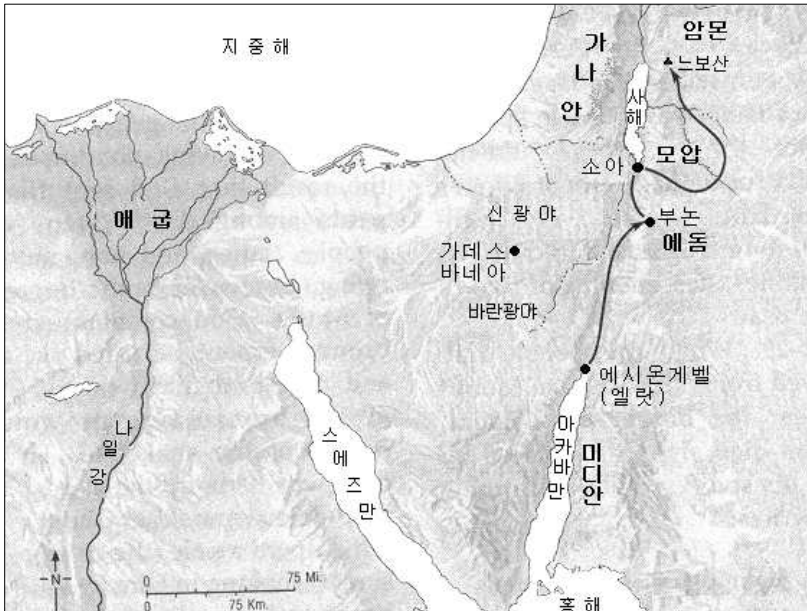
다시 한 번 백성들은 생활조건 때문에 원망을 했으며,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불뱀을 보내셨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더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모세의 중재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늦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명하시고는 누구든지 늦뱀을 쳐다보는 자는 낮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사건은 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장대(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인용하셨다(요 3:1-16).

이 늦뱀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었으며 결국 히스기야 때에 폐기되었다(왕하 18:4).

21:10-20 이스라엘 자손이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여행한 경로는 더 이상 정확히 추적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머문 곳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2장 1절까지 열거되어 있다. ‘여호와와의 전쟁기’(14절)는 아마 이스라엘의 고대 전쟁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다. 브엘에서(16-18절) 족장들이 메마른 사막에서 지팡이로 땅을 파자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내주셨다.

21:21-26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의 땅에 이르자 아모리인들은 통과를 허락하지 않았다. 아모리 왕 시혼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으나 보기 좋게 지고 말았다. 이 아모리 왕은 이전의 바로처럼 여호와에 의해 마음이 강박해져 그와 그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다(신 2:30). ‘아모리인의 죄악’(창 15:16)이 관영했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여호와와의 심판 집행의 도구가 되었다.

21:27-30 27절부터 30절까지의 교훈적인 노래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보인다. 헤스본은 최근에 아모리인이 모압인에게서 포로로 취하였다. 이제 헤스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했다. 만일 이 모압의 성읍을 정복한 자들이 정복당했다면, 그렇다면 모압은 삼류



▲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국가임에 틀림없다. 또한 이 시(詩)가 인용된 것은 그 땅이 아모리 왕 시혼의 소유가 되어 더 이상 모압인의 영토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함이기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모압의 땅을 취하는 것이 일절 금지되었기 때문이다(신 2:9).

21:31-22:1 이스라엘 백성의 정확한 여정은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호르산 동편으로 이동하여, 에돔 서편 경계 외곽 북쪽으로 올라가 세렛강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렛강을 따라 동쪽으로 에돔과 모압 사이로 이동하여 북쪽 모압 동편 경계를 따라 올라가 아르논에 이른 다음 서쪽으로 왕의 도로(King's Highway)에 이르렀다. 그들은 아모리 왕 시혼을 물리친 다음 계속 북진하여 바산왕 옥을 물리쳤다. 바산은 요단 동편의 풍부한 목초지로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지점 북쪽에 위치했다. 바산을 물리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평지로 돌아와 여리고 맞은 편에 진을 쳤다(1절). 이 평원은 아모리인이 모압에게서 취한 것이나(민 21:26) 모압이란 이름이 붙어있다.

3.

모압 평지에서 일어난 사건들(22:2-36:13)

1) 선지자 발람(22:2-25:18)

(1) 발람에 의한 발람의 소환(召喚)(22:2-40)

22:2-14 모압인은 아모리인이 정복당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다(그럴 필요가 없었다-신명기 2장 9절을 보라).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다. 발람은 이방 선지자였지만 참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다. 여호와와께서는 그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분리와 칭의와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에 관한 그분의 마음을 드러내셨다. 발람으로 저주하게 한 첫 번째 시도가 7-14절에 나와 있다. 발락의 사신들이 ‘복술’의 예물, 즉 그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보상으로 줄 예물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축복한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고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발락은 ‘낭비자’를 뜻한다. 발람은 ‘백성들을 삼키는 자’ 혹은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자’를 뜻한다.

22:15-21 이어서 발람의 두 번째 시도가 기록되어 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나 아마 그 뜻이 변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갔다. 여호와께서는 발락의 사람들과 함께 가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는 것만 행하라고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발람이 간 이유는 베드로후서 2장 15-16절에 분명히 지적되어 있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한 때문에 간 것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돈을 위해 팔아버리는 ‘삯꾼 선지자’를 상징한다.

22:22-27 ‘여호와와의 사자’(22절)는 육신을 입기 이전 모습의 그리스도였다. 그는 발람의 동기를 안 까닭에 세 차례에 걸쳐 발람과 그의 나귀 앞에 서서 길을 막았다. 첫 번째는 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밭으로 길을 돌렸다. 이 때는 이 가련한 짐승이 발람에게 매를 맞았다. 두 번째는 여호와와의 사자가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가로막아 섰다. 깜짝 놀란 나귀는 발람의 발을 담에 비비게 했고 다시 매를 맞았다. 세 번째는 여호와와의 사자가 좁은 통로에서 정면으로 맞섰다. 당황한 나귀는 땅에 엎드렸고 또 한 번 발람에게 맞았다. 완고함의 상징인 나귀조차도 그만둘 때를 알았으나, 고집 세고 완강한 이 선지자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22:28-40 나귀는 발람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그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꾸짖었다(28-30절). 그 때 발람은 여호와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선 것을 보았고, 또 그에게서 불순종한 발람을 제지하는 임무를 띠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31-35절). 여호와와의 사자는 이어서 발람에게 가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만 말하라고 일렀다(35절). 발락은 발람을 만나자 그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2) 발람의 신탁(神託)(22:41-24:25)

22:41-23:12 다음날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장막을 둘러볼 수 있는 높은 산(비스가산)에 올라갔다. 이후에 이 산에서 모세는 약속된 땅을 바라만 보다가 죽을 것이다(신 34:1,5). 본장과 다음 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발람의 기념할 만한 네 차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앞의 세 번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을 번제로 드린 뒤에 증거되었다. 첫 번째 신탁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백성을 발람이 저주할 능력이 없음을 표현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분리된 삶을 살 것과 또 후손이 무수히 많을 것을 예언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그 궁극적인 모습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의로운 나라로 묘사했다(7-10절). 이러한 축복에 대한 발락의 반발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발람은 여호와와의 말씀만을 전해야 했다.

23:13-15 발락은 이어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좋지 않은 관점으로 바라다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적절한 지점으로 그를 데리고 갔다(13-14절).

23:16-26 두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람에게 확신시켰다(18-20절). 21절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닌 신분을 묘사해준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오늘날 신자들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완전함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는 까닭에 크게 외칠 수가 있었다

(21절). 그들에 대한 어떤 악한 비난도 유효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곧 거둘 승리로 인해 ‘오, 하나님의 행사가 놀랍도다!’라고 그들은 외칠 것이다(22-24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거절하므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지도 말라고 명했으나(25절), 그러나 발람은 자신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23:27-30 세 번째로 발람은 이번에는 브올산 꼭대기에서 발람에게서 저주를 토해내려고 했다.

24:1-2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작정하신 것을 깨닫고 저주의 메시지를 끌어내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내려다보았고 그 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초월한 것을 말하게 되었다.

24:3-9 세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장막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그 놀라운 결실과 광대한 번성과 영광스런 나라와 모든 대적에 대한 막강한 힘을 예언했다. 아각(7절)은 아말렉인에게 혼한 이름이었던 것 같다. 아무도 이 웅크린 사자를 일으킬 수 없을 것이다(9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는 저주를 가져올 것이다. 여기에 나온 발람의 예언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다음 언약을 상기시킨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창 12:3).

24:10-14 이제 완전히 좌절된 끝에 발람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

은데 대해 발람을 꾸짖었다. 그러나 선지자 발람은 자기는 여호와
의 말씀을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처음부터 밝혔다는 것을 발람에
게 상기시켰다. 발람을 떠나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발람은
이스라엘이 장차 모압 백성들에게 행할 일을 발람 왕에게 말해주겠
다고 제안했다.

24:15-19 네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 중에 일어나 모압과 ‘소동하
는 자식들’을 다 멸할 한 왕(‘별’ 혹은 ‘홀’)에 관한 것이다(17절; 렘
48:45). 예도모 이 통치자에게 굴복할 것이다. 이 예언은 다윗왕에
의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완전한 성취
를 볼 것이다.

24:20-25 발람은 아말렉인, 겐족속, 앗수르, 에벨 사람 등의 운
명에 관해서도 비슷한 예언들을 했다(20-24절). 아말렉인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겐족속은 앗수르가 마침내 그들을 포로로 취할 때
까지 점차로 수가 줄어들 것이다. 앗수르인도 고레스(히브리어로 ‘깃딤’,
일반적으로 ‘고레스’란 뜻이나, 여기서는 헬라와 알렉산더 대제의 세력을 가리키는 듯하
다)의 군대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에벨은 홍수 이후의 족장의 후손
(비유대인)을 의미하는 듯하다.

발람은 발람을 떠나기 전에 25장의 비극적인 사건들의 발판을 마
련해 놓았다.

(3) 발람에 의한 이스라엘의 타락(25장)

25:1-3 비록 발람의 이름이 본장에 나오지는 않지만, 민수기 31
장 16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여기 묘사된 이스라엘 자손의 무서운

타락상에 책임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발락이 내건 모든 예물이 발람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인하지는 못했지만, 마침내 그 예물은 발람을 설득시켜, 모압 여인과 더불어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종종 사단은 직접적인 공격으로 실패하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곤 한다.

발람의 본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때까지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경건한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동경하는 자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수기 31장 16절과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불의의 삶을 사랑한 사악한 배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발람은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행음하게” 하도록 가르쳐준 것이다(계 2:14). 그의 조언은 효과가 있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의 신전에서 가증한 우상숭배를 벌이고 말았다.

25:4-8 하나님은 모든 범죄한 지도자들을 태양을 향하여 목메어 달라고 명하셨다. 그 선고가 채 집행되기도 전에 시므온 지파의 한 두령이 미디안 여인을 이스라엘 진으로 데려와 그의 장막에 들였다(14절). 이에 대제사장(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찢어 죽였다. 사무엘 리도우트는 이렇게 해설한다.

“‘낮의 입’ 비느하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된 자에 합당했으며, 죄에 대한 그의 가차 없는 심판으로 인해 그 자신과 그의 가족에게 영구한 제사장직을 안겨주었다.”¹⁵⁾

15) (25:4-8) Samuel Ridout, 더 이상은 자료는 구할 수 없다.

25:8-13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에 엄병을 보내어 징계기간 동안 모두 24,000명의 범죄자를 죽이셨다(하루에 23,000명-고전 10:8). 비느하스의 영웅적인 행동이 그 엄병을 멈추게 했다. 비느하스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투기하였으므로, 영원한 제사장직이 비느하스의 가문에 계속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다.

25:14-15 시므리가 그의 지파에서 뛰어난 지위에 있었고 또 그 여인이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이 그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는 것을 막을 만도 했으나, 그러나 그 사실이 비느하스를 막지 못했다. 그는 여호와를 위해 투기했다.

25:16-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족속(이 때에 모압인과 섞여있던)과 싸우라고 명하셨다. 이 명령은 31장에서 실행되었다.

2) 두 번째 인구조사(26장)

26:1-51 다시 한 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그 거민과 싸워 기업을 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에서 보듯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 비해 1,820명이 줄었다.

지 파	인구(1장)	인구(26장)
르우벤(5-11절)	46,500	43,730
시므온(12-14절)	59,300	22,200
갓(15-18절)	45,650	40,500

유다(19-22절)	74,600	76,500
잇사갈(23-25절)	54,400	64,300
스블론(26-27절)	57,400	60,500
요셉(28-37절)		
-므낫세(34절)	32,200	52,700
-에브라임(37절)	40,500	32,500
베냐민(38-41절)	35,400	45,600
단(42,43절)	62,700	64,400
아셀(44-47절)	41,500	53,400
납달리(48-51절)	53,400	45,400
계	603,550	601,730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603,550명에서 601,730으로 감소된데 대해서 무디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성장이 40년간 중단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로서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¹⁶⁾

가장 두드러진 감소는 거의 37,000명이나 줄어든 시므온 지파에서 볼 수 있다. 시므온 지파는 앞장의 브올 사건에 중심으로 관련 되었으며(시므리는 그 지파의 한 족장이었다) 아마 죽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였던 것 같다. 11절은 고라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와 함께 죽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26:52-56 그 땅은 각 지파의 수효대로 분배되되 제비를 뽑아

16) (26:1-51) Moody, *Notes*, p. 43.

분배되어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지파의 영토 규모는 지파의 수효에 의해 결정되었으나 그 땅의 위치는 제비로 결정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다.

26:57-65 레위인은 별도로, 23,000명으로 계수되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인구조사에 모두 포함되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다른 모든 전사들은 이제까지 광야에서 멸절하고 말았다. 64,65절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레위인과 여자들은 제외되었는데, 물론 그들 중 일부는 38년간의 여정 중에 죽었다.

3) 딸들에 대한 기업 상속권(27:1-11)

27:1-11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가나안에서 기업을 나눌 계수된 남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26:53) 기업분배에서 분깃을 취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의 아버지가 이미 죽었지만, 범죄한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 여호와께 서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의 분깃을 취해야 한다고 답하셨다. 일반적으로, 땅은 아들, 딸, 형제, 사촌, 그밖에 근친 등의 순으로 물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땅은 영원히 한 가족에 속하게 되었다(1-11절).

4)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27:12-23)

27:12-14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신

뒤에 그에게 아바림산(사해 동편의 산지)으로 올라가라고 지시하셨다. 모세가 죽은 느보산은 이 산지에 속한 산이었다.

27:15-23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 후계자에 대해 사심 없이 생각했으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의 자리에 지명되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과 이후의 왕권은 일반적으로 같은 권속 안에서 대대로 물려졌다. 하지만 모세의 계승자는 그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시종이었다(출 24:13).

5) 제사와 서원(28-30장)

28-29장 이 두 장을 통해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지켜야 할 제사와 절기들을 기억하게 되었다.

상번제 : 아침저녁으로 소제와 전제를 포함해서 번제를 드려야 했다(28:3-8). 성전이 서 있는 한, 평생에 걸쳐 매일 아침과 저녁에 다음 제물을 가져와야 했다(민 28:3-8).

매일 아침저녁에 흠 없는 1년 된 어린 수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것과 더불어 고운 가루 에바 십분의 일에 순전한 기름 힉 사분의 일을 섞어 만든 소제를 드렸다. 또한 독주 힉 사분의 일이 담긴 전제도 드렸다.

아침에 이 제물들을 드리기 전과 저녁에 그것들을 드린 후에는 향기로운 제사가 드려졌다.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진 후로, 그리고 그 성전이 존속하는 한, 이러한 관례의 제사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제사장들에게는 단조롭고 고된 일과였다. 모팻은 그들을 가리켜, 날이 겹 때, 날이 썰 때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린 ‘보기에 안쓰러운

레위인들'이라고 했다. 그 과정은 끝이 없었으며, 모든 말과 행동이 끝날 때에도 여전히 그것은 사람들로 그들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일깨워주었다.

주간제 : 매 안식일에 소제와 전제와 함께 주간 번제를 드렸다(28: 9,10).

월간제 : 매월 첫날에 소제와 전제와 함께 번제와(28:11-14) 속죄제(28:15)를 드렸다.

여호와와의 절기 : 유월절—첫 달 14일(28:16).

무교절—첫 달 15일에서 21일까지(28:17-25).

칠칠절(28:26-31) 참고: 첫 열매 드리는 날(26절)은 초실절(레 23:9-14)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나팔절—일곱째 달 첫 날(29:1-6).

속죄일—일곱째 달 10일(29:7-11).

초막절—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29:12-34). 제 8일에는 특별한 안식일 준수가 있었다(29:35-39).

30:1-5 30장은 서원에 관한 특별한 규례를 담고 있다. 여호와께 서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했다. 만일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어떤 젊은 여자가 서원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들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그 첫 날에 서원을 금할 수 있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서원은 철회되었다. 만일 그 아버지가 서원하는 것을 듣고도 그 날이 다 가도록 기다리거나 아무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서원이 유효하여 이행되어야 했다.

30:6-16 6-8절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한 서원을 묘사하는 듯

하다. 비록 그녀의 남편이 물론, 그 서원한 날에 그것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처음 그것을 들은 날에 그 서원을 금할 수 있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가 한 서원은 구속력(拘束力)이 있었다(9절). 결혼한 여자가 한 서원은 남편에 의해, 당일에 철회될 수 있었다(10-15절). 이것은 남편의 머리됨을 보존해주었다. 만일 남편이 당일 후에 아내의 서원을 철회할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필요한 제물을 드리거나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야 했다(15절).

6) 미디안족의 멸망(31장)

31:1-11 하나님은 바알브올에서 음행과 우상숭배로 그분의 백성을 타락시킨 미디안족을 멸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 1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멸했다. 대제사장인 그의 아버지가 아닌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는데(6절), 이는 비느하스가 시므리와 미디안 여인을 죽임으로 여호와의 진노를 돌이킨바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25장). 이제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미디안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완결지어야 했다.

“모든 남자”(7절)는 모든 기존의 미디안인이 아닌 모든 미디안 군사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기드온의 날에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삿 6장). “수르”(8절)는 이스라엘 진에서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 고스비의 아비였던 것 같다(25:15). (발람이 죽임당한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미디안에 돌아와 있었던 것 같다.)

31:12-18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군사는 모두 죽였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어 엄청난 전리품과 함께 의기양양하게 진으로 가져왔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그 사람들을 살려둔 것에 분을 발하며, 남자 아이들과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한 모든 여자를 죽이라고 명했다. 여자 아이들은 아마 가사 일을 돕도록 살려둔 것 같다. 이러한 징벌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롭고도 필요 적절한 조치였다.

31:19-54 전사들과 포로들은 관례에 따라 7일간의 정결기간을 지나야 했다(19절). 전리품들도 불로 단련하든 물로 씻든 정결케 되어야 했다(21-24절). 전리품은 전사들과 온 회중 간에 분배되었다(25-47절).

싸움에 나간 자들은 그들 중 하나도 죽지 않은 것이 감사하여 여호와께 풍성한 예물을 가져왔다(48-54절).

7)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32장)

32:1-5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에 풍부한 목초지가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영구 정착하게 해달라고 간청했다(1-5절). 모세는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이방 주민들과 싸우지 않으려는 의도로 그렇게 제안하는 줄로 생각했다(6-15절). 일찍이 그들의 선조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심시킨바 있었다.

32:16-42 그러나 르우벤과 갓, 두 지파가 요단 서편 땅을 위해

싸우겠다고 세 번 다짐을 하자(16-32절) 모세는 허락을 했다. 갓과 르우벤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는 아모리 왕 시혼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얻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과 양우리를 짓고 또 촌락들을 취했다(33-42절).

많은 사람들은, 비록 그 땅이 비옥했지만 적의 공격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요단강이란 보호막을 소유치 못했다. 르우벤과 갓(그리고 그들에 합류한 므낫세 반 지파) 지파는 오랜 후에 가장 먼저 외적에게 정복당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한편, 만일 이스라엘 자손 중 아무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요단 동편 땅은 어떻게 되었겠는가? 하나님은 일찍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다(신 2:24,31; 3:2).

8)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33장)

33:1-49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본장에 요약되어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성읍들의 위치를 오늘날 정확히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

애굽에서 시내산까지(5-15절)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16-36절)

가데스바네아에서 호르산까지(37-40절)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41-49절)

이 목록은 21장과 같은, 다른 목록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완전하지가 않다.

33:50-56 진격하는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거민을 완전히 멸하라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잔인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백성들은 그때까지 세상이 보지 못한 극도의 타락과 부도덕과 부패 가운데 빠져 있었다. 하나님은 400년간이나 그들을 오래 참으셨으나 그



▲ 가나안 주변 지역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만일 그분의 백성이 그들을 멸하지 않으면 그들의 부도덕과 우상숭배에 이스라엘이 오염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들만 멸할 뿐 아니라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도 멸해야 했다(52절).

9) 약속된 땅의 경계(34장)

34:1-15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1-15절에 나와 있다. 일반적으로 남쪽 경계는 염해(사해) 남단(南端)에서 애굽 시내(강이 아님)와 지중해까지 미쳤다(3-5절). 서쪽 경계는 대해(지중해)였다(6절). 북쪽 경계는 지중해에서 호르산(이스라엘의 여정에 언급된

호르산이 아님)까지, 또 호르산에서 하맛과 하살에난 어귀까지 미쳤다(7-9절). 동쪽 경계는 하살에난에서 남쪽으로 기네렛(갈릴리)바다까지¹⁷⁾, 또 요단강으로 내려가 사해까지 미쳤다(10-12절). 아홉 지파 반이 위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두 지파 반이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약속 받았기 때문이다(13-15절).

34:16-29 그 땅을 나눌 자로 임명된 사람들의 이름이 16-29절에 나와 있다.

10) 레위인의 성읍(35:1-5)

35:1-5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위해 48개 성읍을 구분해놓으라고 선포하셨다. 4-5절에 주어진 치수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적어도 그 성읍들이 생축을 기르기 위한 ‘목축지’¹⁸⁾로 둘러싸였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11) 도피성과 사형(死刑)(35:6-34)

35:6-8 레위인의 성읍 중 여섯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야 했다. 우연히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 성 중 한 곳으로 피하여 안전하게 재판받을 수 있었다. 많은 영토를 취한 지파들은 비율적으

17) (34:1-15) 기네렛은 ‘수곰’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갈릴리 바다의 모양을 본뜬 이름이다.

18) (35:1-5) 식민지 시절의 뉴잉글랜드 마을들은 때로 ‘공유지’(common lands)가 있었다(예, Boston Common).

로 많은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고, 적게 취한 지파들은 적게 주어야 했다.

35:9-21 도피성 중 셋은 요단 동편에 두고 셋은 요단 서편에 두어야 했다. 살인자는 일반적으로 보수자로 알려진, 희생자의 인척(姻戚)에게 쫓기게 마련이었다. 만일 살인자가 한 도피성에 이를 경우 그는 그의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기까지 안전했다(12절).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않았다(16-19절). 증오나 원한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은 사형에 처해졌다(20-21절).

35:22-28 만일 과실에 의한 살인으로 보일 경우에는 회중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22-24절). 혹 사면을 받더라도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했다. 그런 연후에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28절). 만일 그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나가면 보수자가 그를 만나 죽일지라도 죄가 없게 된다(26-28절).

대제사장의 죽음은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수자에게 해를 당하지 않았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죽음은 우리를 율법의 정죄적인 요구에서 자유케 한다. 만일 우리가 이 규정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상징을 보지 못한다면 그 규정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는가!

영거는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전승을 전해준다.

“랍비들이 전승에 의하면, 도피자를 돕기 위해서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최선의 상태로 닦아두는 것이 산헤드린의 과제였다고 한다. 언덕마다 평평하게 깎고 강마다 다리를 놓고 길은 적어도 폭이

32규빗은 되어야 했다. 갈림길마다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세우고, 보수자가 도피자를 따라잡을 경우를 대비해서 도피자 곁에서 보수자의 마음을 가능한 진정시킬 두 명의 율법생도를 임명했다.”¹⁹⁾

상징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를 죽게 한 살인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서 한 일이었다(행 3:17). 주 예수님은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다(눅 23:34). 살인자가 그의 집을 피하여 도피성에 거해야 했듯이, 이스라엘은 그 후로 방황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유된 땅을 완전히 되찾는 일은 대제사장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라(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으므로) 다스리기 위해 오실 때 이뤄질 것이다.

35:29-34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다. 달리 피하거나 대치할 것이 없었다(30-31절). 살인자는 돈을 주고 도피성에서 풀려날 수 없었다(32절). 피살자가 흘린 피가 그 땅을 더럽혔으며, 그 피가 고의적인 살인자의 죽음을 요구했다(33-34절). 이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라!

12) 결혼한 딸의 기업(36장)

36:1-13 길르앗에 정착한 므낫세 반 지파의 대표자들이 한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찾아왔다(민 27:1-11). 만일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지파에 속한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의 재산은 다른 지파

19) (35:22-28) Merrill F. Unger, *Unger's Bible Dictionary*, p. 208.

로 넘어갈 것이다. 희년이 되면 그 다른 지파에게로 영원히 속하게 될 것이다(4절). 이에 대한 해결책은, 땅을 물려받은 여자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땅을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6-11절). 슬로브핫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함으로써 이에 순종했다(10-12절). 13절은 26장 이후의 부분을 요약해준다.

민수기에는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 ① 인간의 마음의 끊이지 않는 악함과 불신앙.
- ② 그분의 자비로 조절되는 여호와와의 거룩함.
- ③ 범죄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와 조정자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모세).

인간의 마음은 민수기가 기록된 후로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거룩 혹은 자비도 그러하다. 그러나 모세는 그 상징하는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특징 지은 죄를 피하고, 또 그로써 그들이 일으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능력을 얻는다. 우리가 여기서 배운 바를 통해 유익을 얻으려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전 10:11).

참고 문헌

- Harrison, R. K. "Numbers." In the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9.
- Henry, Matthew. "Numbers."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I. M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Jensen, Irving L. Numbers. Chicago: Moody Press, 1964.
- Keil, C. F. and Delitzsch, F. "Numbers."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The Pentateuch. Vol.3.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Lange, John Peter. "Numbers." In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Critical, Doctrinal and Homiletical. Vol.3. Translated by Philip Schaff. Reprint. Grand Rapids: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80.
- Merrill, Eugene H. "Numbers." In the Bible Knowledge Commentary. Wheaton: Victor Books, 1985.
- Wenham, Gordon J. Numbers: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1.

신명기

신명기 서론

“신명기는 구약성경의 위대한 책 중 하나다. 이 책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의 신앙에 미친 영향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 뛰어나다. 이 책은 신약성경에 80회 이상 인용되었으며,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빈번하게 언급한 4권의 구약성경(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중 하나다.”(J. A. 톰슨).

1. 정경상의 독특한 위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40일간 밤낮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 시험 중 세 가지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복음서에 특별히 언급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성령의 검’을 세 차례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 차례 모두 ‘갈날’의 같은 부분(신명기)을 사용하셨다! 이 책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신 책 중 하나인 듯하며,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할 것이다!

신명기는 아마도, 헬라어 70인역에서 온 다소 부적절한 영어제목으로 인해 슬프게도 여러 면에서 무시를 받아왔다. ‘두 번째 법’이라는 그 의미는 이 책이 단순히 출애굽기에서 민수기에 걸쳐 이미 진술된 자료들의 요지를 재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는 그릇된 이해를 갖게 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반복하기 위해 반복하지 않으신다. 거기에는 언제나 새로운 강조점, 새로운 사실 첨부가 있다. 이 신명기

또한 주의 깊게 연구할 만한 놀라운 책이 아닐 수 없다.

2. 기자

모세가 신명기 전체의 기자이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영감 받은 편집자들을 사용하여 어떤 사항들을 재진술하고 첨부하게 하셨지만 말이다.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장은 모세가 예언적으로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 여호수아나 다른 누가 첨가한 것일 수도 있다.

자유주의 비평가들은 신명기가 여호수아 시대에(BC 620년경) 발견된 ‘율법책’이라고 단정짓는다. 그들은, 이 책이 모세를 통해 유대인의 예배의식을 예루살렘 성소 중심으로 통합시키려는 의도에서 여호수아 시대에 기록된 일종의 ‘경건한 사기술’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건한 사기술’이란 말 자체가 모순이다. 만일 사기술이라면 경건하지 않은 것이며, 만일 경건하다면 사기술일리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율법책’은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지 않는다. 요시야의 전임자인 므낫세와 아몬은 모두 악한 왕이었다. 그들은, 아마 어떤 경건한 사람(혹은 사람들)이 모세율법을 숨겨둔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과 그에 대한 복종은 위대한 개신교 개혁이 보여주듯이 항상 부흥과 회복을 가져다준다.

모세 저작권에 대한 간략한 변호에 대해서는 오경 서론을 보라.

3. 연대

신명기는 대부분 B. C. 1406년경에 기록되었으며, 동등하게 영감 받은 어떤 자료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모세가 죽은 후에 첨가되었을 것이다. 연대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에 대해서는 오경 서론을 보라.

4. 배경 및 주제

신명기는 광야여정 동안 일어난 새로운 세대를 위해 율법을 (단순히 반복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진술한 것이다. 그들은 이제 곧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던 참이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율법을 알고 순종해야 했다.

이 책은 우선, 시내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보여준다(1-3장). 그 의미는, 역사로부터 배우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 역사를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된 부분은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의 중요한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4-26장). 그런 다음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들어갈 때부터 메시아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의 목적들을 미리 보여준다(27-33장). 이 책은 모세의 죽음과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임명으로 마감된다(34장).

사도 바울은 이 책이 이스라엘을 위할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상기시켜준다. 신명기 25장 4절에 대해 해설하면서 그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한다(고전 9:10).

이 책은 신명기 5장 1절의 “들으라...배우라...지키고 행하라”는 동사들로 요약할 수 있는 권면들로 가득 차 있다.

5. 개관

1. 모세의 첫 번째 강화(講話)-그 땅에의 접근(1-4장)

- 1) 서론(1:1-5)
- 2) 호렘에서 가데스까지(1:6-46)
- 3) 가데스에서 헤스본까지(2장)
- 4) 요단 동편의 확보(3장)
- 5) 순종의 촉구(4장)

2. 모세의 두 번째 강화-그 땅에서의 순결(5-28장)

- 1) 시내산 언약의 재진술(5장)
- 2) 불순종에 대한 경고(6장)
- 3) 우상숭배 민족들에 대한 행동지침(7장)
- 4) 과거로부터의 교훈(8:1-11:7)
- 5) 순종에 대한 보상(11:8-32)
- 6) 예배를 위한 규례(12장)
- 7) 거짓 선지자와 우상숭배자에 대한 징벌(13장)
- 8)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14:1-21)
- 9) 십일조(14:22-29)
- 10) 채무자와 종에 대한 태도(15장)
- 11) 세 가지 절기(16장)
- 12) 사사와 왕(17장)
- 13)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18장)
- 14) 형사법(刑事法)(19장)
- 15) 전쟁에 관한 법(20장)
- 16) 기타 율법(21-25장)

- (1) 해결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한 속죄(21:1-9)
- (2) 여성 전쟁 포로(21:10-14)
- (3) 장자의 권리(21:15-17)
- (4) 완고하고 거스르는 아들(21:18-21)
- (5) 목을 매단 죄수의 시체(21:22-23)
- (6) 아홉 가지 품행 법(22:1-22)
- (7) 순결에 관한 범죄(22:13-30)
- (8)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23:1-8)
- (9) 진(陣)의 정결(23:9-14)
- (10) 사회 종교상의 법(23:15-25)
- (11) 이혼과 재혼(24:1-4)
- (12) 여러 가지 사회적인 법(24:5-25)
- (13) 형사취수 결혼법(25:5-10)
- (14) 세 가지 특별법(25:11-19)
- 17) 의식과 비준(26장)
 - (1) 첫 열매에 대한 의식(26:1-11)
 - (2) 제3년 십일조에 대한 의식(26:12-15)
 - (3) 언약의 비준(26:16-19)
- (18) 저주와 축복(27-28장)
3. 모세의 세 번째 강화-그 땅에 대한 언약(29-30장)
 - 1) 모압에서 맺은 언약(29:1-21)
 - 2) 언약 파기에 대한 징벌(29:22-29)
 - 3) 언약으로 돌이킬 때의 회복(30장)
4. 모세의 말일-그 땅 밖에서의 죽음(31-34장)
 - 1) 모세의 후계자(31장)

- 2) 모세의 노래(32장)
- 3) 모세의 축복(33장)
- 4) 모세의 죽음(34장)

1. 모세의 첫 번째 강화-그 땅에의 접근 (1-4장)

1) 서론(1:1-5)

1:1-2 신명기를 처음 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민수기 22장 1절에서 도착한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명기 1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의 위치는 숲 맞은편이었다. 이것은 모압 평지가 그 일부를 이루던 광야가 남쪽으로, 아카바만으로 알려진 홍해의 그 부분까지 펼쳐있음을 의미한다. 호렙(시내)에서 세일산으로 거쳐 가나안 입구에 위치한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는 여정은 불과 11일이면 족했으나, 이제 38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1:3-5 모세는 애굽을 떠난지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어지는 강화들을 들려주었다. 그 때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죽임을 당한 후였다(민 21장).

2) 호렙에서 가데스까지(1:6-46)

1:6-46 신명기 1장 6절부터 3장 28절에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기간에 대한 개관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이 민수기에서 이미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해보기로 하겠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6-8절). 민사 사건을 다룰 재판장들의 임명(9-18절). 시내에서 가데스바네 아까지의 여정(19-21절). 정탐꾼의 파송과 이후의 반역(22-46절).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애굽을 떠난 모든 군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34-38절)

3) 가데스에서 헤스본까지(2장)

2:1-23 가데스에서 에돔 변방까지의 여행은(1-7절) 에돔족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에돔 변방에서 세렛 골짜기까지의 여행은(8-15절) 모압족과의 싸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그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으므로 암몬족속과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명하셨다(16-19절). 하나님은 전에 에서의 자손을 위해서 호리 사람과 아위 사람과 갑돌 사람을 멸하신 것 같이, 암몬 족속이 ‘삼숨땀’이라 부르는 거인들을 이미 몰아내신 바 있었다(20-23절).¹⁾

2:24-37 2장 나머지는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이 패배당한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29절 상반절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족이 에돔 땅 변방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과 음식을 돈 받고 판 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민수기 20장 14-22절은 에돔 왕이 전

1) (21-23) ‘거인’(‘르바임’으로 음역됨)은 옥의 조상인 고대 거인 족속이었다. 르바임이란 단어는 신장이 큰 모든 사람을 일컫는 뜻이 되었다.

연 비협조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이스라엘을 돕기를 완강히 거절했으나, 아마도 그의 백성 중 일부가 유대인에게 돈을 받고 물과 음식을 팔았던 것 같다. 물론 확실치 않은 사실이다. 10-12절과 20-23절은 모세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 첨가되었을 것이나 여전히 영감받은 성경말씀이다.

4) 요단 동편의 확보(3장)

3:1-11 바산 왕 옥은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이 있는 60개의 성읍과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들이 심히 많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대적들도 그분의 백성의 손에 건네주셨다. 옥은 길이가 9규빗(4.5미터), 넓이가 4규빗(2미터)이나 되는 큰 철 침대를 지닌 거인으로 알려졌다. 톰슨은 이 ‘철 침상’이 일상적인 침대가 아닌 그의 마지막 안식처였다고 말한다.

“그는 죽자 색깔 때문에 여기서 ‘철’로 불린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대형 석관(石棺, 문자적으로, ‘침상’, ‘안식처’)에 장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석관은 신명기가 기록될 당시에 랍바암몬(오늘날의 ‘암만’)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²⁾

3:12-20 대적에게서 빼앗은 요단 동편 땅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다(12-17절). 모세는 그들 중 군인들에게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형제들을 도와 요단 서편 영토를 정복하라고 명했다. 그런 연후에야 그들은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처자와 육축과 그들이 빼앗은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 (3:1-11) J. A. Thompson,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p. 93.

3:21-29 또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지난 승리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라고 명했다(21-2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불순종을 보인데 대해 모세에게 진노하사 그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 하지만 그로 하여금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전경(全景)을 둘러보도록 허락하셨다(23-29절).

5) 순종의 촉구(4장)

4장은 모세가 율법을 재진술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 그는 특히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우상숭배에 따르는 형벌을 다루었다.

4:1-24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할 것을 명받았다(1절). 그들은 그것에 뉘그러나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되었다(2절). 바알브올에서 행해진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영구적인 경고가 될 것이다(3-4절).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사건이 여기에 언급된 것은 그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기에 그들의 기억에 생생할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이스라엘로 이방인들에게 큰 민족으로 존경받게 할 것이다(5-8절). 이스라엘은 지난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께 순종할 때의 축복을 기억해야 했다(8절). 그들은 특히 시나산(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일을 기억하라는 권면을 받았다(9-13절). 그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즉, 하나님의 현현(顯現)은 볼 수 있었으나 어떤 형상이나 우상으로 본뜬 수 있는 육체적

인 형태는 보지 못한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체의 형상을 만들거나 달과 해와 별을 숭배해서는 안 되었다(14-19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된 일과, 모세가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 심판 받은 일과,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을 상기케 되었다(20-24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잊어버릴까 하노라…”(9절). “…너희는 깊이 삼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15,16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잊어버려서…”(23절). 모세는 인간의 마음의 자연적인 성향을 잘 알았으며, 이에 백성들에게 깊이 삼가라고 간절히 권했다.

4:25-40 만일 이스라엘이 후에 우상에게 돌이키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25-28절). 그러나 그 때에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29-31절).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의 특권, 특히 출애굽과 관련된 기적들을 경험치 못했다(32-38절).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께 마땅히 순종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의 지속적인 축복을 누려야 한다(39-40절).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그리고 여호와의 경고를 신중히 받아들이지 않은 까닭에 대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의 역사상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의 경고는 쉬 지나칠 말이 아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41-43 모세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성읍(베셀, 길랏 라못,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했다(41-43절).

4:44-49 여기서부터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전한 모세의 두 번째 강화가 시작된다. 48절은 헐몬산이 시온산으로 불리운 유일한 예이다.³⁾

3) (44-49) 수리아역본은 '시리온'으로 옮기고 있다.

2. 모세의 두 번째 강화—그 땅에서의 순결 (5-28장)

1) 시내산 언약의 재진술(5장)

5:1-6 5장은 시내산(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수여한 일을 재진술한다. 3절에서 ‘열조’ 앞에 ‘만’(only)이 붙어있다(우리말 성경에는 없다 역주). 이 언약은 열조와 맺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장래 세대 역시 염두에 둔 것이었다.

5:7-21 십계명은 이러하다.

- ①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되었다(7절).
- ②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해서는 안 되었다(8-10절). 이 계명은 첫째 계명의 반복이 아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신비로운 존재나 해와 달을 숭배할 수도 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아버지와 같은 징벌을 당할 것이다(9절).
- ③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해서는 안 되었다(11절).
- ④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했다(12-15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출애굽기 20장 8-11절에(하나님이 창조시에 안식하심) 나

오지 않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기억해야 했다(15절). 이 두 가지 이유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다.

- ⑤ 부모를 공경해야 했다(16절).
- ⑥ 살인하지 말아야 했다(17절).
- ⑦ 간음하지 말아야 했다(18절).
- ⑧ 도적질하지 말아야 했다(19절).
- ⑨ 이웃에게 거짓증거하지 말아야 했다(20절).
- ⑩ 탐내지 말아야 했다(21절).

5:22 J. A. 톰슨은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주해한다.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란 표현은 비범한 표현으로서, 그 계명들이 언약의 기본요건을 완전히 요약해주는 까닭에 다른 법을 추가할 필요가 없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다른 모든 법은 그 기본 원칙들을 단순히 해석하고 확장한 것에 불과했다. 만일 그런 뜻이 아니라면, 그 표현은 여호와께서 그 열 가지 율법을 알리신 특별한 경우를 가리킬 수도 있다. 다른 율법들은 다른 경우에 주어졌음이 분명한데, 이는 이스라엘에게 알려졌고 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율법 전체는 상당한 분량이었기 때문이다.”⁴⁾

5:23-33 율법이 주어졌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하며 그들의 생명을 잃을 것을 염려했다. 그들은 모세를 보내어 여호와께 이야기하며,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뜻을 전하도록 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성과 무력함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4) (5:22) Thompson, *Deuteronomy*, p. 119.

경솔히 서약을 했다.) 결국 나머지 율법과 규례들은 중재자인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 열 가지 말씀 또는 십 계명은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을 때 백성들 전체를 향해 구두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30-31절).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을 표했기 때문이다(18장 16-18절을 보라).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음이 없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자신이 그들을 풍성히 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셨다(28-33절).

2) 불순종에 대한 경고(6장)

6:1-9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들이 도덕적으로 바른 상태에 있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그분의 의도대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모세는 그들로 가나안에 적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실제적인 가르침을 베풀었다(1-2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증거해야 했다(3-4절). 그들은 그분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다(5-6절). 여호와와의 계명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계명으로 자녀들을 지도해야 했다.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인본주의 학교로 보내는 대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앙문제뿐만 아니라 소위 세속적인 과목들도 가정에서 교육시키고 있다.

그리스도 당시에 유대인들은 실제로 율법을 종이에 써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다녔다(8절). 그러나 분명 여호와께서 의도하

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손)과 소원(눈)이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4-9절은 “쉐마”(히브리어로 “들으라”)로 알려진 구절로서 11장 13-21절과 민수기 15장 37-41절과 더불어 경건한 유대인들이 날마다 암송한 구절 중 하나였다.

“4절의 ‘하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약의 보다 완전한 계시에 비추어 볼 때 의미가 깊다. 그것은 절대적인 통일성이 아니라 복합적인 통일성을 말하며, 그렇게 하여 이 구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들과도 일치케 이룬다. 여호와(주)는 그분의 일체성을 강조한다. 엘로힘(하나님)은 그분의 세 위(位)를 강조한다. 일체성 안의 삼위성에 대한 그 신비로운 암시가 성경 첫 구절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서는 ‘엘로힘’(복수명사) 뒤에 단수 동사(‘창조하셨다’)가 나온다.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그러한 암시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는 ‘우리’, ‘우리의’라는 복수 대명사 뒤에 ‘형상’, ‘모양’이라는 단수 명사가 나온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6:10-15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큰 축복을 누릴 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좇을 위험성이 있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여호와께 사랑을 표하는 수단이었다. 성경적인 사랑은 부드러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만일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그분의 언약을 깨뜨리면 하나님의 투기(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열정)가 그들을 멸할 것이다.

6:16 주 예수님은 성전꼭대기에서 떨어져보라는 시험하는 자의 유혹에 대한 답으로 마태복음 4장 7절과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 맛사에는 마실 물이 없었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지 의심했다(출 17장). 하나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그분을 시험하는 것이다.

6:17-25 순종은 이스라엘의 대적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다(17-19절). 장래 세대들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의 행복과 축복을 위해 율법을 주신 일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했다(20-25절). 25절을 로마서 3장 21-22절과 비교하라. 율법은 “만일 우리가 잘 지키면”라고 말하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한다. 오늘날 신자들은 율법이 기초한 의, 곧 하나님의 의를 옷 입되(고후 5:21), 그것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옷 입고 있다(롬 4:5).

3) 우상숭배 민족들에 대한 행동지침(7장)

7:1-5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가나안에 거하던 이교적이고 우상숭배적인 민족들과 혼합되지 말라는 강한 경고를 받았다. 그 일곱 족속(히,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을 그 말할 수 없는 죄로 인해 징벌하고 이스라엘을 더럽혀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완전히 멸하고, 모든 우상숭배의 흔적을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하셨다. 3절은 아마 유대인들이 2절을 순종하는데 실패할 것을 내다본 말씀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만약 그 땅 모든 거민을 멸한다면 통혼할 위험성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이

다.

7:6-11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분리된 백성이 되도록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다른 민족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분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다(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소수였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을 사랑하신 까닭에 그들을 택하셨으며, 이제 그들이 범사에 그분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 “천대”는 영원을 의미한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미워하신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이었다. 그분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은 어떤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들을 사랑하신 때문이었으며, 이제 그분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셨다. 누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를 이해하리요!

7:12-26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그분께 신실하다면 그분은 무수한 자손과 풍성한 곡물과 많은 가축과 건강과 대적에 대한 승리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12-16절). 만일 그들이 혹 시험을 받아 그들의 대적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 특히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해야만 했다(17-19절). 과거에 행하셨듯이 그분은 다시 그들을 위해 행하사 왕별을 보내어 그들의 대적을 멸하실 것이다. ‘왕별’은 정복군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일 것이다(20-24절). 그분은 그 땅이 들짐승이 가득하게 되지 않도록 그들의 대적을 단번에 완전히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22절).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은 들짐승의 서식지가 되지만, 도시 지역은 들짐승의 수효를 통제하는데 기여한다.) 승리가 즉시 주어지지 않은 또다른 이

유는 사사기 2장 21 -23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남은 이교도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하셨다. 모든 우상은 이스라엘에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도록 완전히 멸해야 했다(25-26 절).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각한 위협은 가나안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우상과 그 우상과 관련된 극심한 부도덕이었다. 그들이 가장 대비해야 할 전투는 물질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였다.

4) 과거로부터의 교훈(8:1-11:7)

8,9장에 관해서 J. A. 톰슨은 이렇게 간결하게 지적한다.

“과거로부터 얻은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이제 언급되었다. 첫째로,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주신 경험이 여호와와의 섭리적인 훈련으로 말미암는 겸손의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주었다. 그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그들로 하여금 새 땅의 안정과 번영을 누리는데 그들 자신의 성취로 자만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8:1-20). 둘째로, 다가올 정복과 더불어 그들이 누릴 모든 성공이, 그들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표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었다(9:1-6). 사실 금송아지 사건에서나(9:7-21) 아니면 다른 많은 사건에서나(9:22-29) 이스라엘은 완고하고 반역적인 자들로 증명되었다.”⁵⁾

8:1-5 다시금 모세는 하나님의 자상한 돌보심을 상기시키며 그분께 순종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했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시련을 그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사 그들을 낮추고 단련하고 그들의 순

5) (8장 서론) Thompson, *Deuteronomy*, p. 134.

종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또한 그분은 그들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셨고, 40년간의 광야생활 동안 낡아지지 않는 옷과, 발이 부르트지 않는 신발을 공급하셨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셨다. 그분은 뭔가를 알기 위해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2절), 그들의 반역적인 성향을 그들 자신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분의 인자와 은혜를 보다 충분히 깨닫게 하고자 하셨다.

8:6-20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행하실 일도 근거로 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다(6-7절). 가나안의 “아름다운 땅”의 축복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7-9절). 번영은 망각을, 망각은 불순종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백성들은 그러한 위험성을 경계해야 했다(10-20절). 하나님 편에 신실하심은 그에 상응하는 이스라엘 편에 신실함을 필요로 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하신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계셨으며(18절), 이에 백성들도 그 보답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었다(출 19:8). 만일 백성들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잊고 그들의 부(富)를 그들 자신의 능력 탓으로 돌린다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이방 민족들을 멸하셨듯이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9:1-3 9장은 이스라엘이 곧 더불어 싸울 민족들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다.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그러했듯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시라...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의 상호보완적인 역사를 주목하라.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는 그 둘 다 필요했다.

9:4-7 하나님이 그 땅의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신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자랑하지 말아야 했다. 백성들은 성공을 그들 자신의 의로움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경고를 세 번이나 들었다(4-6절).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거민들이 사악하기 때문이며(4절),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맹세 때문이다(5절). 문제는 그들이 목이 곧고(6절) 반역적이었다는 것이다(7절).

9:8-23 모세는 백성들이 호렙(시내)산에서 보인 행동을 예로 들었다(8-21절). 22-23절은 다베라(민 11:3), 맛사(출 17:7), 기브룻 하밧다(민 11:34), 가데스바네아(민 13:31-33) 등 백성들이 범죄한 다른 곳을 언급한다. 금송아지가 복귀 불가능하게 파괴된 점을 보라(21절).

9:24-29 시내산에서는 모세의 중재가 백성들을 여호와와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편이었다. 그는 백성들의 의로움에 호소하지 않고(그들은 전혀 의롭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소유권”(“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26절)과, “약속”(“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라”-27절)과, “능력”(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인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다-“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여호와께서…인도하여 들일 능력도 없고…”-28절)에 호소했다.

10장 1절에서 이야기는 시내산 사건으로 되돌아가, 9장 29절에

연결된다. 성경은 항상 연대적인 순서가 아니다. 종종 단순한 연대적인 순서보다 더 중요한 영적 혹은 도덕적 순서대로 사건들이 배열된다. 본장은 11절부터 구분하는 것이 더 적합한데,⁶⁾ 이는 11절이 시내산에서의 사건들을(10장 8절에서 취한 주제) 다루고 있는 반면 12절 이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비에 기초한 순종의 권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10:1-5 본문은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일과 두 돌판을 궤에 보관해둔 일을 기록한다. 3절은 모세가 직접 궤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게 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한 일을 그 지시한 사람이 직접 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10:6-9 6-7절은 이 시점에서는 갑작스런 이야기의 반전처럼 보인다. 사실 그 구절은 새흙정역이 암시하듯이, 후기 연대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삽입부이다. 그러나 그 구절은 독자를 아론의 죽음으로 인도한다. (새흘정역은 6-9절을 괄호 처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해주었다.) (한글개역성경도 마찬가지이다-역주.)

‘모세라’는 호르산이 위치한 지역인 듯한데, 왜냐하면 아론이 그 산에서 죽었기 때문이다(민 20:25-28). 모세라의 정확한 위치는 오늘날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 여기에 아론의 죽음이 언급된 것은 모세로 하여금 제사장직에 대해 생각하게 했을 것이며, 이에 그는 레위를 제사장 지파로 택하신 일을 회상했다(8-9절). 8절에는 제사장의 세 가지 기능이 주어져 있는데, 첫째는 언약궤를 메는 것이며, 둘째는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이며, 셋째는 여호와와 이름으

6) (10장 서론) 성경의 장, 절 구분은 원문이 기록되지 수세기 후에 이뤄졌다.

로 축복하는 것이다. 제사장직에 대한 가르침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 세대에게 중요했다.

10:10-11 모세는 40주야간 백성들을 위해 중재하며 두 번째로 시내산에 머물러 있던 일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켰다. 하나님은 그 때 그의 기도를 들으사 심판을 거두셨으며, 그들에게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이르셨다.

10:12-22 그분의 백성에 대한 여호와와의 소원은 “경외하여…행하고…사랑하며…섬기고…지키라”는 말씀 속에 요약되었다(12-13절).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의도된 것이었다(13절).

모세는 그분의 위대하심과(14절),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주권적인 선택과(15절), 그분의 의(義)와 공의로움과(17-20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분의 과거의 은총들(21-22절)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들에게 격려했다. 할례 받은 ‘마음’(16절)은 곧 순종하는 마음이다.

11:1-7 다시 한 번 모세는 영적인 교훈을 끌어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았다. 2절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와 구별되는, 옛 세대의 생존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 된 군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2:14; 수 5:6).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를 지나게 하셨으나,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간과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인들을 심판하신 것과 이스라엘 자체

내의 반역을 준엄히 심판하신 것은 그분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교훈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어 준다.

5) 순종에 대한 보상(11:8-32)

11:8-17 바뀌 말한다면, 그 땅에서 그들의 날을 길게 하는 방법은(9절)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8절). 그들이 순종하면 누리게 될 축복의 땅이 10-12절에 묘사되어 있다. “밭로 물대기”란 표현은 물을 뿜어내기 위해 일종의 페달장치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밭로 수문(水門)을 여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애굽은 관개(灌溉)작업을 통해 곡식을 얻는 불모지였으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천혜의 은총을 입은 땅이었다(11-12절).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는 풍부한 비와 풍성한 추수가 주어질 것이나(13-15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우상을 섬기면 가뭄과 황폐함이 주어질 것이다.

11:18-21 하나님의 말씀이 가족간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해야 했다. 말씀을 실행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그들의 날이 그 땅에서 많아지되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게 될 것이다(21절).

“후대의 유대인들은 18절 하반절을 문자적으로 취하여 성경말씀이 담긴 조그만 주머니를 그들의 이마에 부착하고 집 문설주에 달아놓았다(지금도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19절 상반절이 그것이 의도하는 진리를 암시하는데, 손목의 말씀은 위선적이거나 무가치

한 일에 그들의 손을 사용치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하며, 이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우리가 바라보는 곳과 탐하는 것-을 다스려야 할 것을 의미하며, 문설주의 말씀은 가정과 가족의 삶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이 되되, 특히 우리의 돌봄에 맡겨진 자녀들의 삶이 그러해야 함을 의미한다.”(*Daily Notes of the Scripture Union*).

11:22-25 여호와와 길로 행하는 자들은 이방 가나안족을 쫓아내고 그 밭로 밟는 온 땅을 차지할 것이다. 소유의 법칙이 24절에 주어져 있다. 모든 땅은 약속에 의해 그들의 것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것으로 삼아야 했다. 24절에 주어진 경계(境界)는 이스라엘에 의해 역사적으로 실현된 바가 없다. 솔로몬 시대에 유브라테강에서 애굽 변방까지 확장된 일이 있지만(왕상 4:21),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 모든 영토를 소유하지는 못했다. 당시에 그 주변 민족들은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긴 했으나 여전히 그들의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24절은 다른 많은 구절들과 더불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통치 때 성취될 것이다.

11:26-32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축복과 저주-순종시의 축복과 불순종시의 저주-가 주어졌다. 가나안에 있는 두 산이 이 진리를 나타내주었는데, 그리심산은 축복을, 에발산은 저주를 나타냈다. 세겜 근처에 위치한 이 두 산은 그 사이에 작은 골짜기가 있었다. 지파들의 절반은 그리심산에 서서 제사장들로부터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들어야 했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에 서서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들어야 했다. 각 경우에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했다. 그 두 산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신명기 27장 11-26절을 보

라.

“모레 상수리나무”는 창세기 35장 1-4절에 언급된 그 나무를 말하는 듯하다. 거기서, 수세기 전에, 야곱은 그의 집의 우상숭배를 말끔히 없애버렸다. 아마 여기에 그곳이 언급된 것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만 가리킬 뿐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듯하다.

6) 예배를 위한 규례(12장)

12:1-3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우상과 우상 신전과, 거짓된 숭배가 행해진 모든 곳을 멸해야 했다. 나무로 새긴 형상(히브리어로 ‘아세렘’)은 여성신의 상징물이었다. ‘주상’은 남성신인 바알을 상징했다.

12:4-14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장소, 곧 제사와 예물이 드려지는 곳을 따로 구별하고자 하셨다. 이곳은 성막이 처음 세워지고(실로-수 18:1) 후에 성전이 세워진 곳(예루살렘)이었다. 이 지정된 곳에서만 예배가 인정되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중심은 한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나타남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일들을 광야에서는 간과하신 바 있다(8-9절).

12:15-28 레위기 17장 3,4절에서 하나님은,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제사용 짐승을 잡을 때는 성막에 가져와야 한다고 명하셨다.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려 하므로 그 규례가 바뀌어야 했다. 이후로 유대인들은 제사에 흔히 사용되는 가축들을 노루나 사

슴(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정한 짐승)을 먹듯이 잡아먹을 수 있었다. 이러한 허락은 정한 자들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에게도 주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경고를 거둬서 들었는데, 이는 피는 육체의 생명이요 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12:29-32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도들의 우상숭배 관습을 조사해보지도 말라는 엄숙한 경고를 받았는데, 이는 그들의 악한 풍습을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끌어들이고자 시험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31절은 몰렉과 그모스 숭배와 관련된 무서운 풍습을 가리킨다.

신약에서 바울은 우상숭배의 배후 세력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전 10:20). 우상숭배의 참된 속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잔인성과 타락성에 놀라지 않게 된다. 인간의 마음이 참되신 하나님의 빛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어두움에 더 쉽게 반응한다는 것이, 신명이 기록된 대상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실제로 바로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 그모스와 몰렉을 위한 단을 세웠다(왕상 11:7).

7) 거짓 선지자와 우상숭배자들에 대한 징벌(13장)

13:1-18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숭배를 범하게 하는 개인이나 무리는 선지자들(1-5절), 가까운 친척이든(6-11절), 어떤 지역공동체든(12-18절) 돌로 쳐 죽여야 했다. 백성들에게 우상숭배를

권하는 선지자는 혹 그가 한 예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좃지 말아야 했다. 그런 자는 거짓 선지자였으며 죽임을 당해야 했다. 가까운 친척이 가족을 유인하여 우상숭배를 하게 할 때도 그 역시 죽임을 당해야 했다.

13절의 “잡류”는 ‘타락한 자들’, 혹은 ‘무가치한 아들들’(히브리어로 ‘벨리알’)이었다. 그들이 거하는 성읍 사람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무리는 그 성읍 거민과 함께 죽임을 당해야 했으며 그 성읍은 불태워야 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성읍은 가나안 성읍과 동일한 형벌, 즉 완전한 파멸을 당해야 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택한 백성에 대해서도 죄를 엄히 다루신다. 하지만 그 동기가 다르다. 유대인의 성읍의 경우에는 그들을 민족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부모로서 징계하시는 것이다.

8)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14:1-21)

14:1-2 이 두 구절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뜻에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우상숭배적인 관습을 금하고 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에 대해 이방인보다 높은 관점을 가졌다.

14:3-21a 본문은 짐승과(4-8절) 물고기(9-10절), 곤충(19절), 혹은 새(11-18,20절)를 망라하여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을 개괄하고 있다. (19절에 대한 예외는 레위기 11장 21-22절을 보라.) 이와 비슷한 목록이 레위기 11장에 나온다. 이 두 목록은 그 하나하나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을 뿐더러 그럴 목적이 있지도 않았다. 어떤 동물은 위생상

의 이유로 부정했고, 어떤 동물은 우상숭배의식에 사용되었거나 이교도들의 숭배대상인 까닭에 부정했다.

식물에 관한 신약의 원리는 마가복음 7장 15절, 로마서 14장 14절, 디모데전서 4장 3-5절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방인들은 스스로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었으나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었다(21절). 그렇게 하면 신명기 12장 23절을 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짐승에게서 피가 합당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21b 염소는 그 어미의 젖과 함께 같은 그릇에서 살아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가나안의 풍습이었던 것 같은데, 모세오경에서 세 차례 금해졌다.) 자연적인 관점으로는, 이 규례는 젖이 묻은 고기 접시가 부패할 때 흔히 생기는 독성(毒性)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게다가, 그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칼슘 성분이 없어진다는 증거가 있다. 이 제한규정으로부터, 고기와 우유제품은 각기 다른 그릇에 담은 랍비의 규례가 생겨났다.

9) 십일조(14:22-29)

14:22-27 22절부터 29절까지는 십일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께만 속했고 레위인에게 주어졌고 이스라엘이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십일조(레 27:30-33)를 가리키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 대신, 예물 드리는 자 자신도 그 일부를 취한 절기의 십일조로 불리운 또 다른 십일조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두 번째 십일조는 하나님이 예배 중심지로 정하신 곳으로 가져와야 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

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너무 멀리 살고 있어서 십일조를 그곳에 가져올 수 없을 때는 그 예물을 돈을 바꿔 그 돈을 하나님의 성소로 가져와 거기서 음식과 물을 사서 여호와 앞에서 취할 수 있었다.

26절에서, 성경이 완전한 금욕을 가르치지 않음을 보라. 성경은 절제와 자기 통제와 취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멀리 할 것을 가르친다. 포도주와 독주의 차이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들고 독주는 곡식이나 다른 과일이나 꿀로 만든다는 것이다. 2년 동안 예물을 드리는 자는 십일조나 혹은 그에 상당한 금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다.

14:28-29 제3년에는 십일조를 집에서 사용하여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먹여야 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여호와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큰 관심사임을 보게 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잠 19:17).

10) 빛진 자와 종에 대한 태도(15장)

15:1-3 매 7년 끝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모든 빚은 면제되어야 했다. 제 7년은 아마도 안식년과 일치했을 것이다. 외국인에게 진 빚은 면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 규정은 유대인들 간에 생긴 빚에만 적용되었다. 메튜 헨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매 7년마다 면제년으로, 땅은 경작에서 쉬었고 종들은 봉사에서 풀려났다. 전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자들은 그 해에 그 집에서

풀려났다. 혹 그들이 후에 갚을 능력이 생기고 또 양심에 걸림이 되어 갚을 수는 있지만, 채권자 입장에서 법으로 그것을 되찾으려 해서는 안 되었다.”⁷⁾

“일곱”은 성경에서 완전 혹은 완성의 수이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통해서 유대인들만이 아닌(3절) 모든 인류를 위해 죄사함(면제의 해)을 선포하셨다.

15:4-6 4절은 11절과 모순되어 보인다. 4절은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때를 말하는데, 11절은 가난한 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불링거의 해설이 이에 대해 도움을 주는데, 그는 4절이 “너희 중에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는 의미라고 제안한다.⁸⁾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매 7년마다 형제들의 빚을 면제해야 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중에는 계속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채권자는 하나님이 풍성히 축복해주실 것이기에 손실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11절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징벌의 뜻에서, 한편으로는 동정과 나눔을 가르쳐주는 뜻에서,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15:7-11 제7년에 모든 빚이 면제된다고 해서 그 면제년이 가까워 올 때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었다. 거절하는 것은 9절에서 말하는 비열한 혹은 “악한 생각”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대 백성은 역사를 통해 동족

7) (15:1-3) Matthew Henry, “Deuteronomy,”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I:786.

8) (15:4-6) E. W. Bullinger, *The Companion Bible*, p. 259

을 잘 돌아보는 백성으로 잘 알려졌다. 모세가 10절에서 말하는 바를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명령이자 또한 약속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빛지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25).

15:12-15 히브리 종 또한 제 7년에 풀려나야 했다(12-18절). 그러나 먼저 풍성히 채워주지 않고 그를 보내서는 안 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하실 때 풍성히 채워주셨으며(출 12:35-36), 그런 이유에서 자유케 된 종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되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바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본을 좇는 것, 혹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네 형제에게 행하라”는 황금률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15:16-18 반면에, 종은 자유를 거절하고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는 쪽을 택할 수 있었다. 그는 그 귀를 주인의 집 문에 대고 송곳으로 뚫음으로써 그런 뜻을 나타냈다. 종은 품꾼의 갑절의 가치가 있었다.

15:19-23 18절에서 16장 7절까지에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한 규정을 볼 수 있다.

- ① 초태생의 구별(15:19-23).
- ② 유월절과 무교절(16:18).
- ③ 칠칠절 혹은 오순절(16:9-12).

④ 초막절(16:13-17).

정한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려야 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몫을 먹을 수 있었으나 피는 안 되었다. 짐승은 흠이나 점이 없는 것, 즉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것이어야 했다.

11) 세 가지 정한 절기(16장)

16:1-8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중앙 성소로 가야하는 세 절기를 보여준다. 그 목적에 대해 무디는 이렇게 해설했다.

“①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② 그곳으로 올라가면서, 이미 받은 축복을 기억하기 위해서. ③ 그리스도에 의해 그들에게 주어질 축복의 상징과 모형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④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예배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⑤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예배를 통해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⁹⁾

유월절과 무교절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유월절은 1-2,5-7절에, 무교절은 3-4,8절에 각각 묘사되어 있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주의 만찬은 신약의 신자들을 위한 주간(週刊) 기념 절기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우리의 유월절 양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식이다. 무교절은 구속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네 하나님 여호와 의 주신 복을 따라”[17절] 찬양이 가득하고, 또 괴악하고 악독함이 없는 삶[고전 5:8])을 그려준다.

여기에 유월절에 관해 기록된 내용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기

9) (16:1-8)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p. 44,45.

12-13장에 기록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무엇을 어디에 드러야 하는지가 매 대목마다 차이가 있다.

16:9-12 칠칠절(오순절)은 밀 수확의 첫 열매로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은사를 상징한다. 이것은 무교절 다음날에 열리는 초실절(보리)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원하는 예물”은 고린도후서 8-9장처럼, 개인의 노력에 대해 여호와께서 베푸신 축복에 비례하여 (여기서는 그의 수확물) 드러져야 했다.

16:13-15 초막절은 추수기의 끝 무렵이었으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그 땅에 다시 모일 때를 대망한다.

16:16-17 1년에 세 차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각각 능력대로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타나야 했다. 무디는 그들이 참여해야 했던 이 세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해설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완성된 구속을 상징한다.

- ① 십자가의 수난을 통해서-고난
- ② 성령 강림을 통해서-은혜
- ③ 장차 올 왕의 마지막 승리를 통해서-영광.”¹⁰⁾

16:18-20 재판장은 정직하고 의롭고 공정해야 했다. 그들은 뇌물을 받지 말아야 했다. 뇌물은 공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10) (19:16,17) D. L. Moody, *Notes from My Bible*, p. 45.

16:21-22 “나무로 새긴 상(像)”(히브리어로 ‘아세라’)은 나무로 만든 기둥으로 이방 여신을 상징했다. 마침내 여호와와의 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안식할 것이다. 그곳에는 어떤 나무도 쉬 심겨지지 못하나, 한 우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리고 마침내 세워지고 말았다(왕하 23:6).

12) 재판장과 왕(17장)

17:1 제사용 짐승은 흠이 없어야 했다. 그것들은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상징했다.

17:2-7 우상숭배의 혐의가 있는 자는 재판을 받아야 했다. 두 세 증인의 증거가 필요했다. 만일 유죄로 판명되면 그를 돌로 쳐 죽였다.

17:8-13 어떤 성읍의 장로들이 다루지 못할 어려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상정해야 했다. 17장 9절, 17장 12절, 19장 17절 등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러한 어려운 송사를 듣는 제사장 무리와 재판장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제사장과 대재판장은 별개의 지도자였음이, 12절에 사용된 정관사에 암시되어 있다. 이 법정은 하나님의 성소가 위치한 곳에서 열렸다. 이 법정의 결정은 최종적이었는데 이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최고법정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피고가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해야 했다(12-13절).

17:14-20 하나님은 400년쯤 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할 것을 예상하고 그러한 통치자가 갖춰야 할 자질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한다(15절). ② 이스라엘 사람(‘네 형제 중에서’, 15절)이어야 한다. ③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즉 대적에게 이기기 위해 그러한 자연적인 수단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16절).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 ④ 애굽에서 얻을 말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백성들로 애굽에 돌아가게 하지 말아야 한다(16절). ⑤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17절). 이것은 일부다처제를 금하고 아내들이 우상숭배로 이끌 위험성을 경계한 것일 뿐 아니라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한 혼인을 금한 것이기도 하다(17절). ⑥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데서 떠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17절). ⑦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고 읽고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자만하거나 완고해지지 않을 것이다(18-20절). 주야로 율법과 더불어 시간을 보냄으로써 왕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했다. ⑧ 그 마음이 높아지지 말아야 한다(20절).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를 다스렸던 솔로몬은 이 규정들의 대부분을 범했으며 그 결과 그 자신과 그의 나라를 파멸로 이끌었다(왕상 10:14-11:10).

13)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18장)

18:1-8 다시금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 있다. 그들은 지파적으로 그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그 필요를 공급해야 했다. 제물 가운데 그들의 분깃은 어깨와

두 볼(턱뼈)과 위(胃)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의 첫 수확이었다. 6-8절은 레위인이 그 집을 팔고 하나님을 섬기러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곳으로 옮기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는 다른 레위인들과 더불어 예물을 취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그가 그의 기업을 팔아서 얻은 것 외의 분깃이었다. (레위인은 지파적인 기업은 받지 못했지만 자기 재산은 소유할 수 있었다.)

18:9-14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내통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접촉을 가져서는 안되었다. 영(靈)의 세계와 교통하는 8가지 수단이 나와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로 불리웠다. 거기에는 ‘복술자’(마법사), ‘길흉을 말하는 자’(예언자, 거짓 선지자), ‘요술하는 자’(점쟁이, 예언가, 점성가), ‘무당’, ‘진언자’(마법사), ‘신접한 자’(영매[靈媒]자), ‘박수’(강신술사), ‘초혼자’(마술사)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중 일부는 중복되었다.

슬프게도, 이 3,400여 년이나 된 금령은 오래 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계몽된’ 현대에도 똑같이 요구된다. 헨리 G. 보쉬는 이렇게 지적한다.

“사단주의와 귀신과 신비주의는 속임수가 아니라 어둡고 음산한 실재들이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표징 중 하나는 마법과 점성술과 기타 형태의 신비주의에 대한 널리 퍼진 관심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점성가와 영매자를 찾아가거나 죽은 사랑하는 이들과 교통을 나누고자 시도한다. 또한 사단주의와 귀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다. 성경은 그러한 관습들에 대해 거듭해서 경고를 한다(레 19:31; 20:27; 대하 33:6; 렘 10:2; 갈 5:19-20).

성경의 경고는 얼마나 긴박하고 시급한지! 죽음의 입맞춤이 될 수 있는 것 주변에서 배회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자.”¹¹⁾

이러한 금지된 ‘교통’에 대해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13절)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한다.

18:15-19 신비주의 지도자들의 죄악과 뚜렷이 대조되게도, 15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아름다운 예언, 즉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제시하고 있다(행 3:22,23). 15,18,19절의 표현들을 보라.

① “한 선지자”-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 ② “너의 중”-인간으로서, ③ “네 형제 중에서”-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④ “나와 같은”-하나님이 일으키셨다는 의미에서 모세와 같은, 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영감의 충만함, ⑥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계시의 충만함, ⑦ 모두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순종할 책임이 있다.

본문은 또한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을 가르쳐준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더 이상 불을 보지 않게 하여 죽음을 면케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은 중재자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다. 본문이 유대인의 메시아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은 복음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요 6:14; 7:40).

18:20-22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정체를 알아낼

11) (18:9-14) Henry G. Bosch, *Our Daily Bread*, Grand Rapids: Radio Bible Class, June-July-August 1989, August 31.

수 있었다. 앞서 우리는 백성들로 참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13:1-5). 여기에는 또 하나의 분별법이 있는데, 만일 어떤 예언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했고 아무도 그가 예언한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14) 형사법(刑事法)(19장)

19:1-10 이 세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는 이미 세워져 있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다른 편에 세 성읍을 세우되 살인자가 피의 보수자를 피할 수 있는 곳에 세울 것을 상기시켰다(1-7절). 이 주제에 관한 앞선 가르침 외에, 백성들이 처음 약속된 영토를 전부 차지할 경우 세 개의 도피성을 더 세워야 했다(8-10절). 이 세 여분의 성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창세기 15장 18절에 약속된 모든 땅을 차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은 가데스와 헤브론과 세겜이었다(수 20:7).

19:11-13 도피성은 고의적인 살인자에게는 안전을 제공해주지 않았다. 그가 그 성 중 하나로 도피할지라도 장로들이 진실을 조사할 것이며, 그가 유죄임이 드러나면 그를 보수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19:14 “지계표”란 어떤 이의 땅의 경계를 표하기 위해 들판에 둔 돌을 가리켰다. 이 지계표는 자기 밭을 넓힐 양으로 밤중에 몰래 옮겨놓고 이웃에게 속일 수가 있었다. 법적인 문제, 즉 도피성과 거짓

증인 및 참 증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문맥 한 가운데 왜 이러한 지계표에 대한 구절이 들어가 있는지는 설명하기 어려우나, 그러나 그것이 여기에 위치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모호해지는 것은 아니다.

19:15-21 법적인 문제에서는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거짓 증인은 제사장과 재판장에 의해 재판을 받고(17:8-9) 그가 피고에게 고소한 그 죄의 형량을 선고받아야 했다(16-21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는 서구문화에서는 ‘동해보복법’(Lex talionis)으로 불리운다. 그것은 흔히 보복법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사실은 아니다. 이 법은 무력사용에 대한 허가증이 아니라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것은 거짓 증인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질 수 있는지를 말한 것이다.

15) 전쟁에 관한 법(20장)

20:1-8 20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전쟁 지침서이다. 제사장들은 적군과 더불어 싸우는 백성들을 격려할 책임이 있었다. 군사적인 봉사가 면제된 사람들은 이랬다.

① 새 집을 막 지은 자, ② 포도나무를 심고 그 과실을 취하지 못한 자, ③ 약혼만 한 채 결혼을 아직 못한 자, ④ 두려워하고 마음에 겁을 내는 자.

“유대인 학자들은, 전쟁에서 돌아올 이러한 자유는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치르는 전쟁의 경우에만 허락되었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치러진 아말렉 및 가나안 족속과의 전

쟁에는 예외가 없이 모두가 전쟁에 나가야 했다는 것이다.”¹²⁾

20:9 어떤 훌륭한 군대에든 조직과 계급이 있어야 하므로 백성의 유사들은 무리를 거느릴 군대장관들을 임명했다.

20:10-20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그의 지시 아래 전쟁을 치를 때에 몇몇 특징을 지녀야 했다. 그러한 특징은 이스라엘이 사랑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주었다. 전쟁은 필연적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인 악(惡)을 다스리고자 하셨다. 여기에 기록된 지침을 이해하려면 앗수르인과 같은 다른 민족들의 잔인한 행습들을 살펴보면 족할 것이다.¹³⁾ 여기에는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다. 다음 사항들을 주목하라.

- ① 가까운 성읍과 먼 성읍(10-18절). 그 땅 안에 있는 성읍들은 완전히 타락하여 곧 멸망할 위험에 처했다. 그 땅 밖에 있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머지 지역 안에 있는 성읍들은 일단 평화를 조건으로 접근해야 했다. 만일 그들이 거절하면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어야 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경계 안에 있는 성읍들처럼 이스라엘을 오염시킬 위험이 크지 않았다.
- ② 과실을 맺는 나무와 맺지 못하는 나무(19-20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원리는 이스라엘은 ‘황폐케 하는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 것이 아니라 쓸만한 것들은 보존해두어야 했다.

12) (20:1-8) Henry, “Deuteronomy,” I:806.

13) (20:10-20) 자세한 사항은 요나 서론을 보라.

16) 기타 율법들(21-25장)

(1) 해결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한 속죄(21:1-9)

21:1-9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땅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고 그를 죽인 자가 밝혀지지 않을 때는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성읍의 장로들이 그 일을 위해 속죄를 해야 했다. 그들은 어린 암송아지를 흐르는 물이 있는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것을 잡았다. 그 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그 살인죄에 대해 그들이 결백하며 그 피 흘린 죄가 그들에게 붙잡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선언했다. 개인의 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집단적인 죄를 살필 필요가 있었는데, 이는 그 땅이 피 흘림으로 인한 부정(不淨)에서 깨끗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일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책임이 되었다.

어떤 이는 1-9절을 일컬어 “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중대한 요청”이라고 불렀다.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피 흘린 죄가 있으며 의로운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2) 여성 전쟁 포로(21:10-14)

21:10-14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에서 사로잡은 아리따운 처녀가 의식적인 정결과 성별을 치른 이후에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문은 가나안 땅에 거하는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혼은 시험적인 성격을 지녔다. 즉 그 후에 그녀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녀를 떠나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를 팔거나 가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했다.

(3) 장자의 권리(21:15-17)

21:15-17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지라도 그가 장자이면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었다. 본문은 하나님이 중혼(重婚)을 인정하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중혼의 경우에도 장자의 권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경우처럼 장자를 제쳐두고 차자(次子)를 축복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한 예외이며, 여기에 진술된 원칙이 아니다.

(4) 완고하고 거스리는 아들(21:18-21)

21:18-21 거스리는 아들은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 죄를 알아본 연후에 돌로 쳐 죽여야 했다. 이 규정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회개한 탕자의 경우를 비교해 보라.

(5) 목을 매단 죄수의 시체(21:22-23)

21:22-23 본문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인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나무에 달리셨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를 받으셨다. 그분의 몸은 밤새 십자가에 달려있을 수 없었다(요 19:31).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분의 영혼의 값으로
우리 영혼을 얻으신 어린양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세.
그가 죽임을 당하셨네!
아버지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소리치네.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어린양께 돌리세.
그가 죽임을 당하셨네!” (제임스 몽고메리).

(6) 아홉 가지 품행 법(22:1-12)

22:1-3 22장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선언하는 레위기 19장 18절의 연장선상에 있다. 사람의 원수도 이웃으로서의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했다(출 23:4-5). 이스라엘 사람은 이웃(형제)이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면 안 되었다. 그것이 짐승이든 옷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그는 그것을 집에 가져가 주인이 찾을 때까지 보관해줄 의무가 있었다.

22:4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구덩이에 빠진 이웃의 짐승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다.

22:5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은 복장 도착(倒錯)(이성의 옷을 입기 좋아하는 변태적 성향·역주)을 증오하신다.

22:6-7 새끼 새는 새 둥지에서 취할 수 있었으나 어미 새는, 아마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했다.

22:8 평평한 지붕 주위에는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야 했다. 지붕은 사권의 장소였다. 사람들, 특히 어리고 부주 의한 이들의 만남과 친교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2:9-11 유대인들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과, 소(정한 동물)와 나귀(부정한 동물)를 같은 멍에를 씌워 경작하는 것과, 양털과 베실로 섞어 짠 옷을 입는 것이 금지되었다. 첫 번째 금령은 하나님 말씀의 순전한 가르침에 뭔가를 더하는 것을 가리키며, 두 번째 금령은 질적으로 다른 멍에와 더불어 일하는 것을 가리키며, 세 번째 금령은 신자의 실제 생활에서 의와 불의가 한데 섞이는 것을 가리킨다.

22:12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순종하겠다는 지속적인 다짐의 표로 겹옷 네 귀에 술을 달아 입어야 했다(민 15:37-41). 이 술을 다는 이유는 민수기 15장 37절 이하에 나와 있다.

(7) 순결에 관한 범죄(22:13-30)

22:13-21 본문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한 후에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의심이 들 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처녀 됨의 증거는 여자가 첫 성경험을 한 후에 그 잠자리 옷 덮개에 남은 흔적에 나타났다.¹⁴⁾ 만일 그 부모가 딸의 처녀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때는 그 의심한 남편은 매를 맞고 은 1백 세켈을 내고 그 여자와 더불어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결혼 전에 부도덕한 일을 범한

14) (22:13-21) 다른 가능한 의미는, ‘처녀 됨의 증거’는 ‘청년기의 증거’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여자는 정기적으로 월경을 했다. 그런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결혼한 후에 그 증거를 볼 것을 기대한다. 물론 그녀가 그에 의해 즉시 임신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필요한 것은, 혼인할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않고 월경을 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만일 그녀가 약혼 전에 성적인 관계를 범한 죄가 있었다면, 결혼 전에 임신증세가 나타날 것이며 아홉 달이 지나기 전에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13-21절의 규정은 결혼하기 전 약혼기간 동안의 신부의 품행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그 ‘청년기의 증거’는 임신 시험이었을 것이다”(Thompson, *Deuteronomy*, p. 236. p. 235의 논의도 참조하라.)

것이 드러날 때는 그녀를 돌로 쳐 죽여야 했다.

22:22-30 본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성적인 부도덕을 다루고 있다.

① 남자와 여자가 간음 중에 발견되면 둘 다 죽임을 당했다. ②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성중에서 통간을 하는데 여자가 도움을 호소하지 않을 때는 둘 다 간음을 범했으므로 죽임을 당했다. ③ 남자가 여자를 들에서 통간을 하여 여자가 도움을 호소해도 들을 수 없었을 때는 남자는 죽임을 당했고 여자는 죄가 없었다. ④ 처녀와 성관계를 가진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했다. ⑤ 30절은 근친상간, 즉 가족의 일원과의 성적인 관계를 금하고 있다.

(8)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23:1-8)

23:1-8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다시 말해서 시민과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권리가 금지되었다. ① 생식기관이 손상하거나 결혼된 자, ② 사생자, 즉 결혼생활 밖에서 태어난 자,¹⁵⁾ ③ 아모리인이나 모압인, ④ 에돔인이나 애굽인.

4절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과 식물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신명기 2장 29절은 어떤 모압인들이 유대인에게 음식을 돈 받고 팔았다는 암시를 하고 있다. ‘떡과 물로 영접’한다는 것은 후한 접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모압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15) (23:1-8) 이 목록은 특히 유대인간의 간통이나 이방인과의 혼합으로 인해 생긴 후손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환관(宦官)은 회중에서 출회당했다. 사생자나 모압인이나 암몬인은 10대까지 총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 에돔인과 애굽인은 3대 후에는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개개인이 여호와를 찾을 때는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예외가 있었다. 다윗의 용사 중에는 모압인과 암몬인이 있었다(대상 11:39,46). 어떤 이들은, 이러한 출회 규정은 남자들에게만 적용되었고 여자들에게는(예를 들어, 롯) 적용되지 않았다고 믿는다. '10대'는 제한이 없음을 의미하는 관용어라고 어떤 이들은 생각한다.

(9) 진(陣)의 정결(23:9-14)

23:9-14 9절은 남자들이 군복무를 위해 집을 떠났을 때 겪게 되는 유혹들을 경계하고 있다. (혹은 10-14절의 서론적인 말씀일 수도 있다.)

밤중에 몽설하는 것에 관한 법은 생명을 잉태하는 생식기관을 신성시했음을 보여준다.

모든 군인은 진의 위생을 위해 무기와 함께 삼을 소지해야 했다. 모든 배설물은 즉시 흙으로 덮어야 했다. 만일 모든 군대가 대대로 이 단순한 규정을 지켰다면 전염병의 확산을 여러 차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10) 사회 종교상의 법(23:15-25)

23:15-16 자유를 위해 도망쳐온 타국인 종은 그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 말아야 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했다.

23:17-18 창기나 미동(美童)은 그 땅에 용납하지 말아야 했고, 그

러한 부도덕한 일로 취한 돈은 서원의 대가로 여호와와의 전에 가져와서는 안되었다. ‘개’는 미동(美童)을 의미한다.

23:19-20 유대인들은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취할 수 있었으나 동료 유대인에게는 무엇이든 빌려준 데 대해 이자를 요구해서는 안 되었다.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물리는 것을 금한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미 주어진 원칙을 한결 확장한 것이다.

23:21-23 서원은 자원적이었다. 꼭 여호와께 서원할 필요는 없었으나, 일단 서원을 하면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

23:24-25 여행자들은 당장의 필요를 위해 포도를 마음대로 따 먹을 수는 있으나 그 하나라도 그릇에 담아가서는 안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은 들에서 곡식을 취할 수는 있으나 손으로만 취해야지 낫을 대서는 안 되었다. 주님 당시에 그분의 열두 제자들은 그러한 특권을 사용한바 있다(막 2:23).

(11) 이혼과 재혼(24:1-4)

24:1-4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에 남편은 그녀에게 이혼장을 써줌으로써 이혼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새 남편이 죽거나 또 그녀와 이혼을 할 경우에, 그 처음 남편과 다시 결합할 수 없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혼장을 주셨으나(렘 3:1-8), 장차 이스라엘을 다시 취하사 그 신실치 못함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오,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의 깊이어,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

기 위해 그분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지!

(12) 여러 가지 사회 법(24:5-25:4)

24:5 갓 결혼한 남자는 그 첫 해 동안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결혼관계를 가꾸고 굳게 해주고 자녀를 낳아 가문을 이을 시간을 주었다. 만일 그가 전쟁에 나가 죽으면, 그의 무를 친족이 그를 위해 후손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 ‘친족 구속자’¹⁶⁾는 미망인과 결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었다. 그러한 결합으로 태어난 첫 남자아이가 이전 남편의 후사가 되었다. 그렇게 하여 가문의 이름이 지속되고 가문의 기업이 보존되었다.

24:6 “맷돌”은 생계수단이므로 금전관계에서 담보로 제공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 윗쪽이든 아래쪽이든 취하는 것은 곡식을 가는 수단 중 하나를 빼앗는 것이다.

24:7 유괴범이나 노예 무역상은 사형에 처해졌다.

24:8-9 문둥병이 발할 경우에는 레위인에게 주어진 이전 규례를 좇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 경고로 미리암의 일을 인용했다.

24:10-13 담보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서는 안되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입은 옷을 담보로 줄 때

16) (24:5) ‘친족 구속자’(기업무를 자)는 흠정역에서 취한 오랜 표현이다.

는 그것을 밤마다 그에게 돌려주어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24:14-15 품꾼의 삶은 즉시 지불해야 했다.

24:16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임을 당할 수 없었다.

24:17-22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는 공의를 베풀어야 했다. 밭은 완전히 거둬들이지 말아야 했다. 가난한 자와 무의탁자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어야 했다. 감람나무와 포도를 수확할 때도 동일한 규례가 적용되었다. 로날드 시더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들 자신이 애굽에서 겪었던 빈곤과 압제를 기억할 때 그들은 가난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해 이삭을 넉넉히 남겨둘 수가 있었다.”¹⁷⁾

존 뉴튼은 거듭나게 되자 이 22절 말씀을 크게 써서 옷장 위에 붙여놓고 날마다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

25:1-3 만일 어떤 피의자가 유죄로 판명되어 태형(笞刑)을 선고 받을 경우 그를 40대까지만 때려야 했다. 유대인들은 수를 잘못 세어 이 규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흔히 39대만 때렸다.

25:4 곡식을 밟아 떠는 소는 망을 씌우지 말고 곡식의 일부를 먹게 해야 했다. 바울은 영적인 일에 수고하는 사람이 마땅히 물질적인 것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고린도전서 9:9 -11에

17) (24:17-22) Ronald Sider, *Rich Christians in an Age of Hunger*, p. 92.

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그렇게 하므로 바울은 율법에는 영적인 측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인 의미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율법은 여러 경우에 표면상의 의미 이면에 영적인 교훈이 담겨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지런한 성경학도는 이러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고 탐구할 것이다.

(13) 형사취수제에 대한 법(25:5-10)

25:5-10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고 아내만 남을 경우에는 그의 이름과 재산이 가문에서 사라질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죽은 자의 동생이 미망인과 결혼하도록 규정했다. 이 ‘형사취수’ 결혼 풍습은 여러 고대 국가들에서 존재했다. 만일 그 동생이 그 의무를 행하기를 거절하면 그 미망인이 그 성의 장로들을 찾아가 그 일을 고했다. 그 동생은 장로들 앞에 불려가 자기 의사를 다시 확인할 기회를 가졌다. 만일 그가 계속해서 거절하면 그 미망인이 그의 신발 한 짝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 후로 그는 형의 가문을 잇기를 거절한 까닭에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수치스런 이름으로 알려졌다.

레위기 20장 21절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했으나 여기서는 그 아내와 결혼하라고 되어 있다. 레위기의 구절은 분명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적용되었을 것이나, 신명기는 남편이 죽고 그 뒤에 남자 후사가 없을 때를 가리킨다.

(14) 세 가지 특별 법(25:11-19)

25:11-12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 관여된 싸움에 끼들어 남자

의 성기를 잡았을 때는 그 손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녀의 행동은 남자의 생식능력을 해칠 위험이 있었기에 그런 중벌이 요구되었다.

25:13-16 저울추는 공정하게 사용해야 했다. 종종 사람들은 물건을 팔 때와 살 때 각각 다른 저울을 사용했다. 이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었다.

25:17-19 아말렉의 후손은 그 반역성과 잔인성으로 인해 완전히 멸해야 했다(출 17:8-16). 이스라엘은 아말렉인을 멸할 것을 잊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명령을 잊은 것으로 보인다. 사울은 그 당시에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음으로 여호와께 불순종했다(삼상 15장). 사실, 이스라엘이 “그 피한 나머지 아말렉인을 물리친” 것은 히스기야 시대의 일이었다(대상 4:43).

17) 의식과 비준(26장)

(1) 첫 열매에 대한 의식(26:1-11)

26:1-11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정착한 후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이 베푸어주신 축복을 즐거이 감사하며 모든 산물의 첫 수확을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야곱(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시작해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하나님의 능하신 구원과, 그리고 끝으로 그들이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한 일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다시 아뢰어야 했다. 필립 켈러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생생한 표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힘들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이르게 하신 약속의 땅을 묘사하는 그림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림이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과학적인 표현이다. 농경상의 표현으로 사람들은 ‘젖의 흐름’, ‘꿀의 흐름’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그 뜻은 목초지가 최고 수준의 생산단계에 이르는 봄철과 여름철의 최적기를 가리킨다. 꿀을 먹고사는 가축과, 꽃봉오리를 찾는 벌은 그에 맞먹는 젖이나 꿀의 ‘흐름’을 생산한다고 한다. 그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와 푸르름과 넉넉한 초목의 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그러한 땅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아울러 그러한 기쁨과 승리와 만족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내다보신 것이다.”¹⁸⁾

(2) 제3년의 십일조에 관한 의식(26:12-15)

26:12-15 위의 첫 수확 외에 유대인들은 절기 십일조라 불리는 또 하나의 십일조를 드려야 했는데, 그것은 3년마다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이 십일조는 그들의 마을에 있는 빈곤한 자들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십일조에 관한 모든 명령을 순종했음을 여호와 앞에 증거해야 했다.

(3) 언약의 비준(26:16-19)

26:16-19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길로 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화답으로 그들을 그분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고 다른 모든 민족 위에 그들을 높이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들이 거룩한

18) (26:1-11) Phillip Keller,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pp. 46,47.

백성인 까닭은 그들 안에 어떤 본질적인 미덕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따로 구별하신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과도 달라서 여호와와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그러한 존귀에 대한 반응으로 그들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다.

18) 저주와 축복(27,28장)

27:1-8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했다. 이 기념비는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 만든 제단과 함께, 에발산에 세워져야 했다.

27:9-10 유대인들은 그 동안 그분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갈 때가 되어 그들은 특별한 의미에서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그분이 그들에게 베풀고 계신 은총은 그들 편에서 사랑의 순종을 보일 것을 촉구했다.

27:11-13 여섯 지파가 축복에 '아멘'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서도록 지명되었다. 이 여섯 지파는 레아와 라헬의 후손이었다. 다른 지파들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해야 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 요셉 지파로 나와있는 점을 주목하라. 이스라엘의 장자(장자권을 잃은) 르우벤과 레아의 막내아들 스불론은 레아의 시종의 아들들과 함께 에발산에 섰다. 그리고 은총받은 지파들은 그리심산에 섰다.

27:14-26 레위인(9절)은 두 산 사이에 서야 했다. 레위인이 저주나 축복을 선포하면 백성들은 ‘아멘!’으로 답해야 했다. 저주의 말은 15-26절에 주어지 있다. 그것은 우상숭배와(15절),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16절), 경계선을 몰래 옮기는 것(17절), 소경을 속이는 것(18절), 가난하고 무력한 자를 이용하는 것(19절), 여러 가지 근친상간(20,22,23절), 짐승과 교합하는 것(21절), 이웃을 몰래 죽이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것(25절),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26절) 등과 관련이 있다. 이 의식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은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해 주어진 가르침에 얼마나 세세히 순종하는지를 보라.

27장에는 저주만이 주어지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바울이 상기시키는 대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갈 3:10) 달리 기록될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로서의’ 율법 아래 있었던 것이다.

28:1-14 1절은 “하나님이 너를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26장 끝을 가리킨다. 이것은 27장을 괄호 안에 있게 한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3-6절에 선언된 축복은 그리심산에서 여섯 지파에게 선포된 축복이 아니었으며, 또 이 장 전체는 이스라엘 자손 앞에 놓인 일에 대해 모세가 진술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앞의 14구절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을 말하는 반면, 뒤의 54구절은 여호와를 버릴 경우 백성들에게 임할 저주를 묘사하고 있다. 약속된 축복에는 열방 중에 뛰어날 것과 물질적인 번영과 결실과 비옥과 풍성한 곡물과 전쟁의 승리와 성공적인 국제무역 등이 포함된다.

28:15-37 저주에는 결핍, 황폐함, 흉작, 역병, 질병, 병충해, 기근, 전쟁의 패배, 미침, 놀람, 재난, 재앙, 무력함 등이 포함된다(15-32절). 33-37절은 이방 땅에 포로될 것을 예고하는데 이 일은 앗수르 및 바벨론 포로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28:38-46 유대인들은 곡물과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흉작을 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자손은 포로로 끌려가고 메뚜기가 그들의 나무와 소산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낮아질 것이다. 12절과 44절 사이에는 아무 모순이 없다. 만일 순종을 하면 유대인은 국제적인 채권자가 될 것이나, 만일 불순종을 하면 그들은 타국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28:47-57 49-57절에는 이방 침략자들에게 둘러싸이는 두려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 때는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일은 예루살렘이 바벨론과, 그리고 후에는 로마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이뤄졌다. 그 두 경우에는 인육(人肉)을 먹는 일이 흔했다. 정상시에는 세련되고 사려있는 사람들이 서로 대적하며 야수가 돼버렸다.

28:58-68 역병과 질병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인구가 크게 줄 것이다. 남은 자들은 온 세상에 흩어질 것이며, 거기서 그들은 늘 핍박의 두려움 중에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배에

태워 애굽에 다시 데려가실 것이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애굽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이 디도 시대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는데 그 때 유대인들은 배로 그곳에 끌려가 종으로 팔렸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일반적인 종살이를 의미할 수 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문자적인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으나, 이제 이스라엘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분의 아내로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지 않고 이방 민족처럼 되기를 선택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종으로 팔릴 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이스라엘이 몹시 쇠약하여 아무도 그들을 종으로도 원치 않을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니라”(눅 12:48). 이스라엘은 다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특권을 부여받았으며 따라서 이스라엘의 책임은 더 크며 그 징벌 또한 더 가혹했다.

이러한 저주들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여호와와 진노의 맹렬한 폭발에 놀라게 된다. 여기에는 완곡한 표현이나 모호한 묘사가 일절 없이 명명백백하다. 모세는 굵고도 뚜렷한 사실주의로 그림을 그렸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이 영광스럽고도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면 불순종이 가져올 결과를 알고 있어야 했다.

3. 모세의 세 번째 강화-그 땅에 대한 언약 (29-30장)

1) 모압에서 맺어진 언약(29:1-21)

29:1 29장 첫 구절은 논리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처럼 앞 장에 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카일과 델리취는 그것을 29-30장의 강화를 위한 ‘서언’으로 본다.¹⁹⁾

29:2-9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언약을 파기했다.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압 평지에서 맺어진, 여기 신명기에 포함된 언약을 비준할 것을 그들에게 촉구했다. 백성들은 여호와와, 그들을 위한 여호와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고자 하셨으나, 그들은 지속적인 불신앙과 불순종을 통해서 스스로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의 물을 마셨다. 즉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 인간이 만든 것들(떡, 포도주, 독주 등)을 의존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로 온전한 신실함과 사랑을 지니신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깨

19) (19:1) C. F. Keil and F. Delitzsch, “Deuteronomy.”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II:446.

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언약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자극제로 모세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개괄했는데, 애굽에서의 표적, 능한 구원, 광야의 40년, 시혼과 옥을 물리친 일,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일 등이 그러했다.

29:10-21 모세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와의 맹세의 언약을 맺을 것을 촉구하고(10-13절), 그 언약이 그들의 후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상기시켰다(14-15절).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쓰러린 징벌을 당할 것이다. 거역하는 자들은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로 여기지 말아야 했다(16-21절). 19절을 개정표준역(RSV)은 이렇게 옮기고 있다. “이 맹세의 언약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축복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의 강박함으로 행할지라도 안전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런 자는 젖은 것과 마른 것처럼 말끔히 제해될 것이다.”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 언약 파기에 대한 징벌(29:22-29)

29:22-28 장래 세대와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이 황폐된 것에 놀라 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 같은 평지의 성읍들처럼 되었는지 물을 것이다. 그 답은 “그들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일 것이다.

29:29 여호와께 속한 오묘한 일, 특히 그분의 판단에 관한 문제

들이 있는 반면에, 모세는 백성들의 책임, 곧 여호와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분명히 나타나 있다고 상기시켰다. 본문이 말하는 바는, 계시는 책임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인간은 앉아서 여호와와의 말씀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순종할 책임이 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발견할 수 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계시)을 행할 줄 알고 도 행치(책임)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3) 언약으로 돌이키는 자를 위한 회복(30장)

30:1-10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상한다. 물론 이 일은 정확히 일어났다. 그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한 물리적인 회복 외에 영적인 소생이 있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6절).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의 축복을 누리며 그들의 대적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대적들은 실패할 것이나 지극히 높은 분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사 그들의 후손에게 그 땅을 영원히 주실 것이다. 그분이 아시기에 필연적인, 포로생활 후에 그분은 그들을 회복하고 변화시키실 것이다.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역사는 이러하다!

6절은 수백 년 후에 선지자들에 의해 발전된 주제, 즉 새 언약(렘 32:39이하; 겠 36:24이하)을 살짝 다루고 있다. 그 언약은 구약에 계시되긴 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시까지는 비준되지 않았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곧 새 언약의 피였기 때문이었다(눅 22:

20).

30:11-14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언약은 그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지도(비밀스런) 않고 너무 멀리 있지도(접근할 수 없는) 않다고 상기시켰다. 그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져다주셨고 그들의 책임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었다.

본문은 바울에 의해 로마서 10장 5-8절에 인용되어 그리스도와 복음에 적용되었다. 이 언약은 지키기가 쉽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예비해두셨다. 백성들은 실패할 경우 회개하고 지정된 제물을 가져와야 했다.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므로, 거기서의 교훈은 죄를 범한 자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30:15-20 백성들은 생명과 선과, 사망과 악 사이에 선택할 것을 촉구 받았다. 순종에는 생명이요, 불순종에는 사망이었다. 모세는 그들이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모세가 원하던 그런 반응을 보이면 장수와 풍성한 영적인 삶을 포함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나, 그 반대를 택하면 오직 저주였다.

4. 모세의 말일-그 땅 밖에서의 죽음 (31-34장)

1) 모세의 후계자(31장)

31:1-8 모세는 이제 120세가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백성들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실 것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대장이 될 것과, 그리고 대적에 대해 확실히 승리할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이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공적으로 격려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고 그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었다(7-8절).

31:9-13 기록된 율법은 레위인에게 맡겨졌다. 그것은 언약궤 곁에 두어야 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언약궤 안에 두었다(출 25:16; 히 9:4). 이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었다. 매 7년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이 율법을 읽어주어야 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슬프게도 오늘날 교리적으로 보수적인 진영에서도 소홀히 되고 있다. C. H. 매킨토시의 다음과 같은 상황하에서도 가치가 있는 말은 불행하게도, 그 글이 씌어진 1세기 전보다 오

히려 오늘날이 더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이든 공적이든 사랑받지도 못하고 연구되지도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무가치한 책들이 마구 읽혀지고, 공적으로는 음악과 형식적인 모임과 남의 시선을 끄는 의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들으려고 몰려다니며 비싼 돈을 지불하지만, 성경 읽기 모임에는 얼마나 적은 수가 오는지! 이것은 사실이며, 사실은 강력한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사실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종교적인 흥분을 점점 갈망하며, 거룩한 말씀을 조용히 연구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영적인 경험을 체험하는 일은 점점 맛을 잃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부인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 없는 일이다. 우리는 눈을 감고 보지 못한 채 할 수가 없다. 그 증거가 주위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보배로운 진리를 상고하고자 거룩한 사귄 가운데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소수가 여기저기에 있다. 모쪼록 주께서 그러한 이들의 수를 늘이고 축복하되 ‘여정이 마칠 때까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²⁰⁾

31:14-18 모세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하나님은 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사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분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조만간 우상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을 모세에게 계시해주셨다.

31:19-22 그런 다음 그분은 한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장래에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

20) (31:9-13) C. H. Mackintosh, “Deuteronomy,” in *Notes on the Pentateuch*, p. 895.

31:23 하나님은 친히 여호수아를 임명하사 그분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인도할 지도자로 삼고, 그에게 담대하고 강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와의 이 말씀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을 것이다. 그는 방금 하나님이 민족적인 배도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며(16절), 이에 맡은 일에 대해 낙심케 하는 말보다는 격려의 말이 필요했다.

31:24-27 레위인에게 맡겨진 “이 율법책”, 즉 신명기 또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릴 때 하나의 증거가 되어줄 것이다.

31:28-30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파의 장로들과 유사들에게 전해주었다.

2) 모세의 노래(32장)

32:1-3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주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 말씀은 비와 이슬처럼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쳐난다. 3절(이 노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에서 모세는 그들의 하나님께 위엄(위대성)을 돌릴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노래는 그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역사적인 섭리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드러내고 있다.

32:4-9 하나님의 위대성과 공의, 신실함과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을 버리고 그분을 거스려 죄를 범했다. 여호와의 속성의 영광이 여기에 이스라엘의 완고한 악함의 어두운 추

락에 대비하여 나타나 있다. 그것이 그분이 그들의 아버지와 창조자 되심에 대한 그들의 보답이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방 열국 가운데 땅을 나누실 때 먼저 그분은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그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이 그러했다.

32:10-14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과 어린시절이 10절에 묘사되어 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의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보호하셨다(11절). 이스라엘의 보존을 위해 도움을 준 이방 신은 없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돌이키고 여호와와의 선하심을 다른 탓으로 돌렸단 말인가? 13절 이후로 이 노래는 예언적이다. 그분은 그들을 약속의 땅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32:15-20 그러나 ‘여수룬’(‘바른 백성’을 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시적인 이름)이 우상에게 돌이킴으로 여호와께 반역했다. 그들은 귀신에게 제사 드리기로 선택하고 여러 차례 그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심지어 새로운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졌다. 그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참 반석을 외면하고 그들의 참 아버지를 잊어버렸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서 낫을 숨기셨다. 이러한 낫을 숨기심은 그들이 포로로 팔리움으로써 성취되었다.

32:21-33 이스라엘을 제쳐두신 후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셨다(현재의 교회시대의 경우처럼). 그 어간에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흩어져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이 그 민족의 멸망을 잘못 이해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까닭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은 그들의 대적의 반석이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들의 악함 까닭에 그들을 살육에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32:34-43 본문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사용된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과 관련이 있다. ‘보수’(35절)와 판단(36절)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분은 그 대적들을 치리하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다(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 심판이 얼마나 완전하게 실행될지를 보라(41-42절).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열방은 기뻐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고 그분의 땅과 그분의 백성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32:44-47 이 노래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예언적 개관을 보여준다. 이 노래를 읽어 들린 후에 모세는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는 말로 여호와를 좇을 것을 백성들에게 엄숙히 촉구했다.

32:48-52 이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느보아산 꼭대기에 오르라고 명하셨다. 거기서 그가 그 땅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 그는 므리바 가데스에서 범한 죄 까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아산에서 죽어 모압의 어느 골짜기에 장사될 것이다(34:6).

3) 모세의 축복(33장)

본장에 나타난 히브리어 용법은 여러 대목에서 불분명하여 주석
가마다 의견과 해석이 분분하다. 원문의 해석에 대해 자세히 논하
는 것은 본서의 범위 밖의 일이며, 여기서는 다만 각 축복의 예언적
인 측면만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3:1-5 그의 마지막 공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
스라엘 각 지파에 대해 축복을 선포했다. 2-5절은 자기 백성에 대
한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을 기리고 있다. 시내에서 그분은 율법
을 수여하셨다. 세일과 바란산은 시내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여정
중에 있었다. 모세는 시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그분의 백
성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여수론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각 지파에 대한 축복이 선언되고 있다.

33:6 르우벤. 요단 동편, 모압 바로 북쪽에 위치한 르우벤은 손
쉽게 적의 공격을 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지파가 사라지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가 빈번하게 올려질 것이다.

시므온은 언급되지 않았다. 시므온은 유다와 밀접히 연결되게 되
었기에 유다에 대한 축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3:7 유다. 이 지파는 가나안 정복을 지휘할 것이다. 전사들을
도와 그들의 백성에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호와께
드려졌다.

33:8-11 레위. 하나님의 둠뭍과 우림은 맛사와 트리바 샘에서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은 지파인 레위에게 속했다. 레위는 또한 자

기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했을 때 그들을 거스려 여호와 편에 섰던 지파였다. 레위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되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의 재산을 축복하시고 그의 봉사에서 기쁨을 취하시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멸하시기를 기도했다.

33:12 베냐민.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거처인 성전은 산으로 에워싸인 베냐민의 영토에 위치할 것이다. 따라서 베냐민은 여호와와 친밀한 사귀를 누리는 사랑받는 지파로 나타나 있다.

33:13-17 요셉. 요셉의 아들들의 영토는 위로는 이슬로, 아래로는 샘으로 젖을 것이다. 그 땅은 놀랍도록 결실할 것이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분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요셉의 두 아들은 위엄과 권세로써 열방을 물리칠 것이다. 에브라임은 장자권을 소유했으며 이에 만만을 받을 것이나, 므낫세는 천천을 받을 것이다.

33:18-19 스불론과 잇사갈. 그들은 그 땅 안팎에서 성공을 거두어 열방을 이끌어 여호와와의 산인 예루살렘에서 경배하게 할 것이다. 이 두 지파는 바다와 땅의 풍부함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열방을 이끌어 경배케 한 기록이 없고 또 두 지파 모두 과거에 내륙에 갇혀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 축복은 천년왕국을 대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3:20-21 갓. 하나님은 이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넓은 영토를 허락하셨다. 갓은 사자처럼 싸워 그 땅을 취하고 보존했다. 그것은

그 스스로 선택한 목초지로서 지도자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두령과 함께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여 여호와의 의로운 뜻을 실행하기도 했다.

33:22 단은 숲에서 갑자기 덮치는 맹렬하고 강한 사자의 새끼에 비유된다. 단의 본래 영토는 가나안 남서부였으나, 단 족속은 북동쪽으로 이동하여 바산 부근의 땅을 더 추가했다.

33:23 납달리는 북동부 가나안에 위치하여 남쪽 갈릴리해로 확장했다. 이 지파는 여호와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존귀를 얻었다.

33:24-25 아셀은 무수한 자손과, 다른 지파와의 좋은 관계와, 감람유가 흐르는 땅을 얻었다. ‘철과 낫’은 아무리 수준 높은 시적인 표현일지라도 ‘신발’에는 맞지 않는 재료이다(우리말 성경은 ‘문 빗장’으로 되어 있음-역주). F. W. 그랜트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번역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고대인들과 달리 현대인들은 ‘능력’ 대신 ‘안식’으로 율기는 경향이 있다. 그 두 표현에는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다는 의미가 드러나 있음이 분명하다. 아울러 ‘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는 잘 알려진 번역을 우리가 쉬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반면에 ‘네 사는 날을 따라서 안식이 있으리로다’는 말로 이 놀라운 축복을 마감하는 것도 부적합해 보이지는 않는다.”²¹⁾

33:26-29 이 마감 구절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21) (33:24,25) F. W. Grant, “Deuteronomy,” in *The Numerical Bible*, I:622.

의 위대하심을 기리고 있다. 여수론의 하나님과 같이 도울 자는 하늘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27절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하실 것과, 안전과 평화와 번영과 승리에 대한 약속으로 모세의 노래는 마감된다.

4) 모세의 죽음(34장)

34:1-8 모세의 죽음이 누군가에 의해 여기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오경의 나머지가 모세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²²⁾ 모세는 그 땅을 본 후에 느보산에서 죽어, 여호와에 의해 은밀한 무덤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모세의 죽음을 은밀히 처리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 율법수여자의 무덤에 신전을 만들어 그를 숭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이 분명하다. 모세는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여전히 강건하고 충기 있고 날카로웠다. 이 사실은 31장 2절과 모순되지 않는다. 모세가 더 이상 백성들을 이끌 수 없었던 것은 신체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비록 그는 신체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나, 이미 하나님이 그가 범한 죄로 인해 그가 백성들을 가나안에 인도할 수 없다고 그에게 말씀하셨다(31:2).

34:9 이어서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의 책무를 떠맡았다. 모세는 민수기 27장 18-2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를 그의

22) (34:1-8) 오경의 모세 저작권에 대한 변호에 대해서는 ‘오경 서론’을 보라.

후계자로 이미 확정하바 있다. 그와 같이 그의 시종이 그의 후계자가 되었으며 이는 모세의 껌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34:10-12 모세에게 둘러진 찬사를 들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물론 이 마지막 구절이 기록될 때는 아직 메시아가 나타나지 않으셨다. 10절은 그리스도의 초림 시까지만 유효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종)으로 충성하였고”(히 3:5). 그는 그의 죄로 인해 죽었으며, 그의 장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상징하는 대상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히 3:5-6). 우리의 죄를 위해 그분은 죽으셨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신 까닭에 그분의 장지는 비어 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히 3:1,3).

참고 문헌

- Grant, F. W. "Deuteronomy." In *The Numerical Bible*. Vol. 1.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77.
- Henry, Matthew. "Deuteronomy." In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1 Maclean, V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n.d.
- Keil, C. f. and Ditzsch, F. "Deuteronomy." In *Bibl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The Pentateuch*, Vol 3.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 Kline, Meredith G. "Deuteronomy." In *The Wycliffe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62.
- Mackintosh, C. H. "Deuteronomy." In *Notes on the Pentateuch*. Neptune, NJ: Loizeaux Brothers, 1972.
- Shultz, Samuel J. *Deuteronomy: The Gospel of Love*. Everyman's Bible Commentary. Chicago: Moody Press, 1971.
- Thompson, J. A. *Deuteronomy: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The Tyndale Old Testamen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74.
- Towns, Elmer L. "Deuteronomy." In *the Liberty Bible Commentary*. Lynchburg, VA: The Old-Time Gospel Hour, 1982.